



제2장 무형문화유산 無形文化遺産

제 1 절 풍속(風俗)

풍속(風俗)이란 말 그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 인간은 지혜와 사고력을 가졌기 때문에 원시적인 의식주(衣食住) 생활, 즉 동물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만물의 영장(靈長)으로서 인간만이 갖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 생활문화를 형성해왔다. 그래서 세시풍속(歲時風俗)이나 관혼상제(冠婚喪祭) 등의 의식들은 인간만이 갖는 특수한 생활문화이다. 이러한 풍습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장소와 사람과 시대에 따라 다소의 변화된 양상을 보이는데 장수는 옛날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이루었던 태백정간(太白山幹)(小白山脈)과 백제(百濟)의 주맥(主脈)을 이루었던 노령산맥과의 분지에 있어 인심이 온후하고 품성이 소박한 고장이다.

그러므로 장수의 민속은 신라(新羅)때부터 전승하는 영남(嶺南)풍습과 백제(百濟)때부터 전승해오는 호남(湖南)풍습이 복합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풍속과 의식, 놀이 등이 다양하다.

1. 세시풍속(歲時風俗)³²⁾

세시풍속(歲時風俗)은 년 중, 일정한 어느 의미가 부여된 날에 제례를 통한 의식행위와 놀이(遊戲)를 통한 집단행위 등 주기전승(週期傳承)하는 연중 행사를 말한다. 우리 고장에 전해오는 세시풍속은 다음과 같다.

가. 설

설은 추석(秋夕)과 더불어 옛날부터 쌍벽을 이루면서 내려오는 민족의 대명절이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 조상들은 설날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며 년 중 가장 경축하는 날로 삼고 다채로운 행사를 했다. 음력 팔월 보름날을 추석(秋夕)이라 하듯이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설이라 불렀다.

이 날을 원단(元旦) 또는 원조(元朝)라고도 한다. 태음력(太陰曆)을 사용했던 조상들에게는 설은 그 해의 첫날이면서 24 절후 중 첫째 절후인 입춘절(立春節)이다. 따라서 봄이 시작되는 때이고, 봄을 맞이하는 길일(吉日)이었다. 적막하고 잠자던 겨울은 가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새해 새봄을 맞이하는 희망과 활기에 찬 기분으로 그 전날인 섣달 그믐날 송구영신(送舊迎新)을 하기 위하여 집의 안팎을 깨끗이 청소(淸掃)한다.

방문도 새로 바르고 방바닥에는 현 돛자리를 걷어내고 새 자리를 깔며, 밤에는 마루, 뜰방(토방), 정지(부엌), 곳간, 팡, 쇠막, 돼지막, 측간 등에 불을 켜서 잡귀를 몰아내고 집의 안팎을 광명천지(光明天地)로 만든다. 또한 온 식구가 뜬 눈으로 경건하게 새해를 맞이하는데, 잠을 자려는 아이들에게는 눈썹이 하얗게 쏜다고 해서 못 자게 했다. 그러다가 설날 새벽닭이 울면 어른들은 목욕재계하고 정성껏 장만한 음식을 제상에 차려 놓는다. 온 식구들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삼신과 성주와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고, 1년 내내 가족의 건강과 가내의 태평과 새해에 만사형통하여 소원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을 설빔이라 한다. 이 날은 밥 대신 떡국을 끓인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으므로 해돋이에는 해님을 향해서 1년 동안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시화년풍(時和年豐)해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다. 차례를 마친 뒤에는 조부모와 부모 등, 어른들께 먼저 세배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먼저 명(命)과 복(福)을 점지하는 축원덕담을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복을 많이 갖는 것은 가장 소망하는 것이므로 먼저 命과 福을 말한다. 그 다음에는 장가, 시집, 옥동자생산, 합격 등 그 사람에게 절

32) 장수군 《장수군지》, 남원 중앙인쇄사, 1997.

실한 사항이 성취되도록 덕담을 나누는데 덕담(德談)은 어떤 일이 성취된 양 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안 어른께 세배를 한 뒤에는 동네 어른들께 세배하고 동네에 영실(靈室)이 있으면 세례(歲禮)를 올리고 이웃마을 어른에게도 세배를 한다. 또한 친 인척과 처가 등 어른께는 정월 한 달 내내, 세배를 다닌다. 또한 설날에 조상을 잘 모시고 천지신명께 봄맞이 기구(祈求)를 잘 해야 풍년이 들고 만사가 형통하며 소원하는 바가 성취된다고 믿었다.

설날부터 시작되는 대축제 행사는 정월 한 달 계속된다. 장수에서는 살아 계시는 어른께 세배(歲拜)하는 것과 같이 조상의 묘소에 반드시 성묘한다. 세배와 성묘가 끝나면 어떤 이는 안택(安宅)을 기원하기 위해서 법사를 데려와서 독경(讀經)을 하는 수도 있고 동네의 안녕과 단합을 위해서 초사흔날 동제(洞祭)나 당산제(堂山祭)를 지내기도 한다.

설에 쇠(金)소리를 내면 잡귀가 범접을 못 한다고 해서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풍물을 치며 동네를 한 바퀴 돈 뒤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마시는 샘에 가서는 샘굿을 치며 마을 전체가 한 덩이가 되어 이 물을 마시면서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도록 기원한다. 동네의 단합과 태평을 비는 곳이 끝나면 아랫담에서부터 집집마다 차례로 마당에 모닥불을 놓고 풍물을 친다. 정지(부엌)에 가서는 조왕굿과 성주굿(성주풀이)을 하고, 장광에 가서는 장맛이 좋게, 곳간(庫間)에 가서는 부자 되게, 쇠막(牛舍)에 가서는 짐승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원하며 풍물을 친다. 이러한 대동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한 가족, 한 형제처럼 1년 내내 화목하고 단합하게 된다.

설에는 단합을 위한 놀이도 다양했다. 남정네들은 편을 갈라서 윷놀이를 한 뒤에 지는 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고 어른으로 받들었으며,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하면서 흥을 돋우고, 울 너머 밖의 세상도 구경했다. 이때는 지체의 높고 낮음도 없이 한데 어울려 마냥 즐겁기만 했다

옛날부터 ‘설은 굿어야 좋고, 대보름은 맑아야 좋다.’는 말이 있다. 설은 그 해의 첫날이자 조상을 숭배하고 봄을 맞는 상서로운 날이므로 설날 내리는 서설(瑞雪)은 태평스런 한 해가 되게 한다는 길상(吉祥)의 조짐이란 뜻일 게고, 보름에는 맑아야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시화년풍(時和年風)을 기원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 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우선,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날은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해에 통합되어 가는 전이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날은 ‘선날’ 즉 개시(開始)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동화 현상으로 설날로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날을 ‘삼가다[謹眞]’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섣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이렇듯 자연(천지일월신)과 뿌리(조상신)의 존엄성을 숭배 신앙했던 우리 선조들은 설을 주술성(呪術性)을 갖는 절대일(絕對日)로까지 생각했다. 자연신(自然神-日月星辰)과 조상신(祖上神)을 신앙의 절대자로 숭앙하며 이를 민속종교의 기틀로 삼아서 가족, 씨족, 부족, 민족의 단합 전진을 하는 대축제일로 삼았다.

나. 정월 대보름



음력 정월 대보름을 일명 상원(上元)이라고도 하며 큰 보름이라고도 한다. 이 대보름 명절은 다분히 기원적(祈願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기도적(祈禱的)이었다. 보름이라는 어원이 바램(望)에서 연유했기

때문에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과 조상신(祖上神)에게 소원성취를 기구(祈求)하는 행사가 설과 대보름에 많이 행해졌다.

설에서부터 축제의 분위기에 쌓였던 남정네(男丁)들은 정월 초이튿날부터 열 사흘날까지 60 갑자(甲子)의 12지(支)의 뜻을 주어서 경축하며 논다. 열 나흘날에는 찰밥(藥食) 나무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간다. 찰밥 나무는 불길 이 센 조록싸리(고듭싸리)나무를 해오는데 점심때쯤 이마에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해오면 아낙네들은 점심으로 잡곡(오곡)밥을 지어서 차려 준다. 열 나흘날 잡곡밥을 먹어야 일 년 내내 무엇이든지 잘 먹고 건강하게 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밤에는 온 집안 즉 광, 뒤주, 정지, 뜰방, 소, 돼지막, 측간 등에 불을 켜서 집안을 밝게 한다. 이는 신라(新羅)때의 등석(燈夕)이라는 풍속에 따라 온 집안에 불을 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또한 저녁에는 아낙네들이 안방에 모여 자정이 넘도록 짚과 왕골겹질을 이용하여 따리를 만드는데 이 때 만든 따리는 일 년 내내 사용한다. 지금은 여자들이 머리에 물건을 이는 일이 없어 따리를 구경할 수 없으나 옛날에는 물동이 등 물건을 머리에 이고 다닌 일이 많아 따리를 사용했다.

대보름날의 기구행사(祈求行事)는 해가 뜨면 효험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은 첫 새벽에 일어나서 맡은 일을 한다. 어머니는 아궁이에 조록싸리(고듭싸리)나무에 불을 지피고 찰밥을 찐다. 아이들은 전날 동산에 가서 따온 솔방울을 마당에 던지며 ‘구구 한 마당 구구 두 마당’이라고 외친다. ‘구구’라는 말은 닭을 부르는 소리로서 그 해 닭 농사가 잘 되어서 마당에 가득 차라는 기구(祈求)이다. 대보름은 나물 명절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날 아침 제물로 육류를 거의 쓰지 않고 지난해에 산과 들에서 뜯어다 말린 산야채(山野菜)와 외피(外皮)를 벗기지 않은 밤과 호두 등 과일과 농사 지은 콩으로 만든 두부와 청어, 김 등 제물을 해 뜨기 전에 안방 윗목에 차려 놓고 헌작(獻酌)한 후에, 먼저 생밤과 호두를 부럼(부으름, 부스름)을 깨다하여 소리 내어 깨물었다. 이는 일 년 내내, 종기(부스름)가 나지 말고 건강하라는 액막이의 뜻을 담고 있다.

정보(情報)에 밝아서 남보다 앞서 가라는 뜻에서 귀밝이술(耳明酒)을 마시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라는 뜻에서 두부를 먹었다. 아이들은 해돋이 전에 이웃집 아이들에게 ‘네 더위 내 더위 맛 더위’ 하며 더위를 팔기도 하는데 이는 근면하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해진다고 믿었던

것이다. 또한 해뜨기 전에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서 고리(環)를 만들어 개의 목에 걸어주기도 하고, 원 새끼를 꼬아서 소의 목에 걸어 주는 등 뱅이(防이)를 함으로써 더위, 역질(役疾), 병약(病弱)으로부터 예방적 행위를 했다. 찰밥과 나물을 소에게 주어서 풍흉년(豐凶年)을 점치기도 했다. 소가 찰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들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대보름날 아침에 까마귀에게 찰밥을 주는데, 이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사금갑조(射琴匣條)에 보면 신라(新羅) 21대 소지왕(昭智王)이 정월 대보름날 까마귀 때문에 죽음을 면했다고 해서 까마귀의 고마움에 보답하여 찰밥으로 제사를 지낸 데서 연유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네 할아버지에게 찰밥을 갖다 주고 연(薦)을 만들어 달래서 다 투어 연 날리기를 한다. 보름에 시작한 연 날리기는 그믐까지 계속되는데,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한데 모여 연날리기 경연이 벌어진다. 그러다가 그믐께 가서는 연(薦)에다 액(厄)자를 써서 일 년의 액운(厄運)을 멀리 띄워 보낸다.

보름날 저녁때는 마을사람들이 모두 산에 가서 생솔가지를 끊어다가 동구 밖 논바닥에 달집을 짓는다. 저녁밥을 먹은 뒤에 모두 달집에 모였다가 동산에 달이 뜨면 달집에 불을 지르고 준비해 둔 술을 달을 향해 높이 들고 일제히 ‘망월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원성취와 풍년이 들어서 태평연월이 되기를 축수한다. 이어서 풍물을 울려서 달맞이 풍년굿을 치는데 이 때 동네 노인들은 달을 보고 풍흉년을 점치기도 한다. 달이 둥글고 선명하면 풍년이 들고, 달이 둥글지 않고 선명하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마을의 청소년들은 횃불을 준비해서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 밭두렁을 태운다. 곳에 따라서는 이웃 동네 사람들과 풍물을 치며 전통적으로 횃불 싸움을 하는데도 있다.

‘술렁수-애-뛰○○동네’를 일제히 외치면서 선전 포고를 하면, 상대방에게서도 응대를 한다. 쌍방의 승부는 어느 쪽 횃불이 더 휘황하고 논과 밭두렁을 많이 태웠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양측 횃불이 서로 가까워지면 자기측이 이겼다고 서로 고함을 지르며 승리를 자축한다. 그러다가 양측이 마주치면 즐거운 악수를 나누며 화합을 다짐하고 풍년의 축배를 들며 작별 인사를 나눈다.

우리 조상들은 달집이라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동민이 한 데 모여 티 없이

맑고 밝은 둥근 대보름달을 향해 소원성취를 기도(祈禱)함으로써 너 나 할 것 없이 한데 뽕뽕 뭉쳐 대화합체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았고, 쥐불놀이를 함으로써 들쥐와 병충해를 막아 풍년을 구가하는 지혜를 가졌다. 햇불싸움놀이도 동네끼리 화목을 다지고 대풍을 기원하는 풍년놀이였다.

이렇게 해서 달이 중천에 박히고 삼태성(三太星)이 동천에 떠오르면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달을 향해서 풍년을 기원하는 보름날의 축제 행사는 막을 내린다.

다. 영등(靈登)

장수 지방에서는 ‘영등할미 바람 올린다’고 해서 음력 이월 초하루부터 스무 날까지 행하던 기도적(祈禱的) 행사로서 신라(新羅) 때부터 내려오는 풍습이다. 그래서인지 고구려(高句麗)나 백제(百濟)의 풍속을 영향 받은 지방에서는 영등제의 풍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영등제(靈登祭)는 풍신제(風神祭)를 뜻하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음력 이월은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다. 그래서 ‘영등할미(風神) 바람 올린다’는 말은 풍신(風神)에게 기도함으로써 바람을 재우고 우순풍조(雨順風調)하여 시화년풍(時和年豐)하기를 비는 영등제(靈登祭), 즉 풍신제(風神祭)를 말하는 것이다.

바람 올리는 행사는 음력 2월 초하룻날 석양에 조왕(정지구석)에다 청솔가지를 세우고 삼색실을 건 뒤에 정화수와 햇나물로 된 제수를 차려놓고 영등할미(풍신)에게 제를 올리는데 그 집 주부가 식구마다 앞앞에 한 장씩 소지(燒紙)를 올리고 손을 비비며 소원성취를 빈다. 이 때 불태운 소지 재가 하늘로 잘 올라가면 영등신이 복을 주고 기뻐하는 것이라 믿었다. 영등신에게 소지를 올리는 것은 초하루 초열흘 스무날 석양에 행하는데 초하루에서 스무날까지는 영등할미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상에 계시다가 스무날 석양에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석양에 소지를 올리는 것은 풍신이 석양에 기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영등할미(풍신)가 지상(집안)에 있는 동안은 모든 재물이 들고 날 때 반드시 조왕에 있는 영등할미에게 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고장에서는 2월 1일 영등(靈登)명절에 콩을 볶아 먹고 콩내기 율을 놀며 하루를 즐겁게 논다. 영등놀이가 지나면 농촌에서는 농사절(農事節)이 되기 때문에 설날로부터 시작되는 축제행사는 사실상 영등놀이를 끝으로 마감한다.

라. 삼월 삼짇날

음력 삼월 초사흘날을 삼짇 또는 삼길(三吉)이라 한다. 강남 갔던 제비가 두 나래에 봄소식을 싣고 돌아온다는 날이다. 이때가 되면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조팝 등 봄꽃들이 망울을 터트리며 산야는 온통 봄꽃 천지가 되고 꽃향기는 벌과 나비뿐만 아니라 방에 있던 아낙들을 방문을 박차고 들로 산으로 뛰쳐나가게 하는 호시절이다.

이 날 동네 사내와 아낙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경승지를 찾아 화전놀이로 하루를 즐긴다. 또한, 삼짇날 노랑나비를 보면 한 해 동안 반가운 소식을 듣고 흰 나비를 보면 소복(素服, 喪을 당할 수)하게 된다 하는 풍습이 있다.

삼짇날은 1년 열두 달 중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제일 좋은 때이므로 하루를 즐겁게 놀고 나면 다음에는 논과 밭에 씨앗 넣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마. 한식(寒食)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로서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날이다. 한식은 청명절후(淸明節候)와 같은 날 들거나 하루 전후에 든다. 한식의 유래는 중국 진(中國 晉)나라 때 진문공(晉文公)을 도왔던 개자추(介子推)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진문공이 수차례 불러도 나오지 않자 산에 불을 질러 나오게 했으나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서 죽었다. 진문공은 충신이 불에 타서 죽은 것을 못내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날만은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음식을 차게 먹은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 날 조상의 묘소에 사초(沙草)하면 잔디도 잘 살고, 탈도 없으며 자손들에게 홍복(弘福)이 된다고 해서 무너진 묘소에 사초하고 석물(石物)하는 이가 많으며 한식 성묘도 많이 한다.

바. 곡우제(穀雨祭)

곡우절은 대개 음력 3월에 드는데 가끔 음력 4월에 드는 수가 있다. 곡우가 3월에 드느냐, 4월에 드느냐에 따라 그 해 농사와 함수관계가 있다고 본다. 4월에 곡우절이 들면 늦곡식보다는 올곡식을 장려해야 풍작을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음력과 농사는 깊은 관계가 있다. 옛날에는 곡우절이 되면 묘판을 설치하고 씨나락을 담갔다.

곡우 전 삼일 후 삼일에 거자나무(자작나무)의 수액(水液)을 받아서 그 물

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서 먹으면 만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거자나무 수풀이 우거진 곳에 제단을 쌓고 염수제를 올리기도 한다. 경칩절(驚蟄節) 전(前)3일, 후(後)3일에는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서 먹기도 한다.

사. 초파일

음력 4월 8일. 석가모니탄신일을 초파일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불교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이 되면 농촌에서는 바쁜 때지만 아낙네들은 목욕재계하고 평소 다니던 가까운 절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가정과 가족들의 무사태평을 빌고, 밤에는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등불을 켜고 축수기원하며 관등(觀燈)행사에 참여한다. 남정네들도 이 날은 바쁜 일손을 멈추고 절을 찾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거나 집에 있어도 불심(佛心)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지낸다.

특히, 이 고장에서는 일부 소를 조상의 상징으로 여기는 풍습이 있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소에게 논갈이와 밭갈이를 시키지 않고 쉬게 했었다고 한다.

아. 단오(端午)

음력으로 5월 5일을 단오(端午)라 한다. 순양(純陽)을 취했다 해서 천중절(天中節)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설, 추석, 한식과 함께 단오를 사대명절로 삼았다. 또한, 이 날을 수릿날이라고도 했는데 부녀자들은 창포(菖蒲)라는 풀을 뜯어다 물에 삶아서 그 물로 머리도 감고 목욕도 했다. 머리칼에 윤기가 돌고 편두통이 없어지며 살결이 고와지고 피부병이 낫는다고 해서 애 어린 할 것 없이 창포물에다 즐겨 씻었다. 남정네들은 해 돋기 전에 약쑥을 뜯어다 음건해 두었다가 배 아플 때나 여름철 더위 먹었을 때 달여 먹었다. 처녀들은 삼단 같은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낙들과 삼삼오오 그네를 댄다. 남정네들은 편을 갈라서 씨름을 하는데 제일 이긴 장사를 ‘판매기’라고도 하며 상으로 송아지를 주기도 한다.

단오(端午)명절은 고구려(高句麗)의 풍속이 통일신라(統一新羅) 이후에 옛 백제(百濟)와 신라(新羅)의 영토까지 남진한 것 같으며 지금도 옛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북에서는 이남의 추석명절 못지않게 단오절(端午節)을 큰 명절로 여기며 다채로운 놀이를 한다고 한다.

자. 유두(流頭)

음력으로 유월 보름을 유두(流頭)라 하며 농군들은 먼동이 틀 무렵에 냇물(東流水)에 가서 목욕하고 새 삼베옷으로 갈아입고 밥과 떡 등 정결하게 장만한 제수(祭需)를 광주리에 받쳐 들고 들로 나가 자기 전답의 상수명(논 물고)에 차려 놓고 풍년이 들어서 농사가 잘 되도록 고사를 지낸다. 고사를 지낸 제수(祭需)는 들에 나온 전답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머슴들은 주인한테서 일초대(日草代 담배)와 농주(農酒) 대금을 타서 주막으로 가서 주모와 농도 하며 모처럼 하루를 즐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상(不祥)한 것을 없앤다. 또한 용신제(龍神祭)와 농신제(農神祭)를 지낸다고 기록(記錄)되어 있다. 아마도 유두절(流頭節)은 백제(百濟)의 것보다는 신라(新羅)의 풍속이었던 것 같다.

차. 복(伏)

복(伏)은 초(初), 중(中), 말복(末伏)의 3복이 있으며 연중 가장 더운 시기다. 복(伏)은 절후는 아니지만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특히 건강관리를 하는데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서민층 대다수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영양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 온도가 연중 최고 높은 삼복(三伏) 시기가 되면 더위가 무쇠도 녹인다고 하니까 건강을 지탱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오월 단오 때 더위를 예방하는 뱅이(防衛)를 한다는 세시기(歲時記)를 볼 수 있다.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더위 먹는 것을 만병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무서워했다. 나아가서 3복(伏)더위를 이기는 슬기를 찾았다.

복(伏)은 ‘엎드릴 복’이다. 일이 아무리 중하다 하나 한더위에는 그늘에 엎드려서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글자이며, 또한 복(伏)은 사람인(人)자(字) 옆에 개 견(犬)을 쓰기 때문에 사람과 개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개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제일의 식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상들은 글자의 암시대로 삼복(三伏)에 개를 복용해서 더위를 이기고 건강을 유지했던 것 같다. 속담에도 ‘복날 개 패듯’ 한다는 말이 있다.

복(伏)은 하지 후 삼경일(夏至 後 三庚日)을 초복(初伏), 제사경일(第四庚

日)을 중복(中伏)이라 하며, 입추 후 초경일(立秋 後 初庚日)이 말복(末伏)이다. 초복(初伏)과 중복(中伏)의 사이는 10일, 중복(中伏)과 말복(末伏)의 사이는 20일인데 20일이 더 되면 월복(越伏)이라한다. 월복(越伏)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농사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또 한 술에 밥을 나누어 먹는다고 해서 짐승이지만 개고기를 금기했다. 그러나 삼복(三伏)때만은 더위를 퇴치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를 약(藥)으로 복용했던 것 같다.

카. 칠석(七夕)

음력 7월 7일을 칠석(七夕)이라 한다.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1년에 단 한 번 칠석날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에다 오작교(烏鵲橋)를 놓아 주어서 서로 만나 사랑을 속삭인다는 날이다. 여름철 밤하늘을 보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던 은하수가 칠석(七夕)무렵이 되면 남향(南向)한 집 정지문 쪽으로 선명하게 은하수가 흐르고 은하수 양쪽에 유난히 빛이 나는 별이 견우성(牽牛星)과 직녀성(織女星)이다.

전설에 따르면 천국에서 견우(牽牛)는 소먹이는 일을, 직녀(織女)는 베 짜는 일을 했는데, 서로가 눈이 맞아 사랑을 속삭이다가 옥황상제(玉皇上帝)에게 들리게 되어 상제(上帝)는 계율(戒律)을 어긴 견우와 직녀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은하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한다. 그 후 견우와 직녀는 눈물을 흘리며 일 년 내내 다가갔지만 은하가 가로놓여 만나지 못하고 눈물로 애태우고 있는데, 칠석(七夕)날 그 곳을 날던 까막까치가 애절한 정경을 보고 몸과 날개를 펴서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를 만나게 했다 한다. 그 뒤부터는 1년에 한번 까막까치가 모여서 만남의 다리를 놓았다는데 이 다리를 오작교(烏鵲橋)라 한다.

칠석(七夕)에 비 안 오는 날이 거의 없는데 이를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 전하며 칠석날에는 까막까치가 보이지 않다가 그 이튿날 보면 머리 벗겨진 놈들이 있는 것은 오작교를 건너던 견우와 직녀가 밟아서 머리가 벗겨졌다는 전설이 있다.

타. 백중(白中)/백중(白鍾)

음력 7월 15일을 백중(白中), 혹은 백중(白鍾)이라 한다. 이때가 되면 초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다. 7월을 어정칠월이라고 해서 논밭에 김도 다 매

고 논밭두렁도 베어 주어서 일꾼들은 논과 밭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밖에서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며 망중한(忙中閑)을 즐길 수 있는 달이다. 그래서 백중(白鍾)이란 말은 농군들의 발뒤꿈치가 하얗게 됐다는 뜻인데 7월 보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날이 되면 농군들은 여름철 일할 때 입던 삼베 옷을 벗고 옥양목(무명)중의 적삼으로 갈아입고 나들이도 하며 아낙들은 담장에 열린 애호박으로 달전을 부치고 남정네들은 그늘진 곳에다 덕석(명석)을 깔아 놓고 옷놀이를 한다. 솜씨 좋은 이가 며칠 전 빚은 술에 용수를 박아 걸러 놓고 콩밭에서 자란 열무를 김치 담아 달전에 곁들여서 남녀가 모여 앉아 단합대회를 갖기도 한다.

또한, 아낙들은 호미를 마루 밑에 내던지고 뜰방(토방)에 모여 앉아 정지다리(삼 삼는 기구)를 펼쳐 놓고 삼 삼기에 한창인 때이다.

파. 추석(秋夕)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가배(嘉俳), 중추절(中秋節)이라 하며 설과 더불어 양대명절 중의 하나이다. 신라 유리왕(新羅 琉璃王)때 길쌈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정에서는 음력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기한을 정해 놓고 부녀자로 하여금 삼(麻)삼기부터 베 짜기까지 경연(競演 쟁爭)을 시켰다. 시합이 끝나고 질과 양이 우수한 사람에게 왕이 직접 상을 내리기도 하고, 편을 갈라서 시합을 부친 뒤에 진편은 이긴 편에게 술과 떡을 대접하고 이긴 편은 진편을 위로 격려하면서 조정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루를 달그림자를 밟으며 가무로 즐겼던 데서 추석이 유래했고 명절로 발전했다.

원사상(圓思想)을 선호했던 조상들은 낮에는 태양(太陽)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자기 실력을 겨루고, 이긴 자는 진 자에게 위로를 보내고, 진자는 이긴 자에 박수를 보내며 교만도 비루함도 없이 서로 일싸안았다. 밤에 동천에 뜨는 둥근달을 바라보며 부족함이 없이 당당하게 가무로 정서를 북돋우며 일체가 되어 밤을 지새웠던 한가위였다.

한가위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오곡백과가 햇빛이 나오는 때라 햇곡식으로 송편과 음식을 만들어서 햇과일과 함께 조상에게 차례를 올리고 묘소에 성묘한다.

이렇게 한가위는 시기나 기후로 보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에 오곡백과가 새 것으로 풍성하고, 낮에는 파란 가을 하늘에 햇빛이 찬란하고 밤에는 둥근달이 못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비추기에 '더도 덜도 말고 가윗날만 같아

라.’라는 말이 전해져 온 것처럼 모두가 기다리는 명절이다.

장수에서는 추석날 밤에 부녀자들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달맞이 노래도 부르고 술래잡기 놀이를 하며 남정네들은 햇곡식으로 빻은 농주를 서로 나누며 풍물놀이로 흥을 돋우다가 달 기우는 줄도 모른다.

하. 귀일·중양절(九日·重陽節)

음력 9월 9일을 귀일, 중양절(重陽節), 중구(重九)라고 부르며 귀일차사(九日且祀)를 지낸다. 차사(且祀)란 묘소에 제수(祭需)를 차려 놓고 제례(祭禮)를 올리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점에서는 시제(時祭) 세사(歲祀)와 다를 바 없으나 5대조(代祖)부터는 방에서 제사(祭祀)를 모시지 않고 묘소에서 시월상달(陰十月上旬)에 일정한 날을 정해 놓고 모시는 제례를 시제(時祭) 세사(歲祀)라 하며 (물론 음(陰)3월 시제(時祭)등 예외가 있다) 시제를 모시기 전에 방안 제사를 중지하고 묘소에서 지내는 제례를 차사라 하는데 대개 춘기(春期)의 한식(寒食)과 추수기(秋收期)의 9일에 차사(且祀)를 지낸다. 장수에서는 귀일에 국화꽃을 따다 국화전(菊花熊)을 부치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이날에 삼월 삼진날에 봄소식을 물고 왔던 제비가 가을 기운을 입에 물고 강남으로 간다고 한다.

거. 시월상달(十月上旬)

음력 10월을 상달(上月)이라 하며, 일 년 열두 달 중에서 가장 상서롭고 윗전(上典)이 되는 달이다. 국조단군(國祖檀君)께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서 이 달 10월에 천시(天市 개천開天)를 열었다는 데서 10월을 상달이라 일컫는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10월에는 햅쌀로 쇠머리 찰떡(시루떡)을 만들어 ‘도신’을 한다. ‘도신’이라 함은 거름 주지 않고 농사지은 쌀을 깨끗하게 마련해서 ‘성주단지’에다 넣는 것을 말한다.

성주’는 집과 터를 관장하는 주신인데, ‘단지’는 웅기그릇을 사용한다. 성주 단지에 넣는 쌀을 ‘삼신(三神: 환인, 환웅, 단군(桓因, 桓雄, 檀君))’이라 하며 다음 해 도신 때까지 두었다가 햅쌀로 갈아 넣는다. 다음에는 깨끗한 햅쌀을 넣은 성주 단지 옆에다 시루떡을 만들어서 시루 째 놓는다. 시루 밑에는 깨끗한 짚이 깔려 있고, 조왕(정지구석)에는 수기름(수나무 열매로 기름을 짠다)으로 접시불을 켜 놓고 소지(燒紙)를 올리며 성주와 삼신께 축

수한다. 즉, 도신이란 그 집의 재산과 생명과 질병 등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성주와 삼신께 일 년 농사의 결과를 정중히 바치는 추수 감사제이다.

너. 동지(冬至)

음력 11 월을 동지(冬至)가 들었다 해서 동짓달이라 부른다. 동지는 일 년 중 낮이 제일 짧고 밤이 제일 길며 한 겨울에 이른다는 24 절후 중의 하나이며 세시 풍속 중의 유일한 절후명절(節候名節)이다. 동지가 되면 일양(一陽)이 시생(始生)이라 하여 봄이 시작되는 날로 생각하여 고대 중국 주(古代中國 周)나라에서는 새해 첫날로 삼았던 때도 있다.

예로부터 동짓날에는 붉은팥으로 죽을 끓여서 동지시가 되면 팔죽을 집안의 벽이나 천정 등 사방에 뿌려서 잡귀를 몰아냈던 풍습이 있는데, 귀신이 붉은 색을 무서워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독 붉은팥으로 죽을 끓였다.

고서(古書)에 보면 공공씨(共工氏)의 아들 못난이가 동짓날 죽어 역귀(疫鬼)가 되었는데 적소두(赤小豆)를 무서워하였으므로 이날 붉은 팥죽을 쑤어 물리쳤다 한다.

공공씨유불재자 이동지사위역귀 외적소두고동지일 작적두죽이양동

(共工氏有不才子 以冬至死爲疫鬼 畏赤小豆故冬至日 作赤豆粥以懷冬)

동지가 그 달 초승(十日前)에 들면 아동지(兒冬至 애기동지)라고 해서 죽을 끓이지 않고 붉은팥을 놓고 시루떡을 해서 먹는다. 동짓날 팔죽에는 새알수제비라고 하는 찹쌀가루 수제비를 새알만하게 비벼서 넣는데, 식구들은 팔죽 속에 수제비를 자기 나이만큼 먹는다. 또한 동지팔죽을 먹으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생각했다. 고대에 동지를 신년원단(新年元旦)으로 삼았던 풍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도 동지(同志)를 아세(亞歲)라고 했다. 불교 신도들은 절을 찾아가 동지불공(冬至佛供)을 올리기도 한다. 조정에서는 동지가 되면 동지사(冬至使)라는 사신일행을 중국에 보내서 정중한 예의를 올린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맞는 하례(賀禮)의 뜻을 간직한 것 같다.

이렇듯 동지는 축귀(逐鬼)를 함으로써 청정한 자세로 신을 모시고 송구영신(送舊迎新)한다는 기쁨과 한살을 더 먹음으로써 어른이 되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날이라고 해서 명절로 삼았다.

33) 장수군, 《장수군지》,
남원 중앙인쇄사, 1997.

풍물놀이

더. 제야(除夜)

음력 설달 그믐날을 제야(除夜) 또는 제석(除夕)이라 하며 구귀수세(驅鬼守歲) 즉 귀신을 쫓아 내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에서 방은 말할 것 없고 뜰, 광, 마루, 부엌, 뒤주, 측간, 소, 돼지막 등 온 집 안에 밤이 새도록 불을 켜고,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해서 밤을 새운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맞이를 준비하는 날이라 빚을 놓지 않으며 놓은 빚은 바빠 거두어 들여서 한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기에 바쁘다. 이 날은 그믐(晦日) 중 그믐이다. 토왕용사(土王用事)를 해도 탈이 안 난다고 믿고 집 수리, 지천도배, 문 바르기 등 대청소를 하고 설맞이에 바쁘며 아이들은 작은 설 또는 까치설이라 해서 큰 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냥 기뻐한다.

2. 민속놀이(民俗遊戱)³³⁾



민속놀이는 가무놀이·경기놀이·겨루기놀이·아동놀이를 가른다. 민속놀이는 양반층보다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놀아서 집단성이 강하며, 낙천적 기상과 풍부한 정서를 담고 있다. 농경세시의 변화에 맞추어 세시풍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가무놀이에는 춤과 노래가 반드시 수반되며, 풍물놀이·탈놀이·옹헤야·돈돌라리·달래춤·쾌지나칭칭나네·강강수월래·놋다리놀이·화전놀이·마당놀이·방천놀이·시절웃놀이·봉죽놀이·길쌈놀이·다리밟이·꼭두각시놀음·등놀이·불꽃놀이 등이 있다. 경기놀이에는 그네뛰기와 널뛰기·씨름·활쏘기·줄다리기·돌팔매놀이·쥐불놀이·햇불싸움·차전놀이·제기차기·장치기·공차기·격구·마상재·소싸움놀이 등이 있다. 겨루기놀이는 간단하게 집 안에서 편을 갈라서 놀 수 있는 놀이를 말하며, 윷놀이·쌍륙·장기·바둑·고누·수투·종정

도놀이 · 남승도놀이 · 고을모듬 · 칠교놀이 · 산가지놀이 등이 있다. 아동놀이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로 각시놀음 · 수박치기 · 다리섬놀이 · 풀싸움 · 꽃싸움 · 실뜨기 · 공기놀이 · 줄넘기 · 대말타기 · 자치기 · 비사치기 · 망차기 · 돌아차기 · 까막잡기 · 숨바꼭질 · 진놀이 · 수박따기 · 바람개비놀이 · 썰매타기 · 팽이치기 · 연피우기 등이 있다. 다음은 장수에서 많이 전승되는 놀이를 적어 본다.

가. 풍물놀이³⁴⁾

1) 풍물굿이란

풍물굿은 지금까지 흔히 농악(農樂)으로 불려왔다. 농악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풍물굿의 총칭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 용어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잔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80년대 이후부터 명칭에 대한 재정립 운동이 일기 시작하였다.

농악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나타난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1931년에 발행한 ‘조선의 연중행사’로 알려져 있다. 그 책의 저자인 일본인 오청(吳晴)은 6월의 행사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속칭 농부놀이 혹은 농악이라고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당시에 속칭으로 사용된 용어가 그 이후로 통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로도 농악이라는 용어보다 그 쓰임새와 장소, 그리고 지역에 따라 ‘매구친다’ ‘굿친다’ ‘풍장친다’ ‘걸궁친다’ ‘두레친다’ 등의 호칭으로 아주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듯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은 풍물굿이 연행되는 목적과 행위가 그만큼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음력 선달 그믐날에 송구영신(送舊迎新)을 바라면서 잡귀와 액운을 몰아내기 위해서 집집마다 들러 고사굿을 치는 풍물굿을 ‘매구굿’ 또는 ‘지신밟기’라고 하며, 논농사에서 김매기를 하면서 들노래와 함께 치는 풍물굿을 ‘두레풍장굿’이라고 하며, 마을 공동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면서 치는 풍물굿을 ‘걸립굿’ 또는 ‘걸궁굿’이라고 하며, 정초에 마을의 수호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면서 치는 굿을 ‘당산굿’ 또는 ‘마을굿’이라고 한다.

이렇듯 세시 절기나 또는 특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는 풍물굿의 쓰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용어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 정리, 기록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용어의 통일을 지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일제총독부에 의해서 조사할 당시에

34) 장수문화원, 《전라좌도 장수굿》, 전주 신아출판사, 2009.

기 다른 명칭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워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치는 음악’ 또는 ‘농민의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농악’이라 칭하였던 것이고, 그 용어가 아무런 검증 없이 지속되어 지금까지 총칭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악’이라는 명칭은 역사적 정통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풍물굿의 민속문화적 정체성을 함축하는 용어로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단지 농민의 음악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극복하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사회의 생활문화와 민속예술 본연의 성격을 포괄해내는 용어로 ‘풍물굿’이라는 명칭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풍물굿’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악기를 칭하는 ‘풍물’과 좁게는 제의(祭儀)적 차원에서부터 넓게는 연주나 행위를 표현하는 ‘굿’의 합성어로서, 농악의 무개념적이고 한정적 의미를 뛰어넘는 포괄적 개념을 담고 있다.

2) 호남 좌도 풍물굿과 우도 풍물굿

호남 풍물굿은 크게 좌도와 우도로 나뉜다. 호남 좌도풍물굿이란 전라도 동부산간지역의 특색을 지니며 전승되는 가락으로서 장수, 진안, 임실, 남원, 구례, 곡성, 고흥 등지의 풍물굿을 말한다. 반면에 호남 우도풍물굿은 전라도 서부평야지역의 특색을 지니며 전승되는 가락으로서 익산, 김제, 정읍, 고창, 영광, 함평, 나주, 장성, 광주 등지의 풍물굿을 말한다.

먼저 호남 좌도의 특징은 북색에 있어서는 전원이 전립(戰笠)을 쓰고 비교적 소박하다. 기법에 있어서는 빠른 가락과 빠른 동작이 많으며 단체연기에 치중한다. 또한 윷놀음에 치중하고 밀놀음은 담백하다.

이러한 특징은 좌도지역의 지리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즉 좌도풍물굿이 전승되는 지역은 전라도 동북부의 산간 지대로서, 대부분 천수답(天水畓)과 밭작물에 의존하는 소규모의 촌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도지역에 비해 소박하며 보수적이다. 반면에 촌락 자체적으로는 두레나 품앗이 등 집단농경을 통한 결속력의 경험, 풍물굿에서도 자생력과 전통성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호남 우도풍물굿은 북색에 있어서 전원이 고깔을 쓰고 의상이 화려하다. 기법면에서는 느린 가락과 빠른 가락이 비교적 다양하게 혼재하고 단체보다 개인연기에 치중한다. 또한 윷놀음에 치중치 않고 밀놀음 굿가락이 다채롭

다. 악기에 따라서는 쇠가락보다 장구가락이 발달하였다.

호남 우도지역은 넓은 평야와 하천이 발달하여 농경생활이 상대적으로 풍요롭다. 또한 교통의 발달과 삶의 터전이 개방되어 주민들의 생활풍습도 예능적, 연희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풍물굿 또한 가락이 화려하고 개방적이며 개인의 기량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호남 좌우도 풍물굿이 종래에는 판이하게 달랐으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의 발달과 연예화된 풍물굿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상호 융합된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예컨대 의상에 있어서도 지금은 좌우도가 유사하게 되었으며, 우도의 장고와 소고는 원래 고깔을 썼지만 지금은 좌도와 같이 소고잡이는 전립에 채상놀이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가락에 있어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좌도가락에 비해서 우도가락에는 좌도가락의 일부가 섞여서 나타나고 있다.

3) 장수풍물굿

채상소고의 명인 한판옥과 장구의 명인 장두만의 고향인 장수의 풍물굿은 촌락 자체적으로 두레나 품앗이 등 집단농경을 통한 결속력을 위한 형태로 발전해 왔고, 오늘날과 같은 판굿이 외지(外地) 걸립굿과 같은 수준 높은 풍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조병호(남, 상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5호 진안농악, 작고)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 1981년부터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라도의 동부지역인 호남좌도농악의 영향을 받은 장수풍물굿은 편성법이라든지 복색, 가락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굿의 내용이나 가락, 판굿 짜는 방법 등은 호남좌도농악권의 영향을 받았다.

천천면 송탄마을이 텃자리인 한귀동 상쇠는 장계 장날이면 시장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때의 회상을 자주 한다. 그는 시장에서 난장판이 벌어질 때면 걸궁패가 한창 판의 흥을 돋우며 연주를 하는 모습이 좋아 굿패를 따라 진안의 물곡리로 이사까지 했다고 하는 일화는 이 지역 굿패들에게는 유명한 이야기다.(그는 천천면 장판리 출신이자 장계면 원명덕에 살던 한판옥과 늘 함께하던 장두만 수장구 이야기를 자주 함) 진안 성수면 좌산리 최순표 상쇠, 용담면 황산리 김수동 상쇠, 구룡리 김달마 설장구, 용담면 황산리 최상근 설장구, 성수면 음수동 전왕권 설장구 등 여러 굿패 관련 인물들과 같이 풍물굿패를 이끌며, 1946년 8월 15일 광복 제1주년 기념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1등(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다.

1950년대까지 진안과 장수지역 전역에서 가을이면 군 대회와 면 대회 등에서 한귀동이 이끌던 당시 풍물패의 화려한 활동사항은 당시 이 지역에 대한 풍물의 열기와 갈망이 얼마나 컸을 지을 가늠케 한다.

복색의 기본은 흰 바지저고리에 삼색띠를 착용한다. 쇠꾼과 징, 장구, 북의 전립에는 부들상모가 달려 있고, 소고잡이들의 전립에는 채상모가 달려 있다.

전라도 좌·우도농악이 종전에는 판이하였으나, 교통의 발달로 서로 영향을 받아 상호보완을 가져왔다.(우도 농악은 당초에는 고깔을 썼었고, 좌도 농악은 전립을 썼었으나 지금은 서로 혼합된 복색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상쇠 김정동이 기억하는 뜬쇠인 한귀동, 김달마, 장두만 등이 서동마을에 자주 머물렀다는 점과 진안 성수면에서 이사 온 상쇠 유만수(미상)가 서동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서 장수풍물굿 역시 상호소통에 의한 상호보완 과정이 전개 되었으리라 판단된다.

4) 상쇠와 구성원

장수지역의 풍물굿의 내용과 형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지방문 결과 거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판굿의 기억 재생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가락의 기억을 통해서라도 장수지역의 풍물굿에 대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이동철(남, 82세)은 현재 장계면 신동 200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1955년 30세 때 처음 쇠를 시작하였다. 진안 출신인 김점용(1970년 작고로 기억)에게 쇠를 배운 이동철은 그의 나이 45세에 마을대향풍물경연대회에 참가했으며, 1년에 3~4회 명절 때만 쇠를 쳤다고 한다.
- 신대봉(남, 72세)은 장계면 신동 699번지 거주, 23세부터 장구를 시작했다고만 기억하고 있다.
- 장개식(남, 82세)은 장계면 명덕 양삼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7세 때 쇠를 처음 접했다. 서창진(남 85세) 과 이기섭(작고, 1917년생으로 기억)에게 쇠를 배웠고, 12가락을 기억하고 있으나 연주는 불가능했다.
- 주창섭(남, 75세)은 장계면 명덕 양삼마을에 거주, 어려서부터 아버지인 주순복(작고, 1907년생으로 기억)에게 장구를 배웠다.
- 기완복(남, 80세)은 천천면 연평리에 거주, 15세경 처음 쇠를 시작하였고, 12마치 장단을 기억하고 있으나 연주는 불가능하였으며, 백팔만(미상), 송동현(미상)에게 쇠를 배웠다고 기억하고 있다.

- 한귀동(남, 94세)은 계남면 침곡리 요전마을에 거주하는 상쇠로 대부분의 기억은 없으나 정지긋 가락을 구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 박귀열(남, 78세) 현재는 계북면 원촌리 외림마을에 살고 있으며, 장계면 명덕리에서 살던 23세에 쇠를 처음 접했다. 당시 계북면에서 풍물을 가르치던 조유복(남, 미상, 상쇠)과 이성남(남, 미상, 상쇠)에게 35세경까지 쇠를 배우던 중 이성남 상쇠가 타계한 후 40세 경부터 상쇠를 쳤다.
- 김정동(남, 58세)은 1951년 8월 24일(음) 장수군 장계면에서 출생 부친인 김봉조(1920년생으로 추정)와 모친인 유도님(77세) 사이의 6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농촌마을 소농의 집안에서 태어난 김정동은 9세 때인 1960년에 장계초등학교 입학하고, 15세 때인 1966년 초등학교를 졸업한다. 김정동이 기억하는 최초의 풍물은 초등학교 무렵 서동마을의 초가로 이은 마을회관에서 뜬쇠인 한귀동, 김달마, 장두만 등이 자주 머물렀으며, 진안 성수면에서 이사 온 상쇠 유만수(미상)가 서동마을에 거주하였다는 기억으로부터 김정동의 관심은 풍물과 무관하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그의 나이 17세 때 부친인 김봉조(당시 48세)가 사망하자 어려운 가정환경에 도움이 되고자 대구로 건너가 건축일과 페인트 도색일을 하며 6년간의 끈질긴 삶 끝에 고향인 장계면으로 돌아와 '태양촌'이라는 중국집(현재 편의점)을 20년간 운영한다. 평상시에도 풍물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동은 중국집을 운영하던 중 장계성당에서 풍물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는 소문에 성당 문을 두드렸고, 그의 나이 30세경 조병호(남, 상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5호 진안농악, 작고)를 만나 장구를 배웠다. 동네분들과 함께 풍물을 배우며 풍물에 심취되어가던 38세에 전라북도 시·군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했지만 입상에는 실패한다. 이후 진안증평군의 김봉열과 금산농고를 졸업한 김봉열의 수제자인 성태일(당시 21세로 기억)에게 풍물을 전수받았다.

5) 지역별 풍물단 (2009년 4월~6월 조사)

가) 논개고을 좌도풍물단

회원의 90%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장수읍 논개고을 좌도풍물 보존회는 2006년 3월 결성되었다. 창단과 함께 장수초등학교 음악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고, 2007년 10월 한누리 전당에 전수실이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등록회원 30명은 정월대보름, 5월 1일 읍민의 날, 10월 1일 군민의

논개고을 좌도풍물단



날, 논개제전행사 등 지역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매주 월, 화, 목 8시에서 10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만 해도 17여 회의 크고 작은 지역 축제에 초청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수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수남초등학교, 부귀초등학교, 진안마령초

등학교에서 풍물을 전수하고 있다.

- 상쇠 서성원(남, 55세)은 1994년도까지 장수마을굿을 귀동냥하여 듣고 치다가 1997년 서울 친구의 소개로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곽윤남(전주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교습)에게 이리우도농악을 4년에 걸쳐 배웠다. 이후 임실필봉농악의 양진성에게 장구를 배워 현재 임실 필봉풍물단에서 장구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 장구 한병식(남, 55세)은 천천면 출생으로 농악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읍으로 이주 후 친구인 서성원 상쇠의 풍물굿 치는 모습에 매료되어 2006년 10월부터 장구를 사사받기 시작하였다.
- 정원모(회장)는 1990년대 남원에서 농악을 배우려 하던 중에 서성원이 풍물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나) 장수 맑은소리 풍물단

장수 맑은소리 풍물단



‘맑은소리풍물단’은 대부분의 회원이 사과 과수원 운영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월대보름굿, 읍민의 날, 공무원체육대회, 전국게이트볼대회, 각종체험행사를 위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맑은소리풍물단의 시작은 장수교회의 요청으로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강습을 하게 되었고, 그 인원

을 중심으로 1999년 창단하였다. 정회원 28명이 활동하고 있는 맑은소리풍물단은 가을에 신규반을 모집하고, 박경현(남, 50세)과 김정동 상쇠(남, 59세)가 여름과 겨울 2차례 강습활동을 실시한다.

초창기부터 한누리 전당이 개관될 때까지 학교강단, 교회, 창고 등을 전전하며 연습하다가 한누리 전당이 개관되어 “논개고을 좌도풍물단”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주 수, 금, 토 오후 8시 30분과 겨울 7시 30분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다.

- 도정락(회장, 남, 72세)은 북, 장구를 담당하고 있다.
- 상쇠 박경현(남, 50세)가 축수정사.
- 수장구 권점봉(남, 58세) 과수원 운영.
- 전(前)상쇠 한기석(남, 80세)은 맑은소리풍물단을 활성화 시킨 분으로 지금은 부쇠를 담당하고 있다.

다) 산서 풍물단



1993년 11월 산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출발한 산서풍물단은 현재 2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벼농사와 과수원, 축산의 생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은 화, 목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월대보름굿, 연례행사, 민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와 각종 지역축제를 위해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산서풍물단 연수관은 4년 전 현재의 장소로 이동하여 자리잡았으며, 농한기를 이용하여 남원의 박찬용과 임실희봉의 양진환에게 연수를 받고 있다.

- 상쇠 장진(단장, 남, 58세)은 40대 초반 남원시립국악단에서 풍물을 배웠다.
- 장구 위선미(여, 32세)는 순천 출신으로 장구는 1999년, 쇠는 2004년부터 장진에게 사사받았다.
- 권승근(남, 장수향토문화연구회장)은 1940년 7월 1일 생으로 전북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남원여고에서 퇴임하였다. 2008년 장수문화원 발간 『장수문화』에서 『좌도풍물굿-산서지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권승근은 임실희봉농악의 명인 양

순용에게 사사받았다고 한다. 이후 어렸을 때 동네(산서지역)에서 상쇠가 연주했던 가락과 임실 필봉가락이 비슷하여 절충하여 가락을 기보하였다고 한다.

라) 변암면 풍물단



출향인사들의 뜻이 모아져 1990년 결성된 변암면 풍물단은 변암면 노단리 복지회관에서 정회원 24명을 중심으로 매주 화, 목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동절기 오후 7~9시)까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은 쌀, 보리 외에 감, 밤, 벌꿀, 약초와 고랭지채소 재배 그리고 축산일에 종사하고 있다.

상쇠 배동주에 따르면 변암면 풍물단은 방범대 대원들이 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유명무실화되어 정정례가 초대 단장으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정정례 초대단장이 변암을 떠나게 되고, 그 후 1년 뒤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변암면 풍물단은 1992년 민취배(남원농악전수자)와 1995년 정동찬(남원시립풍물단)을 초빙하여 남원농악을 사사 받았으며, 현재는 장수읍의 서성원(장수읍 논개고을 좌도풍물 보존회 상쇠)에게 임실 필봉가락을 배우고 있다.

마) 전라좌도 장수굿보존회



상쇠 김정동(남, 59세)이 초등학교 무렵(1960년대초) 서동마을의 초가로 이은 마을회관에서 뜯쇠인 한귀동, 김달마, 장두만 등이 자주 머물렀으며, 진안 성수면에서 이사 온 상쇠 유만수(미상)가 서동부락에 거주하면서 장계에서 풍물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1980년

도 들어서면서 장계성당에서 조병호(남, 상쇠,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5

호 진안농악, 작고)에 의해 풍물이 무료로 교육되어졌고, 이때 상쇠 김정동 역시 장구를 배웠다. 1989 년도에는 ‘시·군농악경연대회’에 참가했지만 입상에는 실패했다. 시·군농악경연대회입상 실패 후 진안증평굿 김봉열을 초청하여 문화마을 앞에 있는 농협창고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연로한 나이에도 풍물 전 종목을 가르쳤는데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후 금산농고를 졸업한 김봉열의 수제자인 성태일(당시 21세로 기억)이 3년간 무료로 장계면에 머물며 풍물을 전수했다. 그리고 성태일의 권유로 1989 년도에 장계굿보존회를 설립하게 된다. 계남면 침곡리 사곡마을의 옛 날 도살장 슬레이트 창고를 빌려 매일 저녁 보존회 회원들이 모여 연습을 진행하였고, 2004년 12월 장수군이 약3억 원의 군비를 들여 장계면 체육공원 안에 약100평 규모의 전수관을 지어주었다.

- 한중화(회장, 남, 60세) 쇠, 장구를 담당하고 있다.
- 상쇠 김정동(남, 59세)
- 수장구 김혜옥 (여, 52세)

바) 천천면 풍물패(2009년 4월 8일 조사)



금강 상류인 춘송천을 따라 논이 이어지고 천변의 양 언덕에는 밭이 개간되어 곡류로는 쌀농사가 주업이고, 밭작물에는 담배 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1년 이전부

터 활동하던 천천면풍물패는 1991년부터는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회원은 약25여 명으로 연습은 주1~2회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와 농번기에는 주3회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5호 진안농악 조병호(상쇠)의 지도 아래 천천면 풍물패는 도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경험했으며, 조병호 상쇠가 세상을 떠난 후 춘송리에서 태어난 조병호의 제자인 서문신철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초빙되어 계속해서 조병호 상쇠의 가락을 가르치고 있다.

- 서문신철(남, 35세)은 전라북도무형문화재 제7-5호 진안농악 조병호(상쇠)에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사사받았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천천면 풍물패를 지도하고 있다.

- 상쇠 고성기(회장, 남, 63세)는 만주에서 태어나 8살 때부터 쇠를 치기 시작하였으며, 천천면 풍물패 회장을 맡고 있다.

사) 계남면 백화풍물단



닭이 알을 품은 것과 같은 금계포란(金鷄抱卵)의 형국을 하고 있는 계남면에 위치한 백화풍물단은 2008년 8월 22일 결성하여 계남면 일대의 가락을 전수하고 있다. 회원 약 20여 명으로 연습은 주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와 농번기에는 주 3회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 6월 조사)

아) 일췌계북애향 풍물단



2002년 결성된 ‘일췌계북애향풍물단’은 어전마을회관과 계북면 자치센터에서 농한기(11월~익년 2월)에 연습한다. 한 달에 한번 20여 명 회원이 모여 개별 연습 또는 단체 운영 관련 모임을 갖고 있다. 일췌계북애향풍물단 역시 “전라좌도장수굿보존회”를 지도했던 성태일에게 풍물을 전수받았다.

- 회장 김정식(남, 64세) 계북면 자치위원회 초대위원장.
- 상쇠 한규범(남, 53세) 성태일에게 사사.
- 수장구 김광순(여, 50세) 성태일에게 사사.

6) 지신밟기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장수군 현지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채집과 음원채취와 구술기록 등의 연구방법을 통해 장수풍물굿의 원형질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장계면에 거주하는 김정동 상쇠(남, 59세)와 한국국악협회 장수지부장인 한중화의 안내에 따라 각 마을에 생존해 있는 상쇠와 부쇠 그리고 잭이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하였다. 그러나 조사대상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해 완벽한 기억의 재현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음원채취와 구술기록에 한계가 있었으며, 더 이상의 전승과정 추적이 어려워 아쉽게도 장수지역에 분포했던 판굿에 대한 방대한 정보 획득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08년 6월 5일부터 9월까지 장수풍물굿(판굿)과 연동하여 지신밟



도 기억의 재현이 어려웠다. 또한 조사대상 7개 마을 중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와 장계면 명덕리 양삼마을(2008년 8월 25일 방문)의 조사는 피조사자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일정부분 기억들을 채집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좌도 장수굿 보존회’의 협조로 장수군 일대의 지신밟기를 재현할 수 있었다.

가) 지신밟기란 무엇인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땅을 맡은 신을 지신으로 생각하여 집터가 드세면 집안 일이 잘 안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지신을 진정시켜 일 년 내내 무사하기를 바라는 데서 지신을 밟았던 것이다. 지신밟기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부터 대보름 사이에 행해지는 놀이로 마을의 풍물패가 각 가정을 돌면서 악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며,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연중행사로 벽사진경(陽邪進慶)의 의미를 내포한 축원적인 마을축제이다. 또한 지신밟기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크고 작은 명절과 마을에서 쓸 돈을 모아야 할 때 역시 행해져 왔으며, 모인 자금은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쓰여 진다. 지신밟기는 밟아야 할 잡귀를 굿패의 흥겨운 풍장소리와 함께 밟는 주기적인 농경의례로 공동의 고민과 문제를 공동의 힘과 공동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였던 행위의 수단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호남농악에는 지신밟기나 농경모의적인 것보다는 연예적인 판굿이 발달되어 있으나, 부족국가시대 전라도지역의 마한(馬韓)의 농공시필기(農功始畢期)의 제천의식(祭天儀式)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호남농악에도 ‘축원농악’ 형태의 마을굿이 남아있다. 지역에 따라서 지신밟기를 집돌이, 돌돌이, 마당

기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 조사대상 대부분이 전문적인 걸립패³⁵⁾가 아닌 마을풍물패로 활동하여 세밀한 기억을 추출하기가 어려웠으며, 생존해 있는 대부분의 마을풍물패들이 고령으

지신밟기

- 35) 걸립형태는 마을이나 장마당을 돌며 걸립굿을 치고 돈이나 곡식을 걷는 전문적인 풍물패를 말한다. 걸립패에는 낭걸립패와 절걸립패가 있다. 낭걸립패는 서낭가를 들고 마을을 돌며 고사굿을 치고 돈이나 곡식을 걷는 형태이다. 낭걸립패는 절걸립패와 구별지어 부르는 말로 서낭을 받고 다니는 풍물패에서 유래되었으며, 풍물잡이들이 직접 걸립패를 꾸며 정초나 혹은 아무 때나 마을과 장마당을 돌며 집집이 걸립을 한다. 걸립하는 의식은 동제(洞祭)의 집돌이와 유사하다. 먼저 마을의 당에 가서 신대를 세우고 무가나 무악의 도움으로 서낭을 받는다. 이들은 신이 내린 신대를 들고 집집이 돌면서 집돌이를 하는데 각각의 집에 가서 고사를 지내주고 돈과 곡식을 걷는다.

밧이, 뜰밧이(踏庭굿) 또는 매구, 걸림, 걸균, 구걸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호남좌도농악권에 속하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대에서는 지신밧기와 마당밧기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신밧기의 일반적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신밧기가 시작되면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을 위한 고사를 지낸 뒤 지신을 밧는다. 당산굿은 인사굿을 시작으로 마을 공동체 모두의 바램(기원)을 나타내고 있다. 당산굿이 끝나면 마을로 내려와 공공기관이나 공동우물에 먼저 축원한 후 집집마다 들러 고사굿을 치는데, 문굿, 마당굿, 성주굿, 조왕굿(부엌), 터주굿, 장독굿, 마구간굿, 샘굿, 측간굿(바깥 재래식 화장실)등 집안 구석구석 굿을 쳐준다.

굿을 칠 집 앞에 도착하면 대문 앞에서 ‘주인 주인 문 여소, 나그네 손님 들어가오’ 하고는 일행이 문안으로 들어가 굿을 치면서 마당, 뒤뜰, 부엌, 광등을 돌아다닌다.

굿패가 굿을 치는 곳을 따라다니며 입장단이나 덕담(잘 되길 비는 말)으로 바라는 바를 빌어주면 집주인은 떡과 과일, 술상을 차리고 일행을 대접한다. 때로는 지신을 밧아주어 고맙다는 뜻으로 곡식이나 돈으로 답례한다. 이렇게 지신을 밧으면 그 집을 담당하고 있는 지신이 흡족하여 주인과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키고 제화초복(除禍招福)을 마련해 준다고 전한다.

나) 사설(齋說)

농민들의 신앙과 심성은 농악의 사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집들이로서의 마당밧기 때 읊게 되는 성주풀이라든가 문굿, 터주굿, 조왕굿 등을 할 때 하는 축문에는 농민의 소박한 인생관 내지는 내세관이 담겨져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풍물 사설은 실질적, 공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원망(願望)도 담고 있어 풍물의 정신이라도 할 수 있다.

풍물의 사설은 안택(安宅)굿과 관련된 지신(地神)밧기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사설은 양귀(饗鬼), 불제(祓除), 제액(除厄), 초복(招福), 기풍(祈豐) 등 피사진경(辟邪進慶)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신(家神) 가운데 가장 주된 신은 성주신이다. 성주신의 신체(神體)는 대청 중앙대들보에 좌정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백지를 접어 대들보나 대들보 밑을 받치고 있는 기둥 위쪽에 붙여둔다.

가신(家神)은 성주신 말고도 조왕신, 철룡신, 터주신, 문신(門神), 변소신

(廁神), 곳간신(庫間神), 우물신 등이 있다. 지신밟기에서는 모든 신을 모시지만, 그 중에서도 성주신에게 비는 성주풀이가 가장 중요하다. 성주신화는 한 망나니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지어 황토섬에 삼년간 귀양 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의 서사적 신화이다. 성주신은 가족의 질병, 재수, 수명 등을 맡은 신이며, 성주풀이는 성주의 일생을 묘사한 무가(巫歌)에서 파생했을 것이다. 후렴구인 ‘잡귀잡신(雜鬼雜神)은 물아래로 만복(萬福)은 이리로’라는 말은 매몰 한다는 뜻으로, ‘매귀(埋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김수로왕 전설에 나오는 귀지봉(龜旨峯)에서 흙을 파고 소리 질렀다는 것도 일종의 매귀(埋鬼), 즉 지신밟기 행위였던 듯하다. 이러한 매귀행위(埋鬼行爲)로서의 사설은 마을풍물인 경우 지신밟기 때 성주풀이로 하고, 걸립패들의 풍물에서는 고사창(告祀唱)인 비나리로 한다.

성주풀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동래지방의 성주풀이는 집의 역사와 집안 장식품들과 살림들을 마련하게 된 내력을 읊고 있다. 강릉농악의 성주풀이는 각 도 각 색이 성립된 사연을 읊고, 집안사람들의 수복(壽福)과 재복(才福)을 빌고, 액 없이 운수대통 하도록 비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대전 옷다리풍물의 성주풀이는 천지 생성과정과, 여러 지역의 산천을 더듬어 가며 지신(地神)을 부른다. 호남좌도농악인 부안농악에서는 가정의 번성을 기원하거나, 장수, 효자, 효부, 부귀를 축원하고, 또 연인을 그리워하는 향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성주풀이의 사설은 천수경(千手經)으로 하는 불교음악적 성격을 가진 것과, 장님이 하는 독경도 있다. 사설 할 때 보통 북을 치면서 하거나 팽과리나 장구를 치면서 한다.

성주풀이는 그 지방의 민요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영남지방인 경우에는 메나리조로 되어 있고, 호남지방은 육자배기조, 충청도의 동남지방은 메나리조, 서쪽은 육자배기조, 경기도의 동남지방은 메나리조이고 북쪽은 경토리를 쓰고 있으며, 강원도는 메나리조를 쓰고 있다.

다) 조사 지역과 내용

(1)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동촌마을

-조사일 : 2008 년 7 월 15 일 화요일

-상쇠와 구성원

· 상쇠 : 황세권(1938년생)

· 장구 : 김광주(1928년생)

· 징 : 한병화(1941 년생)

· 쇠 : 박기성(1933 년생)

동촌마을 상쇠 황세권과 징을 쳤던 한병화에 의하면 전에는 달집을 태우고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마당밧기를 했으나 현재는 달집만 태우고 굿만 친다고 한다. 다음은 동촌마을 상쇠 황세권이 기억하는 사설과 집돌이 순서이다.

마당굿 - 샘굿 - 부엌굿 - 노는가락(외마치)

· 샘굿

아따 그 샘물 좋다 청강수 명강수~ 별걱별걱 마시세

(2) 장수군 산서면 동화리 등석마을

-조사일 : 2008년 6월 5일 목요일

-상쇠와 구성원

· 상쇠 : 최동기(1937 년생)

· 장구 : 최선호(1945 년생), 조규상(1943 년생)

· 징 : 이종순(1948 년생)

상쇠 최동기와 장구 최선호는 전에 자신들이 한 지신밧기의 경우에는 질굿을 하며 집 앞에 도착하면 집 밖에서 문굿을 하고 집안 들어가서 문굿을 다시 한번 한 후 영산가락으로 마당 한 바퀴를 돌고 정지굿-우물굿-장독대굿이 끝나면 마당에서 술굿을 끝으로 지신밧기를 마친다. 상쇠 최동기와 장구 최선호가 기억하는 사설은 다음과 같다.

· 문굿

쥘 쥘 문 여소 문 열었다 들어가자

· 정지굿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먹자

· 우물굿

아따 그 샘물 맛이 좋다

· 술굿

어서 치고 술 먹자, 두부국에 김 나간다

(3) 장수군 번암면 교동리 금천마을

-조사일 : 2008년 6월 5일 목요일

-상쇠와 구성원

- 상쇠 : 배동주(1951년생)
- 수장구 : 김순름(1956년생)
- 장구: 백화자(1944년생)
- 징: 심성복(1954년생)

번암면풍물단 상쇠인 배동주(남, 59세)는 정정례(미상) 前 상쇠에게 남원 좌도농악을 배웠으며, 정정례 상쇠는 당시 시립풍물단에 있는 정동찬(2008년 현재 전남 화순에서 활동)에게 풍물을 전수 받았다. 배동주에 의하면 보름 2~3일 전부터 지신밟기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원하는 집만 마당굿, 정재굿, 장독굿, 샘굿 순으로 진행한다.

삼채를 치며 마당밟기를 하는데, 굿내는 가락으로 길굿을 치면서 마을안길(고살길)을 돌아다닌다. 그러면 번암면풍물단 상쇠인 배동주가 일부 기억하고 있는 사설을 살펴보기로 한다.

- 샘굿(샘 있는 곳 마다 찾아가 많은 물이 나오라고 사설을 한다.)

아따 그 물 맛있다. 벌컥 벌컥 마시세

- 장독굿

장도 장도 맛있다. 깨목장도 맛있다

- 문굿

쥘 쥘 문 여소. 문 안 열면 갈라요.

(4) 장수군 계북면 연동마을

-조사일 : 2008년 7월 15일 화요일

-상쇠와 구성원

- 소리와 상쇠 : 박기만(1940년생)
- 장구: 이동률(1932년생)
- 징 : 서순영(1941년생)

상여소리도 잘하는 연동마을 상쇠 박기만에 의하면 마당에서 질굿을 하고 있다가 집 주인이 술상을 차려나오면 인사굿을 치고, 부엌으로 가서 정지굿을 친다. 다시 마당으로 나와 한 바퀴를 돌고 뒤 안으로 돌아가면 장독대, 뒷문에 인사하고 광방(곳간)에서 굿을 친 후 장광굿(장독대)과 샘굿을 한 후 마무리 한다.

- 인사굿

어서 치고 술 먹세, 두부국에 짐 나가네

· 정지굿

잡귀 잡신을 물리내고, 명과 복을 쳐 드리세

· 광방굿(곶간굿)

OO氏 장단 맞추러 왔어요, 아이구 노적가락이 아파 천석 많다

앞으로 보면 천석이고, 뒤로 보면 만석이고, 천석만석 불러주세

· 장광굿(장독대)

매구야! 예

OO氏댁 장광밑에 쥐들어 간다. 오랑캐야 꼭 물러가라

· 샘굿

아따 그 물 맛이 좋다 꿀떡 꿀떡 잘 넘어간다. 할머니 고맙소

(5)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외림마을

-조사일 : 2008년 8월 25일 월요일

-상쇠와 구성원

· 소리와 상쇠 : 박귀열(1930년생)

· 장구 : 이광진(1958년생)

· 북 : 이희도(1929년생)

· 징 : 황치석(1952년생)

상쇠 박귀열은 장계면 명덕리 살던 23세에 쇠를 처음 접했다. 당시 계북면에서 풍물을 가르치던 조유복(남, 미상, 상쇠)과 이성남(남, 미상, 상쇠)에게 35세경까지 쇠를 배우던 중 이성남 상쇠가 타계한 후 40세경부터 상쇠를 쳤다. 상쇠 박귀열의 희미한 기억을 정리해 보면 계북면 연동마을의 질굿 - 인사굿 - 정지굿 - 마당 한 바퀴 돌고 - 장독대 - 광방(곶간)에- 장광굿(장독대)과 샘굿을 한 후 마무리 하는 형태의 유사성을 발견 할 수 있다.

라) 장수의 지신밟기

(1) 당산굿

당산굿은 공동체 의식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식적 행사라 할 수 있다. 곶에 따라 순서나 덕담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해지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수군 번암면 금천마을 당산굿

- 질굿(풍류)을 치며 치배의 끝(보통 소고를 말함)에서부터 당산에 들어간다.
- 당산에 이르러 삼채 등으로 장단을 바꾼 뒤 오방진을 감는데, 여기서 오방진을 감는 것은 판을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다.
- 오방진을 다 감고 푼 뒤, 한줄 또는 두 줄로 늘어서서 인사굿을 세 번 친다.
- 제사
 - 제문(발원문)읽기:유세 차모년 모월모일에……상향소지(신령 앞에 비는 뜻으로 얹은 종이를 올려서 불을 붙여 공중으로 날리는 일)
어허러루 당산님 우리네 발원 들어보쇼.
어허러루 당산님 만세 유전을 비읍니다.
 - 음복(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에 썼던 음식물을 나누어 먹는것)
- 인사굿 : 세 번 치고 나온다



장수군 장수읍 당산굿

(2) 문굿

집집마다 풍물굿을 치며 돌아다니다가 한 집에 다다르면 문 앞에서 주인이 나올 때 까지 놀고 있다가 주인이 나오면 문굿을 친다.

쥔 쥔 문여소 문 안 열면 갈라요,
(모두) 문여소, 문여소 어서 빨리 문여소
쥔 쥔 문여소 마당 가운데 불 놓소,



(3) 성주굿 (대청굿)

어루러기로 촛불을 향해 절을 하고, 성주굿 사설을 한 다음 성주굿을 한다. 성주굿은 그 집이 지어진 내력을 노래하고 성주님께 복을 비는 곳이며 성주풀이와 액막이를 한다. 문굿을 치고 마당으로 들어가서 한바탕 논 뒤 상쇠나 대포수가 재담을 늘어놓는다. 고사 소리꾼이 있으면 고사소리도 한다.

사설 1)

성주로다 성주로다 성주 분이 어덴고 하니
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에서 솔씨를 받아

이산 저산에 뿌렸더니 그 솔이 자라서
 소부동이 되었구나. 대부동이 되었구나.
 낮에는 햇살을 쬔고 밤엔 이슬 먹고 자라
 황장목이 되었구나.
 두리기둥 되도록 다나가세.
 에라만수 에라데신이여 (어루기로 3번 절한 후)

사설 2)

준년이면 열 두달 과년이면 열석 달인데
 1년 365일 이집 대주 000택에 재수로 말하면
 물 묻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이
 화로에 엮 달라붙듯이
 처녀에 총각 달라붙듯이, 과부에 홀아비 달라붙듯이
 다갈다갈 붙으소서.

사설 3)

오방신장 합다리굿에 잡귀 잡신 몰아내고 명과 복만 쳐드리세.

(4) 조왕굿 (정지굿)

부엌에서 치는 굿으로 대포수가 솔뚜껑을 얹어 놓으면, 주인이 그릇에다
 쌀을 담아서 촛불을 쬔아 놓고 그 옆에 정화수(깨끗한 물)를 떠놓는다.



장수군 계북면 연동마을 조왕굿

사설)

안방 차지는 가모 차지요. 바깥 차지는 대주 차지인데
 이집 가모께서 우리 굿패를 위하여 많은 양의 쌀과
 돈을 주셨으니,
 굿을 멋지게 쳐드리세.(어루기로 3번 절한 후)
 앞뒤귀신 뒷뒤귀신 성주 뒷전에 조왕신.

(5) 샘굿



용왕님께 빌어 물이 일 년 내내 맑고 넘치게 하여 풍년이 들고 어떤 병도
얻지 않고 오래도록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빈다.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외림마을 샘굿

사설)

동해바다 용왕님 남해바다 용왕님 서해바다 용왕님
북해바다 용왕님 사해바다 용왕님 사해바다 용왕님
청강수 맹가수 철철 넘게하소 아따 그물 좋다.
별걱 별걱 마시세.(어루기로 3번 절한 후)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먹세.
모두)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먹세

(6) 철룽굿 (장독대)



장독에서 치는 굿으로 된장, 고
추장, 간장 등 음식 맛을 좋게 해주
십사 하고 비는 굿이다.

사설)

이집 장맛도 365일 내내 변치 말고
지금 맛과 같이 하소서

좌철용 우철용

모두) 좌철용 우철용

철룽 철룽 우철룽

올해도 이 집 장맛은 예년과 같으소

장도 장도 맛나네

묵은 장도 맛나네

(7) 광굿 (곡간굿)

광에서 치는 굿으로 많은 쌀이 모이길 비는 곳이다.



사설)

앞으로 보니 천석꾼 뒤로 보니 만석꾼 일세

(어루기로 3번 절한 후)

쥐 잡자 쥐 잡자 곡간에 쥐 잡자

구석구석 네 구석 오곡이 오물조물 쌓이소

(8) 술굿

주인이 마당에 술상을 차려 놓으면 술을 마시기 전에 치는 곳이다.

사설)

김 난다 김 난다 두부국에 김 난다

어서 치고 술 먹세

36) 장수문화원,
《장수문화 제5호》, 전주
신아출판사, 2007.

나. 깃절(旗拜)놀이³⁶⁾

깃절놀이는 기(旗)를 주제로 풍물과 함께 고사를 지내며, 지역 사람들이 사회적 공동목표를 두고 잔치를 벌이는 놀이다. 기와 관련된 놀이는 기고사(진안, 아산), 기세배(익산, 문경, 완주, 공주, 부여, 보은, 논산), 기접놀이(완주), 기절놀이(무주) 기싸움(익산 함열) 등의 이름으로 주로 충청도와 전라도에 전승되어왔다.

장수의 깃절놀이가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고, 해방되던 해까지 이루어졌으나 그 후로 사라졌으니 6-70년 전의 일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깃대는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깃절놀이는 칠월칠석날, 옛 장수공설운동장(지금의 교육청)이나 노하리 숲, 장수초등학교나 각 마을의 공터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자연마을 전체가 참여한 큰 행사였다. 농부에게는 입맛 나는 행사였다.

깃절놀이는 홍보부터 시작된다. 삼지창이 달린 영기(令旗)를 든 총각좌상(행사를 추진하는 젊은 사람의 우두머리)과 패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동(閉東)서 귀동(歸東)으로 전하러 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시간과 장소

를 알려준다. 폐동은 어둠을 의미하고 귀동은 밝음을 의미하니 농경사회의 공동목표가 매우 철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중날이 되면 기를 든 사람들과 풍물패들이 도착한다. 이때의 기는 작은 영기와 큰 용기로 나눌 수 있는데, 용기는 12자(3.6m)길이를 가진 대나무에 꿩 털, 방울을 달고 오색뎡기를 뿔으며, 미영베(무명베)를 감았고 기에는 먹물로 용을 그렸다. 용기를 든 사람을 ‘기반이’라고 하였는데 장사가 아니면 다루기 힘들었다. 장수읍 선창리의 최완주(작고)씨가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기반이다.

정오쯤이면 각 마을에서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돼지고 기이며, 막걸리가 풍성했다.

제사가 끝나면 깃절이 시작된다. 깃절은 영감기와 부인기의 맞절로 시작되는데 이 기를 ‘아버지기’와 ‘어머니기’라고도 한다. 어머니기와 아버지의 인사가 끝나면 각 마을의 ‘아들기’가 ‘큰아들기’부터 ‘막내아들기’까지 순서대로 ‘부모기’인 ‘영감기’와 ‘부인기’에게 절을 한다.

절을 할 때는 옆으로 늘어선 칠 팔 명의 장정들이 깃주(旗柱)의 중간을 묶어 만든 세 개의 끈을 잡고 ‘부모기’를 향하여 굽혔다가 세우는데 모두 사배(四拜)한다. 처음 세 번은 ‘아들기’가 ‘부모기’에게 굽혀서 절한 다음, 네 번째는 ‘부모기’와 ‘아들기’가 서로 맞절을 한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장남 마을기부터 막내 마을기까지 순서대로 실시한다. 부모기를 비롯한 아들기의 순서는 기의 제작 순서에 따르는데 가장 먼저 만들어져 가장 오래된 기가 ‘영감기’이고 그 다음이 부인기, 장남기, 차남기, 순이다. 기에는 용이 그려져 있는데 기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용의 두 눈이 손상되지 않으면 우두머리기로서 위엄을 지니며 아무리 오래된 기를 가진 마을이라도 다시 만든 기는 막내 아들이기 되어 말석에 떨어지고 만다.

깃절이 끝나면 기놀이가 이어졌는데 마을별 대항을 하고 돼지 한 마리를 상품으로 걸기도 했다. 깃주(깃대)와 기의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벧짚으로 만든 ‘허리곰다리’를 만들어 차고, 기를 받쳤다. 마을 사람들은 풍물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뒷풀이를 하였다. 깃절놀이에는 항상 마을단위의 풍물패가 따르며 기의 제작이나 제물구입 비용도 마을에서 부담한다. 비가 안 오면 천왕봉에 기를 꽂고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

37) 다-러까지 장수군,
《장수군지》, 남원 중앙인
쇄사, 1997.

다. 윷놀이(擲四戲)³⁷⁾

윷의 종류에는 길이 네치, 둘레 7~8푼으로 된 통나무를 쪼개서 만든 장작 윷과 길이 2cm, 둘레 1.5cm으로 된 통나무를 쪼개서 만든 밤윷이 있다. 장수에서는 주로 밤윷을 많이 사용한다. 윷을 놀 때에는 먼저 덕석이나 종이, 또는 땅바닥에 29개의 점을 찍어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윷판을 그려 놓고 양편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윷을 노는데 윷 네 짝의 하나가 뒤집어지면 '도(되)', 두 개가 뒤집어지면 '개', 세 개가 뒤집어지면 '걸', 네 개 전부가 뒤집어지면 '숫'이라 하고 네 개 전부가 앞어지면 '모'라고 한다.

윷을 놀아서 도, 개, 걸 등 나오는 대로 윷판에다 말을 쓰는데 눈(點) 하나 사이를 '한발'이라 하며, 도는 한발, 개는 두발, 걸은 세발, 숫은 네발, 모는 다섯발을 쓴다. 또 숫과 모가 나오면 '사리'가 나왔다고 기뻐하며 한 번 더 논다. 윷놀이를 녀(四)동치기라고도 하며 말 네 마리가 윷판 코스를 먼저 통과하면 이긴다. 코스에는 지름길이 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승패(勝敗)에 영향을 미친다. 말 한 마리가 가는 것을 '혼지' 두 마리가 가는 것을 '둑' 세 마리를 '석' 네 마리를 '막'이라 한다. 윷은 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놀이로서 멋이서 놀 수도 있고 여럿이 아주 흥겹게 놀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혼상제(婚喪祭) 등 대중이 모이는 곳에서 흔히 윷놀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윷놀이는 이미 신라(新羅)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본래는 농민들이 산농편(山農便)과 수경편(水卿便)으로 갈라서 승부다툼을 했는데 어느 편이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높은 땅에 잘 되는지 낮은 땅에 잘 되는지를 점치는 방법으로 윷놀이를 했다고 전한다. 윷은 단단한 박달나무나 대추나무로 만든 것을 제일로 친다.

라. 널뛰기(跳板戲)

널뛰기 놀이는 고려시대 이전부터 행해져 내려오는 풍습으로 길이 2~3m, 넓이 30cm, 두께 3~5cm 정도의 길고 두꺼운 판자를 짚단이나 가마니 같은 것으로 괴어놓고 양쪽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서로 발을 굴러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는 놀이이다.

그네뛰기와 더불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즐겨온 놀이로 음력 정초를 비롯하여 5월 단오와 8월 추석에도 많이 놀았다. 이름 그대로 '뛰기', 즉 몸을 활달히 움직이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뛰었다가 내려드는 힘의 반동으로 서로

변갈아 쫓는다. 널을 뿔 때 몸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널판 옆에 빨랫줄처럼 긴 줄을 임시로 설치해두고 한 손으로 이 줄을 쥐고 할 수도 있다. 옛날 여성들은 이 놀이로 씩씩한 기상을 길러왔고, 별다른 운동경기가 없던 시절의 신체단련에도 좋은 놀이였다. 여성의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던 옛날에는 끼리끼리 안마당에 모여 놀았고, 여성들이 모처럼 해방감에 젖어 놀 수 있었으며 특히 추운 겨울에 알맞은 놀이였다.

사대부집 처녀를 규수(閨秀)라고 한다. 규자(閨字)는 도장이라는 말인데 도장에 간혀 있는 여자라는 뜻이 말하듯 양반집 부녀자는 집 밖에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사방으로 높게 둘러쳐진 담장 밖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널뛰기 놀이는 외부세상의 풍물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양반가(兩班家) 내당(內堂)에서 즐겼던 놀이가 서민에게도 퍼졌다.

마. 연날리기(飛鳶)

연은 방패연, 봉어연, 문어연, 가오리연 등 종류가 다양하며 주로 음력 정월 달에 많이 한다. 특히 대보름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날리기 대회도 연다. 이 때 잘 날리는 사람은 실꾸리를 몇 개를 풀어서 연이 하늘 높이 치솟아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자새(얼레)를 감아 연을 내린다. 연을 높고 멀리 날렸다가 원상으로 회수하면 상을 주는데 찰밥을 상으로 바친다. 연싸움을 하는 수도 있는데 연과 연을 맞부딪치게 해서 연줄이 끊어지면 지게 된다.

상대방의 연줄을 잘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연줄에 돌가루나 구리가루를 바르기도 하는데 이것을 ‘괌치 먹인다.’ 고 한다. 정월 그믐쯤에 연에다 액(厄)이라고 써서 멀리 날려 일 년의 액운을 띄워 보내기도 하는데 이것을 ‘厄때움’ 한다고 한다.

바. 공치기

늦가을과 겨울, 이른 봄에 동네 청장년들은 아침이나 점심을 먹고 산으로 나무하러 가기 전에 추수가 끝난 논마당 구석에 지게를 반쳐 놓고 편을 갈라서 공치기놀이를 한바탕 한다.

공치기는 공이가 많이 박힌 나무를 공처럼 둥글게 깎아서 직경 7cm, 길이 120cm 정도의 나무 끝이 굽은 것을 골라 공채를 만들어서 공치기 시합을 한다. 논마당의 양쪽 끝에 문을 내고 문지기를 둔다. 친 공이 상대방의 골문에 많이 들어가면 이기는데 공이 골문에 들어가면 ‘나해’ 하고 용기 내어

고함을 지르기도 한다. 짚신감발하고 행전 매고 공치는 품은 아주 멋있다. 하키경기의 원형이라고나 할까.

사. 씨름(각희(脚戲), 각희(角戲), 각력(角力), 각저(角低))



씨름은 남정네들이 주로 하던 전통적인 민속경기중 하나이다. 모래바탕 위에서 두 장정이 옷을 벗은 채 잠방이만 입고 허리에 살바를 매고 손으로 상대방의 살바를 잡은 뒤 심판의 구령에 따라 동작을 개시해서 상대를 넘어 뜨리는 놀이이다. 기술로는 배치기, 등치기, 판죽걸기(輪起), 뒤집기, 무릎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씨름은 영남씨름이 드세지만 5월 단오, 8월 추석에는 동네마다 장정들이 편을 갈라서 씨름놀이를 한다. 제일 이긴 장사를 판매기라고 해서 상으로 송아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 지역에 ‘난장’이 터지면 씨름판이 벌어지고 사방에서 장사들이 모여서 한판 승부를 겨루기도 한다.

아. 그네뛰기(추천 鞦韆)

그네뛰기는 고려(高麗)때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민속놀이로 알려져 있는데, 씨름이 전통적인 남정네의 놀이라면 그네뛰기는 전통적인 아낙네의 놀이다. 동네 어구나 당산을 지키는 노거수(老巨樹)의 튼튼한 가지에 남정네들은 짚으로 꼬아서 만든 수십 발의 동아줄로 그네를 맨다. 특히 5월 단오 날에 아낙들은 창포(菖蒲)물에 감은 삼단같이 윤기 나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얇은 베로 지은 치마 적삼으로 갈아입은 뒤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남정네가 매어준 그네를 뛴다. 꼬꼬리와 빠꾸기 우는 녹음 사이로 바람을 헤치고 공중을

나는 추천녀(鞦韆女)의 모습은 천상에서 하강하는 선녀 모습 그대로이다. 이럴 때 남정네들은 그늘에 모여 앉아 농주(農酒)를 나누다가 점수를 겨누면서 입방아를 찧는가 하면 어떤 이는 뉘를 잃고 눈만 껌벅껌벅 하늘을 맴돌기만 한다.

자.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음력 정월 대보름에 행하던 놀이로서 한 동네서 상·하뜸(위·아래동네)으로 편을 나누기도 하고 도랑 이 편과 건너편으로 가르기도 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 줄다리를 한다. 이때에 심판은 동네 좌상(座上)이 상·하뜸에서 하나씩 나와 보는데 시험은 세 판을 해서 두 판을 먼저 이기는 즉 삼판양승을 먼저 거두는 쪽이 이기게 된다.

진편에서는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준비해 이긴 편을 대접하며 하루를 즐긴다. 요즈음에는 마을에서 대보름에 줄다리기를 하는 민속놀이는 보기 힘들고 학교 운동회 등 대회가 있을 때 부녀자들의 마을대항 줄다리기를 정도만 볼 수 있다. 이처럼 줄다리는 정초부터 마을 사람들의 심신을 튼튼히 하고 마을의 단합을 도와주는 좋은 민속놀이인데 마을에서 자주 볼 수 없음은 아쉬운 일이다.

차. 다리밟기(踏橋놀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다리밟기를 하는 놀이인데 이 날 다리를 밟으면 일 년 내내 병이 나지 않고 열두 다리를 밟으면 일년 열두 달 액을 면한다고 한다. 전하는 바에는 고려(高麗)때부터 성행하였다고 하며 남자들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은 16일 밤에 다리밟기를 했다고 한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양반들이 서민들과 함께 다리밟기를 꺼려해서 14일 밤에 답교(踏橋)를 했는데 이것을 양반답교(兩班踏橋)놀이로 했다. 세월이 점차 흐름에 따라 여자들의 다리밟기는 줄어들었다.

다리밟기를 할 때는 무작정 다리를 밟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나이대로 밟아야 한다. 가령 열 살짜리가 다섯 번 다리를 밟아서 왕복하면 열 번이 되는데 열한 살짜리는 여섯 번 왕복하면 열 두 번이 되므로 여섯 번째는 가서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다. 장수에서도 옛날에는 대보름날 밤에 답교놀이 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카. 달집놀이



음력 정월 대보름날 동네 청장정들이 뒷산에 가서 솔가지를 끊어다가 동네 어구에 있는 논마당 복판에 긴 막대기 서너 개에 끝을 묶어서 세운 뒤, 솔가지를 막대기 끝까지 차곡차곡 세워서 달집을 짓는다.

해가 지고 동천에 달이 뜰 무렵이면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달집에 모여 동천에 달뜨기를 기다린다. 달이 뜨면 마을사람들은 일제히 달을 향해서 절을 하며 풍년농사와 일 년의 무사태평을 빈 뒤에 준비했던 풍물을 치며 불 지핀 달집을 빙빙 돌면서 ‘망월이야!’ 하고 고함을 지르며 흥겹게 풍물놀이를 한다. 달집이 웬만치 타면 청소년들은 화에 불을 붙여 논밭두렁을 태우면서 쥐불놀이를 한다. 이때 이웃마을에서도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두렁을 태운다.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두 마을 청소년들이 햇불싸움을 하기도 하는데 이내 화합하고 농주를 나누기도 한다.

타. 꼬누(고누)놀이

꼬누란 땅이나 종이에 여러 가지 모형을 그려 놓고 서로 시합하는 오락놀이인데 장수에서는 ‘꼰’ 이라고 한다. 꼬누에는 우물꼬누, 네발꼬누, 육발꼬누, 열두발꼬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방법도 제각기 다르다. 잔돌, 나뭇가지, 풀잎을 말로 쓰는데 보통 상대방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거나 상대방의 말을 먼저 따내는 것으로 승부를 판가름한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기는 간단한 민속놀이이다.

파. 자치기 놀이

자치기는 어느 곳에서나 널리 행했던 청소년들의 놀이이다. 지름 2cm, 길

이 80cm 쯤 되는 막대기와, 지름 1.5cm, 길이 25cm 쯤 되는 막대기를 가지고 노는 놀이인데 넓은 공간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땅에다 흙을 파고 짧은 막대기를 흙 위에 올려놓고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멀리 떠낸다. 그러면 저쪽에 있던 사람이 떠낸 막대기를 잡아서 떠낸 사람에게 던진다. 떠낸 사람은 잡고 있던 긴 막대기로 짧은 막대기를 때려서 멀리 보낸다.

보내진 짧은 막대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잡으면 공격자와 수비자가 바뀌고, 때린 막대기를 못 잡고 땅에 떨어지면 때린 데서 떨어진 데까지 긴 막대기로 쥔다. 이 때 시합 전에 백자 내기, 오백 자 내기 등 미리 정하는데 정해 놓은 자(尺)내기를 먼저 쌓으면 이긴다.

하.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청소년들이 즐기던 놀이다. 놀이 방법은 엽전(葉錢)이나 동전(銅錢)을 종이나 비닐 혹은 형겔지로 싸서 구멍을 뚫은 다음 다시 구멍으로 빼낸 다음 가늘게 찢어서 술처럼 너풀거리게 한다.

이것을 한 발은 서 있고 또 한 발로 복숭아배와 발바닥 옆을 맞추어서 차 올리는 동작이다. 편을 갈라놓고 제기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어느 편이 또 누가 많이 차올리느냐의 내기를 하는데 한 번에 천개 이상을 차올리는 사람도 있다. 이 놀이는 요사이도 심심치 않게 행하는 것을 구경할 수 있다.

거. 술래잡기

술래잡기는 아이들의 놀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놀이로서 한 아이가 술래가 되어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인데 술래에게 잡히면 잡힌 아이가 술래가 된다. 술래가 눈을 감고 엎드려 있으면 아이들은 일제히 ‘꽁꽁 숨어라 술래에게 잡힐라. 술래에게 잡히면 다음 술래 차례 된다.’ 하고 일제히 숨는다. 술래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숨은 아이들을 잡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못 잡으면 몇 번이고 술래를 한다. 아이들은 이 놀이로 해가 저무는지도 모른다.

너. 강강술래

강강술래는 8월 한가위와 정월 대보름날 여자들이 하는 원무(圓舞)형식의 민속무용이다. 한가위와 대보름 등 둥근 달이 동천(東天)에 떠오르면 곱게 단장한 젊은 여자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수십 명이 원

진(圓陣)을 이루며 앞소리에 따라 '강강술래'라는 후렴을 화창(和唱)하며 발을 맞춰 춤을 춘다. 임란(壬亂) 때 이순신(李舜臣)장군이 왜군의 침입을 경계해서 창안했다는 민속놀이로서 남도지방에서 성행했는데 이 고장에서도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이나 팔월 보름 한가위에 강강술래를 부르며 술래놀이를 했다.

더. 돈치기(척전攪錢)

돈치기는 설이나 대보름 등 노는 때에 청소년들이 골목길 담장 밑 땅바닥에 동전이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 놓고 약 5~6m 거리에서 구멍을 보고 돈 내기 할 사람들이 각각 돈을 던져서 구멍에 돈을 넣은 사람이 나머지 돈을 전부 갖는 놀이도 있고, 선을 그려 놓고 선 밖으로 동전을 던져 놓고 5~6m 떨어진 곳에서 먹자(납작한돌)를 던져서 돈을 맞으면 맞힌 돈을 갖는데 이 때 아무 돈이라도 맞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정해 준 돈을 맞혀야 한다. 이 놀이를 마을 골목에서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민속놀이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러. 기타(其他)놀이

위에 적은 놀이 말고도 말타기, 팽이치기, 땅뺏기, 닭잡이, 패치기, 구슬치기, 비석치기, 딱지치기, 실뜨기, 공치기, 줄넘기, 팔씨름, 풀치기, 투전놀이, 화전놀이 등 많은 민속놀이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가 선용을 함으로써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조상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세태의 변화에 따라 대중의 화합놀이가 되지 못하고 연면(連綿)하게 극히 일부에만 전승되거나 자취조차 찾을 길이 없는 민속놀이가 많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3. 민속(民俗)³⁸⁾

풍속에는 세시풍속과 같이 일정한 날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하여 개인 또는 집단적인 명절로서의 뜻있는 행사를 하는 풍습과 일정한 날이건 아니건 간에 점술적(占術的), 기구적(祈求的) 성격과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는 풍습 등이 있는데 다음은 장수에서 성행했던 민속을 살펴보기로 한다.

38) 장수군, 《장수군지》, 남원 중앙인쇄사, 1997.

가. 복조리(福策)

복조리장수가 설달그믐께 복조리를 팔러 다니면 두 개를 사서 두었다가 그믐날 자정이 지나서나 설날 새벽에 큰방 문지방 위에다 걸어놓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복조리라 한다. 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로서 그 해의 행복을 일궈서 담게 해 달라는 기구적(祈求的) 뜻에서 행하여 졌던 풍속이다. 정월 대보름날 복조리에 찰밥을 얻어다 먹으면 더위를 안 먹는다고 해서 동네 아낙들이 복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찰밥을 얻어다 먹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 집 노인에게 무병 건강하라고 하며 대접하기도 한다.

나. 나무시집 보내기(가수嫁樹)

설날 아침에 집안에 심어져 있는 과실나무에 그해 과실이 많이 열려서 과실 풍년이 들라는 데서 나온 풍속이다. 과실나무 가지에 돌을 끼워두면 과실이 많이 열린다고 해서 설날 아침에 집에 있는 과수(果樹)마다 돌을 끼우고 다닌다.

다. 쥐날(상자일上子日)

정월 첫째 자(子)일을 쥐날이라고 하며 이날 방아를 찧으면 그 해에 쥐가 없어진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밤중에 부녀자들이 빈방아를 찧기도 한다.

라. 보리뿌리 점(占)치기(맥근점麥根占)

그 해의 풍흉년을 알아내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보리 뿌리로 점을 쳤다. 입춘날 보리를 뽑아서 새 뿌리가 세 가닥 뻗었으면 풍년, 두 가닥이면 평년(平年), 한 가닥이거나 한 가닥도 뻗지 않았으면 흉년 들겠다고 믿었다.

마. 득신(得辛)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 몇일 째에 신일(辛日)이 들었는가를 따져서 초하룻날이 신일(辛日)이면 1일 득신(得辛), 초닷새 날이면 5일 득신(得辛), 초열흘 날이면 10일 득신(得辛)이라고 하는데 농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농민들은 믿었다. 즉 1일 득신(得辛)처럼 득신(得辛)이 너무 짧으면 벼이삭은 쉽게 고개가 지나 벼이삭의 갯수가 적고, 10일 득신(得辛)처럼 득신(得辛)이 너무 길면, 벼이삭은 늦게 고개가 지며 쭉정이가 많고 잘 여물지 않기 때문에 5일 득신(得辛)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그래서 득신(得辛)이 짧으면 늦벼를, 득

신(得辛)이 길면 올벼를 심어서 풍년농사를 기약하는 지혜가 우리 조상에게 있었다.

바. 용치수(龍治水)

음력 정월 맨 처음의 진일(辰日)이 초하루에 들면 일용치수(一龍治水), 초사흘이면 삼용치수(三龍治水)라고 하는데 용(龍)이 많으면 비가 많으며 폭우가 오기 쉽고, 용(龍)이 적으면 비가 적어서 가물기 쉽고, 용(龍)이 짝수가 되면 서로 니룽내룽 미루어서 비가 적기 때문에 삼용(三龍)이나 오용치수(五龍治水)가 풍년이 든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 해의 책력(冊曆)을 보면 득신(得辛)과 치수(治水)가 적혀있다.

사. 칠성제(七星祭)

음력 정월 초이렛날 칠성신(七星神)을 모신 칠성당(七星堂)에 드리는 제사다. 칠성신(七星神)은 인간의 명(命)과 복(福)등 인사백반(人事百般)을 주장하는 영력(靈力)을 가졌다 하며 일 년 내내 집안의 무사태평과 자녀의 무병건강 하는 일들이 소원성취 되도록 기원하는 것으로서 여자들이 밤중에 행한다.

아. 곡식날(穀日)

음력 정월 초여드레(八日)를 곡식날이라 하며 일년 농사를 점친다. 점치는 방법으로 수수대를 둘로 갈라서 연한 부위에 콩이나 팥을 1년 월수(月數)대로 12개를 박아서 물속에 넣어두었다가 한 시각 뒤에 살펴보면 물에 불려진 콩이 있는 달은 농사가 잘 되고, 불려지지 않은 달은 농사가 실통치 못할 징조라고 믿었다.

자. 개보름쇠기

사람이 명절이나 경사 때 잘 먹고 뜻있게 넘기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허송해 버리는 것을 ‘개 보름 쇠듯 한다’고 한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개에게 밥을 주면 파리가 똥을 뿐 아니라 병이 생겨서 파리해진다는 전설 때문에 개를 굶기는 풍속이 있는데 잘 먹어야 할 명절에 오히려 더 잘못 먹는 데서 나온 비유다.

차. 달맞이 점(占)치기

음력 정월 대보름날 농가에서는 초저녁에 동산에 올라가서 떠오르는 달 빛을 보고 그 해의 풍흉을 점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고, 희면 장마진다고 믿었다 또한 떠오르는 달의 대소(大小)와 고저(高低), 둥글고 둥글지 않는 것으로도 점을 치는데 크고 둥글면 풍년, 작고 기울어졌으면 흉년이 들며, 북쪽으로 치우치면 두메산골이, 남쪽에 치우치면 들녘과 해변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카. 더위팔기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해뜨기 전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마을의 친구집을 찾아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른다. 친구가 무심결에 대답을 하면 ‘네 더위 내 더위 맞더위’ 하며 더위를 판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약간 화가 나서 ‘네 어미 가래더위’ 하는 등 욕설 섞인 더위 팔기로 응수하기도 한다.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더위 먹지 않고 무병하게 한 해를 넘기게 된다는 것이고, 더위를 사면 여름에 더위를 먹고 고생한다고 해서 서로가 팔려하거나 안 살려고 하거나 하며 실랑이를 하게 된다. 더위팔기는 해뜨기 전에 더위를 팔아야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른 아침에 더위팔기를 한다.

타. 부럼깨기

음력 정월 대보름날 해뜨기 전에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밤, 호두, 잣, 은행 등을 ‘부럼깨자’ 하며 소리 내어 바짝 깨무는 것을 ‘부럼깨기’라고 한다. 이날 아침에 생밤, 호두 등을 깨어 먹으면 일 년 내내 몸에 부스럼(부럼)이 나지 않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다는 비방이라고 믿었다. ‘보름’이라는 말이 ‘부럼’이라는 말에서 연유됐다는 설도 있다. 이 날 아침에 마시는 술을 귀밝이 술(이명주耳明酒)이라고도 한다.

파. 나무그림자 점(占)치기(木影占)

나무그림자로 그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달이 중천에 뜨면 농가에서는 마당 가운데에 길이 30cm가량의 나무를 세워 놓고 그림자가 26cm가 되면 비와 바람이 골라서 풍년이 들고, 20cm가량이 되면 평년작(平年作), 16cm가량이 되면 흉년(凶年)이오, 13cm가량이 되면 화재(火災)가 있으며 10cm 정도면 곡식이 잘 여물지 않는다고 한다.

하. 단오부적(天中符籍)

가정에 불길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5월 단오(端午)날 주사(朱砂)로 글을 써서 문기둥에 붙이는 부적(符籍)인데, 관상감(觀象監)에서는 단오날 천중적부(天中赤符)라는 부적을 박아서 궤내(關內)에 돌려 문기둥에 붙였다.

이런 풍습이 지방에까지 전파되어 농가에서도 글줄이나 하는 집에서는 단오부적을 써서 문기둥에 붙이기도 했는데 원래는 한(漢)의 풍속으로서 단오(端午)날 도인(桃印)으로 악귀를 제거한다는 데서 유래됐다 한다.

거. 단오(端午)비녀

사귀(邪鬼)를 없앤다는 여자들의 풍속으로 단오 날 창포(菖蒲)물로 머리를 감고 목욕한 뒤에 붉고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수복(壽福)이라고 두 글자를 새기고, 끝에 연지를 바른 창포(菖蒲)뿌리로 만든 비녀를 꽂았다.

너. 사람날(人日人日)

음력 정월초이레(7 일)를 사람날이라고 한다. 이날 사람들은 가급적 원지출행(遠地出行)을 삼가하고 농가에서는 집에 땔 나무가 없어도 산으로 나무하러 가지 않고 글줄이나 하는 집에 가서 토정비결(土亭秘訣)등 신수를 보면서 하루를 편히 쉰다. 또한 이날 생떡국(생쌀을 물에 담가서 가루를 만든 뒤에 물에 이겨서 만든 떡을 끓인 국)을 끓여 먹으면 일 년 내내 머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오시(午時)에 생떡국을 끓여 먹기도 한다.

더. 쯔생이

음력 2월 초엿새(6 일) 밤에 쯔생이라는 별을 보고 그해의 풍흉을 점치는 것이다. 쯔생이는 7~8개의 작은 별이 웅기중기 모여 있는 별무리이다. 2월 초엿새 날 저녁에 서쪽 하늘을 보면 쯔생이라는 별무리와 2월의 초승달을 볼 수 있다. 달이 쯔생이를 마포두필(麻布二疋：一疋은 약6.6m)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달이 쯔생이를 바짝 따라가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달이 쯔생이를 앞질러 가면 풍수해(風水害)가 심하다고 믿었다. 농사를 주업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이 대자연의 현상을 면밀히 살펴서 미리 미리 풍흉에 대비했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러. 두레



예전부터 농촌에서 남자는 논매기, 여자는 길쌈을 목적으로 해서 마을 단위로 협동체를 조직, 공동작업을 하는 것을 두레라고 한다. 그 우두머리를 좌상(座上) 또는 영좌(領座)라고 하며 그 밑에 간사격(幹事格)인 공원(公員)이 있어서 두레의 모든 일을 맡아 본다. 또한, 공동작업인 두레논을 땀 적에는 큰 기는 길이 약 6.6m, 폭 2m 가량 되는 베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쓴 두레기(旗)를 논두렁에 세운다. 말을 타고 길을 가던 사대부(士大夫)도 두레기 옆을 지날 때는 말을 내려서 농민들을 격려하고 지나간다.

또한, 중간 작업이 끝나면 농주(農酒) 등 새참을 먹고 풍물을 치며 흥을 돋운다. 이웃끼리의 두레에는 선후가 있어 우열(優劣)의 세(勢)에 따라 선생(先生)두레, 제자(弟子)두레, 혹은 형두레, 아우두레라 하여 기(旗)로서 예(禮)를 표한다. 두레는 충청도(忠淸道)이남에서 성했으며 한 마을이 협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작업능률의 향상, 마을 공동자산의 축적, 마을 사람들의 근면성의 함양 등 두레는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두레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 점차 쇠진해졌는데 지금도 공동작업을 두레라고 한다.

머. 만두레

만두레는 두레의 일종으로 농절(農節)에 농군에 의해 조직되는 공동작업체를 일컬으며 농사를 효율적으로 영농하기 위해서 전라도(全羅道) 지방에서 성행한 풍속으로서 농가당 한 사람씩으로 두레군을 만들어 마을의 농사를 공동작업으로 실시하게 된다.

일이 끝나면 당초 약속대로 두락 당 얼마씩 수입하여 두레군의 노동일수

(勞働日數)에 따라 각자에게 지불하고 잉여금의 일부는 두레군의 놀이 비용에 충당하며 나머지는 동네 공동자금으로 귀속된다.

만두레의 장점으로서는 공동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농률이 올라서 주인에게도 이득이 가고, 근로자 소득 외에 두레군의 흥겨운 단합비용과 마을의 공동자산을 축적해서 마을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버. 겉교(乞巧)

음력 칠월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하던 풍습으로 일명 겉교전(乞巧奠)이라 한다. 부녀자들이 칠석날 밤에 견우(牽牛)와 직녀성(織女星)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잘 하는 재주를 빌기 위해서 침루와 사과 등을 두 별을 향해서 차례놓고 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직녀성(織女星)이 천상(天上)에서 베 짜고 길쌈하는 일을 맡아 했다는 전설에서 연유한 듯하며, 고대(古代) 중국(中國)에서 행하던 풍속이 우리나라 민속으로 전한 듯한데 중국(中國) 송대(宋代)에는 7월 6일 밤에 겉교전(乞巧奠)을 행했다고 전한다.

서. 납일(臘日)

동지(冬至)후 셋째 술일(戌日)로 가평절(嘉平節)이라고도 한다. 나라에서는 이 날 새나 짐승을 잡아 종묘사직(宗廟社稷)에 공물(供物)로 바쳐서 대제(大祭)를 거행하는데 이를 납향(臘享)이라고 한다.

민가에서도 이 날 새를 잡아 어린이에게 먹이면 악창(惡瘡)이 낫는다 하여 새를 잡아먹는 풍속이 있다. 납일을 정하여 행사한 역사는 오래된 듯하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한(漢)과 위(魏)에서는 진일(辰日), 송(宋)은 술일(戌日), 진(晉)은 축일(丑日)을 납일(臘日)로 삼은 듯하다. 음력 선달(12월)을 납월(臘月)이라고도 부르는데 납일이 선달에 들기 때문이다.

어. 동제·산제(洞祭·山祭)

우리의 선조들은 자기조상을 숭배함은 물론 부족사회나 민족사회의 공동신(共同神)을 숭앙하였음을 여기 저기서 엿볼 수 있는데 부여(扶餘)의 영고(迎鼓), 동예의 무천(舞天), 삼한(三韓)의 소도(蘇塗) 고구려(高句麗)의 동맹(東盟) 등이 그것이다. 그 뒤에 점차 개인의 증가와 인지(人智)의 발달로 인해서 씨족적 친소(親疏)와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로 수십 호에 이르는 취

락이 형성되면서 동제화(洞祭化)했다.

이렇게 동제(洞祭)는 생활 터전과 생활 조건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마을에서 그들의 생활에 위협하는 災厄을 없애고 행복을 희구하는 마음에서 절대자인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동네의 안녕을 위협하는 역신(疫神)과 악귀(惡鬼)의 범접을 못하게 하고 오곡의 풍작을 이룩해서 동네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뜻으로 오랜 동안 연면(連綿)해오고 있다.

우리의 조상들은 신을 자연과 인간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절대자로 생각했다. 지금도 옛날 부족사회 샤머니즘의 전통을 이어 신앙적 차원에서 동제(洞祭)를 잘 모시면 액(厄)을 면하고 풍년이 든다는 생각에서, 악귀는 물러가고 신은 즐거워 한다는 풍물을 치며 동제(洞祭)를 모시는 데도 있다. 옛날에는 많은 마을이 동제(洞祭)를 지냈는데 세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신앙적 풍습인 동제(洞祭)가 여러 마을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동제(洞祭)에는 당제(堂祭), 당산제(堂山祭), 거리제(距里祭), 장승제(長承祭), 조합제(造塔祭) 누석단(累石壇) 정제(井祭), 수신제(水神祭), 산신당제(山神堂祭), 성황당제, 여제(厲祭)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우리 고장에서는 동네마다 수호신이 다르고 제일(祭日)도 정월 초사흘이 많고 정월 보름, 삼월삼짇날, 구월귀일, 선달그믐 등 그 시기가 다양하고 제주(祭主, 官)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맡는 동제(洞祭)도 있다.

다만 통일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은 남녀간에 정결한 사람을 제주로 선정하고 선정된 제주는 제일(祭日) 며칠 전에 목욕재계하고 집안에서 껌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며 근신하고 있다가 제일(祭日)이 되면 다시 목욕한 뒤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동제(洞祭)를 주관한다. 제주(祭酒)는 정결한 집에서 양조(釀造)를 하는데 술맛이 시다든지 변질이 되면 제계(齋戒)가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술을 빚어 넣고 제일(祭日)을 다시 받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제수(祭需)도 깨끗이 장만하여 제단에 차려야 한다.

만일 부정(不淨)을 타면 마을이 해를 입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나 제수(祭需)를 장만한 사람이 해를 입는 수가 있기 때문이란다. 제물에는 반드시 돼지 머리를 마련해야 한다. 제(祭)를 모시는 곳은 며칠 전부터 깨끗이 청소하고 황토(黃土)를 뿌리며 원새끼를 꼬아 군데군데 문종이를 꽂아서 만든 금기줄(禁忌線)을 주변에 둘러쳐서 신성한 위치를 표시하고 불결한 사람이 범접(犯接)하지 못하게 한다.

제례(祭禮)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천찬(薦饌), 독축(讀祝)의

39) 장수향교, 《장수향교지》,
향지문화사, 2001.

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관(祭官)이 몇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제수(祭需)비용은 동재(洞財)로 충당하기도 하고 동민(洞民)이 거출하기도 하는데 상가(喪家)나 출산한 집 등 부정한 집은 뺀다. 동제축문(洞祭祝文)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 동산제 축문(洞山祭祝文)의 한 예를 적어 본다.

1) 동산제 축문(洞山祭祝文)³⁹⁾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유세차간지모월간지삭모일간지

本里居民選勵幼學姓名敢昭告于土地之神伏惟尊神代天宣化鎮我一方埤民有造
본리거민 선존유학성명 감소고우토지지신 복유 존신 대천선화 진아일방 비민유조
使安而樂維神之賜使飽而暖惟神之佑導民至德加民惠澤顧雖甚迷詎昧神功
一里洞廟

사안이락 유 신지사 사포이난 유 신지우 도민지덕 가민혜택 고수심미 거매 신공
일리통축

思殫其躬報祀及辰 惟月之正牲酒雖薄 寔出坭誠 惟神降格 庶鑑愚衷望垂祐克有
始終

사탄기궁 보사급신 유월지정 생주수박 식출미성 유 신강격 서감우충 망수묵우 극
유시종

尙饗

상향

40) 오종근, 《장수의 민속문
화》, 익산 서진인쇄,
1988.

2) 장수군의 동제(洞祭) 현황⁴⁰⁾

가) 장수읍

(1) 신리마을(새물)

이 마을 뒷산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둘레는 2.05m 이고 제단은 없다. 이 것이 당산나무인데 이 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 새벽에 인적이 없을 때 한 분의 할머니께서 당산제를 지낸다. 제물로는 조기, 밥 한 그릇, 마른명태, 사과, 배, 떡, 막걸리 등을 올리고 제관(祭官)은 할머니께서 혼자서 이 제물을 장만하여 지성스럽게 지낸다. 당산제를 지낼 때는 언제나 몸을 청결히 하고 비용은 말할 것도 없이 할머니 혼자서 지내는데 금년부터는 마을에서 조금씩 거출하여 준다. 당산제가 끝나면 술을 동서남북 조금씩 붓는다. 원래는 이 마을에 큰 인물이 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할머니의 소원

이 곧 마을의 소원이기에 동네에서도 지원한다 하니 아마도 공동체 신앙의 목적은 이것에 있다고 하겠다. (김삼례, 여, 77세)

(2) 대리마을(큰물)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과거에는 잘 지냈다. 5년 전쯤까지는 지냈는데 근래에 와서는 지내지 않는다. 과거에는 마을 앞에 있는 당산 당산제를 지냈다. 이 당산에는 소 헛바닥처럼 여러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정상에는 평지모양으로 평평하게 되어있어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흥겹게 놀기도 했다. 보통 제관(祭官)은 나이 많고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제물로는 돼지머리, 밥, 과일, 떡, 술 등을 제관(祭官) 집에서 장만하여 정월 대보름날 조반 먹고 10시 정도에 당산제를 지냈다. 당산제를 하면서 풍물놀이도 하였는데 지금은 인구의 감소와 젊은 청년들의 감소로 풍물놀이도 하지 않는다. 한때는 당산나무를 부엌 쏘시개로 쓴 사람이 죽을 뻔 한 일이 발생하여 그 뒤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다. (조귀문, 남, 70세)

(3) 중리마을

이 마을에는 마을 앞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5그루의 당산나무 가운데 가장 큰 당산나무는 둘레가 2.12m이다. 수종은 귀목나무로 약 200~300년 정도 된 나무인데 마을 앞 개울가 건너서 놀이터에 접해 있다.

과거에는 당산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지낸다. 그리고 당산제 대신에 8월 15일에 동네별로 이곳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그날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놀이를 하고 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공동체 놀이 날로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 또 그때는 윗동네, 아랫동네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흥겹게 하루를 즐긴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산제를 지내던 모습에서 이제는 조금씩 변모해 가는 모습으로나마 공동체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판둔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마을 입구 오른쪽에 수종은 귀목나무인데 수령은 150년 정도 된 것으로 둘레가 2.03m이다. 보통 정월 대보름날 저녁 5시 정도에 당산제를 지냈는데 제물은 팔죽, 돼지머리, 과일, 떡, 밥 등이 진설되고 술 등도 올린다. 당산나무에는 제단도 마련되어 있는데 당산제 비용

은 마을공동으로 거출하여 충당하였다. 지금은 마을 사람들의 이동과 젊은 사람들의 도시 진출로 그것마저도 어려워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다. 대개 목적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고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다.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거출하여 음식을 장만하는데 사용되었다. 과거에는 전답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치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 두었다. (강선임, 여, 82세)

(5) 새터마을(신기)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없다. 다만 당산이 마을 뒷산에 있다. 주로 정월 초하루 아침 10시 정도에 마을 사람들이 당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 과일, 밥 등을 진설하고 제관(祭官)은 동네에서 어른들로서 선출하여 제관(祭官)을 맡도록 하였다. 지금은 돌아가면서 지낸다. 특히 당산나무가 없지만 나무 하나를 지정하여 그곳에서 주로 지냈는데 거년에는 마을 뒷산 당산, 소나무 아래에서 지냈다. 둘레는 2.2m 정도이고 특히 쇠소리는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여 풍물놀이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간혹 지낸다고 하여 시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을 알 수 있다. (손승조, 남, 72세)

(6) 노하마을

장수읍에서 서북쪽으로 거의 맞붙어 있는 마을인 노하마을은 음력 정월 초사흘 밤에 마을의 주령인 청룡인 동쪽 논에서 지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마을의 북쪽에 있는 당산 숲에서 이월 초하루 영등에 오리형 솟대를 높이 세우고 그 옆에 목장승 한 쌍을 세워, 허한 마을의 북쪽을 수호하는 벽야신으로 받들어 왔었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끊겨 버렸으며 수백 년 된 귀목, 참나무, 팽나무 등 우거진 숲은 지금도 무성하다.

특히 제관(祭官)과 축관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목욕재계, 외출금지, 어육불식 등의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 했고 우물을 깨끗이 치워 정한 물로 제수를 장만하였고, 비용은 동네 재산에서 공동으로 장만하였고 제수로는 돼지머리를 반드시 장만하였고 상중이거나, 월경중인 자는 제외되었다. 옛날에는 제사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골고루 떼어 제단 밑에 묻었다. 중천제라고 부르는 당산제의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不支幾月干支朔初三日干支幼學 〇〇〇 敢昭告于 中天之神 維茲歲元 萬物就
新 神依于人

人賴干神 風雨順調 百災屏去 萬祥泰陳 稼穡充盈 敬止仰止 神賴神休 敢以酒果 虔
告謹告 尙 饗

(7) 원대성마을

마을의 재앙을 없애기 위해 산제를 정월 초사흘 새벽 4시경에 먼저 지내고 지낼 때는 일반제사와 같이 제물을 장만하고 제관(祭官)도 선정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선발하여 제관(祭官)으로 삼는다. 당산나무는 느티나무로 수령은 35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5m30cm 이다. 대개 제물과 제관(祭官)은 한 집에서 하는데 간혹 제관(祭官)과 제물을 따로 장만하기도 한다. 그런 다음에 산제가 다 끝나면, 당산제를 정월 보름 저녁 7시~10시에 제를 지낸다.

산신제와 당산제의 제관(祭官)은 서로 다른데,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분으로 나이가 지긋하고 활동 가능한 분이어야 한다. 제관(祭官)은 사흘 전부터 목욕재계하는데 굶은 것(죽은 쥐, 개)을 보지 않아야 한다.

마을에서는 각 가정에서 쌀 한 되 정도를 걷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제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밤, 대추, 꽃감, 막걸리, 나물 등이 오른다. 특히 산신제를 모실 때는 특별한 때 아니면 제관(祭官)이 혼자 제물을 지고 산에 올라 제를 올린다. (김종문, 남, 67 세)

(8) 덕산마을

마을에 예전에 귀목나무가 있었는데 60여 년 전에 나무를 베어 사람이 많이 죽었다. 지금은 마을 뒷산에 음력 삼월 삼짇날 새벽에 제를 모신다. 마을의 피해가 없으라고 제를 지내는데, 제관(祭官)은 깨끗한 사람으로 초상이 없고, 애 낳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아야 한다. 제관(祭官)은 냇물에 목욕재계를 하고 제를 올린다. 제물은 마을에서 10만원 정도를 걷어 마련하는데, 돼지머리, 떡, 술(소주), 과자, 명태, 조기, 나물, 과일 등이 오른다. 이 제물은 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나누어 먹는다. 목적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모두가 무사태평하기를 비는 뜻에서 제사를 지낸다. 지금은 당산나무를 베어 버린 탓에 당산나무가 없지만 가끔씩 당산제를 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내지 않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다.

(9) 동촌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두 그루가 있다. 마을 뒤횥에 있는 것이 윗당산이고 마을 아랫 쪽에 있는 것이 아랫당산이라고 하는데 윗당산은 귀목나무로 둘레가 2m 정도이고 제단이 없으며 이곳에는 그만그만한 나무들이 8그루가 서 있다. 그리고 아랫당산은 마을 입구 오른쪽에 서 있는데 제단이 있으며 둘레는 2.5m 정도이고 수종은 귀목나무이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 저녁 12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지낸다. 제물은 과일, 건포, 밥, 떡 등인데 이는 각각 차려서 윗당산과 아랫당산에 진설한다.

제관(祭官)은 깨끗하고 나이가 지긋하고 환갑, 진갑 다 넘긴 사람이 맡아서 한다. 특히 제물을 장만하는 사람은 한 달 전부터 공들이고 선달그믐께 한지 끼우고 지성으로 몸을 청결하게 한다. 당산제는 윗당산에서 시작하여 아랫당산으로 내려와 당산제를 끝맺는데, 당산제는 원래 이 마을의 여러 경우를 둘러본 무당이 당산제를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당산제가 끝나면 제물을 조금씩 떼어서 땅에 묻는다. (윤창섭, 남, 72세)

(10) 음선마을(옛날명칭:陰光)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마을 입구 오른쪽에 서 있는데 수종은 소나무이고 수령은 200~300년 정도 된 것으로 둘레가 2.04m이며 둘레에 금줄이 둘러있었다. 보통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 저녁 6시에 지내는데 제관(祭官)은 겨울에 지명하여 지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제관(祭官)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다른 이유는 당산제를 지내고 그해 불길한 일이 생기면 모두가 제관(祭官)에게 타박이 생기고 책임을 져야하는 혹독한 시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용은 당제답(堂祭畓)을 짓는 집에서 일체를 준비하는데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위한 전답으로 논 200평과 밭 200평이 있어 이를 경작하는 집에서 우물을 청결히 하고 묵은 물을 퍼내고 새 물로 제물을 장만한다. 모자라는 것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충당하였고, 조탑(造塔)에는 팔죽을 뿌리기도 했다. 제물은 돼지머리, 떡과 밥, 조기, 과일 등을 제단에 놓았으며 제관(祭官)은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조심했다. 과거에는 무당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나 지금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며 누구나 촛불과 소지로 소원을 비는데 부녀자들의 참여가 많다. 소리지 축원의 내용은 무병·제액·자녀들의 길복과 풍농의 축원이 대부분이다.

두 조탑(造塔) 사이에 제상을 차리고 지내는 조탑(造塔)제가 끝나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굿판을 벌여 노는데, 당산제가 깨끗하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부족하면 마을에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데 옛날에는 호환(虎患)이 있었다고 하며, 그런 일이 있으면 당산제를 다시 지냈다. (최형식, 남, 57세)

(11) 구락마을

마을 뒷산의 소나무가 뒷당산이고, 마을의 정 중앙에 있는 귀목나무가 중간당산(中天)이다. 귀목나무의 둘레는 7m10cm로 그 수령은 500년 이상이고 그 나무 앞에는 제단이 만들어져 있다. 제는 정월 초사흘 밤 12시 정각에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부정 타지 않고, 깨끗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발라서 남의 본보기가 되는 어른을 제관(祭官)으로 모셔 제를 올린다. 제관(祭官)은 절대 굶은 일을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며, 사흘 전부터 뒷당산 옆에 있는 샘에서 목욕을 하고 제일에 제를 올린다.

제물은 마을 소유의 전답(5마지기 정도)에서 쌀 한 가마 가량을 주어 마련하는데, 제물로는 돼지머리, 떡, 삼색실과, 술(막걸리), 탕(홍합 새우탕, 명태탕, 육탕), 명태, 나물 등 일반 가정에서 제를 모실 때 쓰는 제물과 같다. 이때 제물을 여자도 함께 장만하지만 제사를 모실 때는 참석하지 못한다 한다. 제를 지낸 후에는 풍물을 치며 마을을 돌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예전에 제를 거른 적이 있었는데, 마을에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가족이 자주 죽어 그 이후로는 절대 거르지 않는다. (황영근, 남, 84세)

(12) 송천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이 앞당산과 중간당산 둘이 있는데 모두 귀목나무이다. 앞당산은 둘레가 5m30cm로 약 400년 정도 되었고, 중간당산은 둘레가 5m30cm로 약 400년 정도 된 나무이다. 두 나무가 아직도 금줄이 쳐져 있었다. 1년을 잘 넘기고 마을을 위해 음력 정월 초사흘 밤 12시에 당산제를 지낸다.

제관(祭官)선정은 예전에는 생계가 곤란한 집에서 제를 모시기도 했었다. 그 후 마을 전답(600평)이 주거지로 되어 그 땅에 집을 짓고 사는 다섯 가구가 돌아가면서 한 집 혹은 두 집씩 제를 모셨었다. 그 다섯 집에서 나락 두 가마(쌀 한 가마)를 내고 마을 공동기금에서 15만원을 내어 제물을 준비했는데 현재는 마을전답을 임대해주고 받은 임대료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제

사를 준비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 사과, 배, 명태, 밤, 꽃감, 대추, 과자, 술(막걸리), 떡, 나물 등이 오른다. 제가 끝나면 제물을 남자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이 당산제가 끝난 후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특히 정월초 칠일에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서 팔과 쌀을 모아 팔죽을 쑤어 동네어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팔죽을 뿌려 잡귀를 몰아내는 의식을 행하면서 풍물놀이를 한다. 그리고 남은 팔죽을 부녀자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13) 진다리(이교)마을

마을 입구 좌측 마을 회관 앞의 귀목나무가 앞당산이고, 마을 뒤의 산이 뒷당산이다. 제단이 있는 앞당산은 둘레 3m70cm, 수령 300년 정도로 정월 초사흘 초저녁(7시경)에 제를 지내는데 산신(호랑이)이 산에서 제 지내는 것을 지켜보고 만일 정성이 부족하면 개를 물어가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거나 울부짖는 등 동네에 해를 끼치기도 했다 한다. 제관(祭官)은 굿은 일을 하지 않고, 굿은 집에 가지 않은 부정타지 않은 나이 지긋한 사람이 되는데, 제물로는 집에서 담근 막걸리(요즘은 산 것을 씀), 닭, 배, 사과, 고사리, 취나물, 명태, 조기, 마른 상어 등이 올라간다. 제물 마련은 마을 전담(5~6마지기)에서 나온 것으로 한다. (오남용, 남, 82세)

(14) 용추동 마을

마을을 흐르는 내(川)를 따라가면 마을 중간 정도에 귀목나무가 있는데 둘레가 6m30cm로 수령은 300년 이상이다. 예전에는 정월 초이레에 마을의 액을 물리치고 동네가 깨끗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제를 올렸다.

제를 잘 모시지 못해 마을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한다. 제물은 아주 간단히 올렸는데, 사과, 배, 팔죽이 올라갔다 한다. 제관(祭官)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초상 입지 않고, 애 낳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을 선정했다. 제관(祭官)이 직접 왼새끼를 꼬아서 금줄에 한지를 꿰고 당산에 건다. 집집마다 쌀과 팥을 성의껏 건어서 팔죽을 쓰는데 걷는 사람 역시 깨끗해야 한다. 제를 지낸 후 여자들(20명 정도)이 풍물을 울리면서 잡귀를 쫓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며 팔죽을 뿌리고 그 것이 끝나면 음식(팔죽)을 나누어 먹는다. 목적은 동네의 잡귀를 몰아내고 재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데 제관(祭官)은 여자가 맡는다. (임옥균, 남, 57세)

(15) 안양마을

마을 뒤 숲에 뒷당산이라 불리우는 둘레 2m40cm의 귀목나무가 있다. 정월 초사흘 저녁 9시경에 동네 종으라고 제를 올리는데, 만일 안 좋은 일로 이 때 못 지내면 다음달 3일에, 또 못 지내면 그 다음달 3일에 제를 지낸다. 제관(祭官)은 정갈하고 부정 안 탄 사람으로 선정하고, 제관(祭官)과 음식을 마련하는 사람의 집에 금줄을 치고 3일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곳에 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제물을 동네 청년회에서 마련하는데, 제물에 비린내가 나는 것은 절대 올리지 않고 돼지머리, 피문어, 떡, 술, 조기, 죽상어, 꽃감, 대추, 밤, 마른명태, 과일, 나물 등이 오른다. 제물은 제가 끝난 후 나누어 먹는다. 제는 뒷당산에서 시작해서 앞당산(조탑(造塔))으로 옮겨간다. (박점동, 여, 74세)

(16) 용계마을

마을 입구에서 우측으로 100m 지점에 당산이 있는데, 수종은 귀목나무인데, 둘레 3m36cm, 수령 300년 가량의 돌로 된 제단이 있다. 음력 정월 초사흘 저녁 7시에 동네의 화목과 농사의 풍년을 위해 제를 올린다. 제관(祭官)은 70세 가량의 남자 노인으로서 초상집을 출입하지 않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 등 깨끗해야 한다. 제관(祭官)이 직접 끈 원새끼로 금줄을 치는데, 금줄에는 한지와 마른명태를 끼운다.

제물로는 일반 제사에 오르는 제물과 비슷한 술(청주), 돼지머리, 떡, 배, 사과, 밤, 대추, 꽃감, 시금치, 고사리, 산적, 명태, 조기 등이 오른다. 마을 전답(11마지기 정도)과 마을 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제를 시작하기 전에 제관(祭官)의 집에서부터 당산나무까지 풍물을 울리면서 가고, 제 후에는 풍물을 치며 동네를 돈다. (장수자, 여, 74)

나) 산서면**(1) 원흥마을**

원흥마을은 예전에 차씨가 많이 살았으나 마을에 전염병인 홍역이 마을에 전염되어서 마을에 사는 차씨가 하나 둘씩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지금은 차씨가 존재하지 않고 육씨가 이 마을 대부분이 되어 있다. 원흥마을에는 옛날에 당산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다른 마을이 당산제를 지내지 않아도 마을의 재앙이나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10여 년 전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다한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 밤 10시부터 지내는데, 마을입구에서 정면으로 100여m지점에 있는 귀목나무에 제를 지낸다. 당산나무의 둘레는 2m78cm이며 이 나무의 수명은 200여년 가량 된다.

이렇게 마을에서 당산제를 모시는 이유에는 마을에 들어오는 악귀를 제거하고 마을의 안녕과 당산나무에 이 마을의 풍년을 바라는 마음에서 지냈으며, 마을에 있는 제액을 방지하려는 마을주민의 간절한 소망으로 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렇게 밤 10시경에 당산제를 지내고 이 마을에서는 11시 정도에 마을사람들이 제물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이용해서 마을을 한 바퀴를 돌면서 축복한다. 보통 풍물에는 징, 팽과리, 소고, 북, 장구로 이루어진다.

제를 주관하는 제관(祭官)의 선정은 설전에 결정을 하는데 생기 복덕한 사람으로서 사주팔자가 그날 곧 제를 지내는 날짜와 맞는 사람이여야 한다.

물론 선정기준으로 초상집을 가지 않고, 아기 출생이 없는 자, 그리고 개고기를 먹지 아니한 자 등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제관(祭官)과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으로 해서 두 집만을 선택한다. 제를 올릴 때 올라가는 제물로써는 비린내 나는 음식은 절대 안 되고 이런 비린내 나는 음식은 제를 올리기 전까지 마을주민 전체가 금한다. 음식은 돼지머리, 닭, 떡, 산적, 사과, 배, 대추, 꽃감, 밤, 술(동동주), 취나물, 시금치 등이 올라가며 이러한 제물은 한 마지기 정도의 마을 전답이 있어 그것으로 당산제를 모셨으나, 전답이 사라지고 나서는 마을주민이 걷어서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아예 제를 모시지 않는다.

당산제를 지내기 3~4일 전에 제관(祭官)은 원새끼를 꼬아서 지금의 당산나무 주변에 치고 그 새끼줄을 따라 황토를 뿌린다. 또한 제관(祭官)은 3~4일전부터 매일 목욕재계하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목욕을 한다. 그리고 제를 올릴 때는 제관(祭官)과 제물을 만든 사람 두 명만이 제를 올렸다 한다. (육상빈, 남, 70세, 육종순, 남, 72세)

(2) 평촌마을

평촌마을은 옛날에는 당산제를 모셨으나 폭우로 인해 당산나무가 사라지면서 당산제를 모시지 않고 지금은 천제(天祭, 千祭)라는 제를 지내고 있다. 천제를 모시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곳이나 마을에서 잘 꾸며진 곳이 상례이나 이 마을에서는 천제를 올리는 장소는 마을입구 정면 30m지점으로 마을의 물탱크 앞에 있는 다리 주변에서 천제를 모신다. 지금은 단지 다

리만 존재할 뿐 천제를 지냈던 장소로 상상할 수가 없다.

천제를 모시는 정월 초하루 전에 이 다리주변에 천막을 치고 깨끗한 모래를 깔아 놓는다. 제는 다른 마을과는 달리 3일 동안 지내는데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지낸다. 시간은 밤 12부터 다음날 닭이 울기 전까지 올린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제물을 차리지 않고 단지 제관(祭官)과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이 천제를 모시는 곳에 가서 천 번의 절을 해야 한다.

절 또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모두 천 번의 절을 하게 되는데 이를 따서 천제(千際)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에 모시는 제라 하여 천제(天祭)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월 초사흘)이 되면 제관(祭官)과 제물모시는 사람이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올린다. 이렇게 천제에 제를 올리는 것은 옛날에 천제를 지내지 않거나 잘못 모시면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되고, 마을에 있는 가축이 죽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에 들어오는 전염병이나 재앙을 없애고, 일년 동안 마을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로서 제를 올리고 또한 제를 잘 올릴 경우 마을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은 아들을 득남하게 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이렇게 제를 모시고 나서 따로 풍물을 치면서 지내지는 않고, 다만 천제를 모시는 곳에 미리 준비해둔 모래 속에 수탉의 머리를 꿰어서 묻어 둔다. 이렇게 묻어두고 이를 정도 지나면 수탉의 목이 사라지고 없다. 그것을 보고 마을주민들은 제를 잘 모셨는지 아니면 잘못 모셨는지를 확인한다. 마을의 천제를 책임지는 제관(祭官)이나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은 서로의 생일, 생시가 맞아야 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개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제액이 없는 사람, 그리고 초상이나 출생이 없는 사람이 많다 한다. 나이는 크게 중요치 않으나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 제를 주관할 수 있다. 이렇게 제관(祭官)이나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은 제를 모시기 3~4일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를 하고 화장실을 다녀와서도 꼭 손발, 얼굴 등을 씻으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지낸다. 천제를 모실 때는 금줄은 치지 않으며 제를 지내는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 기간 동안 마을주민 전체가 비린내 나는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 한다. 제물은 삼실과(꽃감, 밤, 대추), 사과, 배, 떡(시루떡), 수탉, 술(막걸리) 등이 올라가고 돼지머리, 소고기, 돼지고기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제물은 논 세 마지기 정도의 마을 전답이 있어 그것으로 제물을 마련한다. (홍중호, 남, 67 세)

(3) 고산골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2그루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서 있다. 당산나무는 참나무인데 당산나무 사이에 제단이 놓여 있다. 제단은 가로 1m53cm이고, 세로 1m7cm이며, 높이는 33cm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당산나무는 오른쪽 나무가 둘레가 2m84cm이고, 수령은 150년 정도 되었으며, 왼쪽의 당산나무는 둘레가 2m40cm이고, 수령은 200년 정도 되었다. 대개 당산제를 지내기 1주일 전에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제관(祭官) 집에도 금줄을 쳐서 신성시 하였고, 당산제 지내기 전까지는 항상 목욕재계하고 화장실 출입시에 옷을 갈아입는 등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켰다.

당산제는 정월 14일 저녁 9시 정도에 지냈는데 제물은 돼지머리, 편, 포, 삼색실과 등을 올리고 특히 부정이 있는 곳은 사람은 제관(祭官)에서 제외시켰다. 제관(祭官)은 동네의 합의에 의해서 지내기 때문에 지금도 정성을 다 해서 지낸다.

제관(祭官)은 나이 지긋한 분으로 대부분 선정하고 축관과 더불어서 3명 정도 선정했다. 한 분은 축관으로, 한 분은 음식장만을 목적으로, 선정하여 초헌, 아헌, 종헌 순으로 당산을 주관했다. 당산제가 끝나면 음식을 땅에 약간만 묻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음복을 했다. 목적은 동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냈다. (정경수, 남, 61세)

(4) 신기마을

이 마을은 원래는 고산골 마을과 함께 당산제를 지냈는데 몇 해 전부터 이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이 자주 죽고 애환이 끊이지 않아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산에 제사를 지내주면 좋다고 하여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정월 14일 저녁 8~9시 사이에 지낸다.

제물은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출하여 모아준 비용으로 제물을 장만하는데 제물은 주로 떡과 과일, 밥, 돼지머리 등이 올라가고 제관(祭官)은 동네에서 나이 지긋한 사람이 맡아서 지낸다. 원래는 고산골 마을과 함께 당산제를 지냈으나 새로 지내기 위해서 제관(祭官)을 임시로 선출하였는데 동네 부녀자 중에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당산제를 주관하게 하였다. 이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재앙이 덜했다. (정문규, 남, 79세)

(5) 양신마을

이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오른쪽에 앞당산이 있고 마을 서쪽에는 뒷당산이 있다. 당산나무는 앞당산의 나무는 수종이 귀목나무이고, 둘레는 8.5m이고, 수령은 450년 정도 되었다. 뒷당산나무는 둘레가 4.76m이고 수령은 350년 정도 된 것으로 수종은 귀목나무이다. 당산제는 정월 14일 저녁에 8시쯤에 지냈는데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제물은 일반제사와 같이 제물을 장만하였다고 하는데 제물은 주로 떡, 밥, 삼탕, 삼색실과, 포, 술 등이고 간혹 돼지머리도 제물로 올린다.

제관(祭官)은 굿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대개는 나이 지긋한 분으로 위촉하여 당산제를 주관하도록 했다. 제관(祭官)으로 선정되면 금줄을 치고 금기사항을 준수하여 마을의 평화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하여 동네에서 애환이 발생하면 자기(제관(祭官))의 정성이 모자라서, 또는 부정을 타서 그런 것으로 동네에서 타박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과거에는 당산답(堂山畓)이 있어서 그것에서 소출되는 것으로 비용을 삼았는데 요즘은 서로가 가꾸지 않으려고 하여 동네에서 공동으로 거출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한효진, 남, 70세)

(6) 성재마을(성자동)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는 마을 입구 왼쪽에 2그루의 귀목나무가 서있는데 그 중에서 큰 나무는 둘레가 40m이고 수령은 250년 정도 되었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지내는데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빌기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는데 이 때는 매굿도 했다. 특히 이 동네는 안정환 씨 집에서 주관을 했는데 비용은 동네에서 거출하여 공동으로 마련해 주었다.

제물은 돼지머리, 비린내 나지 않는 것 등을 주로 올리는데 당산제가 끝나면 음복도 한다. 특히 제관(祭官)은 사흘 전부터 변소에 출입도 못하고 출입할 시에는 옷을 갈아 입고 청결히 했다. 그러나 요즘은 모두가 관심소홀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년 전부터는 지내지 않고 있다. (송기점, 여, 73세)

(7) 방화마을

이 마을에는 마을 뒤쪽에 당산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이것이 뒷당산나무이다. 이 당산나무는 귀목나무로 수령은 40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4m60cm이다. 원래 이 동네는 4,5년 전까지는 당산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지냈다. 풍물도 하고 동네를 한바퀴 돌면서 흥겹게 지냈다고 하는데 마을 앞에 방술나무라 하여 앞당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다.

제물은 밥, 떡, 돼지머리, 과일, 술 등을 올리는데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당산제를 지냈다. 목적은 풍년을 기원하고 동네에 재화나 양화가 없기를 비는 것이 대부분이다. 당산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일년을 결산하고 다가오는 내년도 예산을 짜기도 하였는데 마을공동체를 이것에서 찾았다. (이병숙, 여, 83세)

(8) 동고마을

동고마을은 상동고마을과 하동고마을이 합해진 지명이다. 이 마을에 사는 홍종학(62, 남)은 동고마을은 현재는 산신제를 지내지 않지만 7~8년 전까지 산신제를 모셨다고 전하고 있다. 산신을 모시는 산은 마을 뒷동산으로 마을 뒷편에 있다. 이 산에다 정월 초사흘 저녁 7시부터 산신제를 모신다. 산신제는 이 마을의 재액을 방지 해주고 마을을 일년 동안 평안하고 아무런 탈이 없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모시게 되었으며 산신제를 모신 후로는 산신제를 모신 그 위치에서부터 마을 한 바퀴를 돌면서 마을에 존재하는 잡귀나 재액을 없애는 풍물을 했다. 그리고 산신제도 일반 당산제와 같이 제관(祭官)이 존재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제관(祭官)과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 각각 한 명씩 총 두 명만이 산신제를 모셨다.

제관(祭官)과 제물을 마련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은 우선은 그 집에 초상이 없어야 하며, 집안에 어떤 우환이나 사고가 없으며 아기의 출생이 없고, 개고기나 온갖 불결한 음식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선정됐다. 다른 마을 처럼 연세는 크게 상관없으나 보통 중년 이상인 자면 제관(祭官)에 해당된다.

그리고 산신제의 제물로는 밥, 꽃감, 대추, 탕(홍합, 새우), 피문어, 떡, 사과, 배, 밥, 술 등이 올라가고 특히 비린내가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돼지머리 등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러한 제물은 마을에 논 두마지기 정도의 전답이

있어 그것으로 수확된 쌀이나 곡식 등을 팔아서 제를 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산신제가 사라지면서 전답 또한 사라지게 되었고, 산신제를 지내지 않아도 마을에 어떤 우환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다. (홍중학, 남, 62세)

다) 번암면

(1) 하교마을(아랫다리골)

이 마을에는 마을에 굿은 일이 있을 때마다 당산제를 지낸다. 과거에는 매년 지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굿은 일이 있을 때만 당산제를 지낸다. 특히 당산나무는 마을 입구에 있는데 수령이 약 500년 정도 되었다. 둘레는 2m62cm 정도이다. 대개 정월 대보름날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마을에 굿은 일이 생기면 3월에 지내기도 한다. 당산제가 끝나면 풍물놀이도 하고 흥겹게 즐기는데 보통 제관(祭官)은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여자에게도 제관(祭官)의 자격을 주어 비교적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정한다. 제물은 사과, 돼지머리, 명태, 술 등을 올리는데 비용은 마을 공동으로 장만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화순, 여, 62세)

(2) 금천마을(쇠내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는데 마을 입구 우측에 귀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이것이 당산나무인데 수종은 귀목나무이고 수령은 약 100여 년 정도 되었는데 둘레는 1m88cm 정도이다. 대개 정월 대보름날 저녁 7시쯤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일반제사와 같이 제물을 진설하고 개고기나 초상집을 다녀 온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여 제관(祭官)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제물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은 돼지머리이며 과일과 술도 정성스럽게 장만하여 올린다. 비용은 마을공동으로 마련하여 충당하고 있다. (신영식, 남, 49세)

(3) 하북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지내는데 정월 초칠일에 지낸다. 당산나무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수령은 500년 정도 되었으며 둘레는 4m97cm이다. 보통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관(祭官)선정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연세가 높으신 어른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제관(祭官)은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 개잡은 곳에 가지 말아

야 하고, 초상난 집에 가지 말아야 하고, 아기 낳은 집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정 탄 곳에 가지 않는다는 금기사항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재앙이 동네에 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관(祭官)은 행동에 있어서 주의를 했다.

제물은 밥만 7 그릇 차리고 각종 반찬을 올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당산제를 지낸다. 보통 제관(祭官)은 2명 정도 선정하는데 한 분은 축관으로 한 분은 음식 장만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당산나무에는 금줄을 3번 감고 황토를 뿌리고 제관(祭官) 집에도 금줄을 3번 감는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짜에 혹 사고가 나면 그 다음달에 당산제를 지낸다. 비용은 마을공동으로 조금씩 거출하여 비용으로 충당한다. 특히 육식이나 산짐승에 해당하는 고기는 올리지 않는다. (김귀덕, 남, 77세)

(4) 도장이 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어서 과거에는 당산제를 지냈는데 지금부터 50년 전부터는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다. 당산나무는 마을 입구에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이고 수령은 50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5m 정도이다. 제관(祭官)선정은 보통 깨끗하고 상고가 없으며 초상이 나지 않은 사람으로 태기가 없는 사람을 제관(祭官)으로 선정한다. 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을 제관(祭官)으로 모시기도 한다. 일단 제관(祭官)으로 선정이 되면 금기사항이 복잡하여 서로가 제관(祭官)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간혹 동네에서 제관(祭官)선정할 때 곤란을 겪기도 했다.

당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 공동체인 마을 전체가 평화롭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이 목적이고 간혹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 제사지내는 일시는 정월 초하루이고 간혹 정월 대보름날 지내기도 한다. 제물로는 편, 찰밥, 나물류의 반찬 등이 주로 올라가고 간혹 돼지머리도 놓기도 한다. 제물을 장만하는 일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는데 장만하는데 정성이 부족하면 호환이 있다. (김귀덕, 남, 77세)

(5) 상북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마을 입구에 있는 이 당산나무는 수종이 느티나무이고 수령은 7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1m9cm이다. 제관(祭官)선정은 당산제 지내기 7일이나 10일 전에 선정한다. 보통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나이가 40살 이상인 자로 하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선정한다. 그 이

유는 제관(祭官)으로 선정되면 금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러한 고통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실시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명태, 과일, 떡 등이고 목적은 마을의 재앙을 쫓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제사일시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 10시부터 지내는데 제사지내기 일주일전에 당산나무와 제관(祭官) 집에 금줄을 치고, 당산제를 지낸 2~3후에 금줄을 태운다. 간혹 황토를 뿌리기도 하는데 이는 재앙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비용은 그전에는 당산전답이 있어서 그 소득으로 당산제 비용을 마련했는데 간혹 동네에서 비용을 거출하여 마련하기도 한다. (김종완, 남, 66세)

(6) 원대론 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수종은 소나무이고 둘레는 2m15cm이며, 수령은 대략 200여년 정도 되었다. 당산제를 지내는 시간은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 10~11시 사이에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제관(祭官)도 선정한다. 제관(祭官)은 부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이가 지긋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통 1~2명 정도 선출하여 제사에 임하게 한다. 제물은 과일이나 돼지머리를 제상(祭床)에 올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 풍물도 하며 흥겹게 즐기기도 한다. 비용은 마을 공동으로 거출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유남무, 남, 84세)

(7) 수척마을(수작골)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7년 전까지만 해도 정성스럽게 지냈다. 지금은 모든 여건이 불리하여 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래는 살필 수 있었다. 대개 마을 입구에서 20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으로 난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로 들어가면 당산나무인 소나무가 확연히 보인다. 수령이 150년 정도 된 것인데 음력 정월 초사흘날 아침 7 시쯤에 당산제를 지냈다. 물론 마을의 평화와 흥액을 막기 위해서 당산제를 지냈는데 오전에 당산제를 지내고 오후에는 풍물놀이를 하며 한바탕 흥겹게 놀았다.

제관(祭官)은 마을에서 나이가 많거나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명태, 과일 등의 깨끗한 음식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른음식이 대부분이었다. 비용은 마을공동으로 마련하여 부담하고 있다. (김태봉, 남, 59세), (최길동, 남, 83세)

(8) 원사암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2그루 있다. 즉 할아버지 당산과 할머니 당산이 그것인데 할아버지 당산은 마을 입구 계곡 옆에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둘레가 3m2cm 이고, 할머니 당산은 마을 뒤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둘레가 1m7cm이며 수령은 약 100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당산제를 지낼 때는 제관(祭官)을 선정하는데 비교적 부정이 없는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제관(祭官)은 당산제 지내기 전인 7~15일 전에 선출하여 금기 사항을 지키도록 한다.

목적은 마을의 평화와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과일, 떡, 술 등이며 비용은 동네에서 거출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원래는 동네의 생명인 샘물에서 샘곳을 시작으로 동네 한바퀴를 돌면서 풍물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여 풍요롭게 지냈는데 지금은 인구의 감소와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로 풍물과 줄다리는 하지 않는다. 제일시(祭日時)는 정월 초사흘 날에 저녁 7~9시 사이에 지낸다. (김순담, 여, 70세)

(9) 대성방마을

마을에는 입구에서 50m 정도 근처에 당산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수령이 300년 정도 되었고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둘레는 2m32cm 정도이다. 과거에는 당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그런 내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다만 지금은 지내지 않는데 언제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아마도 오래 전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10) 광대동마을

광대동 마을에서는 매년 정월 대보름날 저녁 12시쯤에 당산제를 지내는데 당산나무가 2그루 있는데 앞당산과 뒷당산이 그것이다. 앞당산의 수종은 느티나무인데 수령이 55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약 8m 정도이다. 제관(祭官)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3~4년씩 돌아가며 제관(祭官)을 하고 전답이 있어서 그것을 제관(祭官)이 가꾸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제물을 장만하는 당산답이 있어서 비용을 충당하는데 훨씬 경제적인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제물은 떡과 과일 등을 올리는데 돼지머리는 올리지 않는다. 특히 제관(祭

官)은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고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방지하게 한 다음, 청청하게 당산제를 지낸다. 그리고 당산제는 1년 동안 사고 없이 마을에 좋은 일만 생기도록 정성스럽게 지낸다. (김해수, 남, 77세)

(11) 텃골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마을입구에서 산 쪽으로 1Km 지점에 위치하는데 나무는 팽나무이고 수령은 약 200년 정도 되었고 둘레는 2m3cm이다. 보통 정월 초이틀(평은할 때)이나 3월 달(긋은 해)에 지내는데 처음 목적은 마을의 번영과 잡귀예방, 자식번영이었는데 지금은 가신신앙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족의 평화와 무병장수를 비는 것으로 바뀌었다.

제물은 돼지머리나 명태, 과일, 떡 등이고 비용은 마을 공동으로 거출하여 부담한다. 그래도 과거에는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2명 정도 선발하였는데 한 분은 축관으로 한 분은 제수장만의 일로서 각각 선발하였다. 그리고 당산제를 지내기 7일 전에 당산나무와 제관(祭官)의 집에 금줄을 쳤는데 보통 3번 정도 감았다. 당산나무에는 황토흙을 뿌리기도 했다. 특히 제관(祭官)은 목욕재계하고 화장실 출입시에 늘 옷을 갈아입었다. 그만큼 청결을 유지해야 부정을 타지 않았고 동네에서 복을 받았다. 제관(祭官)을 선정할 때 부정이 없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육순임, 여, 71세)

(12) 삼거리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마을 입구에서 위쪽으로 20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둘레는 3m 정도이고 수종은 밤나무이며, 수령은 약 300년 정도 된 것으로 매년 2월 초하루 밤 12시에 당산제를 지낸다.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1년 농사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진행한다.

제관(祭官)선정은 마을에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으로 선정하며 1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실행한다. 제관(祭官)으로 선정된 사람은 온갖 금기사항을 다 지켜야 했는데 특히 상가에 못가고, 아이난 집에 못가고, 가축이나 짐승 잡은 집에 못가고, 부정 탄 집에 못가고 사람도 접촉하지 못하고, 상스런 말도 못하고, 인적이 드문 저녁에 출입을 할 정도로 제관(祭官)이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서로 제관(祭官)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래서 옛날에

는 동네에서는 제관(祭官)으로 선정되면 그런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통 쌀 한가마 정도를 수고했다는 뜻으로 보상하곤 했다.

제물은 떡, 술, 명태, 과일, 돼지머리 등인데 당산제를 지낸 후에는 마을주민들이 흥겹게 풍물을 한다. 풍물은 동네를 전부 돌면서 집집마다 돌아서 샘 곳을 끝으로 당산제를 끝낸다. 비용은 마을공동 전답이 있어서 이것을 제관(祭官)이 경작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비용으로 제물을 장만한다. (정옥순, 여, 78세)

라) 장계면

(1) 금곡(쇠꼬미)마을

이 마을에는 마을 입구 오른쪽 논 위에 느티나무 한그루가 우뚝 서있는데 둘레는 4m44cm이다. 원래는 산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당산제를 지낸다. 산제 지내는 곳은 소나무가 수십 그루가 심어져 있는 곳에서 산제를 지내는데 제물은 돼지머리와 메밥, 떡 등이고 과일도 제물로 올리기도 한다. 제사는 정월 초사흘날에 저녁쯤부터 지낸다.

비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물을 장만하고 제관(祭官)은 동네에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선정하여 금줄을 치고 몸을 청결히 하여 정성껏 당제와 산제를 지낸다. 산제가 끝나면 당산나무로 내려와서 당산제를 지내고 당제가 끝나면 음복하고 하루를 즐긴다. 이 행사의 목적은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지낸다. 요즈음은 지내지 않는지가 몇 년 된다. (강서운, 여, 73세)

(2) 침동마을

침동마을은 장계면 금덕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산나무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인지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지금의 당산나무를 당산나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200m 지점에 있는 당산나무는 둘레가 2m23cm, 수종은 소나무이고 수령은 적어도 300 여년 정도 되었다. 당산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7 그루가 일자 형태로 나란히 서 있기 때문에 한 눈에 볼 수 있다. 제단은 존재하지 않고 당산나무 형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김원택, 남, 80세)

(3) 위동마을

위동마을에도 당산제는 지내지 않지만 당산나무는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다. 현재 국가에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어서 다른 마을과는 달리 계단과 당산나무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입구 100m 지점의 정면에서 있는데 수종은 귀목나무이고 둘레는 3m57cm이며, 수령은 대략 5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제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당산제를 지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그곳에 와서 동네 사람들끼리 하루를 즐긴다. (이정자, 여, 72세)

(4) 반송마을

아름드리 반송나무가 마을 뒤에 있어서 마을 이름도 반송(盤松)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 반송나무에 해마다 제사를 지낸다. 그러나 20~30년 전에 바람이 몹시 불어서 넘어져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제사는 정월 대보름날 밤 12 시경에 지냈는데 제를 지내기 사흘 전 당산나무에 제관(祭官)이 직접 만든 원새끼로 금줄을 치고, 제관(祭官)은 목욕재계를 한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나머지 제물은 일반제사와 같이 음식을 장만하여 올리는데 제관(祭官)은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을 선정하였고 제사 후에는 사물놀이를 하였다. 비용은 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필요한 만큼 거출하였다. 또 살구나무가 마을 뒤에 많았는데, 단오날에는 이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 그네를 타고 놀았다. (송태원, 남, 61세)

(5) 평지마을

마을 뒤쪽의 교회 앞에 둘레 2m, 수령이 200년 가량 된 귀목나무가 서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에 정월 초하루 밤 12시에 마을 사람에게 병이 없고, 마을이 편안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당산제를 지낸다. 제관(祭官)은 한 명이 계속 지냈는데 제관(祭官)은 제사를 지내기 며칠 전부터 굶고, 집주위의 금줄 밖으로 나가지 못하며, 화장실에도 가지 않았고, 또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을 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밤, 대추 등), 술, 포, 떡 등 집안제사와 비슷하였다. 특히 당산제를 다 지내고 돼지머리를 당산나무 주위에 묻어 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호랑이가 물어 가면 마을에 해가 없다. 만약에 돼지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호랑이가 재앙을 가지고 온다고 하여 걱정이 되었다. 비용은 공동으로 마련하여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그러나 제

를 모시던 분들이 죽고 그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 간 후 제는 모시지 않는다.
(신점세, 여, 83세)

(6) 양삼(삼거)마을

마을 입구 좌측에 동산이 있는데 이 산이 당산이다. 당산제는 40세 이상의 깨끗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정월 초사흘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당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다. 제관(祭官)은 마을에 해로운 일이 없도록, 또는 좋은 일만 생기도록 제를 모셨는데 제사를 모시기 며칠 전부터 몸을 청결히 하고 덕유산의 시금창, 참샘에까지도 가서 산제를 올렸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그 외는 일반제사와 같은 형식으로 제물을 올렸다. 비용은 마을공동으로 거출하여 비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이후로는 미신이라 해서 지내지 않는다. (임낙용, 남, 62세)

(7) 원명덕마을

마을 가운데 원당산이라 부르는 많이 휘어진 아름드리 소나무 한 그루(둘레 2m20cm, 수령 약 600년)가 있고, 마을 뒤에 당산이라 부르는 한 그루(둘레 2m6cm, 수령 약 600년)가 있는데, 마을 뒤쪽의 당산은 이미 고사했는데, 나무 주위에서 쓰레기를 태웠는지 검게 그을려 몸통만 남아 있다. 그리고 원당산 옆에는 당집도 있었는데 새마을운동이후 헐었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정월 초사흘 밤 12시가 넘어서 제를 지냈는데, 제를 지내는 순서는 원당산, 당산, 그리고 도탑 순으로 한다. 제관(祭官)은 주로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깨끗한 일 하지 않고 깨끗한 사람 즉, 애 낳은데 가지 않은 사람, 상을 당하지 않은 사람, 개고기를 먹지 않은 사람, 손이 없는 사람 등이다. 제를 지내기 사흘 전에 당산 주위에 금줄을 쳤다. 제물로는 돼지머리와 삼색과일, 떡, 포, 술, 밥 등 일반 제사와 차이가 없었다. 비용은 공동으로 마련했고, 정월 보름에는 사물놀이를 했는데, 당산에서 시작하여 집집을 돌았다. 그러나 새마을 사업 이후 제를 지내지 않는다. (염성구, 남, 75세)

(8) 무농마을(모랭이, 모릉이)

이 마을에서는 해마다 당산제를 지낸다. 당산나무는 마을입구 정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인데 2그루가 서있다. 큰 나무는 둘레가 9m20cm 인데 수령은 450년 정도 되었다. 당제는 대개 정월 초이튿날 저녁

에 지낸다. 제물은 돼지머리, 밥, 떡, 술과 과일 등이고 마을 사람들이 비용을 모아서 음식장만 비용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이 마을도 산제를 지내는데 산제를 먼저 지내고 나서 당산제를 지낸다. 산제를 드리는 곳은 육송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금줄을 치고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부정이 타지 않게 청결히 하여 당제와 산제를 지내도록 한다. 제관(祭官)은 1주일 전에 선정한다. 선정된 제관(祭官)은 매일 몸을 청결히 하고 밖에 출입을 삼가고 화장실에 갈 때는 갔다 와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켰다.

(9) 탑동마을(탑골)

이 마을에는 산신제를 지내는데 당산제와 습합되어 함께 지낸다. 산신제는 마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 두 그루에서 지낸다. 소나무 둘레가 2m43cm 이고 수령은 300년 정도 되었다. 이곳에서 음력 정월 14일 저녁에 산제를 지내고 내려와서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인 당산나무에 와서 당산제를 지낸다. 이 당산나무는 둘레가 6m이고 수령은 510년 정도 되었다. 대개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지냈는데 간혹 지내지 않을 경우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

제관(祭官)은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으로 생기 복덕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3명 정도 선정하여 최소한 산제나 당산제 지내기 사흘 전 정도에 금줄을 치고 재액을 방지 한다. 제물은 밥, 대추, 곶감, 나물류, 삼탕, 떡시루, 돼지머리, 술 등이고 생선류는 올리지 않는다. 산제나 당산제를 다 지낸 후 제물 중에서 돼지머리는 땅에 묻는데 이것을 호랑이가 가져가면 그 해에 좋은 일이 생기고 가져가지 않으면 흉한 일이 발생한다.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거출하여 음식 장만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 당산나무 뒤에는 이상한 탑이 서 있는데 기단부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복련(覆蓮), 복련 위에는 옥개석이 있고, 옥개석 위에는 복련이 있고, 이런 모습이 3단계로 반복하여 있다. 아마도 제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모아서 세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있다하여 이 마을을 ‘탑골’이라고 한다. (김상희, 남, 69세)

(10) 서변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는 존재하지만 언제부터 당산제를 지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 단지, 마을 입구 정면 5m 앞에 둘레 5m4cm의 귀목

나무가 수령이 500년 정도 된 상태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는 정도이다. 제단은 없고 옆에 전주이씨 열녀문과 열녀비가 나란히 서 있을 뿐이다. (이강애, 여, 82세)

마) 천천면

(1) 이방마을

이 이방마을에는 당산제를 지성으로 지낸다. 해마다 정성을 다하여 지내는데 당산나무는 마을 뒤횥에 있는데 이를 뒷당산이라고 하고 앞당산은 마을 왼쪽에 있었는데 벼락을 맞아서 지금은 없어졌다. 뒷당산은 수종이 귀목나무이고 둘레는 4m35cm이며, 수령은 350~400년 정도 되었다. 이 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지낼 때 당산나무에서 시작하여 동네 한바퀴를 돌고서 마을 회관 앞에 있는 고석(입석)을 이 마을 사람들은 ‘고석’이라고 부름)에서 끝낸다. 제물은 과일과 떡, 밥 두 그릇 그리고 팔죽을 끓여 올리는데 특히 팔죽은 온 동네를 뿌리면서 재앙을 방지하는 행사를 한다. 제관(祭官)은 아기 배지 않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일주일 전쯤부터 원새끼로 끈 금줄을 3번 당산나무와 제관(祭官) 집에 감고 금줄 사이에 한지를 끼워 넣는데 이렇게 해서 당산제를 정성으로 지내면 동네의 평화로움과 안녕을 기원할 수 있다. 또 제관(祭官)은 한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지(燒紙)하는데 소지하면서 소망을 빈다. 제일시(祭日時)는 정월 초사흘날 오전에 한다. 다만 임신했거나 부정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팔죽을 끓여서 개인적으로 올린다. 회관 앞에 고석(입석)이 있는데 높이는 1m27cm이고 둘레는 1m10cm이며, 두께는 24cm이다. 그런데 고석에는 총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원래는 큰 돌이었는데 6·25사변 때에 총알이 이 돌에 맞아서 깨진 것이다. (백서운, 여, 80세)

(2) 고금마을

고금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날 새벽 1시에 당산제를 모신다. 당산나무는 마을 뒤횥에 있는데 500년 된 귀목나무로 둘레가 6m30cm이다. 음식물은 유림에서 지내는 것들은 다 놓고 생선 등 생것을 놓고 쓴다. 제관(祭官)은 마을에서 가장 고령자가 되는데 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따로 있다. 제관(祭官)으로 선정되면 1년 동안 굶은 데는 가지 않는다. 제비용은 동네에서 마련한 동답에서 충당하는데 이때 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사가 끝난 후

음복을 하는데 굿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마을은 옥녀탄금이라 하여 청주한씨가 처음 마을을 세울 때 옥녀가 머리감고 앉아서 거문고를 타는 형상이라 하여 마을을 세웠다. (김재순, 남, 66세)

(3) 삼장마을

삼장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조탑(造塔)(둘레:1m46cm, 조탑(造塔) 위에 세워진 돌: 좌측 높이 48cm, 둘레 62cm, 우측 높이 28cm, 둘레 68cm)에 모시고 있는데 부녀자들만이 하는 것으로 제수(祭需)는 일반 제수(祭需)와 같고 특히 팔죽을 올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이 이 마을의 특색이다. 주로 부녀자들이 팔죽을 만들어서 제관(祭官)도 부녀자들이 주관하여 지내는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 밤 8시경에 마을 어귀에 세워진 조탑(造塔)에서 지낸다. 1975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조탑(造塔)을 허물어서 이것으로 축대를 쌓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더니 그때부터 다시 재앙이 발생하고 크고 작은 재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동네에서는 1979년에 다시 동네어귀에 조탑(造塔)으로 조성하고 당산제도 부활하였다. 밤 8시경에 부녀자들이 풍물을 치고 마을을 돌며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팔죽을 뿌리고 악귀 역병을 몰아냈다. 이어서 부녀자들이 횃불을 들고 할아버지 당산에 모여 제수를 차려놓고 제를 올렸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란다. 또한 조탑(造塔) 앞에서 집안 잘되라고 빌기도 한다. 이 마을에는 청간사비가 마을 입구에 두 개 있는데 우측의 비는 철종 때의 이상억 현감의 청간선비이고 좌측의 비는 현종 때의 현감 조능하의 청간선비이다. 이 외에 이 마을에는 효자비가 있었는데 6·25 한국전쟁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 입구로 옮겼다가 총연습을 하며 쏘아버렸다. 이 마을에는 독당호세라고 하여 마을의 세금을 혼자서 냈던 사람도 살아다. 이 마을 좌측에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마을이 소 형국이어서 소가 꼬리를 흔들면 안 된다고 하여 돌로 지세를 누른 곳이 있다. 또한 용산 절터가 있는데 이는 '탑상골'이라고도 불렀는데 탑이 하나 남아있었으나 초등학교로 옮긴 후도 난당했다. (배재언, 남, 62세)

(4) 윤곡마을

윤곡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제를 마을 산 중앙에 위치한 매산 바위에 지내는데 음식물은 팔죽을 올리고 제관(祭官)은 이장으로 음식장만

은 따로 깨끗한 집 2집에서 장만한다. 이 마을의 특징은 제관(祭官)이 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팔죽을 만들어 부녀자들이 당산에 올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수비용도 부정이 없는 집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마을 부녀자들이 초사흘 저녁밥을 해먹고 각자 햇불을 들고 풍물을 치며 당산에 제수와 팔죽을 차려놓고 소지를 올리며 소원을 빈다. 끝나면 팔죽을 여기저기 뿌리면서 잡귀와 역신을 방지하고 쫓았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어른들이 옛날부터 지내서 지금까지 지낸다. 아무래도 마을의 평화와 재액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5) 신기마을(평신)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 서북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이 당집 앞에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었고 주위의 마을들은 평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걱정이 하나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산 옆에 있는 산이 점점 커지더니 커다란 수탉이 되어 이 지역을 지나는 사람이면 무조건 잡아 먹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곡식까지도 주워 먹을 것이다. 이 같은 무서운 재난을 당하고 있는 마을에 하루는 스님이 찾아와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처녀를 재물로 바쳐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 후 마을에서는 스님이 시킨 대로 처녀를 재물로 바치게 되어 풍년이 들고 재난도 막을 수 있었으나 처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 둘 이 마을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당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몇 천 년 묵은 구렁이가 산다는 말이 퍼졌다. 동네 사람들은 이 구렁이마저도 사람을 해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처녀도 바칠 수 없었다. 처녀로서는 마지막 가는 날 밤 자시 경 이곳은 난리가 났다. 구렁이와 수탉사이에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마을민은 모두가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고 누구하나 감히 나가보지 못하다가 조용해진 후 그곳을 가보니 구렁이는 푹푹 감겨 죽어 있었고 수탉은 구렁이한테 부리를 물려 죽어 있었다. 이 괴물들의 사체가 그대로 굳어 거대한 산이 되었다. 한 쪽은 부리 없는 수탉산, 또 한쪽은 용을 쓴 구렁이 동산이 마주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금도 수탉산의 부리가 길어나면 이 마을에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나 구렁이 동산이 수탉의 부리가 더 길어나지 못하게 버티고 있으니 너무나 고마운 구렁이가 바로 이 마을 지켜준 수호신인 당할머니라 한다. 이에 당할머니 혼을 위로하기 위해 구렁이가 굳어서 된 구렁이 동산 위에 당집을 짓고 매년

정월 초사흘 새벽 자정을 기해 마을에서 정해진 차례에 따라 제주(여자)는 목욕을 하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해 풍년을 빌었다. 제물은 흰떡, 탕, 해물, 과일 등을 올렸으며 고기는 올리지 않았다. 특히 당고사를 지낼 때는 신기, 상가마, 하가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당고사를 지내는 등 온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 했다. 이것이 마을의 당고사이며 해마다 성대히 지내고 있다. (조창규, 남, 65세)

(6) 오옥마을

이 마을은 당산제를 겸하여 조탑(造塔)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일시(祭日時)는 음력正月 초사흘날 저녁 10 시부터 지내고 제물은 흰떡과 나물종류, 과일 등을 올리고 제주의 정성에 의해서 공동으로 마을 사람들이 비용을 마련하여 지냈는데 제관(祭官)은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1주일 전부터 금줄을 치고 몸을 청결히 하여 금기사항을 지키면서 정성을 다한다. 특히 풍물도 같이 하는데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 날 하루만큼은 즐겁게 지낸다. 조탑(造塔)과 같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가 우선이고 간혹 무병장수도 기원한다. 마을의 신화처럼 지성스럽게 하는 이 마을의 행사는 지금도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있다. (이득춘, 남, 63세)

(7) 용신(용암)마을

용신마을에서는 10년 전 부터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다. 과거에 당산제는正月 초사흘날 저녁 12시에 지내는데 당산제를 지냈던 터는 당산할매라고 불리는 귀목나무(둘레 34cm, 대략 200년 정도 되었음)에서 하는데 이는 마을 좌측에 언덕에 있다. 제수(祭需)는 삼실과, 떡, 밥, 콩나물산채, 조기, 술 등 제사음식과 동일하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동네 좋은 일만 들어오고 동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다. 제관(祭官)은 깨끗한 사람으로 가려서 뽑는데 제관(祭官)에 선정되면 제 지내기 3일전부터 집 앞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고 굿은 곳에 가지 않고 내외간에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이 용신마을에서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이때 용소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에 가서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린다. 제관(祭官)은 동네 사람 중 가장 깨끗한 분으로 세분을 선정하는데 기우제를 지낼 때는 마을 사람 모두 가서 지낸다. 기우제를 잘 지내면 산을 내려오면서 비를 맞았다. (한기순, 남, 73세), (장시열, 남, 72세), (정신상, 남, 61세)

(8) 하신마을(하리)

이 마을은 마을 앞에 도로 건너편에 당산나무가 여섯 그루 서 있는데 이것이 당산나무이다. 정월 초사흘날에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당산제를 지내는데 보통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 떡, 팔죽을 끓여서 제단에 올린다. 동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당산제를 지내는데 당산제가 끝나면 제물을 음복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흥겹게 지낸다. 대개 제관(祭官)은 깨끗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당제를 지내게 했는데 제관(祭官)에 선정되면 금줄을 치고 마을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당산제단에 올렸다. 마을회관에서 음식으로 장만하는 이유는 집안에서 음식을 장만하면 속세의 불결함이 스며 있기 때문이라고 하여 가급적 회관에서 음식을 장만한다. 비용은 마을공동으로 거출하여 비용을 충당한다. 특히 마을 앞에 있는 당산나무는 귀목나무이고 둘레가 3m70cm이며, 수령은 250년 정도 되었다. (문기순, 여, 50세)

(9) 중상마을(중리)

이 마을은 정월 초사흘날 저녁 9시부터 당산제를 지낸다. 제물은 팔죽을 끓여서 올리고, 떡과 포(명태), 과일 등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절하고 메굿도 한다. 제관(祭官)은 주부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데 당산제를 지낼 때는 한지 뭉치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지하는데 이럴 때는 각자의 소망을 빈다.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거출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물은 마을 건너편에 있는 산지(山池)에서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제주를 만들어 정성으로 지낸다. 그런데 당산나무는 마을 옛 도로인 현 마을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참나무로서 둘레가 3m5cm이고 수령은 300년 정도 된 것으로 보인다. 냇가를 중심으로 오른쪽 당산나무에서 왼쪽의 당산나무까지 금줄이 감겨 있는데 한 나무에 3번씩 감았다. (정남주, 남, 83세)

(10) 반월마을

이 마을은 동네 오른 쪽 산 전체를 당산이라 하여 아주 신성시한다. 그리하여 나무 하나라도 해가지고 나오면 큰일난다고하여 그 곳에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 당산제는 매년 정월 초사흘날 저녁 12시부터 새벽 까지 당산제를 지내는데 제물로는 삼색실과 떡, 돼지머리, 밥, 한 집에 초 한 자루씩 가지고 나오고 하여 당산 앞에다 차려 놓고 각자의 소망을 비는데 제관(祭官)은 동네에서 해마다 두 집씩 묶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제를 지내게 했다. 그

런데 두 집을 묶데 심지를 뽑아서 그 순서를 정한다. 제관(祭官)은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기록하여 마지막에는 소지(燒紙)했다.

당산제의 비용은 전답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사람들에게 거출하여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한다. 당산제는 동네의 평화와 안녕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당산제가 끝나면 반월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숲쟁이로 모여서 풍물을 하면서 거리제를 지내는데 이 때는 팔죽을 끓여서 전 동네 주민이 모두 참석하여 팔죽제를 지내고 한바탕 흥겹게 지낸다. 팔죽을 하는 이유는 동네 재앙을 방지하고 잡귀출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수풀은 마을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서 수풀이 마치 장승로 활용되기도 했다. (박향선, 여, 69세)

(11) 장척마을(장자울)

이 마을의 웃담에 당산나무가 있는데 수종은 귀목나무이고 둘레는 3m42cm 이고 수령은 300~350년 정도 되었다. 매년 정월 초사흘날에 당산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가끔씩 지내고 있다. 대개 제물은 돼지머리, 밥, 떡, 삼색실과 등이 제물로 올라가는데 과거에는 팔죽을 끓여서 올리기도 했다. 그것은 동네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재액을 방지하고 잡귀를 쫓는다는 풍습에 의해서 당산제를 지냈다. 제관(祭官)은 3~4명 정도 선정하여 목욕재계하고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했다. 제관(祭官)으로 선발되면 목욕재계하고 소복을 하는 등 부정막이 금기를 잘 지켜야 했다. 마을 뒷동산 당산등성이에서 마을의 주신인 산신에게 당산제를 먼저 올리고 내려와 마을 앞 조탑(造塔)에서 중천제를 지낸다. 지금은 번거로워서 이장이 대신한다.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음식장만하는 비용으로 충당했다. 당산제에서 사용하는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幼學○○○敢昭告于

天神地神五方諸大神長至後今年雨順風調 五穀豐登 害災無疾病不侵謹以清酌庶羞

恭伸 尚饗

(신갑열, 남, 53세)

(12) 송탄마을

송탄마을에서는 당산제를 정월 초이튿날 저녁에 지내고 있는데 마을 뒤

쪽의 도로가의 언덕의 절벽에 지낸다. 제수(祭需)는 당산제 추진위원장이 음식을 마련하는데 일반 제사음식과 똑같이 마련한다. 장을 볼 때 값을 절대 깎지 않는다. 제가 끝나면 동네 회관으로 가서 모두 음복한다. 제관(祭官)은 나이가 많고 집안이 깨끗한 사람 중 부정을 타지 않고 일진이 맞는 사람으로 한다. 제관(祭官)은 제를 모시기 일주일 전부터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몸을 근신한다. 당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다. (김재하, 남, 72세), (전병근, 남, 76세), (서이남, 남, 79세)

(13) 새재마을(조신)

새재마을에서는 정월 초사흘날 오후 5시경에 제사를 모시는데 원래는 당산숲이 있었으나 도로를 내면서 숲을 없애버렸다. 도로를 내 숲이 없어져 버리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당산제를 부활했다. 당산나무는 귀목나무로 마을 뒷동산 언덕에 있는데 둘레는 2m34cm이다.

제수(祭需)물로는 돼지머리, 곶감, 대추, 과일, 밥 등이고 제가 끝난 뒤 마을 회관에 모여 음식을 나눠먹는다. 제관(祭官)은 조를 짜서 3집씩 5년 동안 맡아서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마을에서 거출한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원래 군대에 갔다 와도 아무 탈이 없었는데 갑자기 동티가 나서 죽고 해서 물어보니 당산제를 지내라고 해서 지낸다. 새재마을에는 한씨제각이 있는데 문중에서 장을 봐다주면 채소 갖추고 해서 제를 마을에서 지내준다.

(14) 장항(노루목)마을

장항마을에서는 97년도부터 정월 초사흘날 저녁에 마을 앞 언덕에 당산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이는 매봉산 밑에 도로가 생겨 산의 주령을 끊어서 사람의 팔다리를 자른 형국이었어서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등 큰 피해가 일어나자 점보는 할머니에게 위탁하여 일종의 굿의 형태로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제수(祭需)는 다리 밑에서 장만하는데 떡, 팔죽, 밥, 과일 등 일반 제사와 비슷하다. 당산제는 마을 공동의 당산제와 점보는 할머니의 당산제가 따로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비용을 마을에서 충당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할머니 사비로 감당한다. (신정자, 여, 68세)

(15) 봄골마을(춘동)

봄골마을에서도 정월 초사흘날 저녁 5시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는데 당산

나무는 참나무로 둘레는 2m60cm이고 약 100년 정도 되었는데 마을 입구 우측에 위치한 당산숲 가운데 있다. 제수(祭需)는 일반제사와 같이 밥, 떡, 술, 삼실과 등을 올리는데 제관(祭官)은 이장이고 제비는 공동재산으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지낸다. 제가 끝난 뒤 같이 음복한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한다. 이 마을이 봄골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봄이 일찍 찾아온다고 해서 봄골이라고 불렀다. (신만옥, 남, 55세)

바) 계남면

(1) 양지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두 군데가 있다. 앞당산과 뒷당산이 그것인데 앞당산은 마을 입구에 있는데 수종은 팽나무이고 둘레가 2m23cm이고 수령은 15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뒷당산은 수종은 서어나무이고 둘레가 2m60cm이며, 수령은 200년 정도 되었다. 특히 중턱에 있는 당산나무 앞에는 제단이 가설되어 있었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에 밤 11~12시 사이에 지내는데 목적은 동네가 무사하고 평안하길 기원한다. 제물은 밥, 미역자반, 떡시루, 나물(시금치, 무, 콩나물 등), 탕(명태, 홍합, 두부)을 올리고 당제를 지낸 후에는 음복을 한다. 비용은 공동으로 마을에서 마련한다. 제관(祭官)은 깨끗한 사람으로 더러운 곳에 가지 않은 사람으로 선정하여 집에 금줄을 치고 외부인과 접촉을 금한다. 제관(祭官)으로 선정된 사람은 그만큼 동네를 위해서 정성을 다했다. 특히 제사에 쓸 물은 동네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마을에 샘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맨 아랫쪽에 있는 샘만 남아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당제가 끝나면 풍물로 흥을 돋우었다. (손병기, 남, 76세)

(2) 음신마을

이 마을에는 당산나무가 있다. 그러나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지가 70여년 정도 되었다. 그것은 이 마을이 기독교마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 온 지가 70년이 되었고, 갑오년 동학혁명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기거했으며 해가 났을 때는 양신 마을에 햇별이 있고 음신마을에는 그늘만 있다하여 음신마을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건너편의 양신마을은 일본인 마을이라고도 한다. 이유는 음신마을은 동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기거했으

며 양신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주나 소작인들이 많아서 이 두 마을의 도로를 중간에 두고 돌을 던지고 불을 피우는 등 자주 싸웠다.

당산나무는 마을입구를 중심으로 정면으로 400m쯤 올라가면 교회 바로 아랫부분에 존재한다. 수종은 귀목나무이며 두 그루의 당산나무가 있다. 왼쪽의 당산나무는 둘레가 4m80cm 이고 수령은 약 300년 정도 되었다. 오른쪽의 당산나무는 둘레가 2m44cm 이고 역시 수령은 300년 정도 되었다.

당산제는 보통 정월 대보름날 저녁 8시경에 이루어지는데 당산제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풍물이 제물을 마련한 집을 출발하여 두 그루 당산나무의 중간지점을 통과하여 마을을 한 바퀴 통과한 후에 당산제를 지낸다. 이러한 당산제의 목적은 마을을 수호하고 농사 또한 잘되게 해달라는 의미로서 시작하게 되었고, 당산제가 끝난 후에는 풍물놀이를 했다. 제물은 주로 돼지머리, 과일, 생선류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비용은 동네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제관(祭官)을 선정할 때는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으로서 나이가 70 이상 되어야 하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선정된 제관(祭官)은 사흘 전부터 목욕재계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제관(祭官)집과 당산나무에 금줄을 쳤다. 마을입구에 조탑(造塔)(돌무데기)이 있었는데 교회가 들어오면서 미신이라고 하여 이 조탑(造塔)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돌을 이용하여 70년 전에 교회 옆에 있는 종탑을 만드는데 쓰였다. 이 종탑의 둘레는 9m60cm 이고, 그 형태는 첨성대와 모양이 같다. (김명곤, 남, 84세)

(3) 양신마을

이 양신마을은 지금도 당산제를 지내는 마을이다.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에 지낸다. 당산나무는 마을입구에서 올라다보면 20m 지점에 서있는데 둘레는 2m45cm 이고, 수종은 상수리나무이다. 수령은 적어도 300년 정도 되었는데 제단은 없고 상수리나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은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그 다음이다. 이 마을은 당산제를 지내기 전에 왼쪽으로 끈 새끼줄을 당산나무 군락에 두르고 그 새끼줄 사이에 한지를 끼워 넣는다. 이처럼 새끼를 왼쪽으로 끈 이유는 귀신, 즉 잡귀는 왼쪽으로 넘겨야 넘어간다는 이유라다. 그리고 한지를 넣는 이유는 그 사이에 잡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금줄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침에 풍물을 울리고, 저녁에 당산제를 지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

나면 당산나무 앞에 모닥불을 피운다. 이 동네를 밝히고 당산제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다시 풍물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징, 팽가리, 장구, 북, 소고, 상고로 약 10명 정도가 동네 주위를 돌면서 풍물을 한다. 제물로 는 밥, 밤, 대추, 홍합, 새우, 명태, 가오리, 피문어, 소고기, 닭고기, 돼지머 리, 그리고 산채나물이 올라가고 삼탕과 오탕, 칠탕이 올라간다. 비용은 동 네에서 거출하여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밥과 제물을 올리는 사 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당산제 당일 밥을 올리는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다 고 하는 사람, 즉 상가, 출생이 없는 사람이 알아서 밥을 올리는 것이다. 그 래서 해마다 밥상은 10~20그릇 정도가 된다. 하지만 제물은 그 해에 제관(祭官)으로 선정된 사람만이 올린다. 제관(祭官)선정 방법은 정월 초사흘 3개 월 전에 집안에 초상이나 출생이 있는 자는 안 되며, 연세가 높은 사람(70세 정도)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낸다. 그 해 제관(祭官)과 밥을 올리는 사람은 15일 전에 초상집이나 아기 낳은 집에 가지 않아야 하고 제물을 마련하는 여 자의 경우 달거리하거나 옷맵시가 단정치 못하면 젓밥을 하지 못하며 음식 장만시 참가하지도 못한다. 제관(祭官)은 당산제 사흘 전부터 매일 목욕재계 하며 일체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아야 한다. (장중현, 남, 76세)

(4) 요전마을

요전마을은 침곡리에 존재하는 마을이다. 원래 이 마을에는 당산제를 지 냈었는데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다만 이 동네에서는 앞당산과 뒷당산이라 는 이름만은 뚜렷하게 부르고 있었다. 앞당산의 경우 마을 입구에서 15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종은 귀목나무이다. 둘레는 4m63cm 이며 수령 은 400~5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뒷당산은 앞 당산에서 약 100m 위 에 존재한다. 수종은 참나무이고, 둘레는 3m14cm 이며 수령은 앞당산과 마 찬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할머니의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당산제가 있을 때 는 음력 10월 초하루 저녁에 지냈다. (정정임, 여, 77세)

(5) 사곡마을(복실)

이 마을에는 해마다 산제를 지낸다. 그곳은 소나무 4그루가 서있는데 정 월 초이튿날 행사를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와 삼색실과, 떡, 밥 등이 올라가 는데 산제를 올린 다음 마을 뒤쪽에 있는 첫 번째 당산나무(둘레가 3m4cm 이고 다른 하나는 둘레가 6m5cm이다.)에서 시작하여 마을 입구에 있는 두

번째 당산나무(느티나무)를 거쳐 마지막으로 샘물에서 귀신을 달래는 행사를 한다. 이 제사는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비용을 마련하여 제관(祭官)을 선정하여 지내는데 제관(祭官)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으로 부정이 없는 사람으로 선발하여 산제를 지낸다. 산제를 지내기 전에는 금줄을 치고 목욕재계를 하여 몸을 청결히 하고 변소 갈 때도 갔다 와서 옷을 갈아입고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켰다. (송삼순, 여, 66세)

(6) 난평마을

이 마을은 화양리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박기수씨는 난평마을의 당산제는 100여 년 전부터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산나무는 마을 입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수종은 귀목나무이고 둘레는 6m29cm이며, 당산나무 둘레에 여러 방술나무가 존재하지만 당산이라고 불리는 것은 귀목나무라 한다. 수령은 약 40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단은 없고 지금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단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담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박기수, 남, 60세)

사) 계북면

(1) 연동마을

연동마을에서는 약 10년 전까지는 정월 초사흘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당산제를 지내다가 제를 모실 사람이 없어서 더 이상 당산제를 모시지 않는다. 당산나무는 둘레가 4m 정도이고 수령은 250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수종은 느티나무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이 잘 되고 병이 없게 하는 것이다. 제수(祭需)는 돼지머리, 시루떡 그리고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음식, 조기, 명태, 과일, 대추, 밤, 나물 등이다. 제가 끝난 뒤 동네잔치를 한다. 제관(祭官)은 동네에서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아기를 낳지 않고 집안에 젊은 사람이 없는 집으로 하여 나이 많이 드신 분들로 두 명 선정한다. 한 명은 축문을 읽고, 다른 한 명은 음식을 짬어지고 올라가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서낭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또한 남근석(男根石)이 있었으나 길을 내면서 깨버렸다. 이 남근석을 깨버린 후 사람들에게 우환이 생긴다고 한다. (이기태, 남, 46세)

(2) 농소마을

이 마을의 당산제는 산신을 모셔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는 산신제와 마을 안에 있는 노거수 과목을 수호신으로 하는 안당산제 두 곳에서 지낸다. 노거수 과목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둘레가 9m80cm 이고 느티나무이며 수령은 600년 정도 되었다. 제일은 정월 초하루인데 설날 그믐날 제수를 장만하여 설날 새벽 2시에 당제를 지낸다.

산신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동편에 있는 작은 동산 꼭대기 노송이 있는 곳에서 제관(祭官)과 축관 두 사람이 장만한 제수를 지계에 지고 올라가 당산제를 모시게 되는데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또는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지낸다. 산신제를 마치면 곧장 내려와 안당산제를 지낸다. 제관(祭官)과 축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매일 목욕재계하고 외출, 부부동침, 비린 것 등을 먹지 않고 금기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했다.

제물은 돼지머리, 소지, 삼색실과, 미역자반, 백설기, 건포, 과자류 등이며 탕은 쓰지 않았다. 비용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거출하여 마련하였고, 당산제가 끝나면 그 다음날 제관(祭官) 집에서 마을 사람들이 음복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루를 흥겹게 보냈다.

(3) 양악마을

양악마을에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새벽 12시에서 3시 사이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는데, 당산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당산바위가 존재한다. 이 당산바위는 윗당산과 아랫당산이 있는데 윗당산은 큰산제당(제단: 가로 1m20cm, 세로 1m30cm, 높이 50cm)이라 불리며 이는 마을 전체가 공동제를 지내는 당산제터이고, 아랫당산의 경우는 산제당(제단: 가로 1m51cm, 세로 1m93cm, 높이 60cm)이라 불리며 이는 개인이 비는 당산제터다.

제를 지낼 때 올리는 음식으로는 과일, 돼지머리, 떡, 나물, 명태 등 일반 음식과 비슷하다. 당산제는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지내는데, 이때 제관(祭官)은 두 명으로 산제답(마을공동답)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제관(祭官)으로 임명되는데 만일 제관(祭官)이 부정을 타게 되면 마을에서 다시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제를 지내기 며칠 전에는 금줄을 치는 등 부정을 방지하게 되고 제관(祭官)은 초상이 난 곳 등 곳은 데는 가지 못한다. 제가 끝난 뒤 풍물을 치고 제관(祭官)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음복을 한다. 당산제터는 마을 저수지 위 산 쪽에 있다. (정춘모, 남, 66세), (진봉양, 남, 69세)

(4) 당저마을

당저마을에는 당산제를 현재는 모시지 않고 있는데, 원래 6·25 한국전쟁때 모시지 않다가 다시 모셨으나 현재는 젊은 사람들이 모시지 않아 모시지 않고 있다. 처음에 당산제를 지냈던 이유는 호랑이가 내려와 자꾸 가축을 죽이는 등 해가 많이 생기자 마을사람인 박지하라는 사람에게 논1마지기를 주고 제를 모시게 했다. 제는 정월 초사흘날 밤 12시에 지냈다. 당산나무는 귀목나무(둘레 1m60cm)로 그 앞에 놓여있는 바위에다 제를 지낸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를 모신다.

제수(祭需)는 조기, 가오리, 상어, 명태, 홍합탕, 돼지, 꽃감, 대추, 밤, 삼실과 등이 올라간다. 이 음식은 제관(祭官)만 먹을 수 있는데 만일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즉사한다. 실제로 상주가 먹었다가 즉사한 예가 있다고 한다. 제를 마친 후 팽과리를 치는 등 풍물을 한다.

제관(祭官)은 착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마을회의에서 선달그믐날에 제관(祭官)을 선정한다. 제관(祭官)이 되면 제를 지내기 전 사흘은 집밖에 나가지 못한다. 제관(祭官)은 집 앞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까는데 굿은 사람의 접근을 피한다.

당산나무 옆에는 ㄷ자 모양의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 속에는 3개의 뿔쭉한 돌(좌: 둘레 43cm, 높이 13cm, 중앙: 둘레 26cm, 높이 18cm, 우: 둘레 32cm, 높이 12cm)이 세워져 있다. 당산제를 모실 때는 이 돌들에 고깔을 씌우고 금줄을 치고 밥을 세 공기 떠서 앞에 진설한다. 그러나 일제 때 일본인들이 보기 싫다고 하여 ㄷ자 모양의 제단 앞에 다시 돌담을 쌓아 현재는 ㄱ자 모양이 되었다.

이 마을에는 또한 산제바위라 하여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공을 들이는 바위가 있다.

(5) 파곡마을

파곡마을에는 원래는 정월 보름에 당산제를 지내다가 최근에 초사흘날 밤에 지낸다. 보름까지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정을 많이 타기 때문에 정월 초사흘날로 바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다. 당산나무는 소나무로 둘레는 1m50cm이고, 수령은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당산나무 앞에는 제단(제단: 가로 80cm, 세로 50cm, 높이 20cm)이 있다. 이 당산나무는 왼쪽 뒷동산에 있는데 제를 지낼 때 올리는 제수(祭需)는 돼

지머리, 떡, 조기(생선말린 것으로), 채소, 과일, 술, 대추, 밤, 꽃감 등이 올라간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이고 당산제를 지낸 후 제관(祭官)의 집에 모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음복한다.

제관(祭官)은 한명으로 마을 동답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책임을 지고 제를 모신다. 이때, 제관(祭官)은 설을 쇠면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하여 집밖에 절대 나가지 않는다. 제관(祭官)의 집 앞에는 금줄이 쳐진다. 옛날에 동답이 없었을 때는 마을에서 제비를 거출하였다고 한다. (육춘기, 남, 64 세), (엄기섭, 남, 71 세)

(6) 월전마을

월전마을에서는 현재는 당산제를 지내지 않는데 몇 해 전에는 산신제라 불리는 당산제를 지냈다. 마을 앞산 중턱에 있는 당산묘에서 지냈는데 지금은 길이 사라져 찾을 수 없다. 제는 음력 정월 초사흘날 새벽에 지냈는데 제수(祭需)는 일반 제수(祭需)와 같았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마을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자손 없는 사람에게 전답을 주어 제를 모시게 한다. 제를 잘 지내면 아이를 갖는다고 하다. 귀일답(자손 없는 사람의 제를 대신 지내주는 대신 받는 전답)이라는 전답이 따로 있어 제비용은 거출하지 않는다. 제관(祭官)은 냇가에서 목욕재계를 하는 등 몸을 깨끗하게 한다. (박상근, 남, 63 세)

(7) 백암마을

당산제는 정월 초사흘날 새벽 12시에서 3시 사이에 당산제를 모시고 있는데, 당산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바로 앞산 중턱에 위치한 당산바위(제단: 높이 56 cm, 가로 1m48cm, 세로 87cm)이다.

제수(祭需)는 밤(껍질을 까지 않은 생밤)등 비교적 간단히 올리는데 생선, 삼실과 등 일반 제수(祭需)와 비슷하게 올린다. 제를 지내는 목적은 동네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이고 제가 끝난 뒤 풍물을 하고 제관(祭官)집에 모여 음복을 한다.

제관(祭官)은 마을에서 직접 선정하는데 일신의 궂은 일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관(祭官)은 한명으로 제를 모실 때 마을 사람들의 성명을 일일이 낭독하여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제를 모시기 전 제관(祭官) 집 앞에는 금줄을 치는 등 궂은일을 방지한다. 옛날에 조산이 있었으나 15년 전쯤에 사라졌다. (임영규, 남, 59 세)

41) 호랑이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간다.

42) 장수군《장수군지》, 남원 중앙인쇄사, 1997.

(8) 내림마을

내림마을은 산신제라 불리는 당산제를 지냈었는데 7~8년 전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는다. 당산나무는 마을 뒷산 중턱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나무로 둘레는 2m15cm이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계속 지냈기 때문에 당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안하면 손해⁴¹⁾본다. 또한 하늘님에게 마을의 안녕을 비는 뜻에서 지내기도 하고 돌림병이 돌아서 지내기도 한다.

제관(祭官)은 아들 없는 집만 할 수 있는데 깨끗이 하지 않으면 지낸 사람이 산짐승에게 피해를 본다. 이때 제관(祭官)은 찬물로 목욕재계하고 장을 볼 때는 값이 비싸도 값을 절대 깎지 않는다. 산제 모신 다음날 제관(祭官)집에 가서 풍물을 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 비용은 마을에서 거출한다. 이 마을에서 당산제를 모시지 않은 후로 하늘님의 조화로 젊은이들이 다치는 등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순용, 남, 74세)

4. 사례(四禮 : 관혼상제(冠婚喪祭)⁴²⁾

원시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은 생존한다는 것 이상은 생각할 수 없었다.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먹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걸치고 잠을 자고, 머무르기 위해서 움집을 짓고 살았다. 동물적 생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의식주(衣食住) 생활에 머물렀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지혜와 말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갔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많지만 인간은 도덕규범과 예의범절을 가졌기에 인격자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인 것이다. 특히 우리 조상들은 예도(禮道)를 존중하는 문화민족(文化民族)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했다.

우리 조상들의 생활양식은 단순한 의식주(衣食住)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의식면에 치우쳐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례(儀禮)가 마치 인류생활의 전부인 양 중요시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중국 송대(中國宋代)의 주자학설(朱子學說)〈주희(朱熹) : 유학(儒學) (공맹학(孔孟學))을 집대성한 거유(巨儒)〉에 따라 명(明)의 구준(丘濬)이 수록한 주자가례(朱子家禮)란 예절규범을 고려(高麗)말엽 이 땅에 도입한 후 근세조선(近世朝鮮) 중종조(中宗朝)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김정(金淨), 김식(金湜) 등의 도덕정치의 제창으로 모든 문물과 예절이 유교의식으로 제도화됐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동춘당(東春堂)

송준길(宋俊吉) 등 예문의 대가에 의해 사례의식(四禮儀式)은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삼게 됐으며 그 의식의 절차가 여간 까다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식절차 때문에 당파 싸움까지 일기도 했다. 기해예송(己亥禮訟)이라 해서, 효종(孝宗)모의 초상에 대한 모후(母后)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服喪)기간을 놓고 서인(西人)기년복(忌年服, 1년服) 주장과 남인(南人) 3년복(服) 주장의 싸움이 35년간(현종대顯宗代 15년, 숙종대肅宗代 20년)이나 계속됐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 특히 근세조선(近世朝鮮) 중엽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 사례(四禮)의 의식이 중요시 됐는데, 근세조선(近世朝鮮) 말엽 도암(陶庵) 효제(孝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나온 후로는 계급사회의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의례(儀禮)의 참뜻도 모르면서 외형으로는 사대부의 행세를 하고 의식 절차에만 치우친 관계로 의식은 더욱 형식화되고 낭비만 조장했다.

세월이 흘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식에 치우치는 의식은 오히려 허례허식으로 흐른다는 여론과 유교 이론의 기본인 효사상(孝思想)의 가치기준 변화에 따라 사례(四禮)의 의식절차도 많이 간소화됐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급진적 발달로 배금주의가 팽배하면서 유독 인간대사인 혼인 분야는 배우자의 선택에서 인간의 인격이 가치판단 기준이 아니라 물질이 기준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식의 폐습을 일소하고 낭비를 억제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1973년 5월 17일 대통령령 제6680호로 가정의례준칙을 제정 공포하여 모법(母法, 구법舊法 1969. 3. 5. 대통령령고시 제15호)과 함께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나,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법 시행 17년만인 1989년초에 준칙을 폐지하고 말았다.

다음에 유교윤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사례의식(四禮儀式)과 장수의 예속(禮俗)을 살펴본다.

가. 관례(冠禮)

관례란 다른 말로는 성인식(成人式) 혹은 성년식(成年式)을 말하는 것으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다. 성인(어른)이란 신체와 지능이 완전히 발달하여 행위능력이 있는 청년을 말하며, 인격자로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소유자, 다시 말해서 육체적 성숙만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정신과 인격을 갖추고 윤리규범에 입각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각

과 예지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나라와 겨레를 위한 동량으로서 구실을 다 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미 성인이 된 부모와 사회의 선배들은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자아발견의 자각과 긍지를 갖고 미래를 지향하는 성년이 되는 사람에게 축복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어른이 된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 옛날 상급사회인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관례(冠禮)라는 의식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 관례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 의의는 매우 커서 공인(公人, 어른)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크게 부여했다. 중국 송대(中國宋代)의 거유(巨儒)였던 정자(程子)는 관례(冠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冠所以責成人 冠禮廢 天下 無成人 既冠矣 不責以成人之事則 終其身 不以成人望之也
관소이책성인 판례페 천하 무성인 기관이 불책이성인지사측 종기신 불이성인망지야
(관례는 성인이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관례를 폐지하면 천하에 성인이 없는 것이 되니라. 이미 성인이 됐는데도 성인의 일을 책임 지우지 않으면 몸이 다 하도록 성인을 바랄 수 없다.)

관례(冠禮)에는 삼가례(三加禮)의 의식이 있는데 가관(加冠, 관을 쓰는 것)에 삼단계가 있음을 말한다.

초가(初加)에는 치포관(緇布冠, 유생이 평시에 쓰는 검은 베로 만든 관)을 쓰고 재가(再加)에는 피관(皮冠, 皮辨이라고도 하며 塵皮로 만든 고깔 관)을 쓰고 삼가(三加)에는 작관(爵冠, 爵辨이라고도 하며 구슬이 늘어진 관)을 쓰는 것이다.

다음은 근세조선(近世朝鮮)에서 유교 의 거봉(巨峯)이며 예문(禮文)의 대가였던 사계(沙溪)선생, 우암(尤庵)선생, 동춘당(洞春堂)선생은 관례의식(冠禮意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男子年 二十而冠 前期三日 主人 告于祠堂 有祝辭 擇友賢而有禮者 戒而爲賓 又擇子弟親戚中習禮者爲賓 出接賓 又擇子弟親戚中習禮者 爲贊者 行事于廳事 三加皆有祝辭 而冠則 沙溪曰 初加以程冠 再加以笠子 三加以儒巾 服則 初加以深衣 再加以皐衫 尤庵曰衫 如今黑團領 皆可用 同春曰 無深衣 用直領道袍 似宜 女子年 十五 雖未許嫁 亦笄 母爲主 亦擇親姻婦女之賢有禮者 爲賓 賓亦如之 略如冠禮

(남자의 나이 20이 되면 관례를 올리는 것이니, 그 3일전에 주인이 사당

에 나아가 아뢰되 축사를 하고 벗 중에 어질고 예의 바른 사람을 골라 조심스레 손님으로 삼고, 또 자제 친척 중에서 예절을 익힌 이로 하여금 안내자로 삼아서 손을 맞이하러 나가게 하고 또 자제 친척 중에서 예절을 익힌 이로 하여금 찬례자로 삼아서 대청에서 행사하되 세 번 가관을 할 때마다 축사가 있다. 또한 가관에 대해서 사계(沙溪)선생이 가로되 처음 가관에는 정관(程冠)을, 두 번째 가관에는 입자(笠子)를, 세 번째 가관에는 유건(儒巾)을 머리에 쓰며 복장에 있어서도 초가례는 심의(深衣) 한대책임복(漢代責人服)을 입고 재가(再加)때는 조삼을 입는다. 하니 우암(尤庵)선생이 가로되 조삼은 지금의 흑단령(黑團領)과 같아서 흑단령(黑團領)을 입어도 좋다 하고, 동춘당(同春堂)선생이 가로되 심의(深衣)가 없으면 직령도포(直領道袍)도 가능(可)하다고 하니라. 여자의 나이 15세가 되면 시집을 가지 않았더라도 비녀(笄)를 뽑는 것이니 어머니가 주(主)가 되어 친인척부녀(親姻戚婦女)중에서 어질고 예의 바른 사람을 골라서 빈(賓)이 되게 하고 빈(賓)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와 같이 골라서 대략 관례와 같이 하니라.)

이러한 의식절차는 대략 음력 정월에 택일하여 조상을 모신 사당 뜰이나 대청에서 행했으며 가관(加冠) 때마다 금월 길일(令月 吉日)에 시가원복(始加元服)하노니 기이유지(棄爾幼志)하고 순이성덕(順爾成德)하라는 축사(祝辭)를 한다. 또한 관례(冠禮)를 올리고 나면 어릴 때 부르던 ‘이름’ 대신 ‘자(字)’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땅꿇던 땡기를 풀어서 상투를 틀어 올리는 등 성인 대접을 해 주는데, 이 때부터 관동지별(冠童之別)이 엄연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땡기를 땅꿇으면 아이 대접을 받게 되고, 나이가 작아도 상투를 꽂고 관례(冠禮)를 올리면 어른 대접을 받으며, 땡기 땀은 이는 그 밑에 들어간다. 후에 삼가(三加)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가관(加冠)을 한 번으로 그치는 약식 관례도 많았다. 약식 관례는 보통 초립(草笠)을 한 번 씌우고 전가족이 모여서 축하 잔치를 했으며, 또한 마을의 경사로서 마을 잔치를 베풀었다. 평민의 집에서는 혼인일(婚姻日)을 정하고 삼일 전에 땡기를 풀어서 상투를 꽂고 관을 씌으로써 관례에 대행했는데, 이 때 친구들에게 ‘땡기풀이’라고 해서 푸짐하게 술과 안주를 준비해서 한 톱 낸다. 농촌에는 이런 풍속이 최근까지 전해 오고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고려광종(高麗光宗) 16년에 왕태자가원복의(王太子加元服儀)라고 해서 태자(太子) 신(伸)에게 원복(元服)을 가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관례(冠禮)의 처음이다.

근세조선(近世朝鮮)에서는 남자의 나이 15세가 되면 망건(綱巾), 복건, 초립(草笠)을 한꺼번에 거듭하여서 삼가(三加)의 예(禮)를 약식으로 행하기도 했다.

여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지만 관례(冠禮)를 ‘례’라고 하는데, 나이 15세면 혼인을 안했어도 머리를 올리고 계(비녀)를 꽂는다.

위에 적은 관례(冠禮)는 사대부(士大夫)인 양반가(兩班家)에서 행했던 일종의 유교식 성년의식(成年儀式)이며, 원시사회나 중근세(中近世) 상민사회에서도 성년이 되는 데에는 성년고행(成年苦行)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삼한시대(三韓時代)에는 고행을 거쳐야 장가갈 자격을 얻었다. 성년고행(成年苦行)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등쪽의 근육을 뚫고 끈을 매어 끈에다 나무를 묶어서 끌어다 짐을 짓는 일이라든지, 지금도 산에 가면 뽕바위, 안돌이 바위, 등 돌이바위, 들독거리 등 명칭에서 보듯 성년으로서의 인정이 쉽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바위를 뛰어 넘는다든지 천애절벽 위에 있는 바위를 가슴에 안고 돈다든지 등대고 돈다든지 무거운 돌(들독)을 들어서 어깨 너머로 넘긴다든지 하는 어른(장정)이래야 할 수 있는 어려운 고비를 거쳐야만 어른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성인의 인정을 받으면 반(半) 품삯에서 온(全) 품삯을 받았다.

성년으로 가는 과정에 고행절차를 거치게 했던 것은 어른들에게 의존만 했던 단일한 생활에서 사회나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른의 자질을 갖추게 함이었다. 최근세에 접어들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을 정해 놓고 성년이 되는 남녀에게 어른으로서의 인정과 사명감을 심어 주며 축복과 격려하는 축하행사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만 20세가 된 청년남녀를 축하했는데 다음 해에는 5월 6일을 성년의 날로 고쳤으며 그 후 또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고쳤다.

옛날에는 법률적인 측면보다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관동지별(冠童之別)이 엄연했지만 근래에는 도덕적인 면보다 법률적인 면에서 성년과 미성년의 판별과 의무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다음에 관련된 법조항을 열거해 본다.

- ▲ 민법(民法) 제 4조 : 만 20세로 성인이 된다. 만 20세 생일전일부터 법적인 성인이 된다.
- ▲ 헌법(憲法) 제 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민법(民法) 제 916조 : 성인이 되면 법률 행위의 완전한 주체가 되며 재산권을 갖는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법률 행위를 독립해서 할 수 있다. 혼자 집을 사고 팔 수도 있다. 미성년자로서 지금까지 친권자 및 후견인의 보호와 승락에 의해 행동했던 것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병역의무 조항)
- ▲ 헌법 제39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기본적 국방의 의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 ▲ 민법 제 106조 : 성년이 되면 유언을 할 수 있다. (만17세) 상속 포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양자로 입적할 수 있다. 계리사 취업가능, 유흥업소 갖을 수 있다. 죄를 짓게되면 신문방송서 가명 아닌 본명으로,
- ▲ 민법 제807조 :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면 혼인할 수 있다.

나. 혼례(婚禮)



전통혼례사진(합동결혼식)

우주만물은 음양의 조화로 인해서 생성 발전하는 것이 자연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혼인은 인생에 있어서 남(男, 陽)과 여(女, 陰)의 결합이기에 예로부터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 꼽았다. 무릇 생명체를 가진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개체유지와 종족유지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종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세포생물을 제외한다면 음양(陰陽)의 결합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생물 즉 동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은 문화를 창조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남녀가 결합을 함에 있어서는 복잡한 의식(儀式)절차의 혼인 풍습이 있다. 인류의 혼속(婚俗)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신라(新羅)와 고려(高麗)의 왕실에서는 동성혼(同姓婚)이 성행하였고, 고구려(高句麗)에서는 구매혼(購買婚)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사나이가 아내를 얻으려면 일정기간 처가살이를 하면서 일을 돌보다가 어린 아이를 낳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와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장가간다는 말을 쓰는데 장가(丈家)란 장인장모(丈人丈母)의 집 즉 처가를 일컫는 말이다. 삼국지(三國志) 고구려전(高句麗傳)에 보면 딸을 가진 집에서는 사위집(婿屋)이라고 부르는 소옥(小屋)을 지어 놓고 사위감을 기다리다가 석양에 사위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외고 엎드려 절하며 딸과 함께 살게 해 달라고 두세 번 애걸하면 여자의 부모가 이 말을 듣고 서옥(婿屋)에서 머물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옆에는 돈과 폐백(幣帛)을 쌓아 놓는다. 다음에 자식을 낳아 성장하면 그 때에야 비로소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우리는 모계제도와 여자 중심의 혼속(婚俗)을 엿볼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장가(丈家)든다는 풍습도 여기서 유래된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옥저전(三國志 沃沮傳)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으나 주서 고구려전(周書 高句麗傳)에는 자유 혼인의 풍습이 있었음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몇 가지 혼속(婚俗)이 있었던 것 같으나 구매혼(購買婚)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 같다.

신라(新羅)나 고려왕실(高麗王室)에서 행했던 동성혼(同姓婚)은 혈족혼(血族婚)으로서 남매혼(男妹婚) 숙질혼(叔姪婚)까지 있었다니 이것은 우생학적(優生學的) 견지에서나 가족제도상으로도 인륜도덕적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며 금수(禽獸)와 다를 바가 없는 혼인 풍습이다. 성호(星湖)는 신라(新羅)의 혼인 풍습을 본받은 고려왕실혼(高麗王室婚)을 추잡하고 더러운 행위라고 통박(痛拍)했다. 전설에 따르면 왕씨(王氏)는 고려왕족(高麗王族) 용손(龍孫)이라서 겨드랑에 비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동성혼(同族婚)을 했다는 말도 있다.

근세조선(近世朝鮮)의 혼인 풍습을 살펴보면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고구려(高句麗)의 구매혼(購買婚)이나 고려(高麗)의 동성혼(同姓婚)을 배격했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조선조(朝鮮朝) 개국공신 정도전(鄭道傳)은 남자가 처가살이에 들어가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반계수설(蟠溪隨說)에는 사대부(士大夫)의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처(娶妻)라 아니하고 입장(入丈) 혹은 입장가(入丈家)라고 한다. 이것은 양(陽)

의 남(男)이 음(陰)의 여(女)를 따라가는 것으로 남녀의 큰 뜻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장가드는 풍습을 통박(痛拍)했다.

맹자학(孔孟學)을 대성한 주희(朱熹, 중국 송대의 거유)의 성리학(性理學)이 고려말(高麗末) 이 땅에 도입되면서 예절규범(禮典規範)인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예절(禮節)의 본이 되었고, 근세조선(近世朝鮮) 중종조(中宗朝)에 조광조(趙光祖 金淨) 등의 도덕정치 제창 후로 예문(禮文)의 대가가 속출되면서 사례(四禮, 관혼상제冠婚喪祭)를 인간가치기준(人間價值基準)의 척도로 삼으면서 혼인(婚姻)에 육례(六禮)를 준수하도록 정했다.

육례(六禮)란 ① 납채(納采)의혼(議婚) ② 문명(問名) ③ 납길(納吉) ④ 납징(納徵) ⑤ 청기(請期) ⑥ 친영(親迎)이다. ① 납채(納采)→신부(新婦)집에 청혼(請婚)하는 것. ② 문명(問名)→신부(新婦)의 사주성명(四柱姓名)과 어머니의 성씨(姓氏)를 묻는 것 ③ 납길(納吉)→신랑(新郎) 집에서 혼인일자(婚姻日字)를 받아서 신부(新婦) 집에 통보하는 것 ④ 납징(納徵)납폐(納幣)→신부(新婦)집에 예물(禮物)(비단)을 보내는 데 혼서(婚書)도 같이 보내며 보통 밤에 보내는 것이 상례이다. ⑤ 청기(請期)→혼인일자의 여부를 신부 집에 편지를 보내서 묻는 것 ⑥ 친영(親迎)→신랑(新郎)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친히 맞이해 오는 것이다.

육례(六禮)가 너무 복잡해서 사례(四禮)의 약식의례도 있다. 사례(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이다. 친영(親迎)은 육례(六禮)나 사례(四禮) 중에서 가장 촛점을 이루며 당일 혼인식을 올리는 것을 일컫는다. 친영(親迎)길에 오를 때는 먼저 사당에 고해야 한다. 종교에서 그 종교만이 갖는 절대자 신(神)을 섬기고 받드는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만 유교(儒敎)는 현실생활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인륜도덕을 교도하는 본산이며 신을 섬김에 있어 반드시 조상신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향당(鄉堂)에서 중요행사가 있을 때면 먼저 조상신에 고하는 것은 유교문화권에서는 당연한 예의이다. 친영일(親迎日) 새벽에 신랑은 목욕재계하고 사당에 나가서 조상의 위패 앞에 부복(俯伏)하고 친영 길에 오르게 된 것을 고한 뒤에 부모님께 인사드린다. 이 때에 아버지는 ‘이제 아내를 얻어 종사(宗事)를 잇게 하라.’고 당부하면 ‘명(命)대로 이행(履行)하겠습니다.’하고 사모관대의 성장에 검은 신을 신고 승마를 하던지 교자에 올

라서 신부 댁으로 친영(親迎)길에 오른다. 신부 집에서도 부모는 딸에게 ‘삼가고 삼가서 규문(閨門)에 욕됨이 없게 하라’고 당부한다.

친영길에는 함진아비가 목안(木雁)을 안고 앞서서 가며 신랑의 친속(親屬), 백숙부(伯叔父), 당숙(堂叔), 형(兄) 중에서 수인(數人)이 함께 상객으로 간다. 신랑 일행은 신부 댁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바깥채나 이웃집의 방에서 머물게 된다. 이 집을 정방 혹은 사저라고 부른다.

대례(大禮)혼례(婚禮) 전에 납폐시(納幣時)가 되면 함(신부의 옷감 등 예물(禮物)을 넣은 괴좌)을 신부집에 전하게 된다. 이 때 신부 집에서는 대례청(大禮廳)에 자리를 깔고 병풍을 친 뒤에 팔자 좋고 복 많은 여자에게 함을 받도록 한다. 받은 함은 큰 방으로 가지고 가서 ‘복이 왔네’ 하고 왼 다음에 한쪽에 놓는다. 이것을 납폐례(納幣禮)라고 한다.

옛날에는 폐백(幣帛)털기, 타봉징(打封徵)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폐백(幣帛)털기란 신부댁에 폐백(幣帛)을 보내면 신부댁 동네의 청소년이나 건달패들이 떼를 지어 신부 댁에 뛰어들어 혼란을 일으키고 함과 기물을 훔쳤다가 술과 음식을 배불리 대접받은 뒤에 돌려주고 돌아가는 악습의 장난이다. 지금도 그 유습(遺習)이 남아서 신랑의 친구들이 떼를 지어 함을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함 사시오’라고 외친다. 함값을 조금 주면 함을 건네주지 않다가 많은 함값을 받고 넘겨주는 경우는 장난치고 너무 지나친 악습이라 하겠다.

혼례시(婚禮時)가 되면 신랑은 말이나 교자를 타고 신부 집에 마련된 대례청(大禮廳)으로 안내되는데 먼저 대반(對盤, 신랑을 접대하는 사람)이 읊을 하면 신랑은 하마(下馬)해서 안부(雁夫)가 건네주는 목안(木雁)을 받아서 안상(雁床)에 정중히 놓고 나온다. 그러면 신부집 하님은 목안(木雁)을 안아다가 신부 앞에 놓는다. 이것을 전안례(奠雁禮)라 한다. 기러기는 우모린삼족중(羽毛麟三族中)에서 가장 신(信)이 있는 새이므로 이를 상징해서 행하는 풍습이다.

다음 신랑은 대반(對盤)의 인도하는 바에 따라 대례청(大禮廳)에 마련된 초례상〈교배상 친영상(交拜床 親迎床)〉앞으로 가서 서는데 대례청(大禮廳)은 신부 집 대청이나 아니면 마당에 차일(遮日)을 치고 바닥에는 명석 위에 화문석(花紋席)을 깔고 양편에 둘러친 병풍 중앙에는 초례상을 설치한다. 상 위에는 찹쌀과 좁쌀을 두 그릇씩 놓고 가운데는 되어지 온마리를 놓는 것이지만 번폐스럼기 때문에 머리만 놓는다. 그리고 홍촉(紅燭) 한 방에 불을 켜 놓고 양편에는 만수향(萬壽香)을 피운다.

홍촉(紅燭)을 켜놓는 까닭은 고대에는 혼례를 낮에는 외람(猥褻)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어두운 밤에 치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婚字)를 보면 여(女)변(邊)에 어두울 혼(昏)자를 썼는데, 종여종혼(從女從昏)이 된다. 다음에는 청실홍실이 늘어진 표주박과 삼색과실(三色果實)에 술을 준비한다. 대례(大禮)준비가 다 되어서 신랑이 대례청(大禮廳)에 인도되면 집례자(執禮者)가 흘기(據記, 식순式順)를 부르는 대로 예식이 진행된다.

먼저 집례자(執禮者)가 신랑동향입「新郎東向立」하면 신랑(新郎)은 동쪽을 바라보고 선다. 다음 신부출(新婦出)하면 신부가 하님의 부축을 받으며 비단으로 얼굴을 가리고 초례상 앞에 선다. 이어서 상견례를 행하는데 하님의 부축을 받은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큰 절로 재배하면 신랑은 큰절로 일배(一拜)한다. 다음은 신랑신부가 그 자리에 반좌(半坐)하고 초례를 행한다. 초례는 청실홍실이 달린 표주박에 술을 부어 신랑의 입에 대었다가 초례상 밑으로 잔을 끌어서 신부에게 건네주면 신부는 입에 대었다가 땅에 붓는다. 다음은 술잔을 신부 입에 대었다가 초례상 위로 들어서 신랑에 건네주면 신랑이 술잔을 입에 대었다가 땅에 부은 뒤에 두 번을 전과 같은 식으로 술잔이 오가는데 그 때는 술을 마셔도 좋다. 안주 접시 위에는 막대기로 된 젓가락이 있는데, 안주는 먹지 않고 뒤집어 놓기만 한다.

이어서 신부가 신랑에게 재배하면 신랑은 일배로 답배한다. 이것은 남존여비의 발상이라고 하는 이도 있지만 깊은 뜻은 남(男)은 양(陽)으로 기수(奇數)요, 여(女)는 음(陰)으로 우수(偶數)라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을 교배례라 하는데 이는 천지신명에게 백년해로와 동고동락을 맹세하는 것이다.

원래 예법(禮法)에는 당일우귀(當日于歸) 즉 신부가 신랑을 따라 그 날로 시가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3일우귀(三日于歸), 즉 3일 만에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시가로 가는 풍습이 생겼다. 삼일우귀(三日于歸)가 통속화 된 지라 신랑 신부의 첫날밤은 신부 집에서 신방을 차리게 된다. 신방은 신랑 신부가 처음 동침하는 방으로서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면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신랑은 대작(對酌)을 하면서 신부에게 말을 건넨다.

이때 신랑은 상에 있는 밤과 대추를 도포의 소매자락에 넣었다가 동생들에게 가져다준다. 밤이 되어 신랑 신부가 잠자리에 들 때는 먼저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원삼의 옷고름을 풀어 준다. 옷고름을 먼저 풀어주는 것은 원을 풀어주고 부부일체가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촛불을 끌 때에도 입으

로 붙어서 끄는 것이 아니라 옷소매로 부쳐서 끈다. 밖에서는 ‘신방(新房)지키기’라고 해서 신방을 엿보고 엿듣는 풍습이 있다.

이는 사람이 신방을 엿듣지 않으면 귀신이라도 엿듣는다고 해서 주로 부녀자들이 신방 문에다 침을 발라서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며 히히덕거리고 장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 의하면 ‘이런 악습이 생기게 된 연유는 신방에서 돌발적인 사고, 즉 급사를 당한다던지 또는 악귀가 침입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는 살인사건으로 혼인초야를 피로 물들인 삼화까지 곁들였다. 아무튼 신방 엿보기는 원시사회에서부터 유래된 민속의 하나였으나 후세에 와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밀실을 엿보는 악습이 되었다. 3일이 지나면 신부는 신랑을 따라 시가(신랑집)로 가는데 이것을 신행(新行)우귀(于歸)이라고 하며 신랑 집에서는 잔치를 벌이고 신부를 맞이한다.

신부는 음식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시부모께 술잔을 올리고 큰절로 사배(四拜)를 하며 친척(親戚)과 동기간에게도 인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폐백(幣帛) 또는 구고례(舅姑禮)라고 한다. 다음날부터 조석으로 시부모께 문안드리고 3일째 되는 아침에 신부가 사당에 참배(參拜)함으로써 종신토록 그 집의 주부가 되는 것이다. 보통은 당일 또는 3일 신행을 하는 것이지만 신부 집에 상을 당했든가 또는 신부가 바로 신행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년간 친가에 있다가 택일을 해서 일년 후에 신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신행한 지 3일이 되면 처남들이 누님과 자형을 모시러 간다. 그러면 신랑은 신부와 같이 처가에 가는데 이것을 재행(再行)걸음이라고 한다. 이 때에 신랑은 처족들과 처가 동네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 잔치를 벌이는데 동상례(東床禮)라 한다. 동상례(東床禮)는 신부집 마을의 청장년들이 동네사랑에 모여서 인사하러 온 신랑을 거꾸로 매달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남의 집 딸을 훔쳐간 신랑을 힐책하는 장난인데 신랑은 술과 안주로 동네 사람들에게 대접함으로써 형제처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풍습이다. 이 장난은 사람의 발바닥 중앙에는 성(性)을 자극하는 경혈이 있는데 생리적 욕구를 충동시켜 주는 풍속이라는 설도 있고 옛날 구매혼(購買婚) 또는 도혼(盜婚)의 유습(遺習)이라는 설도 있다.

아무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혼인풍습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고대사회에서 여자중심의 구매혼제도(購買婚制度)가 중근세(中近世)에 들어와서 점차 친영제도(親迎制度)로 바뀌어짐에 따라 혼인풍습이 남자 중심으로 변화되

었고, 혼례의식(婚禮儀式)도 육례(六禮) 또는 사례(四禮)의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됐다. 이로 인해 딸 가진 집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허례허식이 조장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면 딸 셋만 시집보내면 기둥뿌리가 빠진다는니, 잘난 사위 보려면 열쇠 3개(아파트, 자가용, 점포)를 준비해야 한다는니, 고급품 예단(禮單)의 목록을 적어서 보낸다는니,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서기 1969년 6월 1일 가정의례준칙을 제정 공포하여 의례에 허례허식의 폐습을 일소하려고 국민적 호응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나 혼례절차 혼인서약 성혼선언 등 의식절차는 많이 간소화됐으나 중산층 이상에서는 혼사에 있어 사람이 가치기준의 척도가 아니라 황금과 권력이 척도가 되어서 사치 풍조의 사회적 폐습이 더해 감에 따라 의례준칙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1989년 초에 폐지했다.

다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식 몇 가지만 적어 본다.

혼례식순(婚禮式順, 親迎笄記)

1. 주례등단 1. 성혼선언(주례)
1. 신랑입장 1. 주례사
1. 신부입장 1. 신랑신부하객에 인사(주례)
(아버지가 손을 잡고 부축한다) 1. 신랑신부 행진(퇴장) (주례)
1. 상견례(주례) 1. 사진촬영
1. 혼인서약(주례)

❶ 혼인서약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❷ 성혼선언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례 ○○○

상여사진

다. 상례(喪禮)



상례(喪禮)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승에서 회노애락을 같이 겪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헤어지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성이 함축된 의식절차에 따라 가는 이의 명복을 빌면서 죽음을 처리하는 의식이다. 서로가 헤어진다는 것은 서러운 것인데 더군다나 이승과 저승으로 영결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공자도 상즉치기애(喪則致其哀)라는 말을 했다. 아래에 옛날의 복잡한 상례(喪禮)절차를 차례로 서술하고 현재와 비교해 본다.

1) 초종(初終)

- ① 천거정침(遷居正寢) : 병자가 위독할 때는 병실에서 정침(正寢)(부모는 正室 곧 큰방, 기타는 시체를 안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으로 옮겨 청결한 곳에서 그의 마지막 세상을 고별하도록 한다. 이 때에 마지막 유언을 들어서 기록하여 두고 근친들은 근엄한 자세로 운명을 기다릴 즈음에 속광이라 하여 설면자(雪綿子, 풀솜)를 코와 입가에 대어 호흡을 징험한다.
- ② 거애(擧哀) : 근친들은 운명이 되면 벽옹곡읍(壁踊哭漣)이라 하여 슬퍼서 가슴을 두드리고 몸부림치며 통곡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수시(收屍) : 죽은 이의 얼굴과 손발을 거두는 것을 수시(收屍)라 하는데 백지와 솜으로 얼굴을 덮고 머리를 단정히 고여 비뚤어지지 않게 하고 두 팔과 손가락들을 곧게 펴서 모아 놓고 두 다리와 발가락을 곧게

퍼서 단정히 모아 놓은 다음 두 어깨부터 팔과 다리를 백지로 단단히 동여매어 어긋나지 않게 하고 이불로 덮는다. 이 때에 계속 곡을 한다.

- ④ 고복(梟復) : 이것은 초혼(招魂)과 같은 행사로, 운명하면 아랫사람을 시켜서 망인(亡人)의 적삼을 왼손으로 깃을 잡고 바른손으로 허리를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크고 긴소리로 학생 모공(學生 某公, 벼슬이 있으면 某官 某公, 부인의 경우는 남편이 벼슬이 있으면 그에 따라 某夫人, 또는 남자는 아호(雅號)가 있으면 雅號를, 부인은 宅號를)은 모년 모월 모일 모시(某年 某月 某日 某時)에 별세(別世)라 부르고 복-복-복-(復復復) 삼창한 뒤에 적삼을 시체 위에 덮어 준다. 고복(梟復)하는 옷은 벼슬길에 오른 사람은 공복(公腹) 또는 심의(深衣)로 하고 서민은 도포나 직령(直領)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리고 위에 복(復)이라는 말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라는 뜻이라 한다. 대문 앞에는 저승사자의 밥도 차려놓고 그 옆에 짚신도 여러 켤레 놓았다가 불사른다. 이것은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閻羅大王)의 사자가 망인(亡人)을 데리고 저승으로 가기 때문에 밥과 신을 대문 앞에 차려놓는 것인데 노자 하라고 돈을 놓기도 한다. 이 고복행사(梟復行事)가 진행 중일 때는 일체의 곡을 중지한다. 곡소리가 나면 죽은 이의 혼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 것이라 한다.
- ⑤ 피발역복(披髮易服) : 운명을 하면 아들과 딸들은 머리를 푼다. 이 때 양자간 아들이나 출가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않고 남자는 상투에 꽃은 동곳만 때고 딸은 비녀만 뺀다. 그리고 가족들은 색 있는 옷을 벗고 흰옷으로 갈아입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경우는 좌편 소매를, 어머니의 경우는 우편 소매를 꿰지 않고 늘어뜨린다. 이렇게 머리를 풀고 소매를 꿰지 않고 늘어뜨리는 것은 상인(喪人)은 죄인이라 하여 고대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 한다.
- ⑥ 입상주(立喪主) : 상을 당했을 때 상주를 세우는 것은 예법에 정해져 있다. 상주는 반드시 장자가 되는 것이며 장자가 없을 때는 차자가 있어도 장자의 장남인 장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 ⑦ 호상소(護喪所) : 호상소는 초상을 치를 준비를 책임지고 하는 부서다. 옛날에는 호상(護喪)이하 사서 사대돈장(司書 司貸敦匠) 관제조감독(棺製造監督)등 여러 부서가 있었다. 호상은 망인(亡人)의 친구나 상주의 친구 중에서 학식과 인망이 있고 초상범절(初喪凡節)을 아는 사람이 말

43) 원래는 상주만 쓰는 것이다.

는다. 그러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호상을 맡지 않는 것이 상례다. 이때에 호상의 이름으로 타지에 있는 친척이나 친지에게 부고를 전한다. 부고는 상주의 아버지일 때는 대인(大人), 어머니일 때는 대부인(大夫人), 할아버지일 때는 왕대인(王大人), 할머니일 때는 왕대부인(王大夫人), 상주(喪主)의 아내일 때는 실인(室人)이라고 쓰며 젊은이가 오래 고생하다 죽으면 숙환(宿患), 노인(老人)이 고생하다 죽으면 노환(老患)이라 한다. 사망일자와 발인(發引)일자, 그리고 장소를 쓰고 부고 발송 일자를 기재한 다음에 호상(護喪) ○○○ 拜라고 쓴다. 상제(喪制)의 순서는 사자(嗣子)를 먼저 쓰고 자, 서, 제, 질(子婿弟姪)의 순으로 쓴다.⁴³⁾

2) 습염

- ① 목욕(沐浴) : 시체를 목욕시키는 것을 습(襲)이라 하고 시체를 거두어 관에 넣는 것을 염이라 한다. 죽은 이가 생시에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향수(香水)라 하여 향나무 삶은 물로 목욕을 시키는데 향수(香水) 두 그릇을 만들어서 한 그릇은 상체를 한 그릇은 하체를 솜이나 수건으로 적셔서 씻는다. 머리는 빗으로 빗겨서 단정히 하고 손톱 발톱은 깎아서 작은 주머니 다섯 개를 만들어 그 속에 손톱 발톱 빠진 머리털까지 넣은 다음 대렴할 때 관에 넣는다.
- ② 소렴 : 먼저 수의를 입히고 반함(飯含)이라 하여 상주가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떠서 망인의 입 오른 편에 넣고, 염전 한 돈을 왼편 입에 넣는다. 다음은 새 솜이나 백지로 양어깨에 빈틈을 채우고 수의를 여밀 적에 산 사람과 좌우를 바꾼다. 이 때에 웃고름은 매지 않는다. 다음에는 엄(掩, 머리를 씌우는 것), 악수(握手, 손을 싸매는 것), 충이(充耳, 솜으로 귀를 막는 것), 떡목(鞞目, 눈을 가리는 것)을 하고 소염금으로 싸고 장포(長布)로 아래 위를 묶는데 아래서부터 묶는다. 여자의 수의는 여자가 입힌다.
- ③ 대렴 : 소렴이 끝난 뒤에 시체를 칠성판(七星板, 복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별을 그린 송판(松板))에 옮기어 대염금으로 여민 다음 관 속에 지금(地衾)을 깔고, 베개를 놓고, 칠성판과 시체를 관으로 옮긴 뒤에 천금(天衾)을 덮고 풀솜이나 백지로 관을 채운 뒤에 천개(天蓋)를 덮고 은정(銀釘, 나무못)을 친다. 이로써 대렴이 끝난다.
- ④ 설전(設奠) : 대렴이 끝나면 집사자(執事者)가 분향하고 술을 올리면 복

인(服人)들은 곡(哭)을 한다.

- ⑤ 영좌(靈座) : 망인의 영혼(靈魂)을 안치한 장소인데 병풍을 치고 영좌(靈座)를 배설(排設)한 뒤에 교의(校椅)에 혼백(魂魄)과 사친을 모시고 향탁 위에 향로를 놓고 향을 피운다.
- ⑥ 명정(銘旌) : 붉은 비단 천에 크기는 폭이 45cm 정도, 길이가 2m 정도로 하여 죽은 이의 신분을 간장으로 쓰고 백분(白粉)을 묻히기도 하고 먹으로 쓰기도 한다.

3) 성복(成服)

영좌(靈座)의 설치가 끝나면 상주나 모든 복인(服人)들은 소정의 상복(喪服)을 입고 상주는 굴건(屈巾)을 쓰고 질대(經帶, 삼과 짚으로 꼬아서 만든 띠)를 두르고 삼으로 만든 신(屨)을 신고, 장(杖)(아버지는 죽장竹杖, 어머니는 동장桐杖)을 짚고, 부인들은 수질을 머리에 두르고 영상(靈床)앞에서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성복제(成服祭)라 한다. 여기서 잠시 상복(喪服)의 종류를 살펴보면 효포(孝布), 굴건(屈巾), 굴관(屈冠), 수질, 요질, 중단위(中單位), 상복(喪服), 상장(喪杖), 행전, 신, 최상, 머선, 바지, 저고리 등으로 되어 있다. (죽(竹대나무)은 마디가 밖에 있고 동(桐오동나무)은 마디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외 상장(內外 喪杖)이 다르다.)

상제(喪制)들은 성복제(成服祭)가 끝나면 처음으로 죽을 조금 먹는다. 성복제를 모실 때는 남자들은 관 동쪽에서 서향(西向)해서 서고, 여자들은 관 서쪽에서 동향(東向)하여 서서 슬피 애도(哀悼)한다. 이 때는 축문도 없고 단헌(單獻)하며 잔도 한 번만 드리는 간단한 제사다. 성복을 하면 남자는 나무로 만든 동곳을 꿇고 여자는 비녀 대신 흰 베로 머리를 동인다. 다음은 복제(服制)에 관해서 알아본다.

- ① 참취(斬衰)3年 : 참취는 거친 삼베로 상복을 마련하되 아래 변을 마름만 하고 깎지 아니 한다 복중(服中)에 가장 무거움을 표한 것이며 상기(喪期)는 3년인데 상대(相對)는 부(父), 승중손(承重孫, 장자(長子)가 죽고 장자(長子)의 장손(長孫)의 조부(祖父), 장자(長子, 아버지 부임시), 남편(男便)인데 상장(喪杖)은 죽장(竹杖)으로 한다.
- ② 자취(齊衰)3年 : 자취(齊衰)는 참취와 같은데 아래 변(邊)을 깎는다. 상대는 모(母), 승중손(承重孫)의 조모, 고(姑), 長子(어머니 부임시) 장상(喪杖)은 동장(桐杖)이다.

- ③ 제취장기(齋衰杖期) : 모(母, 父 壬世時), 승중손(承重孫)의 조모(祖母, 祖父 壬世時) 고(姑, 구임세기舅壬世時), 妻, 상장(喪杖) 동장(桐杖)이다. 장기(杖期)라는 것은 주기(周期)동안 상장(喪杖)을 짚는다는 말이요, 부장기(不杖期)라는 것은 주기(周期)동안 상장(喪杖)을 짚지 않는 것을 말한다.
- ④ 자취부장기(齊衰不杖期) : 조부모(祖父母), 백부(伯父), 형제(兄弟), 질(姪), 장자부(長子婦), 생가부모(生家父母), 친가부모(親家父母), 생가질(生家姪), 의부(義父), 장부(長婦)
- ⑤ 대공(大功) 구월(九月) : 종형제(從兄弟) 장손 이 외의의 손자, 장손부(長孫婦) 이외의 손부(孫婦), 질부(姪婦) 시조부모, 시가백숙부모, 동시, 남편생가부모(男便生家父母)
- ⑥ 소공(小功) (五月) : 종조부(從祖父), 재종형제(再從兄弟), 외조부모(外祖父母), 외숙(外叔) 생질(甥姪), 이모, 형제의 처, 동시(同嫗)
- ⑦ 시마(三月) : 시마란 오복(五服)의 하나로 가는 삼베로 옷을 지어 석 달 동안 입는 복(服), 제종조부모(制從祖父母), 재종손(再從孫), 삼종형제(三從兄弟), 종손(從孫), 현손(玄孫), 서손부(庶孫婦), 외손(外孫), 장인(丈人), 장모(丈母), 서(婿)

이상의 복제는 가족이나 친척이 사망하였을 때 혈육의 친소(親疎)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제복(制服) 또는 평복(平服) 차림으로 근신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인데 옛날 대가족제도를 토대로 마련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여 현실 사회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1969년 6월 1일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면서 상례(喪禮)가 대폭 간소화되어 현실사회에 맞는 풍습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4) 장례(葬禮) (3日葬~9日葬)

- ① 상식(上食) : 성복 후에는 삼시(三時)로 상식하고 곡을 한다.
- ② 재털이(喪輿놀이) : 출상전야(出喪前夜)에 상여꾼들이 모여서 다음날 운구를 잘 하기 위해 손발을 맞추는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상여놀이이다. 재털이는 초상집이면 다하는 것이 아니다. 망인(亡人)이 천수(天壽)를 다하고 별세했고, 자손들이 덕망이 있고 인심이 좋은 집안이며, 부귀를 두루 갖춘, 그야말로 호상일 경우에 상제들을 위로하고 생전에 덕과 복이 있어 직선을 했던 망인의 상여를 잘 모시기 위한 예행연습인

것이다. 상여놀이는 실지와 똑같이 상여 앞에 호상(護喪)을 태우고 소리 매기는 사람이 회심곡 등을 애절하게 매기면 상두군은 「어하옹, 너 하옹」하며 일제히 후창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하며 한 시각 정도 하다가 술을 마셔 가면서 야심하도록 상여놀이를 하는 풍습이 있는데 지방마다 조금씩 풍습이 다르다. 이 때에 상여는 말할 것 없이 빈 상여다.

- ③ 조조례(朝祖禮, 發引祭) : 영구(靈柩)를 상여에 올려놓고 사당(家廟)에 봉 한 뒤에 운상(運喪) 직전에 발인전(發引奠)을 올리는 것으로서 일종의 영결식이다. 상여 앞에 제수를 차려놓고 단헌(單獻)으로 상주가 올리는데 제수는 상여꾼들이 고루 나누어 먹는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靈而既駕 往即幽宅 載陳遺禮 永訣終天)

이때에 상제(喪制)들이 분향재배하며 조객(弔客)들의 조문도 분향으로 행한다.

- ④ 상차(喪次)운구(運柩) : 조조례(朝祖禮)가 끝나면 상배(喪輩)꾼들이 상여를 메고 상여 앞뒤소리를 하며 장지로 행차하는데 운상행렬(運喪行列)은 관작(官爵)이나 빈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은 다음과 같다.

- 방상(方相) : 방패와 창을 들고 얼굴에는 탈을 쓰고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함.
- 곡비(哭婢) : 장례(葬禮)때 곡(哭)을 하며 따라가는 여자 종
- 시자(侍者) : 상여를 잘 인도하는 하인
- 명정(銘旌) : 망인의 신분을 쓴 빨강 기
- 영여(靈輿) : 혼백 또는 망인의 사진또는 신위(神位)를 모신 여(輿)
- 혼교(魂轎) : 망인(亡人)의 의관(衣冠), 신발, 책(冊)을 넣은 교(轎)
- 공포(功布) : 하관(下棺)한 뒤에 관을 닦을 삼베 수건
- 만장(輓章) : 비단에 좋은 글귀를 쓴 기(旗)
- 아삽(亞霎) : 상여 앞에 아(亞)자를 써서 긴 막대기에 꽂고 상여를 앞에서 호위하는 것.
- 운삽(雲霎) : 상여 뒤에 운(雲)자를 써서 긴 막대기에 꽂고 상여를 뒤에서 호위하는 것

상여 뒤에는 상주와 근친, 그 뒤에는 나이 많은 동네어른, 그 뒤에는 복을 입지 않은 친족, 그 뒤에는 우인(友人)이나 지인(知人)이 따르고 주위에 각종 초롱이 따른다. 호상은 상주 옆에서 상주를 호위한다.

- ⑤ 노전(路奠) : 이것은 운구 도중에 차일을 치고 차일 앞에 정상(停喪)을 하고 제수를 차려놓고 헌작(獻酌)을 한 뒤에 조문객의 조문도 받는다.

상배(喪輩)군들은 이 때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기도 한다.

- ⑥ 정상(停喪) : 상여가 묘지 근처에 도착하면 영구(靈柩)를 임시로 안치하는 것인데 먼저 적합한 곳을 골라 차일을 치고 모신 뒤에 영좌(靈座)를 좌상(左上)에 모시며 명정을 영상(靈床)의 좌편에 걸고 영상(靈床)앞에는 주과포를 진설하고 상주는 곡하며 조객을 맞이한다.

- ⑦ 천광(穿擴) : 묘소에는 영구(靈柩)가 도착되기 전에 지관(風水)이 패철(쇠)을 놓고 묘소를 결정한 다음 산신제를 지내고 천광(穿擴) (구덩이)를 내린다.

산신제축문(山神祭祝文) 유학모(幼學某)

維歲次○年○月干支朔某日干支

敢昭告于

土地之神 今爲某 營爲宅窀 神其保佑 埤無後艱 謹以清酌脯醢薦于神 尚饗

- ⑧ 하관(下棺) : 천광(穿擴)이 끝나면 공포(功布)로 관을 씻고 영구(靈柩)를 조심스럽게 광(擴)에 넣는다. 관 위에 명정(銘旌)을 펴고, 다음에는 예단(禮單)이라 하여 상주가 관의 상편(上便)에는 파란 비단실(玄)을 하편(下便)에는 붉은 비단실을 맺어놓은 다음 횡대(橫帶, 棺을 덮는 널판)를 덮고, 격회(隔灰, 棺을 묻을 때 그 주위를 회로 메움)를 하고, 지석주(支石主, 사발 안에 墓主의 관직 성명을 기재하고 재를 담은 것인데 失傳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를 묻은 다음 성분(成墳)한다. 성분 전에 평토(平土)가 되면 새로 마련해온 제수를 묘소에 차려놓고 평토제(平土祭)를 모신다. 제물은 상두꾼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상제(喪制)들은 음복한 뒤에 영좌(靈座)를 앞에 모시고 상여가 가던 길을 그대로 따라서 집으로 온다. 집에 와서는 대청이나 적당한 곳에 영위(靈位)를 마련한 뒤에 영좌(靈座)를 모시고 주과포 등 제수를 진설하고, 반혼제(返魂祭)를 지낸다.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경당(卿堂)에서는 출상을 3일장에 서 9일장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 ⑨ 삼우(三虞) : 장례 후 세 번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우제(虞祭)라 한다. 초우제(初虞祭)는 장사 지낸 그 날에 지내므로 반혼제(返魂祭)로 대체하고 재우(再虞)는 유일(柔日, 干支로 乙, 丁巳, 辛癸)에 삼우(三虞)는 강일(剛日-甲, 丙, 戊, 庚, 壬)에 지낸다.

졸곡(卒哭) : 치상(致喪)후 3개월 차인 달 첫 강일(剛日)에 지내는데 옛

날에는 대부(大夫)는 3월에 장례를 치름으로 곧 백일제(百日祭)가 되는 것이다. 졸곡(卒哭) 전에는 언제나 곡을 하는 것인데 졸곡(卒哭)이 끝나면 조석으로 음식을 올리고 곡하며 삭망(朔望)에도 곡을 한다.

소상(小祥) : 소상은 만 1년 되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인데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이 때가 대상(大祥)이 된다.

대상(大祥) : 대상(大祥)은 만2년이 되는 기일에 지내는 제사인데 상복을 벗고 영좌(靈座)를 거두고 상장(喪杖)도 없애며, 상중(喪中)에 외출할 때는 죄인이라 하늘을 볼 수 없다 하여 방립(方笠, 비올 때 쓰는 삿갓 비슷한데 대올로 삿갓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었음)을 쓰는데 이 때는 흰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다.

담제 : 대상(大祥) 후 3개월 만에 지내는 제사인데 곧 3년 상을 무사히 마치고 자손된 마음이 담담하다 하여 3월이 되는 달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낸다. 담제를 지내고 나면 백립(白笠, 흰 갓)도 벗고 평인(平人)이 되는 것이다. 담제를 끝으로 상례(喪禮)를 마친다.

시묘(侍墓) : 옛날에 효자가 부모에 대한 효심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묘소 앞에 여막(廬幕)을 치고, 옷은 허름한 홑옷을 입고, 먹새는 소식(蔬食)을 하며 3년 동안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아니 하며 잘못 모셔서 부모를 돌아가시게 한 불효 막급한 죄인이라 해서 품안에서 길러 주신 3년만이라도 근신하며 부모를 묘소 옆에서 모시는 것인데 그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효가 인간사회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았던 것이다. 위에서 말한 상제(喪制)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며 주상(主喪)은 장자나 장손이 된다.

이상에서 상례(喪禮)에 대하여 초상에서 탈상까지 순서대로 적었는데 의식이 너무 복잡하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목이 많다. 그래서 1969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통해 많이 시대성에 맞도록 간소화됐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번폐스럽다고 부모상을 당함에 있어 출상 3일만에 탈상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출상 당일에 탈상을 해 버리는 일도 있어 까마귀도 반포지효(反哺之孝)를 한단는데 짐승만도 못한 듯 하여 안타깝다.

라. 제례(祭禮)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모든 물체를 정기(精氣)와 형상(形象)의 합일체로 보

았으며 그 형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기의 작용 때문이라고 믿었다. 이 정기(精氣)를 신(神)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신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인간도 영(靈)과 육(肉)의 합일체인데 죽으면 형상(形像, 肉)은 없어지고 영(靈, 神)은 보이지는 않지만(저승에 있기 때문에) 저승과 이승을 왕래한다고 믿었다. 이렇듯 신을 대자연의 물체 속에 존재한다는 신과 사망한 인간의 영혼(靈魂, 神)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는데 인간의 힘은 유한하고 신의 힘은 무한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인간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신에게 기구(祈求)하게 되었다. 기원의 방법은 마음으로 축도하기도 하고, 신을 의인화하여 음식을 차려놓고 기원하기도 하고, 망인(亡人)의 덕을 추모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식을 제사라 한다. 샤머니즘이 원시사회의 제식(祭式)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신을 제(祭)하는 것에는 천신제(天神祭), 지신제(地神祭), 산신제(山神祭), 목신제(木神祭), 수신제(水神祭), 용신제(龍神祭), 성황제(城隍祭), 당산제(堂山祭, 洞祭) 조왕신제(竈王神祭), 고사(告祀) 등 많은데,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제의가 있는데 사당제(祠堂祭), 시제(時祭), 기제(忌祭), 묘제(墓祭), 절사(節祀) 등이며 종류, 절차, 시기 등에 따라 의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상과 같이 제의의 유(類)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상신에 대한 제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중세 이후 조선 초기에 유교문화가 이 땅에 전래되면서 의례로 인간의 가치 척도를 삼았으며 그 중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사례(四禮, 관혼상제冠婚喪祭)가 으뜸이었는데 의식절차가 대단히 복잡하다. 특히 유교에서는 조상을 숭모(崇慕)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인륜도덕을 교의(教義)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신에 대한 제사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요 예의로 삼았다. 조상에 대한 제의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성복제(成服祭), 발인제(發引祭), 평토제(平土祭), 삼우제(三虞祭), 소대상(小大祥) 담제 등이 있으나 앞서 상례(喪禮)를 다루면서 언급했고, 탈상(脫喪) 후 만1년이 되면 기제(忌祭, 墓祭)라고 해서 큰방에서 신주(神主)나 지방(紙榜)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사대봉제사(四代奉祭祀)라고 해서 4대조까지 방에서 기제(忌祭)를 모시고 5대조부터는 재실(齋室)이나 묘소에서 주로 음력 10월 상달에 일정일을 택일해 놓고 제사를 모시는데 시제(時祭, 歲祀)라고 하며 설, 한식, 추석, 동지 등 명절에 모시는

제사를 절사(節祀)라고 해서 차례를 올리는데 축(祝)은 없고 단헌(單獻)이다. 또 절후에 따라 음식도 다르다. 설에는 떡국, 한식에는 화전(花煎, 찹쌀가루에 꽃을 넣고 기름에 볶기를 한 떡), 추석에는 송편, 동지에는 팔죽을 제수로 쓴다. 음력 9월 9일에는 저사(且祀)라고 해서 육세손(六世孫)이 아직 어려서 시제를 정식으로 모시지 못할 때 묘사(墓祀)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조상신을 모시는 여러 가지 제의가 있으나 다음에는 기제(忌祭)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1) 기제(忌祭)절차

기제는 원래 명일(命日, 돌아가신 날) 새벽에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다가 지내는 것인데 지금은 사당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방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① 지방서식(紙榜書式)

부: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 神位)

모: 현비유인○○○씨 신위(顯妣孺人○○○氏 神位)

조부: 현조고·……·조부(顯祖考學生府君 神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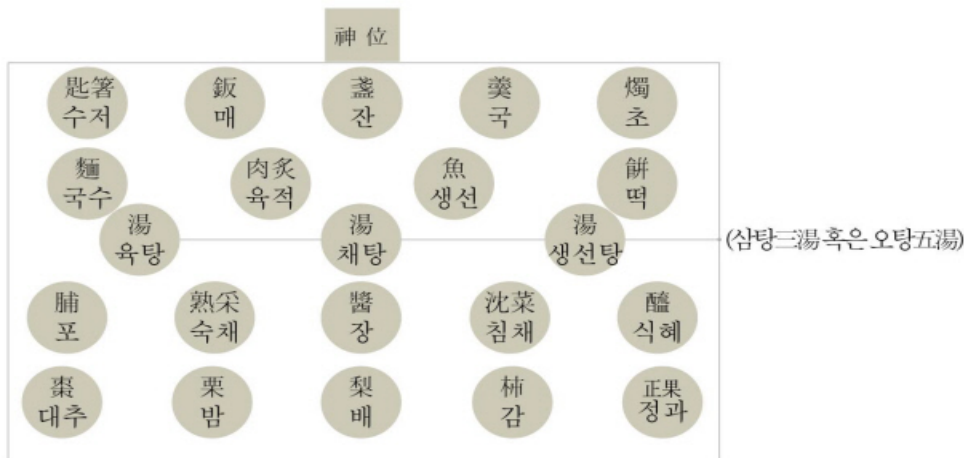
조모: 현조비유인○○○씨 신위(顯祖學孺人○○○氏 神位)

남편: 현벽학생부군 신위(顯辟生府君 神位)

처: 망실유인○○○씨 신위(亡室孺人○○○氏 神位)

學生은 벼슬이 없을 때 쓰는 것이고 벼슬을 했으면 벼슬(官職名)을 쓴다.

② 제수진설(祭需陳設, 배찬식排饌式) : 다음에 진설법을 배찬식(排饌式) 도표로 그려 본다.



44) 유밀과(油蜜果)는
우암(尤庵)이 처음 썼다

위의 도식을 배찬식(排饌式)이라 하는데 배즉 안치별야 한서운 상추배성열「排卽安置別也, 漢書云 相推排成列」이라고 해서 배찬(排饌)을 설명한 글인데 바꾸어 말하면 진설하는 제수의 배치를 말하는 것이다.

문헌(文獻) 백례축집「百禮視輯」에 보면 조율재서. 이시재동, 생동숙서, 좌면우병, 좌포우혜, 어동육서(羹栗在西, 梨柿在東, 生東熟面, 左麵右餅, 左脯右醢, 魚東肉西)라고 쓰여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⁴⁾

제상에 제수 진설이 끝나면 모래(沙)를 담은 종지에 띠(芽)를 세모로 묶어서 세워놓고 향로에 향을 피운다. 이어서, 자손들이 둘러앉아서 망인의 생전의 선덕행적(善德行蹟)을 젊은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정이 넘도록 기다린다. 자정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사를 지낸다.

③ 제의순(祭儀順) : 강신(降神)→참신(參神)→초헌(初獻)→개반개삽시정저(開飯蓋侈匙正筋)→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첨작(添酌)→유식(侑食)→계문(啓門)→헌공(獻恭)→철시복반(徹匙覆飯)→사신(辭神)→음복(飲福)

- 참신(參神) : 참사자(參祀者) 전원이 신위(神位)에게 재배(再拜)한다.
- 강신(降神) : 제주(祭主)가 분향재배하고 꿇어 맞아 집사(執事)가 따른 잔을 모사에 세 번 붓고 다시 재배한다.
- 초헌(初獻) : 장자 또는 장손이 신위 앞에 꿇어 앉아 집사(執事)가 따른 술잔을 향로에 좌3회 우3회 분향한 뒤에 모사에 세 번을 조금씩 붓고 헌작(獻酌) 후 제주(祭酒)하고, 삼시정저(插匙整箸, 순가락을 메에 꽂고 젓가락을 올려놓으면)하면(執事) 초헌(初獻)은 재배한다.
- 독축(讀祝) : 초헌(初獻)이 끝나면 참사자(參祀者) 일동이 신위 앞에 엎드려 있고 축관(祝官)이 독축을 한다.
- 아헌(亞獻) : 장자부(長子婦)가 초헌(初獻) 때와 같이 헌작(獻酌) 사배한다.
- 종헌(終獻) : 근친자(近親者)가 아헌(亞獻) 때와 같이 하는데 이 때는 7 분(七分)쯤 헌작(獻酌)하고 재배 한다.
- 첨작(添酌) : 종헌(終獻)이 끝난 뒤에 조금 있다가 새 잔에 술을 부어서 먼저 올린 잔에 세번 더 부어서 채운다.
- 유식(侑食) : 방에 불을 낮추고 참사자(參祀者) 모두 문 밖으로 나가서 을 닫고 한참 기다린다.
- 계문(啓門) : 축이 세 번 기침을 하고 앞에 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참

사자(參祀者)들도 뒤를 따라 들어간다.

- 헌다(獻茶) : 국그릇을 숭늉과 바꾸고 메를 세 숟가락 말아놓고 정저(整箸)한다.
- 철시복반(徹匙覆飯) : 숭늉 그릇의 수저를 거두어 시접에 놓고 메 그릇의 덮개를 덮는다.
- 사신(辭神) : 제주와 참사자(參祀者)가 재배하고 신주는 사당으로 모시고 지방과 축문은 불사른다.
- 철상(徹床)과 음복(飮福) : 참사자(參祀者)들은 음복이라 해서 제주를 마시고 거둔 제수를 함께 먹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제의가 복잡하기 때문에 의례준칙에서는 참신(參神), 삼헌(三獻), 독축(讀祝), 사신(辭神) 등 제의를 간소화 했다.

다음은 중요한 축문만 간추려서 적어본다.

2) 축문(祝文)

가) 우제축문(虞祭祝文)

維歲次己巳三月甲子삭(朔)十五日丁卯

부상(父喪)에는 고자(孤子), 모상(母喪)에는 애자(哀子), 부모가 모두 동시에 졸(卒)하면 고애자(孤哀子), 승중(承重), 즉 長子가 없고 長孫일 때는 고손(孤孫), 애손(哀孫) 고애손(孤哀孫)이라 칭(稱)하고, 처상(妻喪)엔 부(夫)라 쓴다.

처(妻)는 감자(敢字)를 떼고 이하는 고우(告于)라고 쓴다. -조곡우(一昭告于)

현고학생(顯考學生, 官職이 있으면 職名을 쓴다) 부군(府君), 일월불거엄급초우(日月不居奄及初虞), (再虞三虞 때는 재우(再虞), 삼우(三虞)라고 쓴다)

숙흥야처(夙興夜處), 애모불녕(哀慕不寧) (아들에게는 비념상속심언여훼 悲念相屬心焉如綴라하고, 아우에게는 비통외지정하가처 悲痛猥至情何可處라하며, 형에게는 비통무이지정여하 悲通無已至情如何라 하고, 妻에게는 비도산고부자승감 悲悼酸苦不自勝堪)이라 쓴다.

근이(謹以), (妻 이하는 茲이라 쓴다) 청작서수 애천(淸酌庶羞 哀薦), (처 이하는 진차(陳此)라고 쓴다)

흡사(裕事), 재우(再虞)는 우사(虞事) 삼우(三虞)에는 성사(成事)라 쓴다). 尙향(饗)

나) 소대상축문(小大祥祝文)

維

歲次○○모(某)月○○삭(朔)某日○○

고(孤)애(哀)(孤哀)子某

敢昭告于

현고학생(顯考學生, 官職) 부군(府君) 일월불거(日月不居), 엄급소상(奄及小祥, 大祥)숙흥야처(夙興夜處), 애모불녕(哀慕不寧), 근이 청작서수(謹以 清酌庶羞), 애천상사(哀薦常事, 대상대祥 때는 상사祥事) 상(尙)

향(饗)

다) 담제축문(檀祭祝文)

維

歲次干支某月干支朔某日干支

孝者某

敢昭告于

현고학생(顯考學生, 官職) 부군(府君) 일월불거(日月不居), 엄급담제, 숙흥야처, 애모불영, 근이청작, 서수애천 담사 상(奄及檀祭, 夙興夜處, 哀慕不寧, 謹以清酌, 庶羞哀薦檀死 尙)

향(饗)

라) 기제축문(忌祭祝文)

① 부모 축문(父母 祝文)

維

歲次○○某月○○朔某日○○

孝子 某

敢昭告于

현고학생(顯考學生, 官職) 부군(府君)

현비유인○○김씨(顯妣孺人○○金氏) 세서천역휘일복임추원감시호천망극, 근이청작서수공신전 헌 상(歲序遷易諱日復臨追遠感時昊天罔極, 謹以清酌庶羞恭伸奠獻 尙)

향(饗)

② 조부모 축문(祖父母 祝文)

維

歲次○○某月○○朔某 日○○

孝孫 某

敢昭告于

현고학생(顯考學生, 官職) 부군(府君)

현조비유인(顯祖妣孺人)○○김씨(金氏) 세서천역(歲序遷易), 휘일복임(諱日復臨),
추원감시(追遠感時), 불승영모(不勝永慕) 근이청작서수(謹以清酌庶羞)공신전헌(恭
伸奠獻) 상(尙)

향(饗)

③ 남편 축문(男便 祝文)

維

歲次○○某月○○朔某日○○

妻 ○○金氏

敢昭告于

현벽학생부군세서천역(顯辟學生府君歲序遷易), 휘일부림(諱日復臨), 추원감시(追
遠感時), 불승감창(不勝感愴), 근이청작서수(謹以清酌庶羞)공신전헌(恭伸奠獻) 상
(尙)

향(饗)

④ 처 축문(妻 祝文)

維

歲次○○正月○○朔二十日○○

夫

昭告于

망실유인(亡室孺人)○○○씨 세서천역(氏歲序遷易), 망일부지(亡日復至), 비도산고
(悲悼酸苦) 부자승감(不自勝堪) 자이청작서수진차전의(玆以清酌庶羞陳此奠儀) 상
(尙)

향(饗)

「광운廣韻」이란 문헌(文獻)에 보면 축문 중(祝文 中) ‘敢昭告于’에 대한

자해(字解) 대목이 있는데, 고상왈곡(告上曰告)이요, 발하왈고(發下曰諸)라 쓰여 있고 조(昭)는 광야(光也), 명야(明也), 효야(嘒也)요, 소(昭)는 평야(評也), 소대저야(昭代著也))라고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감조곡우(敢昭告于)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감소고우’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5. 하례(賀禮) : 통과례(通過儀禮)

근세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사례(四禮)(冠婚喪祭)를 의례의 기본으로 삼아,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의 척도 위에서 다룬 바 있으나 사람의 일생일대에는 챙겨야 할 의례가 많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 잉태(孕胎), 탄생(誕生)에서 천수(天壽)를 다하고 사망할 때까지 과정의 통과례이다.

가. 임신(妊娠)

예로부터 혼인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도 종족유지의 원칙을 수행하는데 큰 뜻이 있다. 옛날에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을 여자의 본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중의 첫째로 꼽았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잉태 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창조였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기에 임신부는 생각하고 행동함에 있어 각별히 조심했다. 옳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악하고 음탕한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으며,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을 때나 잠잘 때나, 몸을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반듯하게 행동해야 하는데 이것을 태교라 한다.

실은 임신 이전에 부부가 성행위 과정에서도 목욕재계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밝게 불을 켜놓고 성행위를 한다거나 명산대찰에 가서 여러 날 공을 들이고 잉태를 하면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 이렇듯 한 생명의 창조는 최고의 신비요, 귀한 것이며 신이 점지하는 것이라 믿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생명의 창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한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 하나가 태몽이다.

임신을 하려면 먼저 부부의 꿈에 현몽(現夢)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갑자기 아내가 미칠 듯이 보고 싶다든가 아내도 그러하여 상봉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며, 꿈에 어떤 물체를 본다든지 얻는다든지 한다는 것이다. 용, 호랑이, 곰, 학, 태양, 달, 별의 꿈을 꾸면 대인(大人)을 낳고, 꿈에 밤, 고추, 조를 얻으면 아들을, 복숭아, 연꽃, 뱀을 얻으면 딸을 낳는다는 해몽은 오랜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신앙이었다. 이렇게 생명의 창조

신이 어떤 생명체를 점지한다는 것을 현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 믿었다.

다음은 태몽을 꾸어 큰 인물을 낳았다는 고사를 소개한다.

고려사(高麗史)나 연려실기술(燃藜室技述)에 보면 충신 정몽주(鄭夢周)의 태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정몽주 어머니가 난초분(蘭草盆)을 안고 있는 꿈을 꾸고 낳은 아이가 정몽주(鄭夢周)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을 몽란(夢蘭)이라 했는데 정몽주(鄭夢周) 나이 9세 때 몽주 어머니가 흑룡(黑龍)이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 꿈을 깨고 밖에 있는 배나무를 내다보니 몽주가 배나무에 올라가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몽룡(夢龍)으로 바꾸었다가 관례(冠禮) 후에 몽주(夢周)라 했다는 것이다.

몽란유조(夢蘭有兆)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가 꿈에 난초(蘭草)를 보고 임신하면 대인(大人)을 낳는다는 말이다. 정몽주(鄭夢周)도 여기에 합당하면 고대중국정문공(古代中國鄭文公)의 처 연혼(燕婚)이 천사(天使)가 난초를 바치는 꿈을 꾸고 유명한 목공(穆公)을 낳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좌전左傳」에 있는 말이다. 또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보면 ‘원효대사(元曉大師)’의 어머니는 유성(流星)이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원효를 잉태했고 해산하려 할 때에 오색찬란한 구름이 집을 덮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암 송시열(尤庵宋時烈)도 그의 어머니 꿈에 해가 입으로 들어오기에 영겁결에 꿀꺽 삼키고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에 우암(尤庵)을 낳았다고 한다. 대인(大人)들의 태몽 이야기는 많다. 이상과 같이 임신 전의 꿈에 무엇을 얻었거나 보았느냐에 따라 대인(大人) 또는 남자나 여자냐의 태점(胎占)을 치는데 오랜 경험과 통계에 의해서 거의 맞는다는 것이다.

나. 해산(解産) 출생(出生)

출산은 부녀자의 최대임무요 사명이다. 또한 새 생명의 창조라는 최고의 영광과 특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최악의 산고를 겪어야 한다. 부녀자들이 해산을 위해 신을 벗어놓고 산실로 들어갈 때 과연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한다고 한다. 출산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신의 뜻에 의해 창조의 영광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 우리의 풍속에는 자식을 못 낳거나 딸만 낳는 책임을 전적으로 여자에게 돌렸던 것이다. 산고 끝에 여식을 출산하면 영광은 간 곳이 없고 걱정과 후회만

남는다고 한다. 남존여비의 윤리관 때문이었다. 이렇듯 무자(無子)나 여아(女兒) 출산은 여자의 팔자가 기박하고 복이 없어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새 생명을 창조하는 출산은 여자만이 갖는 영광이요, 특권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면 잠시 해산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산모가 산기가 있으면 조산모는 산실에 짚을 깔고 산좌(産座)를 마련한 뒤에 태줄(胎線) 끊을 가위와 실을 소독해 놓고 흰 쌀밥과 미역국을 끓여서 산실 윗목에 산신(産神)인 삼신상(三神床)에 차려놓고 산모와 영아(嬰兒)의 건강을 빈다. 이것을 ‘비손’한다고 하는데 비손이란 신에게 두 손을 비비며 기구하고자 하는 말을 주문 외는 것이다.

이어서, 산모가 순산하면 ‘첫국밥’이라고 해서 흰 밥과 미역국을 먹게 하고 대문에는 금줄(인줄)이라고 해서 짚으로 원세끼를 꼬아서 친다. 금줄에 남아일 때는 빨간 고추와 숯을, 여아일 때는 청솔가지와 검은 숯을 꽂아서 외인(外人)의 출입을 막는다. 금줄 또는 금기줄(禁忌線)을 치는 뜻은 부정한 사람의 왕래를 금함으로써 산모와 영아의 건강에 해로운 병균의 전염과 더러운 것을 막자는 뜻이다. 고추, 숯, 청솔가지는 병균과 더러운 것을 흡수, 방지하고 생생한 것을 상징하는 뱀이(防이)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탄생의 신인 ‘삼신(三神)’은 ‘산신(産神)’의 변음(變音)이라는 말도 있으나 우리나라개국조신(開國祖神)이라 할 수 있는 환인(桓因), 환웅(桓雄), 단군(檀君)의 삼신(三神)을 일컫는다고 한다.

다. 이레(七日)

산모가 해산을 하면 물을 일절 몸에 대지 않는다. 해산을 하게 되면 육천 뼈마디가 전부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온도의 변화와 병균의 침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사도 청혈(淸血)과 혈액 순환이 잘되는 미역국과 흰 쌀밥 이외는 들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나 2-3일이 되면 약이 되는 쑥물로 손과 얼굴 등 몸을 닦는다.

영아는 탄생하면 바로 배안에 물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 옛날에는 3일 후에 슬슬 씻어주기 때문에 10여 세가 넘어서까지 앞머리에 쇄똥 같은 딱지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어린애가 잘못된 짓을 하면 ‘머리에 쇄똥도 안 벗겨진 것이 까분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늦게 씻어주면 어릴 때 온 몸에 종양(腫瘍)이 나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해산한지 7일이 되면 첫이레라고

해서 영아도 조금 야물어지고 산모의 뼈마디가 오므라들면서 건강의 회복기에 접어든다. 첫 이레에는 강보(襁褓, 포대기, 쌀 것)에 싸여 있는 영아에게 깃 없는 옷을 입히고, 두 이레에는 깃 있는 옷에 두령이(치마 같은 옷)를 입히고, 세 이레에는 비로소 상하례를 갖추어 입히고 몸을 자유롭게 한다.

산모도 평상시와 같이 활동하게 된다. 그러나 산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回復) 되려면 일곱이레 즉 49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곱이레가 지나가기까지는 흰밥에 미역국을 먹어야 하고 센 일도 삼가야 하며 이레마다 삼신상에 미역국을 올리고 비손하기도 한다.

이레(七日)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석가여래께서 탄생하자마자 7 보(七步)를 걸어가서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말한 데서 ‘七’을 택한 것 같고, 일곱이레는 七겹침, 쌍칠(雙七)이니 길상(吉祥)이요, 49를 49재 등 중요시하는 데서 연유한 것 같다.

라. 백일(百日)

이레는 산모의 건강회복의 단계여서 일곱이레 즉 49일이 되어야 산모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다고 보는 것인데 백일은 영아의 성장발육이 잘 되어 핏덩이였던 영아의 골격과 근육이 야무지게 다져지는, 다시 말해서 생명보험이라는 단계에 올라서는 시기다. 그러므로 이 때에 안도(安堵)의 기쁨을 표하는 잔치를 베푼다. 이를 ‘백일기념(百日紀念)잔치’라고 한다. 옛날에는 이 시기가 유아사망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일이 되면 영아가 보양게 살결이 예뻐지며 ‘배안엿 짓’이라고 해서 방긋방긋 웃으며 예쁜 짓을 한다. 이웃들은 잔치에 초대되면 유아의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갓난아이가 예쁘게 성장하는 것을 경축해 준다.

마. 돌(一周生日 晬宴)

출생 후 일주년이 되는 날을 ‘돌’이라고 하는데 이 때가 되면 거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된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이 때가 되면 숙성한 아이는 돌잔치 떡을 가지고 어른의 부축을 받으며 이웃집에 전한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돌잔치에 초대 받은 하객들은 유아의 슬기와 재롱부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축하한다.

돌잔치의 풍속은 오래된 것 같다. 문헌에 보면 중국육조시대(中國六朝時代)부터 시아(試兒), 시취(試晬), 시주(試周) 등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

가 하는 것을 점차 보고 시험해 보는 풍속에서 유래된 것 같다. ‘돌’을(쉬蟀)라 하고 ‘돌상’을 수라 하는데 돌상에 이룬 경우에 쌀, 떡, 돈, 책, 붓, 종이, 먹, 국수, 과일, 활을 놓고, 딸인 경우에는 가위, 바늘, 실, 자 등을 늘어놓고 돌맞이 아이에게 아무 것이나 멋대로 집게 한다.

다음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아이의 장래를 점치면서 기뻐한다. 이리하여 생일이 거듭할수록 아이는 성장해서 나이 15세가 되면 호패(戶牌, 주민증)를 차고, 20세가 되면 관혼례(冠婚禮)를 치루고, 종족유지와 개체유지를 동시에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다 61세가 되면 환갑(還甲, 回甲, 60돌)을 맞는다.

잠시 생일(生日), 생신(生辰), 탄신(誕辰)에 대해서 살펴보면 손아래 사람에게는 생일(生日), 손윗사람에게는 생신(生辰), 성현군주와 대인(大人)에게는 탄신(誕辰)이라고 통칭하는데 이는 존비(尊卑)의 관념 때문이 아니라 관습에서 오는 속칭이라고 할 수 있다.

바. 회갑(回甲)



회갑잔치 기념사진

옛날에는 ‘나이 예순이면 폐방(閉房)한다.’는 말이 있다. 폐방(閉房)이란 남녀의 성행위를 단절한다는 뜻이다. 회갑을 노소(老少)의 분기점으로 삼은 것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갑을 넘기면 상노인(上老人)이라고 했으며 환갑(還甲)을 넘기는 이가 많지 않았다. 하기에 수(壽)가 이십년 이상 늘어난 지금도 환갑(還甲)이 지나면 전과 다르게 늙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중국의 시인 육유(陸游)는 ‘인생은 길어도 백년을 못 가고, 60, 70세가 되면 수(壽)를 다하게 된다.’고 읊었다. 회갑이란 고대 중국에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입각해서 년, 월, 일, 시에 간지법(干支法)에 따라 육십갑자(六十甲子)를 붙여서 60년 후 다시 낳은 해가 돌아왔다는 뜻이다.

〈예〉 갑자년생(甲子年生)이면 만 60(滿六十)년 후 갑자년(甲子年)을 회갑년(回甲年)이라 한다.

우리 민속에는 부모가 환갑(還甲)을 맞으면 자손들은 부모의 은공에 보답하기 위해서 부모의 친지와 친우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경하한다. 축하객이 오기 전 아침에 수연상(壽宴床)을 정성껏 차려놓고 아들들은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헌작(獻酌)한다.

이 때에 부모는 고생하며 자식을 기른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다음은 71

세를 고희(古稀)라고 하는데 인생칠십 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처럼 옛날에는 고희(古稀)를 맞이한다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 그래서 고희를 맞으면 장수를 축하하는 뜻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고희연(古稀宴)이라 한다. 고희연(古稀宴)이 생의 마지막 잔치가 되는 것이다. 그 외에 회혼례(回婚禮)가 있는데 혼인 60 주년을 말한다. 자손들이 늙은 신랑신부의 혼인식을 재연시키며 백년해로를 경축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당사자를 기쁘게 한다.

조혼(早婚)을 했던 옛날에는 회혼(回婚)을 맞는 이들이 가끔 있었으나 만혼(晩婚)을 하는 현대는 회혼례(回婚禮)를 구경하기가 힘들다.

제 2절 민요(民謠)

민요는 서민대중에 의해 생성 발전해 왔고, 그들에 의해 향유되는 민중의 소리이다. 국가나 민족을 구성하는 대다수가 민중이고 민중들의 노동으로 얻어지는 생산물은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지배자에게도 삶의 에너지였다. 민요의 향유자가 민중인 까닭에 민요는 그들의 현실생활을 자유롭고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여론과 같으며, 시대의 다양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와 역사, 그리고 그 시대의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양상을 알아보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민중은 문화의 발전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주체이며, 민요 속에는 그들의 생활관과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민요가 다른 구비문학장르들과 구분될 수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 민요가 사설·가락과 함께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민요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하는 요인이며, 민요의 생명력을 유지시켜 온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민요는 향유집단에게 해소적 작용을 수행하여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경감시키거나 기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성격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1. 노동요(勞動謠)⁴⁵⁾

노동요(勞動謠)는 일을 하면서 집단의 호흡을 일치시키고 행동을 통일하기 위해서 창자군(唱者群)이 부르는 소리이다. 노동요는 구연 현장에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고 바로 이러한 기능이 노동현장에서 소리를 부르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노동요는 민요 중에서도 가장 원시적이고 본원

45) 장성렬, 〈전북동부산간지역의 농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적인 소리로서 노동요가 갖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속민요와 함께 노동요는 민중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고 노동요나 토속민요가 민요 연구가나 민요 애호가들만의 소리인 양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외래문화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노동 방법이 변화되었으니 노동요도 새롭게 변화하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문제는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며 단절이라는 데 있다. 근래에 민요의 발굴·보존과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특히 지역 단위 민요의 체계적인 채록과 보존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수는 전북의 동쪽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의 험준한 산간지방에 있어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외부문화와의 접촉기회가 적었다. 그런 까닭에 장수 지역의 민요는 평야지역의 민요에 비해서 외부 문화와의 혼합이 적고, 본래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가. 농요(農謠)

농민들은 힘들고 바쁜 일손으로부터 피로를 잊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소리를 부르며 일한다. 이러한 소리를 농요라 하는데 들노래 또는 농사짓기 소리라고도 한다.

농요의 주제는 농사와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크게 논일소리와 밭일소리로 구분한다. 논일소리에는 ‘쟁기질소리’, ‘논고르는소리’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 ‘새쫓는소리’, ‘벼베는소리’ 등이 있고, 밭일소리에는 ‘밭매는소리’, ‘보리타작소리’ 등이 있어 1년간의 주요 농사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장수지역의 농요 중에서 논일소리와 밭일소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논일소리

평야지역의 논일소리는 일의 기능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분화·발달되어 있다. 논일의 진행과정에 따라서 물품는소리(두레질 소리, 자세질 소리), 논고르는소리(가래질 소리), 모찌는 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초벌 매는 소리, 두벌 매는 소리, 만두레 소리), 나락베는소리, 등짐소리, 타작소리, 방아짙는소리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장수지역은 논일의 형태에 따른

소리의 분화가 매우 적다. 논일소리 중에서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만 조사되었고, 논매는소리도 평야지역처럼 초벌매는소리, 두벌매는소리, 만두레소리로 세분되지도 않는다. 그나마 논일소리의 대부분이 모심는소리이다.

가) 모찌기소리

모찌기소리는 모를 찢 때 부른다. 모를 찢어서 모가 마르기 전에 바로 심어야 하므로 모찌기소리는 모심는 시기와 같은 5월 상순에서 6월 초순까지 부른다. 이 지역에서 모를 심는 일의 형태에는 고지모 심기와 날일 모심기가 있다. 고지모 심기에서 모찌기는 해 뜨기 전 새벽에 찢서 일찍 심기 시작하고, 날일 모심기는 아침을 먹고 나서 해가 뜬 뒤에 찢다. 고지모는 주인과 사전에 계약을 하고 한 마지기당 모를 심어 주는 삯을 미리 받고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주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우며, 고지모꾼들의 합심과 능력의 여하에 따라 일찍 끝낼 수도 있고 높은 품삯을 받을 수 있다. 날일은 일의 성과와는 무관하고 주인의 지시를 받으며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다. 모찌는 시각은 새벽이거나 이른 아침이므로 발이 시릴 정도로 물이 차다. 그래서 모판이 있는 논가에는 모닥불을 피우기도 한다. 모찌기는 한 쪽 무릎을 꿇고 한 쪽 무릎은 세우고 찢거나, 물에 잠기지 않을 정도의 나무로 만든 깔판을 깔고 앉아 찢다. 양손으로 찢다가 주먹이 차면 한 손으로 옮겨 잡아 크게 세 주먹을 뭉쳐 짚으로 묶는다. 이를 모춤이라 한다. 이 때 짚은 전 해의 것을 쓰는데, 주인은 그 날의 일꾼 수만큼의 짚단을 준비하여 모판 입구에 두면, 각자 한 단씩 들고 한 사람이 한 모판씩 붙어 모를 찢게 된다.

모찌기소리는 모 찢는 동작과는 무관하게 부르므로 행동 통일이나 노동의 효과와는 별 상관이 없고, 다만 규칙적인 박자가 계속되는 모찌기소리를 부름으로써 모를 찢 때 느끼는 피로를 덜고자 불렀던 것으로 여겨진다. 모찌기소리는 모 찢는 동작과 형태에 맞게 곡조로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의 농요는 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곡조로 부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산간지역의 일소리가 모두 같은 곡조로 부른다는 말은 아니다. 토착 민요는 지역성이 강한 소리이므로, 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그 고을의 각 마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예사이다. 하지만 이 작은 특징들을 보류하고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산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드러난다.

모찌기소리라 하더라도 처음에만 모 찌는 상황을 소리할 뿐 창자(唱者)의 구연 능력에 따라 모찌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형된다. 대부분의 농요가 동일한 곡조로 부르므로 일의 내용과 관련 없이 변형된 사설들은 일의 형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불려진다. 그러므로 창자가 모 찌는 소리라고 전제하고 불려서 모찌는소리로 가를 뿐, 모호한 점이 많다. 실제로 다른 창자는 모심는 소리로 같은 사설을 엮어 부르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모찌기소리의 사설은 다음과 같다. (메 : 메기는소리 받 : 받는소리)

① 메 : 드러내세 드러내세 이 못자리 드러내세
 받 : 이 못자리 드러내고 우는 애기 젖주려 가세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② 메 : 동에 동창 해 떠온다 어여 바삐 모를 찌세
 받 : 씨리질일랑 상일꾼하쇼 한 섬지기 다 예워먹세
 <계북면 매계리 이강희(남, 58). 1982 조사>

모찌기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설은 위 2편이 전부이다. 모심기소리에 비해 극히 빈약하다. 농군들이 자신이 심을 하루 분량의 모를 찌는 시간은 한 두 시간에 불과하므로 모 찌는 시간은 모 심는 시간에 비해 짧아 소리의 발달이 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①는 각자 맡은 모판의 모를 빨리 찌서 들어내자는 뜻으로, ②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모찌기와 모심기의 사설으로 공존한다.

가창 방식은 메기고 받는 교환창으로 부른다. 일정한 후렴이 없이 메기는 소리나 받는소리 모두 의미 있는 말을 변화 있게 소리한다. 그래서 선창의 사설과 후창의 사설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율격의 기본 단위는 음보이고, 음보보다 더 큰 율격의 단위는 행이다. 또 행보다 더 큰 율격의 단위는 연이다. 연은 내용상 완전히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소리 한 편이 둘 이상의 연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형식을 연속체라 하는데, 연속체란 말을 바꾸어 말하면 소리 한 편이 한 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때, 장수 지역의 모내기 소리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모두 4음보 1행씩으로 4음보격 2행 1연으로 이루어지는 연속체의 소리이다. 한 음보를 이루는 음절수는 3-5자이나 넉자가 대부분이다. 한 행을 이루는 음

보수는 모두 4음보이다. 메기고 받는 사설이 한 번씩 이루어지면 한 연 즉, 소리 한 편이 완성된다. 4음보격의 소리는 3음보격에 비해 장중한 느낌을 주는데, 장수 지역의 모찌기소리도 장중하면서도 소박하고 애절한 느낌이 든다.

장수지역에서는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논매는소리, 밭매는소리가 모두 동일한 곡조로 부른다.

나) 모심기소리

고지모의 경우에는 새벽 모찌기가 끝나면 아침을 먹고, 날일의 경우에는 아침을 집에서 먹고 와서 모찌기를 했으므로 새참을 먹는다. 오전 새참을 일찍, 그리고 간단히 먹기 때문에 점심을 일찍 먹는다. 새참을 먹는 사이에 모를 찌서 모판에 담가 놓은 모춤을 모쟁이가 본논에 짊어 져다 골고루 던져 놓는다. 모쟁이는 힘이 좋은 남자가 한다. 모심기는 줄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1970년 전에는 대부분 허튼모를 심었다. 허튼모는 농군들이 논 의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서서 오랜 경험에서 익힌 손짐작으로 적당한 포기 사이의 간격만 맞추어 마구잡이로 심어 나가는 방법이다. 처음 모심기를 배우는 사람은 포기 사이의 간격이 맞지 않아 어른들의 꾸지람을 듣기도 한다. 장수 지역은 산간지역이고 넓은 논이 형성되지 못하여 계단식의 좁은 논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허튼 모심기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모심기소리는 논 소리 중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① 메 :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받 : 지가 무슨 반달이나 초성달이 반달이지

② 메 :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권네 마누라 거기도 꽃고

받 : 그 골짜기도 농사라고 지리산 중놈이 동냥왔네

〈계북면 원촌리 문분임(여, 82). 1993 조사〉

③ 메 : 이 논배미 모를 싱귀 금실금실 영화로세

받 : 어린 동생 곱게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④ 메 : 서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네.

받 : 이게 무슨 반달인가 초승달이 반달이지

⑤ 메 : 초승달이 반달인가 그믐달이 반달이지

받 : 그믐달이 반달인가 우리 님이 반달이지

⑥ 메 : 서산에 해는 뉘엇 동천에 달 떠온다.

받 : 반다랭이 남은 눈에 어여 심고 님보러 가세

⑦ 메 : 이 눈에다 모를 심어 감실감실 영화로세

받 : 어린 동생 곱게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계북면 매계리 박종홍(남, 68). 1982 조사〉

⑧ 메 : 꽃 피는디 꽃 피었네 건너 방천 꽃 피었네

받 : 우리도 이 논 얼른 심고 방천둑에 꽃피려 가세

〈장수읍 장수리 용일봉. 2004 조사〉

모심기소리는 양적으로도 우세할 뿐 아니라 사설의 내용도 다양하다. 실제 모심기와 관련 있는 내용에서부터 형제간의 우애, 부모에 대한 효성, 임금에 대한 충성, 남녀간의 애정·유혹, 노골적인 성의 표현, 인생무상 등 삶의 전반적인 내용이 사설의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남녀 간의 성의 표현이 가장 많다. 모심기소리뿐만 아니라 논매는소리, 밭매는 소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 농요의 곡조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사설들은 일의 내용과 관계없이 혼용되어 불려진다.

처음 모심기를 시작할 때는 ①③④⑤⑥⑦⑧처럼 모심기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형제간의 우애, 부모에 대한 효성들의 사설을 소리하다가 일의 피로가 쌓이고 고통이 더해감에 따라 ②처럼 남녀간의 사랑이나 적극적인 성을 소재로 한 소리를 불렀다.

가창방식은 모찌기소리와 마찬가지로 메기고 받는 교환창 형식으로 부른다. 대부분의 모심는 소리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대구를 이루고, 긴장이완을 위한 휴지부분인 후렴구가 없이 바로 메기는 내용에 따라 받는 내용이 의미단위를 형성해야 하므로, 노동집단의 강한 결속력과 긴밀한 유대가

요구된다.

대부분 좁은 농토에서 소집단의 농군들이 일을 하게 되고 지형적 고립으로 많은 집성촌을 이루어 사는 장수 지역의 농군들에게 적합한 가창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현재 이 일 소리의 전승사태가 좋은 지역일수록 지형상의 고립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 평야지역보다 농토가 적고, 주거인구가 적어 마을 공동체나 노동공동체의 인원이나 그 조직이 간단했던 데에도 이 교환창 노동요의 생성원이 있는 것 같다.

메기는사람과 받는사람의 관계는 1대 1일 경우도 있고, 잘 아는 사설은 앞 독 농군이 받으면 뒤 독 농군이 받는 형태로도 부르거나 좁은 계단식 논에서는 윗논의 농군이 메기면 아랫논의 농군이 받기도 했다.

울격도 모찌기소리와 같이 대부분 4음절이 1음보를 이루고, 4음보가 1행을 구성하며, 2행으로 한 편의 소리가 완결된다. 메기는 부분이 4음보 1행, 받는 부분이 4음보 1행으로 되어, 한번 메기고 받으면 1연이 되는 연속체로 되어 있다. 전체 농요의 반절이상이 4·4조의 음수율을 유지하여 장중하면서도 애조를 띠고 있는데, 다른 민요권과의 경계지역인 산서면의 몇 소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같은 곡조로 부르고 있는 대표적인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조식은 위의 악보와 같이 구성음이 e-g-a-b-c'로 되어 있는데, 이 중 e,a,c' 3음이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주요 구성음으로 쓰인다.

요성은 a음에서 하강하며 e음에서 낮게 떨어 주는데, 이 부분이 애조를 띠는 소리로 들린다. 박자는 4분박 6박자로 일정하다. 선율의 진행은 e↔a의 완전 4도 진행이 지배적이고 경과음으로 g음이 쓰인다. e↔c'의 6도 진행도 보이는데 경과음은 쓰이지 않는다. 메기는 부분과 받는 부분의 길이는 같고, 빠르기는 ♩=60으로 느린 편이다.

받는소리 앞 소절 각 마디의 선율 형태는 첫음을 c'음으로 질러 낸 다음 b를 거쳐 a,e로 하행하는 하강형 선율 구조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모심기소리의 곡조는 모찌기·논매기·밭매기 소리의 곡조와 같다. 이처럼 이 지역의 농요는 그 노동 기능에 따른 곡조의 분화가 적다는

산간지역 모심기 노래

김익두 조사
노복순 채보

산간지역 모심기 노래

점에서도 그 소박·단순한 특징이 확인된다. 일의 종류에 따른 곡조의 분화가 적어서 한 곡조로 여러 가지의 일 소리 기능을 다 하고 있다. 다른 점은 소리의 사설만 일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거기에 걸맞는 사설들로 바뀌게 된다. 물론 어느 때나 부를 수 있는 사설이 대부분이다.

다) 논매기 소리

모심기가 끝나고 20일 내지 한 달이면 어린모가 새 뿌리를 내리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다. 어린 모가 쓰러지거나 잎이 마르지 않도록 깊게 대 주었던 물을 빼고 웃거름이나 웃비료를 뿌린 후 초벌매기를 한다. 주로 포기 주변의 잡초를 긁어주고 바닥 풀을 매서 논바닥에 밟아나간다. 논매기는 모심기보다 많은 일손이 필요치 않고 다소 여유도 있다.

다만 모심을 때 보다 더워진 날씨가 일의 고통을 준다. 논매기는 주로 품앗이로 이루어지고 농토가 많은 집에서는 샅일을 시키기도 한다. 초벌매기가 끝나고 한달 쯤 후에 다시 웃거름이나 비료를 뿌리고 두벌매기를 하는데, 이때는 포기를 심하게 건드리지 않고 주로 피를 뽑거나 바닥의 큰 잡초들을 제거한다. 세벌매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나 이때에는 주로 흙탕물만 일으키는 정도이거나 눈에 띄는 피를 뽑아내는 정도로 하고, 대부분 두벌매기로 논매기를 끝낸다. 논매는소리는 모심는 소리의 곡조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물고는 철철 흘러놓고 주인 양반 어디 갔나
주인 양반 술집에 가고 주인 도령 서당에 갔네

문어 전복 손에다 들고 첩의 방에 놀러가세
낮으로는 놀러 가고 밤으로는 자로 가지
〈계남면 곡리 양인철(남, 58), 1982 조사〉

일의 동작이나 진행속도가 모심기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사설과 가락이 변형된 것이 경계지역에서 불려지기도 한다. 이는 창자들이 논맬 때 불렀다고는 하나 사설과 가락이 변형된 사설에는 논매기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북 민요권 설정에서 서부평야지역에 속한 임실군과 접경지역인 산서면에서 조사된 싸오소리가 논매기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된다. 싸

오소리와 선후창 형식으로 불리워지는 몇 편의 특이한 논매기 소리를 다음과 같다.

메 : 물고는 철철 물 실어 놓고 첩의 방에 놀러갔네
 첩아 첩아 날 놓아라 우리 본댁 기다린다
 받 : 어화에헤 상사뒤야

메 : 물고는 철철 물 넘겨 놓고 권네 양반 나들이 가고
 김도령은 서당에 가고 우리 양반 나들이 가고
 받 : 어화에헤 상사뒤야

〈산서면 동화리 장재호(남, 78). 1982 조사〉

메 : 일락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떠 온다.
 받 : 에헤야에흐 바앙게로다

메 : 이 논배미 어서 매고 우수 달밤에 임 찾아가세
 받 : 에헤야에흐 바앙게로다

메 : 장수 원님은 곤달루(山菜名)쌈 남원 원님은 해우쌈
 받 : 에헤야 에-흐 바-앙게(放歌)로다

메 :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영(東嶺)에 달 떠온다.
 받 : 헤헤야 에-흐 바-앙게로다

메 : 이 논배미 어서 매고 우수 달밤에 님찾아 가세
 받 : 에헤야 에-흐 바-앙게로다

메 : 저 너머 초당에 소첩을 두고 이거야 밤길 걷기 난감하네.
 받 : 에헤야 에-흐 바-앙게로다

메 : 우-휘휘 둘러 쌈들 싸세
 받 : 에헤야 어-흐 바-앙게로다

(소리를 부르며 논을 매다가 한 배미를 끝매기할 때 매조지로 위와 같은 소리를 부르고 허리를 편다.)

〈산서면 동화리 장재호(남, 78). 1982 조사〉

위의 변형된 논매기 소리는 조사 지역이 다른 민요권과의 접경지역이고, 가창방식도 선후창으로 부르는 등 장수지역 민요형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발매기 소리

발일 소리는 전북 평야지역이나 도서지역에 비해 많기는 하나, 발일의 형태에 따라 소리의 분화가 되지 않고 모두 발매는 소리만 조사되었고 파종이나 수확할 때 부르는 소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장수지역의 농요는 논일소리 중에서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와 발일소리 중에서 발매는소리에 국한되므로 구연 양상도 이에 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발일은 논일보다 힘이 든다. 논일 중에서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힘이 드는 일이 모내기라면 모내기보다 힘든 일이 발일이다. 모내기는 계절상으로 봄철에 이루어지고 물에 발을 담그고 하니 따뜻할지언정 덥지는 않다. 모심기는 발일 보다 많은 농군들이 집단으로 일을 하니 피로도 발일에 비해 덜하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발일 소리는 모두 발 매는 소리만 조사되었다. 발매는 일은 주로 뜨거운 여름철에 하게 되고, 무성한 잡초와 연약한 부녀자와의 끝없는 싸움이다. 시집 온 부녀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 발 매는 일일수도 있다. 그래서 발매는 소리가 모심기소리 다음으로 발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① 메 : 이내 밭골 다 땔라다 금봉채를 잃고가네
 밭 : 전주송방을 다 팔아도 금봉채는 내 당해줌세

② 메 : 이내 밭골 어서 매고 임으 밭골 맞아들세
 밭 : 술렁술렁 배 띄워 놓고 저 배 타고 임보러가세

③ 메 : 이내 밭골 어서 매고 임으 밭골 마주 들세
 밭 : 밭 땔라고 마주 가나 임 불라고 마주 들지

〈계북면 매계리 김옥님(여, 65). 1993 조사〉

④ 벼슬하고 돌아오다 한구비를 돌아드니 장인 장모 밭을 매네.

제쳐 쓴 통영갓을 숙여 쓰고 가는 말을 채질하고

어여후딱 집에 가서 대문 안을 들어서니

반달 같은 각씨 원달같은 아들딸이 반기면서 나오는데

아-뽕사 잘못했다 반절(半拜)이라도 하고 올걸.

각시(처)가 하는 말이 반절 온절 다 버리고 큰절인들 못할썩가.

경상 감사도 죄아들놈

〈장계면 명덕리 곽분이(여, 73)소리, 1982 조사〉

밭매는 소리도 논일소리와 같이 남녀간의 애정과 그리움을 담은 소리가 단연 우세하다. 그 외에 ①의 1연과 같이 해가 진 뒤에도 늦게까지 밭을 매야 하는 생활상의 고통이나, ②③와 같이 입을 소리함으로써 노동의 피로를 풀기 위한 소리들도 있다. ①와 같은 소리는 밭일을 할 때만 부르게 되지만, ②나③와 같은 소리는 밭일이나 논일과 관계없이 두루 부르는 사설이다. ④는 밭일소리라고는 하나 조사자의 언급이 없어 어떤 형태로 소리 불리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 교환창으로 불렀다고 보기에는 행과 행의 긴밀한 결속과 장의 구분이 모호하다.

밭일소리의 울격은 모찌기소리나 모심기소리와 같이 4음절이 1음보를 이루고 4음보가 1행을 이루며, 메기고 받는 2행이 1연을 이루는 연속체로 이루어진 소리이다. 곡조는 논일소리와 같은 곡조로 부른다. 창법은 이른바 한국 동부지역의 ‘메나리 토리’로서 구슬픈 애조를 띤다.

3) 발견되지 않은 농요

논일의 형태에 따른 진행순서는 모찌기를 하기 전에 물품기나 논 고르기를 하게 되는데, 장수 지역에서 이러한 소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지형과 토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형적으로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하절기에 집중되는 강우량은 타 지방에 비해 수량이 넉넉하여 가뭄에 대한 걱정이 적다. 골짜기에 풍부하게 흐르는 물을 끌어 대기만 하면 된다. 물품기 소리는 물이 모자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고된 노동에서 피로를 덜기 위해 부르는 소리인데, 그러한 노동이 거의 필요 없는 이 지역에서 물품기 소리가 형성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논 고르는 소리가 한 편도 조사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았거

나 형성 상태가 빈약하여 전승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두 가지의 원인으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토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화강 편마암의 암쇄토로서 점질이 매우 낮아 물만 대어도 대부분 풀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 논 고르기가 용이하다. 일이 힘들지 않은 상황에서 농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경작하는 논 면적이 협소하다는 데 원인이 있다. 예전에는 장계, 장수 분지와 계북과 산서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단식 논으로 이루어졌고, 면적도 협소하다. 그러므로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키기 위한 농요가 발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넓은 평야지역에서 들을 수 있는 나락 베는 소리, 등짐소리, 타작 소리 등이 장수 지역에서는 조사되지 않는 이유도 된다.

논매는 소리에서 초벌매는소리, 두벌매는소리, 만두레소리로 분화되지 않은 원인은 기후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발 고도가 높고 평균기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무상기일이 짧다. 논매기를 자주 해주게 되면 뿌리를 자극하여 포기 번식이 왕성해진다. 무상기일이 길 경우에는 논매기를 여러 번하여 포기 번식을 충분히 시켜 가꾼 다음에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포기 번식 기간이 길면 벼가 황숙되기도 전에 서리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논매기는 가볍게 한두 번에 그친다. 이러한 원인으로 논매기 소리가 세분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4) 장수지역 농요 사설의 내용과 기능

농요는 논일이나 밭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이다. 그러나 논일이나 밭일을 할 때 부르는 소리라고 해서 그 내용 전부가 논일이나 밭일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논일이나 밭일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논일이나 밭일에 관련된 내용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예가 더 많다.

모내기소리는 남성요로서 노동요 중에서 가장 자유롭게 다양한 내용을 담아 부른 요사(謠詞)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서는 모내기 소리뿐만 아니라 논일소리, 밭일 소리의 대부분 사설 내용이 자유롭다. 이는 장수 지역의 지형상의 특색과 지형상의 특색에서 오는 농사 방법의 차이에서 연유되는 것으로 본다. 험준한 산간 지역이어서 넓은 벌판이 형성되지 못하고, 계단식 다랑이 논이 대부분이며 산자락을 따라 가늘게 형성된 좁은 밭에서 일을 하게 되므로, 많은 농군이 한데 모여 일하기에 부적합하다. 모내기도 개화기 이후에 줄모가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논이 넓은 곳이라야 줄모가 노

동의 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이지, 좁은 계단식 논에서는 매우 불편한 이앙 방법이였다. 근래에 경지정리로 비교적 반듯하고 넓어진 논에 줄모이앙, 기계 이앙이 시작되기 전만해도 대부분 산식(散植)이었다.

이러한 노동 환경에서 생성 발달한 소리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단 노동에서 농군들의 호흡을 일치시키고 조직적인 노동의 필요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보다는, 노동의 피로를 덜고 삶의 고달픔을 해소하면서 불가항력의 현실 개선에 대한 체념을 현실 긍정과 만족으로 승화하는 방편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설의 내용은 서민들의 생활 전반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내용은 첫째, 장수지역의 농요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남녀간의 성을 소리한 것. 둘째, 계층 간의 갈등이나 생활의 고달픔, 인생의 무상함, 노동의 피로 등 생활감정을 담은 내용. 셋째, 풍년의 예측과 생활의 향상을 염원하는 내용. 넷째, 농군들의 단합과 협동, 작업의 내용을 담은 것 순으로 살펴본다.

가) 남녀간 성(性)의 표현과 피로의 해소를 위해 부른 소리

농요에서 성적(性的) 표현이 단순히 퇴폐적, 향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농요를 부르던 농군들은 끝도 없이 힘겹고 지루한 농사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오는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요, 육체적인 피로를 이완시키는 데는 농도 짙은 연정의 소리가 가장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본다. 서민들은 성 자체를 불결시하거나 퇴폐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양반들의 문화가 폐쇄적이고 현상유지적이라면 서민들의 문화는 개방적이며 현상타파적이고 훨씬 생명력이 넘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성(性)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건강할 수 있었고, 성이 활달한 삶의 바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한 성이 일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가장 적절한 피로의 이완 방법이었을 것이다.

양반사회에서는 엄두도 못낼 노골적인 성의 표현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있다.

매 : 저산넘에 꽃첩을 두고	밤질 걷기 난감하네
밭 : 침으야 잡넌은 뭇로생겨	본댁 간장 복헛가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서민들로서는 도달 불가능한 상황을 양반의 감춰진 행위로 넘겨주고 자신은 관망하고 조롱하는 쾌감과 성적(性的) 즐거움을 동시에 노리고, 생산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소비계층의 은폐된 부당함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다. 이보다 더 노골적이고 독설에 가까운 항변도 찾아 볼 수 있다.

메 :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권네 마누라 저기도 꽃세

받 : 그 골짜기도 농사라고 지리산 중놈이 동냥왔네

〈계북면 원촌리 문분임(여, 82). 1993 조사〉

‘골짜기’와 ‘꽃는다’는 어휘가 이중연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며, 꽃핌을 당하는 피해자는 생산의 소비자인 주인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육체적 노력만으로는 현실 개선의 가망이 없는 체념의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소리를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 노랫말이 자못 외설스러우나 그것이 일의 고됨을 크게 경감시켜주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① 메 : 오늘 해도 다 되었나 골골마다 연기 나네

받 : 우리 언님은 워데가고 저녁할 줄 모르는가

〈계북면 매계리 이복남(여, 74). 1993 조사〉

② 메 : 배가 고파 받은 밥상 뉘도 많고 돌도 많네

받 : 입이 없이 받은 밥상 뉘도 많고 돌도 많네

③ 메 : 문에 전복 오레들고이 첩으야 방에 놀러갔네

받 : 무슨 첩이 그리도 좋아 낮에 가고 밤에도 강가

④ 메 : 물꼬는 철철 물 실어 놓고 처버의 방에 놀러 갔네

받 : 첩아 첩아 날 놓아라 우리 본댁 기다린다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⑤ 메 : 사례 길고 광찬 밭에 묵화 따는 저 처녀야

받 : 묵활라컨 내 따 주께 내품 안에 잠들어라

〈계북면 매계리 김옥님(여, 65). 1993 조사〉

일의 고됨보다 견디기 힘든 괴로움은 박정한 입을 향한 야속함과 떠난 입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다.

①와 ②에서, 고된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 반겨줄 입도 없다. 입 없이 혼자 먹는 밥이 모래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다. ③에서는 박정한 입에 대한 야속함을 소리했다. ④는 감히 항변할 수 없는 나약함을 포현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소리로 하기도 했다. ⑤는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한 소리로 은근하거나 적극적인 유혹을 담고 있다.

남녀간의 성(性)을 소재로 한 소리의 사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성이 극단적으로 억압되었던 과거의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건강한 성이 삶의 활력소였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농도 짙은 외설적인 정염요에서부터 은근하고 적극적인 유혹의 소리, 존재하지 않는 입에 대한 그리움과 미흡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을 담은 소리 속에 성을 자연스럽게 용해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재야말로 지겹고 힘든 일을 잠시나마 잊게 하는데 더 없이 적합했으리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은 사설의 내용이 직접 노동이나 농사일과 관계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거의 모두 일하면서 부르던 소리였을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생활감정의 배설과 순화를 위해 부른 소리

민요의 향유자인 서민들이 농요를 통해 표출하는 주된 감정은 한마디로 아픔이고 고통이다. 그 만큼 그들의 삶이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이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제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개선 불가능의 상황에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좌절을 소리를 통해 승화시키고 있다. 소리를 통해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았다. 가장 많은 생활감정의 사설은 인생의 허무함을 소리한 것들이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 생명의 아쉬움을 담은 소리들이다.

메: 멀구 다래 썩는 물은 골골마등 흐르는데

반: 우리 어매 썩는 물은 어느 골로 잣아드는가

〈장수읍 장수리 김일남(여, 75) 소리, 1982 조사〉

어머니라 하여 부모로 대표되는, 가고 없는 이들의 죽음을 담아 남길 것도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했다.

사래 질고 광찬 밭을 날더러만 매라하네
 못다맬밭 다 맬라다 금봉채만 잃고가네
 전주 송방 다 팔아도 금봉채는 내 사 줌세
 뽕밭같이 지신 밭을 한골 매고 두골 매고
 삼시 세골 매고 난게 점심 때가 되었는데
 친정 오매 죽었다고 부고 오네 부고오네
 아이고 오매 어쩐 일고 어여 바삐 집에 가니
 시어머니 쌍쫄 보소 이년 저년 밭 안 매고
 고향소리에 되쫄기네

〈장수읍 장수리 김일남(여, 75) 소리, 1982 조사〉

위 소리는 조사자의 언급이 없어 어떤 형태로 소리 불리어 졌는지는 알 수 없다. 교환창으로 불렀다고 보기에는 행과 행의 긴밀한 결속과 장의 구분이 모호하다. 넓고 잡초 무성한 밭을 피약벌 아래에서 혼자 매어야하는 고통을 소리했다. 평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형태로 보아 설령 친정에서 부고가 날 아 와도 어림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비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처럼 서민들은 넉넉지 못한 생활을 꾸려가며 생기는 고달픈 삶의 고통을 소리를 불러 배설하고 순화시켰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의 허무함과 수평적, 수직적 계층간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빈약함속에 구속된 생활의 고통을 사설에 담아 소리함으로써 좌절에 빠지지 않고 새 삶의 힘을 축적했던 것이다.

다) 풍년의 기원을 담아 부른 소리

농민에게 있어서 풍년은 그들의 가장 절실한 소망이다. 인류에게 있어 풍요다산이란 본원적인 희망으로 그것은 잉여가치 이전에 벌써 개체보존과 종족유지를 위해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농군들은 씨를 뿌리기 전부터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에 열성을 다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러한 소망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바람을 소리했다.

메 : 이 논에다 모를 송거 일천석만 쏴아지쇼

받 : 일천석만 노적이나 이천석도 노적이지

메 : 이천석만 노적이나 삼천석도 노적이지

받 : 삼천석만 노적이나 사천석도 노적이지

메 : 담송담송 닛마지기 일천석만 쏴아지쇼

받 : 앞산 점점 멀어가고 뒷산은 점점 가까워 오네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우리 조상들은 언령관념(言靈觀念)을 갖고 있었다. 언어에 신비한 힘이 있어서 ‘무엇이 어떠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현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농군들이 들소리를 당차게 구연하는 이면에는 농요를 열심히 부름으로써 풍년이 든다는 종교적 신념이 내재되어 있고 사설의 내용에서 나타난 풍요 기원의 요소들은 그러한 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일천석만 쏴아지쇼’하고 기원하는 사설의 내용에서도 민중의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백(百)은 꼭 1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곡백과’ ‘백성’이라고 할 때의 백은 ‘많은’ ‘모든’의 뜻이다. 또 ‘백’은 완성의 수, 신성의 수로 통하기도 한다. ‘일천’ ‘이천’의 ‘천’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농군들에게 있어서 농요는 생산을 가능케 하는 일종의 힘으로 생각했다.

라) 단합의 강조와 작업의 지시를 위해 부른 소리

장수지역의 농요 중에서 작업을 독려하고 작업의 형태를 지시하거나 단합을 강조한 소리는 논일소리에서만 나타난다. 그나마 그 빈도는 평야지역에 비하면 극히 미약하다. 평야에서는 수십 명에서 백 명이 넘는 농군들이 일제히 일을 하게 되므로 호흡의 일치를 위해 단합을 강조하는 사설의 소리가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흡의 일치를 통해 농군들의 작업행동을 통일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수지역에서는 수십 명이 동시에 들어서서 일할 만한 논도 흔치 않고 농토가 좁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집약되어 살지도 않았다. 좁은 농토에서 소수의 농군들이 일을 하게 되므로 이 지역에서는 단합과 협동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소리나, 대규모 농군들의 행동 통일

을 요구하는 작업의 형태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독려하는 소리가 적은 이유가 된다. 밭소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소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밭일은 더욱 적은 수의 농군들이 일했음을 짐작케 한다.

일의 형태를 지시하고 작업을 독려하는 사설을 담은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있다.

① 메 : 씨리질일랑 상일꾼 하소 한 섬지기 다 예워 먹세

밭 : 쇠대가리 모춤간다 쌍씨리로 버들러라

② 메 : 잘도 허네 잘도나 허네 우리 일꾼들 잘도 허요

밭 : 애들씨요 애들씨요 우리 일꾼 잘도 허요

〈계북면 원촌리 문분임(여, 82). 1993 조사〉

①는 모꾼들이 모심는 속도에 비해 앞서서 논을 골라나가는 씨레꾼들이 더디므로 느릿느릿하는 소머리에 모춤이라도 올려 놓아 빨리 일을 서두르라는 작업의 독려를 담고 있다. ②는 농군들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보다는 모두 잘 한다는 칭찬으로 자발적인 분발을 요구하는 우의적인 독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 지역 농군들은 평야지역에 비해 소수의 농군들이긴 했지만, 농요를 부르면서 일함으로써 서로 단결하여 공동체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했다. 한 목소리로 소리하면 농군들 상호간에 결속이 돈독해 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요를 부르면서 같이 일하면 작업에 참여한 농군들은 한 소리로 소리할 뿐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일하기 때문에 모두 한 마음이 되어버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요를 부르면 빈자와 부자, 약자와 강자, 개인과 개인을 하나로 묶는 계층의 통합,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서로 돕고 친화하여 공동체가 유지되면서 발전하는 바탕을 이루게 된다.

나. 길쌈요

길쌈요는 부요(婦謠)를 대표하는 규방문학(閨房文學)의 하나이다. ‘물레소리’ ‘베틀소리’ ‘삼삼기 소리(織麻謠)’ 등이 모두 이에 속하며, 부녀자들이 길쌈할 때에 부르던 소리이다. 바깥 세계와는 단절된 생활 여건에서 당시 가내수공업의 중심이던 고된 길쌈을 하면서 느끼는 자신들의 희로애락을 이

소리에 담고 있다.

가사의 내용은 작자와 지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첫머리에서는 꿈같은 동경의 세계인 월궁(月宮)의 선녀를 소리하고, 이어서 인간 세계의 고통과 즐거움을 읊은 것이다. “바람은 솔솔 부는 날, 구름은 둥실 뜨는 날, 월궁에 노던 선녀, 옥황(玉皇)님께 죄를 짓고…….” “라거나” 강남달 강수자는, 글씨 좋아 소문나고, 강남달 강처사는, 인물 좋아 소문나고……” 등으로 이어지는데 장수지역에서는 베틀노래, 삼삼는노래, 삼잣는노래 등 두 편이 조사되었으나 조사자의 언급이 없어 어떤 창법과 곡조로 노래했는지 알 수 없다.

① 삼(麻)삼는노래

전지다리 구대서야 먹걸었다 궁일러라
질삼 실삼 이(爾)로 째서 허벅다리 다 절단 난다

전지다리 구대서야 막걸었다 궁일러라
견삼가래 손새와 삼고 임의 품에 잠자리 가세
〈계북면 매계리 손언련(여, 78). 1993 조사〉

잠아 잠아 오지 말게
이 삼거리 다 삼우고 임의 품에 잠자리 가세
아가 아가 우지마라
이 삼 삼아 옷 해 입고 팔도강산 귀경 가세
〈장수읍 두산리. 1982 조사〉

② 삼 잣는 노래

아래 옷방 세년들아 연줄 걷는 구경 가자
걸렸다네 걸렸다네 거지옥산에 연 걸렸다네
〈계남면 가곡리 김언련(여, 89). 1982 조사〉

③ 물레타령

물레야 자세야 에헤야디야
뒷집이 처녀는 에야라리아

빙빙돌아라 예야디어루
 앞집이 총각은 예헤 리디야하
 남의 집 귀동자 예야디아
 잠을 못자는디 예하디어라
 밤이슬 맞는다.
 〈장수읍 장수리 북동 한기준, 1996 조사〉

④ 베를노래

하늘에다 베를 놓고 원삼을 모아놓고
 안줄개를 거트리고 그 위에라 앉은 양은
 우리 인성 생길 적에 하늘에라 북두칠성 안질런네
 말코를 놓아 차고 부테를 두른 양은
 허리안개 두른던네 조그마한 잉애복은
 조그마한 알을 물고 백운강에 드나들어
 체발이라 찌른 양은 국화씨로 외운던데
 자질개물 하는 것은 동남풍이 드리불어
 센가랑비 찌트린 듯 잉애대는 삼형제요
 사침대는 단성제요 늘깃대는 호호래비
 우수강에 던져놓아 용두머리 우는 양은
 강남땅의 조도령이 칭칭하는 벼을 잃고 부르는 소리로다
 외용고부장 철기신은 제도방에 드나드려
 받이집 치는 양은 하늘이라 옥황상제 받이집 치는 여대
 베거리 뒤는 양은 하늘이라 청용황용 구부치는 여대로다
 배때기와 듣는 양은 깊은 산중 되캥새(두견새)가 듣는덧다
 도토마리 뒤는 양은 하늘이라 된장군이
 센장군을 거느리고 조배상을 뒤는 여대
 이 베를 필필이 짜내아 자자이 짜내아
 옥황상제에 다 바치면 이내 귀양 풀리려나
 〈장수읍 장수리 김일남(여, 75), 1982 조사〉

다. 채취요

채취요는 산이나 들에서 나물을 뜯거나 목화를 따며 부르던 노래를 말한

다. 나물 뜯는 노래 중에는 ‘쑥쑥뽑어 나생이 잡아뜯어 꽃다지 이개 저개 지친개 오용 도용 말뼉이…….’ 식으로 10 대 소녀들이 놀듯이 나물을 뜯으며 나물 이름을 열거해가는 4.3조 1음보의 경쾌한 유희요가 있으나 장수지역에서 조사된 나물캐는 노래나 목화 따는 노래는 어른들의 노동요로서 매계리 허기단의 노래를 제외하고 율격은 4음절이 1음보를 이루고, 4음보가 1행을 구성하며, 2행으로 한 편의 소리가 완결된다. 메기는 부분이 4음보 1행, 받는 부분이 4음보 1행으로 되어, 한번 메기고 받으면 1연이 되는 연속체로 되어 있다. 음보와 연의 구성으로 보아 농요의 곡조를 그대로 불렀을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나물캐는 노래의 사설을 다른 창자(唱者)는 모시는 노래로 부르기도 한다.

① 산나물 캐는 노래

오늘 해라 다 저가고 골골마다 연기난데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연기 낼 줄 모르는가
멀구 다래 썩는 물은 골골마다 흐르는데
우리 부모 썩는 물은 어느 골에 흐르는가
〈장수읍 장수리 김일남(여, 75). 1982 조사〉

② 들나물 뜯는 노래

잔디밭에 시운(水銀) 잃고 시운 찾기 난감하네
저승길에 부모 잃고 부모 찾기 난감하네
임의 정은 청산이오 이네 정은 녹수로다
청산이야 변할망정 녹수로야 변할손가
화조병풍 우라바니
김만경 널은 들에 활 쏘 구경 가셨는가
이태백이 노든 방죽 낚시질을 가셨는가
〈계북면 매계리 허기단(남, 78). 1993 조사〉

해는 저서 어두운데 골골마다 연기 나네
우리 님은 어디 가고 나 기다린지 모르는가
노랑노랑 세삼베치마 골목골목 다 씻어 가네
오졸오졸 크는 아기 다 못 보고 해가 지네

〈장수읍 장수리 유기열(남, 61). 1982 조사〉

③ 목화 따는 노래

사래 길고 광찬 밭에 미영(木花) 따는 저 처재(處女)야
 녀의집이 어데간데 해가 저도 아니 가냐
 우리 집을 불량이면 거지봉산 비룡산에
 찬 이슬이 내 집이라.

사래 길고 광찬 밭에 목화 따는 저 처녀야
 자기집이 어데간데 해가 저도 목화 따냐
 우리 집을 불량거든 첩첩산중 깊은 산중
 석석 바위 끝이 내 집이다.

사래 길고 광찬 밭에 미영 따는 저 아가씨
 미영을 딸라 말고 내 품안에 잠들어요
 여보 손님 그 말 마오 정주기는 어렵지 않으나
 해는 서산에 뉘엿한데 미영 따기 정신없네
 〈계북면 매계리 허기단(남, 78). 1993 조사〉

④ 나무꾼 노래

팔공산 나무초군 가세 가세 나무 가세
 깊은 산에 나무 가세 우드닥 툇닥 나무가세
 〈장수지방 구전민요 1998, 장수지방 민속문화〉

라. 기타노동요

‘어 여루 상사뒤야’ 라고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받는 소리를 제외한 메
 가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집터 다지는 노래

어 여루 상사뒤야	
이 말뚝을 박으려는	모든 이 땅이 잘 다져진다
이 몽꾸는 천근이다.	뒤소리만 마차주먼

잘 올라갔다 내려온다 말뚝조종은 영산에 말뚝
수지조종은 항애수(항하수)라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2. 제의요(祭儀謠)⁴⁶⁾

가. 상여소리(輓歌)

우리 조상들은 죽음의 문제를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 인식하였으며 망인(亡人)을 생자(生者)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의식에서 장례를 엄숙하고도 정중하게 치루어 왔다. 그런데 이 장례 중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 대부분 상여로 하게 된다. 이 때 상여꾼(香頭軍, 香徒軍)들이 부르는 노래가 옛부터 있어서 오늘날에까지 전승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가(輓歌)라고 부른다.

만가는 운반노동요(運搬勞動謠), 장례의식요(葬禮儀式謠)이며 매김노래로서 인간의 절대 관심사이자 마지막 통과의례의 한 과정인 장송시(葬送時)에 불려지는 독특한 노래이다. 다른 매김노래가 거의 생산성을 띤 노래인데 비하여 만가는 없어짐의 노래로 유족에게 애절, 비통한 마음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점도 없지 않지만 장송길에서 상여꾼들에게 힘을 내고 보조를 맞추게 하여 일의 능률을 높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유족과 친지, 조문객에게 권선, 효도 등의 교훈을 주는 사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1) 장수읍 상여소리

상여가 나가면서 마당과 동구 밖에서 하직인사를 하는데 덕석을 깔고 음식을 차려 놓고 상여를 멘 채로 삼배를 한다. 망인이 자주 다니던 곳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거른제(거리제)도 지내는데 배고픈 시절 뒤에 오는(구경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망자가 평소 즐겨 다니던 곳이나 다리를 지날 때도 거리제를 행한다. 상주를 상여에 얹어 태워 가기도 하였다.

상여 메는 소리는 메기고 받기가 계속된다.

받는 소리는 일정한데 두 가지 형태로 하였다. 하나는 “어허농차 어허어농”이고 다른 하나는 “어허어이 어허노” 이다.

동일한 뒷소리는 생략하고 앞소리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46) 장수문화원, 《장수문화 제6호》, 신아출판사, 2008.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가기가 싫어도 나는 간다.
황천길이 멀다더니 눈감고 보니	앞산이 황천이로구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백년이나 천년이나 살겠더니
어디다고 내가 강가	앞산도 첩첩, 뒷산도 첩첩
호랭이(호랑이) 개발통	물어다 논디를 왜 가느냐
노자 좋다 젊어 노자	늙고 병들면 못 노니라.
백년이나 천년이나 살겠더니	눈감고 보니 건너 산이 황천이로구나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눈 감고 보니 구비 산천이 불망일세.

소리를 메기는 사람은 상주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망자와 자식간의 깊은 정을 알고 있는 소리꾼은 망자가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소리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주는 이를 듣고 슬퍼하며 절을 하게하고, 노잣돈을 내게도 한다. 이때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너를 두고 눈물이 앞을 가려 못가겠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다리가 땡겨서(아프거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소리도 있다. 상여의 앞에 메어 놓은 산내키(새끼)줄에 노잣돈을 끼우게 한다. 노잣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상제들아 들어봐라	노자가 없어서 못 간단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희들 버리고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나 오시려나	오실 -날짜나(올 날이나) 일러주오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오시는 니 -히 -물 -어히 - 잡들을 마라
나는 가요오 나는 가요오	동민 여러분 나는 가요.(자알 사시오)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오너라
올라간다 올라간다	출렁출렁 올라간다.
여봐라 동지들아 나를 제발 붙들여라	출렁 출렁 올라간다
용 가는디 구름가고	범 가는디 바람이 가고
하직이야 하직이야	모든 분들 모두 두고 하직이야
이제 가면 어느 시절에 오실랴오	명년 춘삼월에 오실랴오
불쌍하시 불쌍해시	오늘 가신분 불쌍해요

황천길이 머다는데

오늘날이 황천길로 구나

춘향이이 가련하다

쭉대머리 귀신 형용

적-막옥방의 찬 자리에

생각난 것은 일 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낭군을 보고지고

서방님과 정별후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봉양 글공부에

거름이 없어서 이전는가

연이신혼 금슬우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계궁향아 추월같이

번드시 솟아서 비치교저

막왕막내가 막혔으니

앵무서를 내가 어이보며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사정으로 편지하고

간장의 썩은 헌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문령 단장성에

비만 많이 와도 임의 생각

황천길이 머-다두이

건너 산이 황천일세

앞산도 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현디

그리 쉽게 가실 라면

당초에 나오지-를 말 것을

내가 만일에 임얼 못보고

옥중 고향이 되거드면

무덤 앞에 인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알아줄 이가 누가 있단 말이냐

대성통곡을 우름은다

못가갠네 못 가견네

너이를 두고 못가건네

새벽서리 참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가

어데로 갈라고 울고 가나

눅떠러진 상상봉이 평지 되면 오실 라요

마두가 데면은 오실 라요

풍풍용 흥용이라 용가는데 구름이 가고 범 가는데 바람이 가고

꿈일성근 입가신데

내가 못 갈송가

다음은 장수읍 한기석(남, 62)님의 소리이다. 받는 소리는 ‘어허님 어허님 어이가리 어허님’으로 반복된다. 한기석의 소리는 받는 소리가 산서면의 받는 소리와 동일하다.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받는 소리를 제외한 메기는 소

리는 다음과 같다.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 오실란가
 높 떨어진 산산봉이 평지 되면 오실란가
 갈매기는 어디가고 배드나든지 모르는가
 사공은 어디가고 배 떠날 줄 모르는가
 마두각 되면 오실란가 오두백 되면 오실란가
 서리맞은 병든 잎은 바람 안 불어도 떨어진다
 노고지리 쉼질(五十丈)뎌들 떠난 봄이 다시 오랴
 〈장수읍 장수리 한기석(남, 62). 1982 조사〉

다음은 장수읍 두산리 양수동(남, 76)님의 소리이다. 받는 소리는 어허어
 야 어허어 어허넘차 어허어 로 반복된다.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받는 소리
 를 제외한 메기는 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허어야 어허어 어허넘차 어허어
 잘 있거라. 잘 있거라. 가기가 싫어도 나는 간다.
 황천길이 멀다더니 눈감고 보니 앞산이 황천이로구나.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백년이나 천년이나 살랬더니
 어디다고 내가 강가 앞산도 첩첩, 뒷산도 첩첩
 호랭이(호랑이) 개발통 물어다 논디를 왜 가느냐
 노자 좋다 젊어 노자. 늙고 병들면 못 노니라.
 백년이나 천년이나 살랬더니, 눈감고 보니 건너 산이 황천이로구나.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구비 산천이 불망일세.

소리를 메기는 사람은 상주들을 배려해야 하는데 망자와 자식간의 깊은
 정을 알고 있는 소리꾼은 망자가 살아생전의 이야기를 소리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상주는 이를 듣고 슬퍼하며 절을 하게하고, 노잣돈을 내게도 한다. 이
 때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메 : 너를 두고 눈물이 앞을 가려 못가겠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받 : 어허어야 어허어 어허넘차 어허어

다리가 뻥겨서(아프거나)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소리도 있다. 상여의 앞에 메어 놓은 산내키(새끼)줄에 노жат돈을 끼우게 한다. 노жат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메 : 상제들아 들어봐라 노자가 없어서 못 간단다.

받 : 어허어야 어허어 어허넘차 어허어

받는 소리는 위의 상여소리나 “어허어야 어허넘차” 또는 “어허어야 어허어” 등이다.

〈장수읍 두산리, 양수동 남 76세 2008 조사〉

다음은 장수읍 최동순(남)님의 소리이다. 최동순은 장수읍을 대표하는 상여소리꾼으로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운상의 여건에 따라 받는 소리가 달라지는 최동순님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 상여를 들어 올리면서

메 : 관아 어허 하 한번(3번)

받 : 관아 어허 하(3번)

메 : 마을 사람들 잘 있으시오. 북망산으로 나는 가오

받 : 관아 어허 하

메 : 동방 화개 춘풍 시에 꽃이 피거든 오시려오

받 : 관아 어허 하

메 :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마는 세상이로구나

받 : 관아 어허 하

메 : 삼천갑자 동방삭이는 삼천갑자를 살았는데

받 : 관아 어허 하

* 상여를 메고 떠나면서

메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영결식이 끝났으니 이제 황천으로 떠나가세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산아 산아 수양산아 눈이 온다고 백두산이나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높떨어진 삼상봉이 평지가 되면 오시려오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인생한번 죽어지면 흙이 날거나 싹이 날거나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오는 길로 돌아가니 무상한 것이 초로 인생이라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앞소리 : 황천수가 머다는디 저 건네 시냇물이 황천수네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메 : 산도 쉬어 넘어가고 물도 쉬어서 건너는데
 받 : 어노 어노 어이나 가리 어노

*언덕을 넘어가면서

메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한 모랭이 지나고 보니 태산준령이 앞에 섰네
 받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메 : 노고지리 쉼질 뜯들 떠난 봄이 다시오랴
 받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메 : 서리 맞은 병든 잎은 바람 없이도 떨어진다
 받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메 : 이제라도 나 죽으면 어느 친구 날 찾아올까
 받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메 : 칠월 칠석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더라
 받 : 어허넘 어허넘 어이가리 어허넘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메 : 어허넘 어허넘 좋은 길은 다오고
 받 : 어허넘 어허넘
 메 : 태산 준령 만났구나

받 : 어허넘 어허넘

메 : 오늘 해도 다 갔구나

받 : 어허넘 어허넘

메 : 골짜 골목이 어두워 간다

받 : 어허넘 어허넘

* 달구질(회다지) 하면서

메 : 어허로 달고 이 산 저 산 북을치니

받 : 어허로 달고

메 : 뗏집으로 집을 짓네

받 : 어허로 달고

메 : 청산녹수 여기로다

받 : 어허로 달고

〈장수읍 장수리, 최동순〉

2) 산서면의 상여소리

소리꾼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제보자가 추측하기에 황천을 가다 보면 도중에 일반 사람이 넘기 힘들고 어려운 ‘너하’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를 잘 넘겨주기 위해 후렴구인 ‘어하 어하 어디 갈까 어하’라는 후렴구를 넣었다고 한다. 보통 ‘어하 어하’라고 하는데 아래 소리는 산서면 이룡리 이곤호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산서면 각 지역 또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하 어하 어디 갈까 어하’라고 하는 동일한 뒷소리는 생략하고 앞소리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어하 어하 어디 갈까 어하

황천길이 멀다고 하더니

인제가면 언제와요

명정 공포가 앞을 서서

황천길이 멀다고 하는데

천중세월 인증수요

산천초목은 젊어가는데

문턱 밑이 황천일세.

오시는 날짜를 일려주소.

황천길을 인도하네.

노자가 적어서 못 가겠소.

춘만건곤 복만가라.

우리 인생 늙어만 가네

다음은 1990년에 조사된 산서면 동화리 이일룡님의 소리이다. 운상의 여건에 따라 받는 소리가 달라지는 이일룡의 소리는 다음과 같다.

* 발인소리

메 : 오 헤허히잇 나암호오

받 : 예 헤에에헤 으잇 나암호오

메 : 병풍에 기린 장담 날 새라고 꾀꼬 울면 오실랴요

받 : 헤에이 헤에이 헤웃 나암호오

메 : 금강산 물이 다 잦아지고 자갈만 처지면 오실랴요

받 : 헤에이 헤에이 헤웃 나암호오

* 운상소리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어하 어하 허허허하 어이가리 어하’를 제외한 앞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하 어하 어허허하 어이가자 어하

웬일인가 웬일이여 명전 공포가 웬 일인가 어하

못 가겠네 못 가겠네 우리 자녀손 못잊어서 나 못 가겠네 어하

뻗다 보아라 종달이 새는 천장도 만장도 구만질 뻗구나 어하

내가 인제 망종가면은 어떤 친구가 날 찾아 오끄나 어하

날 오라네 날 오라네 저승왕이 날 오란구나 어하

오래길랑 오랫동안 대명당을 일러를 주소 어하

심심산천 짙은 곳에 누구를 보라고 내 여기 왔는가 어하

못 가겠네 못 가겠네 노자가 없어서 못가겠네 어하

서른 세 명 유대군들아 소리를 맞춰서 잘도나 허쇼 어하

먼 데 양반들 뵈기도 좋게 어리가자 어하

웁제 그렇제 그만만 허며는 다 잘 헌구나 어하

최경이요

쉬어갑시다.

〈산서면 동화리, 1990. 11. 22, 이일룡〉

다음은 2004년에 조사된 산서면 봉서리 김용희님의 소리이다.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어하 어하 어어이 아하 어이가리 어하’를 제외한 앞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하 어하 어어이 아하 어이가리 어화
 인제가면 언제와 어이갈거나 어하
 인제가면 언제와 제사때면 돌아나 온단다
 웬일인가 웬일이여 명전 공포 웬일인가
 〈산서면 봉서리, 김용희, 2004 조사〉

다음은 산서면 동화리 장세호님의 소리이다.

어하 어하 허허 어허하
 어이 갈가 어허하
 허-으 헤헤-헤
 남호(南昊).....관을 들 때
 관(棺)아....관을 내릴 때
 〈산서면 동화리, 장세호〉

3) 번암면의 상여소리⁴⁷⁾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 나는 가네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북망산천 머다는데
 이제가면 언제오나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못 갈데라 못 갈데라
 명명구천 가지마오

47) 한국문화원연합회 전북
 도지회, 전북구비문화자
 료집, 전주 신아출판사
 2008.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저승길은 외길이오

오는길이 없다는데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토끼같은 자식두고

여우같은 계집두고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이제 가면 아주가나

영영이별 그 웬말고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가기싫어 가는 길을

쏟살같이 돌아오소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 관암소리 : 관암-----보-----에-

* 운상소리

받 : 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

메 : 가네 가네 가네 산천초목예로 나는 가네

받 : 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

메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하릴없이 나는 간다.

받 : 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

메 : 인제 가면 언제 오실라요

받 : 어노어노 어이가리 어노

〈양해봉(남, 54), 2004 조사〉

4) 천천면의 상여소리

천천면에서는 맨 앞에서 소리를 매기는 사람을 ‘선소리꾼’라 했는데 종 대신 소 방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허노- 어허노’ 라고 하는 동일한 뒷 소리는 생략하고 앞소리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 연성의(남, 82세)님의 소리이다.

허야 그-허이-야	
세상사 사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일평생 살다보니	이르케 빨르고나-하
이팔청춘 소년님네	백발보고 웃지마라
우리도 어지아래	청춘이었다.
아이고 데고 땅을 치며	울어 울어봐도 소양없고
가세 가세 서루우 발맞추고 으-아 소리 맞추고	
가세 가세, 가세 가세	아-이고으 세월이 빨르고나
나와 놀던 친구 이별이	작별이히 오늘이고나
어-허 내 친구 놀던 친구	안녕히이 잘계세요 안녕하고 잘 계세요
나는 가네 나는 가---네히	북망산천----이- 가니
나를 두고 어디가오	나하를 두고 어디가오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두고-어디가오
아-이고 데-고	

어허노- 어허야노	가세 가세이 어서-가세
인자가면 언제오시나	너와 나와 놀던친구 이별오늘일세
어허노- 허허화노다	인간평생 살다보니
이러어케도 빨르고나	어-허노-어-리넘차-노
놀다아가세이-놀다아가세-	경치이 좋고 물 좋고 허으 놀다가세
우리삼복군들 마니 마니 욕보시네	이 고개는 왜 고개고
“장판 시여가세에”	

어허노- 어하노	
이왕지사-가는 길이-이 멀고 멀고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모더언 일상 땀기이고 나는 가네	산이 높다 해도 물이 높드흐라

산지조종은 굴릉지산이요	수지조종은 황하세이얼
놀다-가세 놀다가세---	경치이 좋고 깨끗허으고 놀다가세
북망산길 멀다 하더니	다 대왔네 다 대왔어
하관식얼 늦어 간다 재촉하네	어서가세 어서가세
오늘 하관식은 다되왔어	

(천천면 월곡리 박곡마을, 연성의(82세), 2008. 7. 9)

다음은 천천면 오봉리, 고성기(남)님의 소리이다.

어하옹 어하오	어허-넙차 너하오
숨은 스물 네 명의 유대군들	가는 준비가 다됐으니
골라 서서 줄을 잡고	줄을 잡아 허리에 들고
어흐넙차 너하오 어끄메고	돌아서서 하직인사
뒤에 유대군 우로 돌고	앞에 유대군 좌로 돌고
하직인사 드리오니	어흐넙차 절을 하고
천병만약 무효하고	할릴 없이 가게 되니
명전공포 앞에 들고	상대 분들은 뒤따르고
대문 밖을 나갈 적에	할릴 없이 가게 되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명년 춘삼월에
앞이 피고 꽃이 필 때	그 세월이 언제 다시 올까
들어 보소 동네 분들	할릴 없이 가게 되니
일가친척이 많다한들	어느 누가 같이 갈까
형제자매가 많다한들	어느 누가 동행할까
어하옹 어하오	
들어보소 유대군들	한강수가 막혔다고
유대군들이 서서 있으니	노자 많이 보태주면
한강수가 깊다한들	배를 타면 발밧이라
어허넙차 노자주니	한강수를 건너가세
들어보소 유대군들	천마 태산이 막혔으니
어흐내하 어이갈까	상대분들이 앞에 나와
노자 수만냥 보태주니	태산이 높다한들
올라서면 발밧이라	이만하면 잘도 가니

〈천천면 오봉리, 고성기, 남, 2008. 7. 9〉

5) 계남면의 상여소리

수변(앞 소리꾼)은 대개 마을마다 한명정도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오랜 경험에 의하여 그 소리가 전래 되었으며, 마을에 수변이 없으면 읍·면에서 대표가 선발되었고 그나마 없으면 상여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를 틀고 운구하기도 하였다.

상여소리는 크게 출상전날 초상집에서 상두꾼들이 밤을 지새우며 빈 상여를 메고 부른 ‘밤샘노래’, 장례식 날 운상할 때 쓰는 ‘상여노래’, 봉분을 만들 때 부르는 ‘가래질 노래’, 장례를 마친 후 상두꾼 들이 마을로 내려오면서 부르는 ‘길노래’가 있다고 전한다.

또한 상여 노래는 상여를 들고 일어날 때 부른 ‘오장소리’, 상여를 메고 출발해서 천천히 마을 입구까지 가는데 부르는 ‘관암소리’, 큰길에서 걸음을 재촉하면서 부르는 ‘오호소리’ ‘너화님자’, 언덕을 올라갈 때나 좁은 다리를 건널 때 부른 ‘너화 너화 너화님’, 장지에 도착해서 상여를 내려놓으며 마무리 할 때 부르는 ‘관암보살’이 있다.

동일한 뒷소리는 생략하고 앞소리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관아해 관암보세	관암보세 관암보세
고만 저만 울어를 메고	약을 써도 할 수 없고
배개미 우에진데	혈 수 할 수가 없게 되서
북망산천을 가게 됐네	
반들반들 장판방을	오늘날로 하직 하고
반들반들 은수저를	오늘날로 하직 허네
거만 저만 상부를 메고	스물네명 유대군들
잘들 골라서 들어시소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이온 이웃에 유대있게	어린 동생들 잘 기르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저승길이 머뭇더니	운전 말이 저승일세
저승길을 가거들랑	이승에서 못하고 간 말
후세상에서 전해주마	

이찌 갈거나 어찌 갈까	육로로 천리 수로로 천리
한양천리를 어찌 갈까	관보세 관보세
고만 저만 상부를 메고	
가네 가네 나는 가네	그대두고 나는 가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 일세
만장 같은 집을 두고	북망산천 찾아 가네
친구하나 삼았더니	술만 먹고 잠만 자네
나비 나비 호랑나비	날과 같이 청산 가세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 마라

6) 계북면의 상여소리

장례 중에서 시신을 운반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경우 대부분 상여로 하게 된다. 이때 상두꾼들이 부르는 노래를 계북면에서는 생이소리, 또는 행이소리라고도 하는데 선창자를 앞소리꾼이라고 하고 후렴을 하는 상두꾼들을 뒷소리꾼이라 한다. 상여소리는 앞소리꾼의 경험, 직업, 연령, 지식의 정도와 그날의 일기, 상가의 상황 고인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때그때 적절히 즉흥적으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다.

앞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뒷 : 어--하--홍어--하--홍
앞 : 황천길로 나는 간다.	뒷 : 어--하--홍어--하--홍
앞 : 북망산이 멀다더니	뒷 : 어--하--홍어--하--홍
앞 : 대문 앞이 북망일세	뒷 : 어--하--홍어--하--홍

계북면 상여소리의 장단구조는 앞소리와 뒷소리가 모두 4.4 조 느린 12박으로 되어있다. 계북면 원촌리 파곡 마을에 살다가 지금은 계북면 양악리 양악마을에 사는 장정웅씨(67 세, 상여소리 제보자, 계북면 파곡마을에서 태어나 자라고 지금은 계북면 양악마을에 산다)가 메기는 앞소리의 일부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상여에 관을 동여매고 몸체가 썩워지면 앞소리꾼⁴⁸⁾이 다음과 같이 소리를 메긴다.

앞 : 어--하--홍어--하--웅	뒤 : 어--하--홍어--하--웅
--------------------	--------------------

48) 이 지역에서는 그냥 '소리메기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앞 : 상주군들 다 왔는가	뒤 : 어--하--흥어--하--웅
앞 : 생이채를 잡아주오	뒤 : 어--하--흥어--하--웅
앞 : 생이줄을 어깨에 걸고	뒤 : 어--하--흥어--하--웅
앞 : 조심조심 일어서오	뒤 : 어--하--흥어--하--웅
앞 : 어--하--흥어--하--웅	뒤 : 어--하--흥어--하--웅

(뒷소리는 같다.)

이렇게 해서 상여를 어깨에 다 메고 나면 서서히 집 밖으로 나서기 시작한다. 동일한 뒷소리는 생략하고 앞소리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원통하고 적적하오	세상천리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요보시오 사주님요
이내 말 좀 들으보소	아버님 전 뼈를 받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칠성님 전 명을 받고
저승님 전 복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명과 복을 못 이르고	저 세상을 가는구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어--하--흥어--하--웅	어--하--흥어--하--웅
우리부모 나를 나서	음식이라도 맛을 보고
쓰디쓴 건 부모님 잡수고	다안 것은 나를 주어
사계절에 여름에는	모기 빈대 뜯을세라
뎠는데 덮어주고	천사같이 길렀는데
어제 아래 성탄 몸이	오늘날에 병이 들어
부르나니 어머니요	찾는 것이 냉수로다
무녀 불러 굿을 한들	굿덕이나 있을손가
약방에다 약을 쓴들	약덕이나 있을손가
원통하고 절통하네	어--하--흥어--하--웅

이렇게 망인의 집을 나와 동네 골목을 벗어나 마을 동구에 이르면 거리제를 지내기 위해 상을 차려놓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앞소리꾼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메겨 거리제 지내는 곳에 다 왔음을 알린다.

저기 앞을 바라보니
나 오기만 기다리네

거리상을 채려놓고

거리제를 마치고나면 다시 다음과 같이 처음 했던 소리를 메기며 갈 길을 재촉한다.

어--하--흥어--하--웅
상주꾼들 다 왔는가 생이채를 잡아주오
상여 줄을 어깨에 걸고 조심조심 일어서오
어--하--흥어--하--웅

이렇게 해서 상여를 다 메고 나면 다시 장지를 향해 간다.

가기 싫네 가기 싫네	
행복했던 우리집을	나 가기가 너무 싫네
개똥이 엄마 울지 마오	칠순이 엄마 울지 마소
나도 설워 너무 설워	앞길이 보이지 않네
잘 있어요 잘있어요	동네분들 잘 있어요
일직사자 앞을 끌고	월직사자 등을 미네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네
어이 할꼬 어이 할꼬	이 노릇을 어이 할꼬
친한 친구 많다한들	어느 누가 대신 가리
어--하--흥어--하--웅	어--하--흥어--하--웅
여보시요 상주꾼들	잘 모시소 잘 모시소
이내 몸이 살았던 시절	친한 친구 많았는데
앞집에 칠순이 엄마	뒷집에 개똥이 엄마
내가 없다고 서운해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주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 진다고 서러워말아
인간은 한 번 나서	한 번 가는 게 원칙이고
내에 꽃도 한번 피여	한 번 지는 게 마땅하지
어--하--흥어--하--웅	어--하--흥어--하--웅
여보시요 상두꾼들	먼 데 사람 듣기 좋고

절(결)에 사람 보기 좋게 잘 모시소 잘 모시소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저승길로 나는 가네

가다가 개울이나 언덕이 있을 때는 상여를 멈추고 버틴다. 이때마다 상제들이 돈을 건다. 돈은 상여 앞 차일 기둥에 매어놓은 새끼줄에 건다.

북망산천 가는 길에	노자돈이나 주었으면
우리아들 어데 갔나	노자돈이나 걸어주게
우리 딸들 어데 갔나	노자돈이나 걸어주지
저승길 가는 길이	이렇게 멀다 말가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북망산이 멀어지네
어--하--흥어--하--웅	어--하--흥어--하--웅
나 줄라고 술해논 술	상주군들 많이 주오
나 줄라고 떡해논 떡	상주군들 많이 주오
오늘날 살아온 것	잘한 것은 없어지고
못한 것만 생각나네	

거리가 너무 멀거나 하관시간이 가까워지면 다음과 같은 사설로 상두꾼들을 재촉하기도 한다.

나 가기는 싫지마는	어서 가세 어서들 가세
명정공포 운아삼은	하관시간이 다되어 가네

그러다가 장지가 눈에 보이면 다음과 같은 사설을 메긴다.

한이 맺힌 것을 생각하고	그럭저럭 오다보니
북망산천이 저 앞에 있네	고맙구려 고맙구려
상두꾼들 고맙구려	내자리가 여기에 있네

계북면 마을별로 앞소리를 메기는 사람은 이미 작고했거나 두서너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인들이다. 파곡마을에 박래순씨, 정석봉씨, 장경태씨, 어전마을에 김재천씨, 매계마을에 유기동씨, 오판권씨, 이정수

씨, 월현마을에 성낙준씨, 박임순씨, 농소 연동마을에 박기만씨, 양악마을에 오성택씨, 오두인씨, 김재만씨, 장정웅씨, 문성마을에 정운영씨, 신기마을에 이강희씨, 외림마을에 박영철씨, 박윤석씨, 공귀성씨, 원촌마을에 홍종선씨, 박규성씨 등이 잘했다.

다음은 1982년에 조사된 계북면 매계리 박봉대(남, 68)님의 소리이다. 동일한 사설로 반복되는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이란 뒷소리를 제외한 앞소리는 다음과 같다.

어하흥 어하흥	어허녕차 너하흥
가네 가네 나는 가네	북망산천 나는 가네
북망산천 머다는데	이제 가면 언제오나
못 갈테라 못 갈테라	명명구천 가지마오
저승길은 외길이오	오는 길이 없다는데
토끼같은 자식 두고	여우같은 계집 두고
이제 가면 아주 가나	영영이별 그 웬말고
가기 싫어 가는 길을	쏟살같이 돌아오소

〈계북면 매계리 박봉대(남, 68). 1982 조사〉

49) 장수문화원, 《장수문화 제6호》, 신아출판사, 2008.

3. 유희요(遊戱謠)⁴⁹⁾

놀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는 놀이를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른다. 놀이가 행해지는 경우에 따라 세시유희요(歲時遊戱謠)·일상유희요(日常遊戱謠)로 나눌 수 있는데, 세시유희요는 집단적인 반면 일상유희요는 소규모로 이루어진다.

가. 세시유희요(歲時遊戱謠)

그네 뛰는 노래
수친동 세모진 낭기
호세 단자로 그네를 매아
임이 뛰면 내가 밀고
내가 뛰면 임이 밀어
임아 임아 줄 밀지 마라
줄 떨어지면 정 떨어진다

〈계남면 가곡리 김언년(여, 89). 1992 조사〉

나. 일상유희요(日常遊藝謠)

1) 장타령(각설이 타령)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니 죽고 또 왔네
 일곱 천사 한태조 이군불사 은배기
 삼구갱이 조자룡 삼열충동 초패왕
 오과천장의 관운장 육구통의 진시황
 일정칠금의 제갈량 팔십서래는 강태공
 구세동기 장구령 십년지절이 한소무
 박세안량 곽구냥 천리걸시기 장자방
 만고천왕 공부자 억조억대에 백요세
 잘한다~~·

〈장수읍 장수리 북동 박성근, 1996 조사〉

2) 장타령(각설이 타령)

“아, 마님. 이 댁에 동냥 왔습니다.
 안 인심이 좋으려는 배깁 출입이 좋습니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일자나 한잔 들고 봐	일월이 송송 해송송
밤 중 새별이 완연하다	품바품바 잘현다
두 이 자 들고 봐	이 독에 저 독에 북을치니
행두기생이 춤을 춘다.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석 삼 자 들고 봐	서관에 신령 도신령
신부 신령이 날아든다	품바품바 잘이현다
“아, 마님! 쉽게 갑시다”	
넉 사 자 들고 봐	사시나 사철 바쁜 질
외나무다리를 만나서	점심참이 늦어간다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다섯 오자를 들구 봐
적토마를 집어타고

오관이 천장 관운장
제갈선생을 찾아간다.

여섯 육자를 들고 봐
팔성을 서리고서 나온다

육칸대한 성길 이
품바 품바 잘이 현다

일곱 칠자를 들고 봐
소나기 한 줄금 허이면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칠년 대한 가물음에
어느 백성이 춤을 출까

야똥 팔자를 들고 봐
장단치기가 늦어간다

이 팔이 저 팔이 곰배팔
허허 품바 잘이 허네

아홉 구 자를 들고 봐
법당 안에서 염불한다
“쉽게 갑시다”

귀 높고 늙은 중
헐씨구씨구 들어간다

남았네 남았어
장안에서는 어른이고
종모소가 어른이고
쇠머리 수캐가 어른이고
쇠머리 장답이 어른이라

장 자 한 자가 남았네
암소 수소 모인 디
암캐 수캐는 모인 디
암탐 장담으 모인 디
품바 품바 잘이 현다

요놈의 자식이 요래도
양지나 음지나 다니며
대국의 천지를 갔더라면
진사급제를 할 것을
돈벼락을 맞는다

헌 두테기 감발허고
이만 툅툅 까노라
허궁예를 갔더라면
허궁에 빠져서
“아, 쉽게 갑시다”

〈산서면 동화리, 윤병길, 1990 조사〉

3) 다리 빼기 놀이

한 다리 천 다리 귀리다리

어롱 더롱 성장 막대기 꺾껴

우등 지등 땡!

〈장수읍 장수리 이후남, 1990 조사〉

4) 자장가

(1) 달강 달강 달강 달강

서울 가서 밤 한 퇴박 얻어다가

머리 감은 생쥐가 들랑 달랑 다 까먹고

술에다 물 한 동우 붓고 푹푹 삶아서

껍데기는 애비주고 비늘은 애미 주고

달강 달강 달강 달강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살강 밑에 묻었더니

버려지 까먹은 것 한 톨 남아서

조리 대고 함박 대고 건져내어

알랭이는 너랑 나랑 갈라 먹자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장수읍 장수리 김일남, 83세, 1990 조사〉

(2) 옥자동아 금자동아

댕기 끝에 얹은 조롱

담으락 구렁에 쪽제빈가

은을 준들 너를 사라

칠보천지 보배동아

어른 구렁에 수달핀가

돈을 준들 너를 사라

칠보천지 보배동아

〈장수읍 두산리 1982 조사〉

(3) 자장자장 자장자장

뒷집에 흰강아지

앞집이라 검은개는

우리 집에 예쁜아기

멍개야 짓지마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마리 밑에 잘도잔다

뜰팡에서 잘도잔다

방안에서 잠을잔다

우리애기 잠을깼다

〈변암면지, 1999〉

제3절 설화(說話)

설화(說話)를 글자의 뜻에 따라 쉽게 말하면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무 이야기나 다 설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설화는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의(共同心意)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문자 기술 이전의 구전문학(口傳文學)으로,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다. 설화는 오래 전에 민족적 집단의 공동생활 속에서 공동심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기에 그 속에는 민족의 역사·신앙·관습·세계관 및 꿈과 낭만·웃음과 재치, 또는 생활을 통해서 얻은 교육이나 역경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 등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이기에 일상의 신변잡담이나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는 설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화 중에는 사실을 가장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 사실적인 이야기이다. 설화는 사실 여부보다는 문학적인 흥미와 교훈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⁵⁰⁾

신화(神話)와 민담(民譚), 그리고 전설(傳說)을 합쳐 설화(說話)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장수지역에 전해지는 민담과 전설을 읍면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민담(民譚)

가. 갱피 훑는 여인과 상사(相思)버섯⁵¹⁾

옛날, 어느 시골에 찢어지도록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선비인 남편은 가난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방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고 있었다. 부인이 보리밭 콩밭 등 남의 집 밭을 매주고 몇 푼 안 되는 품삯을 받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가을이면 들에 나가 갱피(먹는 피)를 훑어다가 끼니를 꾸일 정도로 지리도 가난하게 살았다.

산다는 것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정도이고 죽는 것만큼이나 고달픈 생활이었다. 그렇게도 어렵게 살아가건만 남편은 비 들고 마당 한번 쓰는 일 없이 책만 읽고 있었다. 집은 낡을 대로 낡아서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검붉은 썩은 새 물이 천정 여기저기서 흘러내리고 밤에 방안에 누워있으면 하늘의 별이 보일 정도이고 마당에는 풀을 매주지 않아 숲속처럼 우거졌다. 동네 개들이 모여들어 똥을 싸서 개똥밭이 될 정도로 더러워도 남편은 무엇 하나 치울 생각 하지 않고 글만 읽고 있었다. 매일 같이 눈만 비비면 밭이나 매고 갱

50) 최운식, 《한국설화연구》, 집문당, 1991.

51) 장수군, 《장수군지》, 남원 중앙인쇄사, 1997.

피나 훑어서 살림을 꾸리는 아내가 남편의 이런 꼬락서니를 볼 때 속이 상하고 울화가 치밀어서 집에만 들어오면 발을 동동 구르며 지껄였지만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글만 읽었다.

별 수 없이 아내는 모든 것을 팔자 속으로 돌릴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갱피를 마당에 널어놓고 들로 일하러 갔다.

한참 갱피를 훑고 있는데 그 종던 날씨가 난데없이 하늘에 먹구름이 끼며 뇌성벽력을 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소나기를 흠뻑 맞은 아내는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해 가지고 부라부라 집으로 달려와 보니 마당에 널어놓았던 갱피 덕석은 비에 흠뻑 젖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방 안에는 썩은 새물이 천정 여기저기서 새는데 남편은 여전히 글만 읽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아내는 기가 막혀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

얼마간 닳을 잃고 있다가 분이 복받쳐 대성통곡을 하며 신세타령을 하다가 저런 남편을 믿고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재가 할 것을 결심하고 집을 뛰쳐나와 버렸다.

한편, 아내를 잃은 선비는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이며 정 배가 고프면 남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글공부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포쯤 있으면 조정에서 과거를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비는 과거에 응할 요량으로 쫄신감발하고 과나리 보따리를 등에 메고 과객(過客) 노릇을 하며 여러 날 만에 한양에 당도하여 과거에 응시했다. 초조하게 발표를 기다리다 보니 뜻밖에도 장원급제라는 기쁜 소식이었다.

순간, 만감(萬感)이 교차(交叉)되었다. 그 중에서도 박복하기 그지없는 후가 살이 간 아내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고맙기도 하고 밉기도 한 생각이 엇갈렸다. 갱피를 훑어서 밥을 지어 주어 그 덕분에 공부를 해서 오늘과 같은 영광이 있게 한 것을 생각하면 고맙기 한량이 없으나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 버린 것을 생각하면 밉기도 했다.

삼현육각(三絃六角)을 잡히고 위풍당당하게 금의환향 하는 행차가 충청도를 지나 고향 가까운 시골의 논길을 지나갈 즈음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갱피를 열심히 훑고 있던 여인은 요란하게 지나가는 금의환향하는 행차에 닳을 잃고 우두커니 바라보면서 한탄했다.

어떤 양반은 얼마나 팔자가 좋고 복이 많으면 쌍기덕기(쌍가마)타고 가며 피리젓대 앞세우는고? 하며 닳을 놓고 행차만 지켜보았다. 이 때, 골살이를

제수 받고 금의환향하는 원님도 가마 속에서 갱피 훑는 여인을 보고 옛날 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가마를 멈추게 하고 내려서 자세히 살펴보니 전에 같이 살던 아내가 아닌가! 그 순간 원님은 인생의 무상함과 알곳은 인연을 생각했다.

갱피 훑기를 면하려고 자기를 버리고 후가 간 사람이 거기 가서도 갱피를 훑어야하는 그 여자의 기구한 팔자에 대해서 묘한 감정마저 북받쳤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팔자 좋고 복 많은 양반이 쌍가마 타고 어데로 가는 걸까」하고 부러워하며 기구한 자기 신세만 한탄했는데 가마에서 나오는 양반을 자세히 보니 이게 웬일이고, 글만 읽던 전의 남편이 아닌가. 그 순간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몇 시각이나 되었던고, 정신을 차려서 보니 원님의 행차는 성황당을 지나 고갯마루에 다다르고 있었다. 아무리 괴롭고 복잡해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다지 가슴 아픈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하필이면 이 때에 전 남편의 금의환향하는 행차가 가더란 말이나 하며 실신한 사람처럼 지껄여 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엇질러진 물이 됐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원님 행차가 고개를 넘고 보이지 않자 여자는 미친 듯이 행차 뒤를 쫓아가며 「원님 원님, 우리 원님 이 내 몸쓸 년을 데리고 가서 말물종(말에 먹이를 주는 종)이나 시켜주오, 쇠물종(소에 먹이를 주는 종)이나 시켜주오」하며 정신없이 뒤를 따라 걸음을 허둥지둥 재촉했지만 원님 행차가 멀리 사라지자 지붕에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그 쪽을 바라보다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한다. 그 뒤부터 여름 장마철에는 지붕에 조그마한 버섯이 피는데 그 버섯을 상사(相思)버섯이라고 하며 이 이야기는 옛날 우리 고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한다.

나. 두꺼비의 은혜 값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늦게까지 자식을 두지 못했다 아들 하나 얻으려고 깊은 산에 들어가 백일기도를 드렸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날 밤 꿈에 노인이 나타나더니 너희들의 정성이 지극하여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께서 감동하사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 하며 천도(天桃) 하나를 주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로 부인에게 태기가 있어 몇 달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딱두꺼비 같은

사내아이를 바랐건만 곱고 예쁜 계집애였다. 늙어 말년에 천신만고로 아들 하나 얻으려 한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니 늙은이들의 꿈은 깨지고 실망은 자못 컸다.

그러나 이것도 팔자이거니 생각하고 딸을 알뜰히 잘 길렀다. 세 식구는 가난하지만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 세월이 흘러 딸이 열 살이 되던 해 봄에 늙은 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며 밥도 잘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더니 며칠 뒤에는 아주 몸져누워 버렸다. 가난해서 약방에는 가지 못하고 집에서 조약으로 다스렸으나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날만 갔다. 딸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니가 병석에 있으니 끼니를 챙겨서 아버지에게 드려야 하고 병석에 있는 어머니 간호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어찌나 영리하고 효성이 지극한지 동네 어른들의 칭송이 자자했으며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큰 아이들을 훨씬 앞질렀다.

하루는 아버지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두꺼비 한 마리가 펄쩍펄쩍 뛰어서 부엌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밥상을 챙겨서 아버지께 드리고 와서 보니 한쪽 구석에 두꺼비는 가만히 있었다. 마음씨 고운 딸아이는 두꺼비가 배가 고파서 부엌으로 들어온 줄 알고 자기 밥도 조금 밖에 안 되지만 한 수저를 푹 퍼서 두꺼비에게 주었다. 두꺼비는 그 밥을 다 먹고 뒤뜰로 사라졌다. 그 뒤부터 끼니때가 되면 두꺼비는 부엌으로 찾아 왔고 딸아이는 작은 밥이지만 자기 밥을 나누어 주었다. 완전히 한 식구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그럭저럭 일 년 가까이 되었다. 두꺼비도 큰 바가지 얹어 놓은 것만큼이나 컸다. 한편 이 고을에는 가뭄이 들어 곡식이 다 타버리고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말라 죽는 등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겹쳤다. 먹을 것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사람이 많았다. 고을 원님도 왜 자기 고을만 흉년이 드는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으며 걱정이 태산 같았다.

봄이 되면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을 했다. 딸아이의 집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매일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나물을 캐서 연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뒷산에서 나물을 캐오다 오래된 정각(亭閣)옆을 지나려 할 때 하얀 수염을 느린 노인이 나타나더니 딸아이에겐 하는 말이 「너의 상(相)을 보니 너의 어머니가 아파서 여러 해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면 저 정자에 가서 우리 어머니 병을 낫게 해 달라고 빌면 꿈에 약을 현몽해 줄 것이다」라고 일러 주는 것이었다. 딸아이는 어린 마음에도 노인

이 어떻게 우리 어머니 아픈 것을 알고 있을까? 필시 노인은 도사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는 이웃집에 갔다 온다고 말하고 정자로 갔다.

어린 딸아이는 무서웠지만 어머니 병을 낫게 하는 약을 구하러 간다고 생각하니 무서움이 없어졌다. 정각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크게 먹고 눈을 감고 어머니 병을 낫게 하는 약을 현몽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천정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순간 무서움이 앞섰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들어 보니 「아가야, 나는 낮에 만난 노인인데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란다. 그 순간 겁에 질려 고함소리도 내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소리는 계속된다. ‘배가 고파서 심술을 부렸더니 이 고을에 흉년이 들고 변고가 생긴다. 그리고 너를 잡아먹어야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린 딸아이는 이때는 이미 기절하고 말았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쿵’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발이나 되어 보이는 벌건 지네가 땅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고 그 옆에는 딸아이가 한 식구 같이 밥을 나누어 먹었던 두꺼비가 죽어 있었다. 두꺼비는 딸을 잡아먹으려는 지네에게 독을 쏘아서 죽이고 두꺼비도 지네의 독을 먹고 죽었으니 밥 먹여 키웠던 은공을 갚은 것이다.

지네가 죽은 뒤부터는 가뭄도 상재(霜災)도 없어지고 풍년이 들었다. 이 소문이 고을 원님에게까지 들어가고 원님은 임금님께 품계하여 출천대효의 큰 상을 받게 하고 고을에 해마다 일어나는 재앙을 없게 한 딸아이에게 금은 보화를 많이 상으로 내려서 그 돈으로 약을 써서 어머니의 병도 낫게 되고 데릴사위를 해서 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이 고을 계북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전한다.

다. 돌쇠와 마당쇠 형제

천천면 박실이란 마을에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와 너무도 흡사한 돌쇠와 마당쇠 이야기가 사랑방 할아버지들의 입을 통하여 면면히 전해 오고 있다.

옛날 박실마을에는 돌쇠와 마당쇠 형제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사납고 심술이 많았으며 성질이 과파하고 욕심꾸러기였다. 하루는 만삭이 된 이웃집 아주머니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돌쇠는 몰래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살금살금 아주머니 등 뒤로 가서 적삼 속에다

지렁이를 넣고 도망갔다. 아주머니는 갑자기 등이 차서 적삼을 흔드니 지렁이가 떨어졌다. 아주머니는 너무도 징그러워 찢절매다 물속에 자빠졌다.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본 돌쇠는 좋다고 길길 웃어댔다. 빨래하던 아주머니는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낙태를 하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 동네 어른들은 돌쇠를 데려다 볼기를 쳤지만 돌쇠의 심술은 더해 갔다.

한 부모의 핏줄을 타고 났지만 아우 마당쇠는 형 돌쇠 하고는 판판이었다. 어려서부터 착하기 이를 데 없었다. 형이 잘못을 저지르면 마당쇠가 찾아가서 사죄하고 동네 어른들의 심부름을 맡아서 다 해주고 형에게 얻어맞으면서도 나쁜 짓 못하게 만류하는 등 착한 일만 하는 마음씨 고운 아이였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돌쇠와 마당쇠 형제도 장성하게 되어 근방의 처녀들과 혼인한 후에 박실 마을에 함께 살았다. 형 돌쇠는 욕심이 많아서 부자가 됐으나 동생 마당쇠는 자기보다 남을 돕는 착한 마음씨라 가난하기만 했다.

집도 찌그러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살았다. 거기에다 아이들은 주렁주렁 아홉이나 되었다 풍년이 들면 부부가 남의 품팔이로 연명하고 흉년이 들면 품 팔데 없어 썩, 물구, 송구 등 초근목피로 배고픔을 달랬다.

어느 해는 몹시도 가물어 곡식은 물론 풀과 나무까지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연명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당쇠 내외는 견디다 못해 형의 집을 찾아가서 개떡이라도 해 먹게 밀기울이나 보리겨를 조금 주면 가을에 일을 해주겠다고 애원했다. 그러나 형 돌쇠의 말은 냉혹했다. “너에게 보리겨를 주고 나면 우리 집 돼지가 굶으니 그런 말 하려거든 우리 집에 일썬도 하지 마라. 두 번 다시 오면 천륜을 끊겠다.”하며 쫓아냈다.

마당쇠는 별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웃마을 김초시 택으로 옮겼다. 김초시택은 후덕해서 흉년이 들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등 기민에게 구휼하는 적선가로 불리고 있었다. 마당쇠의 가족도 김초시네가 준 양식으로 부황을 면했다.

봄이 되면 거르지 않고 마당쇠네 오막살이의 처마 밑에 강남 갔던 제비가 쌍쌍이 날아와서 둥지를 틀고 살았는데 그 해에도 새끼 세 마리를 낳아 며칠 있으면 날 정도가 됐다. 하루는 마당쇠가 들에서 일을 하고 점심 먹으러 집에 오니까 제비 암수 두 마리가 처마 밑을 이리 날고 저리 날면서 요란하게 울어댔다. 무슨 일인가 하고 처마 밑 제비 둥지를 쳐다보니 누런 구렁이가

제비 둥지에 들어가서 제비 새끼를 잡아먹고 있었다. 마당쇠는 빨래 장대로 구렁이를 걷어내어 멀리 버리고 마당을 보니 제비새끼 한 마리가 파닥거리고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마당쇠는 새끼를 집어서 얇은 형겅으로 상처를 동이고 실로 감아서 둥지에 넣어 주었다. 며칠 이 지난 뒤 새끼 제비는 상처가 아물고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 구월구일(九月九日)이 되니 강남으로 날아갔다.

그 해도 저물고 그 이듬해 봄이 됐다. 마당쇠가 일을 하고 집에 오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빨래 줄에 앉아 마당쇠 부부를 반기는 듯 지저귀고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난 뒤 마당쇠 부인이 울밑에다 유두콩을 심으려 그 곳을 정리하다 보니 난데없이 박씨가 나서 자라고 있었다. 마당쇠도 그 누구도 박씨를 심은 사람은 없었다. 마당쇠 부부는 신기하게 여기고 열심히 박을 가꾸었다. 박은 잘 자라서 그 년쿨이 지붕을 꼭 덮으면서 많은 박이 열렸다. 가을이 되어 수 백 덩이의 박을 따서 타랐다. 박 속은 좋은 식량이 됐다. 여느 박속과 달라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다. 박 속을 말려서 겨울양식으로까지 삼았다.

그 많은 바가지가 시골에서는 쓸 곳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산다는 한양으로 바가지를 달구지에다 싣고 마당쇠는 집을 떠났다. 며칠이 걸려 한양에 당도하니 한양사람들이 값은 더 주고도 불티나듯 사갔다. 다른 박보다 크고 야물기 때문이었다. 마당쇠는 바가지로 인해 많은 돈을 벌어서 귀향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 한 일이었다.

밤에 자면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은밀히 말하는 것이었다 “한양서 다른 바가지보다 비싸도 다 우리 박만 찾는 것을 보면 이 박은 예사 박이 아니라 필시 다리 나온 제비가 강남서 오면서 보은(報恩)하려고 입에다 물고 와서 울밑에 놓아둔 것 같소”하며 희한해 했다.

마당쇠 가정은 당장에 식량 걱정은 않게 됐다. 그 이듬해에도 더 많은 박을 가지고 한양에 갔는데 한양 사람들은 이 박에다 음식을 담으면 맛도 좋고 재수도 있고 값도 싸다면서 좋아하는 바람에 금시 다 팔렸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내다보니 마당쇠네는 큰 부자가 되었으며 이 소문이 인근에 퍼졌다. 이 사실을 한동네 사는 형 돌쇠가 모를 리 없었다. 돌쇠는 언지시 마당쇠네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다. 착한 마당쇠는 과거의 쓰라림도 잊고 형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돌쇠는 부랴부랴 집으로 가서 제비 집에 있는 제비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다리를 비튼 뒤 실로 아

무렇게나 감아서 다시 등지에 넣었다. 그 제비는 상처가 아물고 가을이 되어 강남으로 날아갔으며 그 이듬해 봄에 다시 날아왔다. 어느 날 돌쇠가 울 밑을 보니 역시 심지도 않은 박이 났다. 돌쇠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으며 그 박은 무럭무럭 자라서 많은 박이 열렸다. 가을이 되어 박을 따서 박속은 온 식구들이 삶아서 먹었다. 그런데 박속을 먹은 뒤부터 돌쇠는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또한 머슴을 시켜 박을 시장에 가지고 갔으나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돌쇠의 배앓이는 백약이 무효였다. 그 좋은 재산 다 팔아서 약을 썼으나 효험은 없고 돌쇠네 집은 거지가 되다시피 되었다.

하루는 스님이 시주하러 돌쇠네 집에 왔다 돌쇠가 다 죽어가는 얼굴로 마루에 앉았는데 스님이 물었다. 돌쇠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스님은 돌쇠의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 세상만사가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당신은 평생을 악업을 쌓아서 악의 씨가 몸에 박혀 병이 된 것이니 부처님 백일 불공하고 작은 일이라도 선한 짓을 하면 악의 씨가 녹으면서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중은 사라졌다.

병에 지친 돌쇠는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덕대산 계곡에 있는 신광사에 가서 정성을 모아 백일불공을 드리니 마음이 가벼우면서 병이 점차 나았다. 그리고 전의 돌쇠가 아닌 새 사람이 돼서 동기간에도 우애하고 이웃끼리 화목하는 착한 사람이 됐다.

한편 마당쇠는 형 돌쇠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며 한 마을에서 잘 살았는데 박으로 인해서 형제가 잘 살게 되고 박이 부를 이뤄 주었다 해서 이 마을을 박실(朴谷)이라 이름 붙였다고 전해 온다.

라. 물새 메뚜기 개미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⁵²⁾

옛적으 미띠기 허고 물새허고 개미허고 쫓이 만나서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똥께 우리 친구가 똥응께 맛있는 음식을 장만히서 먹자고 군이히각 고 씨리 갱벤으로 나갔다. 미띠기가 괴기를 잡겼다고 냇갈으 돌팍 우그를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고 허넌디 잉어 한 마리가 이 미띠기를 보고 덜컥 채각고 꿀꺽 생켰다. 미띠기는 잉어 뱃속에 들어강게 강감하고 답답히서 전딜 수가 없어서 뒷다리로 탁탁 찼다. 그렇게 잉어는 뱃속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형께 아파서 전딜 수가 없어서 물 우그로 떠올라갔다. 물새는 잉어가 물 우그로 떠오르는 것을 보고 툭 물어서 갱벤에다 획 내던졌다. 개미가 잉어를 주워다가 음식을 장만하겠다고 배를 땀더니 잉어 뱃속에서 미

52) 임석재, 《한국구전설화-전라북도편》, 서울 평민사, 1990.

떠기가 훌쩍 뛰어나왔다. 잉어를 음식을 장만히각고 씻어서 다 먹고 나서 개미는 허리를 두 손으로 탁 꺾서 어어 잘 먹었다 형께 그만 개미 허리는 잘숙히졌다. 물새는 이어 잘 먹었다 험서 입을 두 손으로 쪽 씻잉게 주튀이가 지다랗게 됐다. 미떠기는 이어 잘 먹었다 험서 이마뺨을 탁 침서 올리닝게 이마뺨이 활닥 뻗겨졌다고 합니다. <제보 배운선, 남, 58세. 장수읍 선창리 음선마을>

마. 지렁이와 가재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옛적으로 꺼생이는 눈이 있어서 시상을 원히 볼 수 있었다. 한번은 봉께 가재는 눈이 없는데 모가지에다 금띠를 두르고 있어서 이 금띠가 부러워서 가재보고 지 눈허고 니 금띠허고 바꾸자고 했다. 그랬더니 가재는 얼롱 대답했다. 그리서 꺼생이는 지 눈을 가재헌티 주고 가재 금띠를 받아서 목에다 둘렀다. 꺼생이는 금띠를 목에다 걸어 봤는데 좋은지는 모르겠고 눈이 없어서 암것도 보지 안히서 답답허기만 했다. 그리고 꺼생이는 가재헌티 가서 금띠를 도로 가져가고 내 눈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가재는 싫다고 뒷걸음쳐서 달아났다. 그리고 가재는 뒷걸음질치게 됐다고 한다.

꺼생이는 눈허고 금띠허고 바꾼 것이 원통히서 비가 올 때에는 땅속에서 애포르르 하고 운다고 한다. 지 신세가 애통시럽다고 그렇게 애포르르 하고 운다는 거여. <제보 배운선, 남, 58세. 장수읍 선창리 음선마을>

바. 나무꾼과 선녀(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옛적으 어떤 총각이 산에 가서 나무를 허고 있니랑께 노루 한 마리가 숨이 차각고 뛰어오더니 총각이 히는 나뭇단 속으로 쑥 들어가서 몸을 감추었다. 조금 있더니 포수가 뛰어오더니 총각보고 노루 가는 것 못봤냐고 물어서 총각은 저어리 뛰어가더라고 했다. 포수는 총각이 갈쳐준 디로 갔다. 포수가 저어리 가서 안 보이게 될 만형께, 노루가 나뭇단 속에서 나와서 총각보고 저를 살려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허고, 내가 그 은공 갚기 위히서 장개가게 히 줄 텅께 나를 따러오라고 했다,

그리고 따라강께 노루는 산등성이 하나 넘어각고 저어쪽에 보이는 둥병을 갈침서 “저 둥병에는 하늘서 선녀가 셋이 내려와서 맥을 감으니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 중 제일 막내 선녀 옷을 훔쳐 두라. 옷이 없으면 하늘로 못 올라강께 그때 나가서 같이 살자고 히서 각시를 삼으라”고 일러줌서 애기 셋

날 때까지는 그 옷을 절대로 내주지 말라고 하고서 가 버렸다. 총각은 노루가 갈쳐 준 뚝뚝을 지켜보고 있니랑게 하늘서 선녀가 셋이 내려와서 옷을 벗어놓고 뚝뚝에 들어가서 맥을 감고 있었다. 총각은 가만가만 가서 제일 어린 선녀의 옷을 훔쳐서 숨어 있었는데 선녀들은 맥을 다 감고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디 제일 적은 선녀는 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울고 있었다. 총각은 선녀한테 가서 하늘에 못 올라강게 나랑 여그서 살자고 했다. 선녀는 헐수없이 총각하고 살기로 했다.

총각은 선녀를 각시로 삼어각고 살면서 애기를 둘이나 낳다. 애기를 둘이나 낳잉게 이제는 일없겠지 허고 선녀한테 선녀 옷을 내주었다. 그랬더니 선녀는 애기를 하니씩 양 저드랭이다 찌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총각은 각시랑 애기랑 잃어 버려서 실퍼서 울고 있잉게 그 전으 노루가 오더니, 내둥 애기 싯 날 때꺼지는 옷을 내주지 말랬넌디 둘 낳고 주어서 애기를 데릿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험서, 인제는 선녀들이 하늘서 내려와서 맥감지 않고 두릅박을 내려서 뚝뚝의 물을 질러올려서 맥을 감응께 선녀 두릅박이 내려오면 두릅박 물을 쏟아버리고 두릅박 안에 앉어 있으면 하늘로 올라가서 선녀를 만날 텅게 그리 히 보라고 일러 주었다.

총각은 노루가 일러 준 말을 듣고 그 뚝뚝에 가서 지켜보고 있었더니 하늘서 두릅박이 내려와서 물을 질어올렸다. 세 번째 내려온 두릅박 물을 쏟고 그 두릅박 안에 들어가 앉았더니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라가게 됐다. 총각으 아그덜이 보더니만 아버지가 왔다고 소리치며 저그 어매한테 가서 아버지가 왔다고 형께 여그가 어디라고 너가부지가 와야 험서 나와서 보고, 저그 서방이 와 있잉게 반가히 맞아서 집으로 들어 앉혔다.

이렇게 히서 총각은 선녀와 애기들과 같이 지내는데 쟁인과 장모과 처형들은 지상이 사람이 어찌 하늘에 와서 살아야, 하늘서 살라면 그만한 재주가 있어야 허는데 어디 그런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히보아야 허겠다 허고, 쟁인 장모는 내일 아침에 와서 우리한테 인사를 올려보라고 했다. 선녀는 총각보고 아버지는 황계수탉이 돼각고 저 담모통이에 가 있고 어머니는 큰 구랭이가 돼각고 담장 우구가 누어 있일텅게 거그 가서 인사를 허고, 왜 이런디에 지십니까 허고 데릿고 방으로 가라고 일러 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총각은 쟁인 장모한테로 아침 인사허로 가는데 담모통이에 황계수탉이 꼬그덱 꼬그덱 허고 걸고 있어서 “아이고 장인, 어찌서 그런 모습을 허고 그런디 지십니까? 빨리 본 모습을 허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받으시요”허고, 담장

우그 걸쳐 있는 구렁이 보고 “아이고 장모님, 어찌자고 그런 추한 모양을 하고 지십니까? 어서 본 모습을 허시고 방으로 들어가서 인사 받으시지요? 했다. 그랬더니 장인 장모는 원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만 허면 하늘서 살만한 재주가 있다고 했다. 그런디 처형들은 장인 장모가 둔갑한 것을 얻어낸 재주가 있다고 그런 재주만 가지고는 하늘에 살 자격이 없다 하고 화살을 시 대 먼 데로 쏘아서 그것을 다 쫓아가지고 올 만한 재주가 있어야 하늘서 살 수 있는디 지상 사람이 그런 재주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고 아버지헌 티 말했다. 선녀 아버지도 딸들으 말이 그렇겠다고 이 총각보고 내가 화살을 시 대 쏘 테니 그 화살촉을 쫓아가지고 오라고 하고서 활을 쏘았다. 총각은 그 화살촉을 어디 가서 쫓아오겠어. 그래서 집이 와서 밥도 안 먹고 앓고 두려누어 있잉게 선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내줌서 이 강아지 가는 디로만 따라가면 화살촉이 있일 티니 그 화살촉을 가지고 오시오, 그런디 올 적에 가슴에 짊어 품고 오지, 꺼내서 보지 말라고 일렀다. 총각은 선녀가 준 강아지가 가는 디로 따라가서 장인이 쏜 화살촉을 시 개를 다 주워서 가슴에 품고 오는디 오다가 이 화살촉이 어떻게 생긴 것인가 하고 가슴에서 꺼내서 불라고 허넌디 난디없이 깎치 한 마리가 날라오더니 그 화살촉을 채가지고 날라갔다. 그렇게 까마구가 날라오더니 깎치헌티서 화살촉을 뺏아서 날라가넌디 술개미가 나타나서 까마구헌티서 활촉을 뺏어가고 공중 높이 떠서 어디론가 가 버렸다.

총각은 장인이 쏜 화살촉을 가져오지 못히서 그만 풀이 죽어가고 누어서 심애에 빠졌다. 선녀가 와서 이것이 없어져서 그러지야 험서 화살촉 시 개를 내주었다. 총각은 깜짝 놀래서 이것이 어떻게 당신 손에 와 있는가 물응게, 선녀는 당신인 화살촉을 쫓아가고 오면 하늘 나라서 살게 되는디 우리 성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못 살게 허니라고 큰 성이 깎치가 돼서 화살 을 당신헌티서 뺏어가고 도망치게 작은성이 까마구가 돼가고 성한티서 뺏어 가고 달어나길래 내가 술개미가 돼서 작은 성헌티서 화살촉을 뺏아서 그리 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각은 이 말을 듣고 마누래 선녀를 고맙게 여기고 그 화살촉을 가지고 쟁인한티다 바쳤다. 그랬더니 쟁인은 니 재주가 비상하구나 험서 하늘서 살만하다고 했다.

이렇게 히서 총각은 하늘서 살고 있는디 세월이 지내다 봉게 지상으 고향 생각이 나서 한번 지상에 내레가 보고 싶었다. 선녀보고 지상에가 보고 싶다고

형께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도 총각은 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히서 선녀보고 지상에 꼭 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선녀는 정 그렇다면 가 보라 해서 말 한 마리를 내줌서 이것을 타고 지상에 내려가되 이 말에서 절대로 내려서 땅을 밟지 말고 또 지상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일러 주었다.

총각은 그 말을 타고 순식간에 지상에 내려와서 그 전에 살든 데를 여그저그 돌아댁김서 봤다. 그때는 가을철이 돼서 집집마다 박을 해서 박속으로 국을 끓여서 먹고 있는디 한 집이 강게 박속국을 먹으라고 한사발 주었다. 총각은 그 박속국을 받아각고 먹을라고 하는디 박속국그럭을 그만 옆질렀더니 그 뜨거운 국물이 말의 등에가 쏟아지게 말이 놀래서 훌쩍 뛰었다. 그 바람에 총각은 땅에 떨어져 땅을 밟게 되게 말은 그만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총각은 하늘로 가지 못하게 돼서 하늘에다 대고 꼬끼요 박속으르르 하고 소리 질렀는디 그 순간 장닥이 됐다. 총각은 박속국 먹다가 하늘에 못 오르게 돼서 그것이가 한이 돼서 장닥이 돼서, 꼬끼요 박속으르르 박속국 땀이 하늘 못 올라간다고 한탄하는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제보 배운선, 남, 58세. 장수읍 선창리 음선마을>

2. 전설(傳說)

가. 장수읍

1) 관청암(官廳岩)과 구락(鳩落)⁵³⁾

장수읍 소재지에서 산서로 가는 도로를 따라 10km쯤 가다 대성리 조금 못 미쳐 도로변 산에 높이 약 3m, 폭 약 10m의 커다란 바위가 비스듬히 박혀 있다. 이 바위를 관청암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장수에서 수서(산서면)로 가는 길이 이 바위 위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관청암은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전 조선 성종조에 장수 현감을 지낸 국헌(菊軒) 호(號) 임옥산(林玉山)과는 깊은 연관이 있다. 지금도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앞 들판에 나라에서 내린 임옥산 효자여(林玉山 孝子閭)가 있는데, 그 행상과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금의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에서 태어나 일찍이 문무양과(文武兩科)에 등과하여 주요 관직을 두루 거쳐 병조참판까지 지냈고 부모에게는 하늘이 낸 효자였다.

장수 현감 당시 고향 오산에는 노령의 부친이 생존해 있었기에 부친이 계신 오산 집에서 장수를 내왕하며 낮에는 동헌(東軒) 현청(縣廳)에서 백성을 위한 선정에 힘쓰고 귀가해서는 부친에게 출필고 반필면 혼정이 신성(出必

53) “1)~6)” 장수군, 앞의 책, 1997.

告 反必面昏定而晨省)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하며 매일 조석으로 출퇴근하는 그에게는 반반한 관청암은 쉬어 가는 휴식처가 되었다 한다.

어느 날 정사가 늦어서 캄캄한 밤에 관청바위를 지날 때면 호랑이가 꿩이나 토끼 등 산짐승을 잡아서 관청바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임옥산 현감을 등에 태우고 순식간에 집 앞까지 정중히 모셨다 하며 부슬비 내리는 어두운 밤에 길이 잘 보이지 않아 터덕거리며 관청바위에 당도하면 도깨비 떼가 환하게 불을 밝혀 길을 인도해 주었다 한다. 뒤에 사람들은 임옥산의 지극한 효성에 하늘이 효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감탄했다 하며, 이 바위를 옥산바위라고 불렀다 하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현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관청암(官廳岩)으로 고쳐 불렀다고 한다.

또한 장수읍에서 산서쪽 약 4km 지점에 구락(九洛)이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에는 장수에서 산서를 가는 길이 구락마을 앞으로 뚫렸었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임옥산 현감의 노친께서 병을 얻어 자리를 눕게 됐다. 효성이 지극한 임현감은 백방으로 명의를 찾아 약을 썼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효성이 부족해서 부친의 병환에 차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명산대찰을 찾아서 몇날 며칠을 부친의 쾌유를 빌었지만 부친의 병환은 점점 더해 갔다. 임현감은 땅이 꺼져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스님이 시주하러 와서 노심초사하는 가족들을 보고 산비둘기를 구해다 달여 드리면 쾌차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

그러나 졸지에 산비둘기를 구할 길이 없어 새로운 근심이 생겼다. 그러다 어느 날 임현감은 정사를 마치고 부친의 병환이 걱정되어 서둘러서 귀가하는 도중 구락마을 앞에 다다르자 난데없이 웬 산비둘기 한 마리가 임현감의 도포 자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놀란 임현감은 순간 '이는 필시 하늘의 보살핌이라.' 크게 기뻐하고 걸음을 재촉해서 부친의 병환을 쾌유케 했다 한다.

그 뒤 비둘기가 떨어진 마을 이름을 구락(鳩落)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구락(九洛)마을로 부른다. 일제강점기시 우리 문화 말살정책의 하나로 구락(九洛)마을로 부르게 했다 한다. <제보 백일인(白日寅), 남, 77 세.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2) 탕건바위

옛날 가난한 선비 한 분이 대성리 흑평마을에 살았었다. 이 선비는 낮에는

들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불을 밝혀 글을 읽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분을 선비라 불렀다. 선비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가꾸어 거둔 곡식을 혼자 먹지 않고 더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직선을 했기 때문에 덕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데, 어느 해 봄부터 심한 가뭄이 계속되어 전답의 곡식은 물론 산야에 있는 초목까지 전부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선비에게 대책을 상의해 왔으나 선비인들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시름에 빠진 선비는 생각 끝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별이 총총 빛나는 어느 날 밤에 높고 험한 산을 지팡이로 짚고 쉬엄쉬엄 올라갔다. 산 꼭지에 오른 선비는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합장한 뒤 눈을 지그시 감고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빌었다. ‘이 땅이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 대지에 비를 주시어 불쌍한 생명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주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가련한 인간들을 부디 굽어 살피옵소서.’ 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간절히 빌고 있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갑자기 별이 총총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마파람이 일더니 땃줄기 같은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소리에 정신을 차린 선비는 천지신명에게 연거푸 절을 하고 날 것 같은 기분으로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느새 계곡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머리에 쓴 탕건이나 입은 옷은 비에 젖어 엉망진창이 된 채 마을 근처 냇물을 건너려 하자 말랐던 내에는 금세 물이 불어 거센 물결을 치며 흐르고 있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선비가 냇물을 건너 중간쯤에 이르렀는데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그 뒤에 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 물이 줄어들자 선비가 빠진 자리에 탕건같이 생긴 바위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언제나 탕건을 쓰고 있던 선비가 바위로 변한 것이 아니냐? 하며 바위 앞에다 제물을 차려놓고 선비의 높은 덕망을 추모하고 명복을 빌었다. 또한 6~7월에 냇물이 바위 중간 부분까지 적시면 그 해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 오랜 세월 속에 물길이 바뀌어 탕건바위는 구암리 앞 냇가에 어렴풋이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제보 최영식(崔永植), 남, 68세. 장수읍 대성리>

3) 팔공산(八公山)의 당재(堂峙)

장수읍 소재지에서 서남쪽으로 10km쯤 가면 등고 1,151m의 팔공산(八公山) 기슭에 당재(堂峙)가 있다. 이 당재는 금강(錦江)과 섬진강(蟾津江)의

발원지가 되며 옛날에는 신당(神堂)과 상이암(上耳庵)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00 여 년 전 이성계(朝鮮開國 太祖)가 등극하기 전에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명산의 산신이 명령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리산(智異山)과 장안산(長安山)등에서 제단을 차리고 신천지를 열어 등극할 수 있도록 기원했으나 산신이 명령하지 않았다. 다음은 팔공산으로 가서 그 곳에 신당을 차리고 석 달 열흘을 조석으로 목욕재계한 후 정성을 다하여 개국역사(開國役事)에 명령해 주시기를 기원했다.

그러자 백 일째 되는 날 새벽에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무지개가 일더니 빛을 타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성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소리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신천지를 열어라.’ 라는 소리같이 들렸다. 꺾전을 스치는 이 소리는 ‘새 나라를 열라.’는 하늘의 명령(계시)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이성계는 아담한 암자를 짓고 정중히 천제를 올리고 천명을 귀로 들었다 해서 상이암(上耳庵)이라 불렀다.

그 뒤 이성계는 새 나라를 열고 등극하여 조선의 태조가 되었는데 정사에 바쁜 중에도 관아로 하여금 신당과 상이암을 돌보게 하여 현감이 몸소 현지를 살피기도 하였다 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집은 없어지고 자취마저 희미하다. 다만 신당이 서있던 재(峙)를 지금도 당재라 부른다. <제보 강철규(姜喆奎), 남, 50세. 장수읍 장수리>

4) 남근조탑(男根造塔)

옛날부터 시골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 건강, 득남, 무병 등을 기구하기 위해서 마을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마을 입구에 수구(守口)의 일환으로 소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가꾸어 수호신으로 삼는 경우와 돌을 둥글게 쌓아 올려서 탑을 만들어 수호신으로 삼는 경우와 장승을 세워 수호신으로 삼는 유형이 있다.

이렇듯 언제부터인가는 몰라도 조탑은 시골의 여러 마을 입구에 오래 전에 탑으로 쌓아져서 ‘마을 지킴이’ 노릇을 했는데 장수읍 송천마을에 있는 조탑은 남근탑(男根塔)으로서 득남신(得男神) 역할을 한 색다른 조탑(造塔)이다.

장수읍에서 서쪽으로 4km 지점에 송천마을이 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숲이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마을로 통하는 길 양편 숲속에 밑 둘레 약 5m, 높이 약 2.5m의 조탑이 있는데 정상에 남근(男根)을 닮은 돌을 세워 놔

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에는 동짓날 마을 부녀자들이 모여서 남아가 귀한 집 부인을 제주로 삼아 정한 쌀로 떡을 만들고 깨끗한 짚으로 원새끼를 꼬아서 빨간 고추를 새끼에 꽂은 뒤 숲 속에 나란히 있는 조탑에 둘러치고 떡을 차려 놓고 동지시에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조탑이 마주보며 있는 것은 음양을 뜻하는 것이고, 동짓날 조탑에 떡시루 놓고 기원을 하는 것은 동지는 양(陽)이 시생(始生)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은 남이므로 동짓날 남근탑(男根塔)에 축수 기원하면 아들을 얻는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다.

어느 날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딸만 일곱을 낳은 부인이 아들 낳기가 소원이어서 송천마을 남근 조탑이 영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동짓날 밤에 조탑 앞에 떡을 차려 놓고 밤새도록 아들 하나만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한다. 그 뒤 태기가 있어 이듬해 아들이라 굳게 믿고 출산해 보니 또 딸이었다. 실심하고 한탄하다 곰곰 생각 끝에 남편과 상의한 후 송천마을로 이사해서 동짓날 밤을 기다렸다가 제주를 자청 목욕재계하고 정결하게 마련한 떡과 음식을 남근조탑에 차려 놓고 옥동자를 점지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그랬더니 아홉번째로 아들을 낳아 소원을 풀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지금도 동짓날에는 마을 부인들이 금줄을 탑에 두르고 소원성취를 비는 풍습이 있다. <제보 백순일(白淳一), 남, 45세. 장수읍 장수리>

5) 용계(龍鷄)



계림전경

장수 읍사무소에서 산서면으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5km 쯤 가면 노변(路邊)에 용계(龍溪)마을이 있다. 이 마을은 용(龍)의 화신인 닭이 울어 왜적의 침략을 격퇴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고려(高麗)우왕 6년 9월(1380년)에 왜구의 장수 아지발도(阿只拔道)가 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남원의 운봉지방을 침노한다는 장계에 따라 조정에서는 이성계 장군을 보내어 왜구를 물리쳤는데 어느 날 이성계장군이 진군 도중 운봉 가는 길목에 있는 용계마을에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당도했다.

이 때에 장거리 행군에 피로도 겹치고 저녁식사 때도 되고 해서 잠시 마을에서 쉬면서 장군은 부하 장졸에게 작전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황산벌 좁은 목에 우리가 먼저 당도해야 뒤늦게 그 곳을 통과하는 왜구를 전멸하고 괴수를 사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엄한 훈령을 내린 뒤에 저녁밥을 먹었다. 식사를 끝마친 장군이나 장졸들은 여러 날 진군의 피로가 겹쳐 순간 잠이 들었다.

반시간이나 지났을까 말았을까 할 즈음 뉘 집에서 돌연 ‘꼬끼오’ 하고 닭이 해를 치며 울었다. 그러자 마을 닭들이 따라서 울었다. ‘꼬끼오’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난 이성계 장군은 작전에 차질이 생긴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장졸을 독려해서 전열을 정비, 진군의 속도를 가속화했다. 단숨에 황산벌로 달려간 이성계 장군은 좁은 목에다 장졸을 매복 배치하는 등 서둘러 작전준비를 완료하자 어디선가 밤의 정적을 깨고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닭 우는 소리가 연달았다. 그제야 이장군은 안도의 숨을 돌리고 왜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닭이 울자 행군을 시작한 왜구는 먼동이 트일 무렵 좁은 목에 당도해서 아군의 복병을 의식하고 조심하며 지나는데 이 때를 놓칠세라 이장군은 은빛 투구에 위풍이 있는 자를 향해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왜장 아지발도의 안면(顔面)에 적중했다. 삼시간에 왜구의 전열은 흐트러지고 살아서 도망간 자가 거의 없었다.

황산벌 좁은 목에서 대첩을 거둔 이성계장군은 회군길에 용계마을에 들러 지난 날 초저녁에 운 닭은 용의 화신이 닭으로 변하여 황산대첩(荒山大捷)을 거두게 한 것이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하며 뒤에 마을 이름을 용계(龍鷄)라 불렀다 하는데 왜인(倭人)이 이 나라에 상륙하여 식민정치를 하면서 ‘鷄’가 ‘溪’로 바뀐 것 같아 못내 아쉬워한다. <제보 강신명(姜信明), 남, 78세. 장수읍 용계리>

6) 치마대(馳馬台)와 말무덤

장수읍에서 서쪽으로 등고(登高) 1,151여m의 팔공산 서쪽에 크고 작은 산봉(山峰)과 능선을 약산(躍山)이라 부르는데 이곳에 치마대(馳馬台)와 말무덤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년 전 고려말의 일이다. 충신이며 명장이었던 최영장군(崔瑩將軍)이 젊은 시절에 장인이었던 오자치(吳自治) 나성부원군(羅城府院君)이 지금의 산서 땅에 살았기 때문에 최영은 이 곳 약산치마대에서 날마다 젊음을 불태우며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창쓰기 등 군사 훈련을 통해서 장군의 기량을 키웠다 한다.

말 위에서 활의 시위를 당기고 말을 달리면 말이 화살보다 먼저 가거나 표적에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최영은 여느 때와 같이 말과 궁시 칼과 창 등을 점검하고 치마대로 나가서 표적을 향해 시위를 당긴 뒤 비호처럼 달려 표적지로 갔으나 화살 꽃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행여나 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영영 화살 꽃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말이 화살보다 늦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최영은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던 말이지만 이렇게 느린 말을 전장(戰場)에서 무슨 쓸모가 있으랴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의 목을 단칼에 쳤다. 오랜 동안 생명처럼 아끼던 애마의 목을 베고 난 뒤 지난날의 애마와의 고락을 생각하며 허탈에 빠져 실심하고 있는 차에 어디선가 웬 아낙네가 한손에는 호미를 한손에는 화살을 쥔 채 헐레벌떡 최영에게로 달려왔다. '장군님 뉘네는 여기서 3, 4마장 떨어진 화전에서 발을 매고 있었는데 발 언덕에' 퍽 '하고 무엇인가 꽃히는 소리가 나기에 바라보니 난데없이 날아온 화살이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어느 날 장군께서 말 달리며 활 쏘는 것을 먼빛으로 본 일이 있어서 필시 장군의 화살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고 주워왔습니다.' 하며 화살을 주는 것이었다.

최영은 그때서야 화살이 엉뚱한 데로 빗나가게 쏜 자기의 실수를 크게 뉘우쳤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북반치는 경술함을 자책이나 하듯 치마대(馳馬台) 양지바른 곳에 말의 무덤을 만들고 정중하게 제사를 지낸 뒤에 그 곳을 떠났다고 하는데 뒤에 최장군이 말달리던 곳을 치마대, 애마의 무덤을 용마(龍馬)무덤, 화살이 빗나가 떨어진 발을 시락전(矢落田)이라고 불렀다 하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정확한 위치는 알 길이 없고 약산(躍山)중턱에 평평한 구릉이 있는데 그 일대가 전설의 고장 같다고 전하는 이가 귀뜸해 준다. <제보 육종진(陸鍾珍),

54) 7)-10) 임석재, 앞
의 책, 1990.

남, 75 세. 산서면 마하리 원흥마을>

7) 선창리(先昌里) 지명유래(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⁵⁴⁾

선창리는 옛날에 배가 드나들던 선창(先昌)이 있어서 선창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이 동네 동북쪽에 있는 북골이라는 산날망에 가 보면 배를 뗏던 자리가 있다.

이 동네 사람들은 기질이 괄괄하고 꺼뚫하면 큰소리를 잘 지르는데, 이것은 바닷가가 시끄럽고 뱃사람들의 성질이 거칠고 막돼먹어서, 옛날의 바닷사람의 기풍을 주욱 이어받아 내려오기 땀이라고 한다. 선창리는 동서로 두 마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서쪽 마을은 양선(陽先)이라고 하고 동쪽 마을을 음선(陰先)이라고 한다. 음선마을은 백여 호가 사는 큰 마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40호밖에 안되는 양선마을만 못하다. 양선마을은 호수가 40호가 넘으면 동네가 쇠퇴해지고, 호수가 줄다가 몇 해가 지나면 도로 흥해서 호수가 느는 40호를 넘지 않는다. 그래서 양평마을은 늘 40호 정도로 사는 마을이다. 배는 짐을 많이 실으면 지울어져서 갈았게 되는 법이라 호수가 많으면 지울 것이 아닌가. 선창(先昌)으로 쓴거슨 왜놈들여. <제보 주제만, 남, 57. 계남면 가곡리>

8) 함미성을 쌓게 된 유래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함미성



함미성은 장수읍에서 제일 높은 팔공산이란 산 위에 있는 독으로 쌓은 성입니다. 지금은 다 허물어지고 제우 40m 가량 남아 있습니다. 이 성은 함미성(合米城)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의 안쪽은 그렇지 않은디 바깥쪽은 대패로 밀어낸 듯이 울퉁불퉁 현디가

없이 뻥뚫합니다. 이 서영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군량미를 많이 비축해 뒀는데 왜병이 쳐들어왔을 때, 이 쌀을 적병한테 안 뺏길라고 불을 질러 태웠답니다. 15, 6年 전만 해도 거그 가서 파 보면 타진 쌀이 나왔습니다. 쌀을 둔 성이라서 함미성(合米城)이라고도 한답니다. 옛날에 팔공산 밑에 한 내외가 살았는데 난리가 나서 남편이 군사로 뽑혀가서 수십 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니께 마누라는 성터 자리에 올

라가서 남편 이기를 지달렸답니다. 그런디 성터로 올라갈 때마다 독 하나씩을 들고 가서 쌓고 쌓고 현 것이 이 성이 됐다고 합니다. 성의 독을 세 보면 그 여자가 남편을 몇 날이나 지달렸는지 알 수 있답니다. 여자가 썼다고 해서 할미성라고도 부르지요.

또 다른 전설은, 옛날에 팔공산 밑에 한 늙은 내외가 살었는데 하루는 이 노인들이 내기를 했더랍니다. 할머니는 독으로 성을 쌓고 할아버지는 서울까지 갔다오기 내기를 했더랍니다. 할머니는 하루 새에 성을 다 쌓고 할아버지는 하루 만에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결국은 할머니가 이기고 말았답니다. 이 성을 할머니가 싸서 할미성이라고 한답니다. <제보 주제만, 남, 57. 계남면 가곡리>

9) 장수삼절(長水三節)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장수 사람은 장수삼절이라 하여 자랑삼는 것이 셋이 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감서 왜장을 꺾인 논개가 있고, 향교를 끝까지 지켜서 왜적의 병화에서 구해 낸 정충복(丁忠僕)이 있고, 원님의 죽음을 보고 제 목숨을 끊은 관노(官奴)가 있다고.

논개를 흔히 진주 기생으로 알고 있지만 논개는 진주 사람이 아니고 장수 태생입니다. 그리고 논개는 기생도 아니고 반명(班名)깨나 하는 집안의 자손입니다. 논개는 어려서 계모 밑에서 어렵게 자랐는데 그 삼촌이 주벽이 심하고 빚을 많이 져서 논개를 팔아먹을라고 했습니다. 그때 장수 현감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다 두었습니다. 이 원님이 진주병사가 되어 진주로 도임할 때 논개도 같이 진주로 따라갔지요. 그런데 이 열매 안되어서 왜적이 몰려와서 진주성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병사는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왜장들은 진주성을 함락하고는 승전축하를 한다고 축석루에다 주연을 베풀고 많은 기생을 불러다 춤추고 노래 부르게 했는데, 그때 논개도 기생으로 변장하고 잔치 마당에 들어가서 놀다가 취흥이 올랐을 때 왜장 하나의 목을 끌어안고 남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논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장수 사람은 논개사당을 지어서 매년 춘추로 제를 지내 주지요.

정충복은 향교지기인데, 임진왜란 때 왜병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고을 사람은 원님이고 관속이라고 할 것 없이 싹 피난 나가서 골이 텅 비어도 정충복은 혼자서 향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병이 몰려와서 향교에다 불을 지를라다가 정충복이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

디 너는 왜 혼자 남겨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행괴를 지키는 행괴지긴디 나머지 나가 버리면 누가 이 행괴를 보살피겠느냐’고 말하니께 왜병에도 도리를 아는 놈이 있던가 정충복의 충성스런 마음에 감복하고 정충복 등에도 충자(忠字)를 크게 써놓고, 이 뒤에 오는 군사들은 이 행괴에다 조금도 손 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라는 글을 써서 붙였다. 그래서 그 뒤에 쳐들어온 왜병들은 이 방을 보고 행괴를 다치지 안히서 다른 골으 행괴는 다 불타 버렸는디 이 장수의 행괴만은 그대로 남게 됐답니다. 평란이 된 후에 각 골에서 행괴를 다시 짓게 될 때 장수의 행괴를 본따다 짓고 행괴에 갖추어 둔 책을 베껴 갔다고 합니다. 정충복으 이런 의스런 행적이 가상타 해서 향교 앞에 정충복비를 세워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대도 잘 알 수 없지만 성이 백가(白哥)라고도 하고 박가(朴哥)라고도 하는 관노가 있었는데 한번은 원님이 전주 감영으로 행차할 때 말을 몰고 따라가다가 지금 꿩바우라는 바우가 있는디(여그서 북으로 한 4km쯤 됩니다.)왔을 때, 꿩이 한 마리가 튀어 오르면서 우는 소리에 놀랜 말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원님은 말에서 떨어져 절벽에서 굴러서 그 밑이 흐르는 강물으 소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관노는 원님이 이러이러해서 죽었드는 사연을 알리겠다고, 자기 손구락을 깨밀어서 바우에다 꿩과 말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관노는 글을 모르니께 그림으로 그린 거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도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뒷날에 알려져서 사람들은 관노으 충직함에 감동하여 타루비(墮淚碑)라는 비석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매년 원님이 친히 제사(祭祀) 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사 지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타루비만 아직도 남아 있지요. <배운선, 여, 58세. 장수읍 선창리 양선>

10) 장수가 유배지가 된 까닭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장수(長水)는 옛날부터 서울 사람이 많이 귀양 온답니다. 장수가 이렇게 귀양살이 하는 디가 된 것은 나라서 산골을 해변가로 잘못 알어서 그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장수야 산골이지요. 그런디 이상한 것은 바대에 관계되는 이름이 있는 곳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장수읍내서 남쪽으로 1km쯤 가면 두산리(斗山里)란 동네가 있고 그 동네 앞에 염바대라는 꽤 넓은 방죽이 있고 동쪽으로 5km쯤 가면 들 가운데 퇴깁이 같이 생긴 바우가 있는디 이것을 퇴깁이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대니 섬이니 하는 디가 있음께 장수를 산골

인데도 해변으로 서울서는 본 모양이지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장수로 많이 귀양 왔다는 것입니다. <배운선, 여, 58세. 장수읍 선창리 양선>

나. 산서면⁵⁵⁾

1) 미륵암

산서 면사무소에서 서북쪽으로 임실 성수(任實聖壽)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2km 지점의 초장마을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영대산(靈臺山) 송림 사이에 미륵암(칠영사)이 있다.

100여 년 전 조선조 말기 고종 때의 일이다. 오산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질로 남녀노유 많은 사람들이 앓아눕게 되어 마을은 온통 근심에 쌓이고 민심은 흉흉하게 되었다.

이 때에 이 마을에는 슬하에 혈육 하나 없이 가난하지만 천심으로 목수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외로운 노인 한 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땔나무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대산 송림으로 갔다. 노을 지는 석양에 어깨가 무겁도록 나뭇짐을 지고 내려오다 차일바위에서 쉬면서 땀을 닦고 담배 한 대를 피우는 사이에 피로에 겹쳐 살며시 잠이 들었다. 그러자 하얀 수염을 길게 드리운 홍안백발의 비범한 노인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었다.

‘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낮잠만 자고 있느냐? 급히 약을 가지고 가서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구하도록 해라.’ 하며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을 주는 것이었다. 노인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눈앞에 조그마한 돌부처가 서 있고 그 옆 에는 빨간 열매가 열린 풀이 깔려 있지 않은가!

노인은 황급히 부처에게 절을 하고 옆에 깔려 있는 꿈에 얻었던 것과 같은 풀을 뜯어서 부랴부랴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환자들에게 먹였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그 약을 복용하자 바로 조금씩 차도가 있더니 며칠 만에 괴질을 앓던 사람들이 쾌차하게 됐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미륵부처님이 노인으로 하여금 마을을 구하게 하신 것이라며 부처님의 영험에 경탄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부처로 현신해서 약을 주었던 영대산 송림으로 갔다. 그러나 그 곳에는 돌부처도 빨간 풀도 없고 반반한 바위가 박혀 있었다. 노인은 이 바위를 기반으로 삼고 마을 사람들의 협조하에 미륵부처님을 모시고 미륵암이라 불렀다.

그러나 오랜 세월 속에 암자가 퇴락해서 1977년에 새로 지었는데 규모는 작으나 울창한 송림과 널따란 바위가 조화를 이룬 아담한 미륵암에 울려 퍼

55) 장수군, 앞의 책, 1997.

지는 종소리는 옛날 이름 모를 노인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정성이 여운으로 남아 은은하게 들리는 듯 하다. <제보 권흥옥(權興玉), 남, 77 세. 산서면 오산리>

2) 암행정(暗行亭)거리

산서면 하월리 신덕마을 남쪽 200m 지점에 남원에서 보절(寶節)과 산서고산마을을 지나서 임실군 지사(任實郡 只砂)로 통하는 농로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길이 삼남대로였으며 산모퉁이에 암행정(暗行亭)이 있었다고 한다. 고려 때에는 이 지역이 거녕현(居寧縣)에 속했다고 하며 현청(縣廳)은 지금의 지사면(只砂面) 영천마을에 있었다고 한다.

600여 년 전의 일이다. 거녕현은 전답이 비옥하고 인심이 순후해서 백성들은 격양가를 부르며 요순시대(堯舜時代)를 부러워하지 않고 평화스럽게 살아가는데, 난데없이 천하에 못된 현감이 부임했다. 현감은 매일같이 주색잡기와 선량한 사람을 데려다가 착실하게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곤장을 쳐서 내쫓는 등 학정을 일삼아 치부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눈을 뜨면 산해진미에 기녀들과 노닥거리느라 정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못된 짓으로 날을 보내기가 일쑤여서 이웃 고을까지 탐관오리의 표본으로 널리 소문이 났다.

백성들은 현감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던 어느 날 동헌에서는 현감의 생신날이랍시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고량진미를 차려 놓고 육방(六房)과 관기(官妓)들의 헌작을 받고 있었다. 축하연이 무르익어 한창일 때 남루한 의복에 거지행색을 해서 얼핏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빛나는 눈이 범상하지 않은 과객이 나타나서 현감의 생신 잔치에 술 한 잔 신세지기를 청하자, 주기가 거나해진 현감은 주홍을 깨뜨린 거지에게 호통을 쳐서 대문 밖으로 내쫓았다. 현감이 술상을 정돈하여 새로이 주홍을 돋우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소리와 함께 기절초풍한 현감은 맨발로 뒷문을 차고 앞장쟁이야 나 살려라 하며 천방지축 도망가다 쓰러졌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 어느 산 모퉁이였다.

현감은 그 곳에서 과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죄에 대한 벌 받을 것을 생각한 나머지 현청으로 돌아가서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자 어사는 잘못을 회개하는 현감을 관대히 용서하고 떠났다. 그 뒤에 현감은 도망가다 뉘우친 산모퉁이에 암행정을 지은 다음 사흘이 멀다 하고 그 곳을 찾아 선정의 길을

다졌다. 지금은 지나간 세월 속에 암행정은 없어지고 암행정거리라는 이름만 전한다. <제보 이일연(李一衍), 남, 58세. 산서면 신창리 신덕마을>

3) 괴정(槐亭) (괴로울)의 숲거리

산서면 소재지에서 장수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500m쯤 가면 괴로울 마을 앞 도로변에 100여 년 묵은 숲이 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의 일이다. 괴정(槐亭)의 숲거리에는 커다란 무덤이 있었는데 뜬소문에는 오래전 민란(民亂) 때 죽은 많은 시체를 한 군데 끌어다 묻은 분묘라고도 했으나 아무튼 정확한 내력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 무렵 나라에는 정치가 어지럽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은 도탄에 빠진데다 괴질마저 만연하여 민심은 흉흉한 터라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괴변의 트집을 연결하려 했다.

이 곳 주민들도 이런 불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다 무덤 때문이라며 탓을 무덤에 돌렸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달려들어 무덤을 파헤쳤다. 아뿔사! 어찌하면 좋을고! 괴변이 없어지기는커녕 어이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그 날 해지기가 무섭게 여기저기 사방에서 원귀의 울부짖는 처절한 소리가 들려와서 사람들은 문을 닫아걸고 방 안에서 벌벌 떨어야 했다. 대낮에도 도깨비가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등 지옥을 방불케 했다.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무서워서 이 곳을 떠날 궁리만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탁발차 이 곳에 들어서 하는 말이 ‘소승이 저 쪽에서 보니까 이 곳에 원귀의 살기가 득실거리고 있었소. 그러니 원귀를 달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마을이 서파되오.’ 하더니 파헤친 무덤 자리를 가리키면서 ‘저 곳에 정자나무를 여러 주 심고 진혼제(鎮魂祭)를 지내주시오.’ 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스님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개를 가우뚱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어 그 자리에 나무를 심고 정성을 다하여 진혼제를 지냈다.

그 뒤부터 괴성과 괴변은 자취를 감추고 시화연풍(時和年豐)해서 살기 좋은 마을이 됐다. 그 때 심은 정자나무도 무성한 숲이 되어 하늘을 치솟았는데 100여 년 전에 느닷없이 벼락을 맞아 윗등치가 말라 죽었으나 뿌리에서 새순이 돌아 지금은 아름드리나무가 되어 울창한 숲은 오가는 이의 휴식처가 된다. <제보 장제호(張齋浩), 남, 73세. 산서면 동화리>

4) 말무덤과 말굽자국

산서에서 임실군 성수면(任實郡 聖壽面)으로 통하는 도로 2km 지점에 있는 오산리의 암가마을(바우거리) 뒷동산에 나무와 잡초에 덮인 무덤이 있는데 이를 말무덤이라 부른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의 일이다 이씨라는 분이 말을 타고 싸움터에 나가 풍진을 일으키며 좌충우돌 용맹스럽게 왜병을 무찌르다 부상을 당하여 이곳 바우거리에 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요양하는 도중 상처가 아물자 다시 출전하기 위해서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와 창쓰기 등 용병술을 익히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양을 더 해야 한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전할 하루 전날 싸움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아침부터 말을 타고 뒷동산으로 나갔다. 말을 달리며 칼과 창을 쓰는 법, 활을 쏘아서 적중 시키는 법 등을 수천 번 연습한 뒤에 시위를 당김과 동시에 말을 달려 화살이 표적에 꽂힐 무렵이나 그 직전에 표적에 도착 화살을 물고 오는 용마(龍馬)로의 기량을 닦는 연습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석양이 되어 이장군은 마지막으로 시위를 당겼다. 말도 번개같이 바람을 가르며 달렸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저 쪽에서 말이 고개를 늘어뜨리고 땀을 흘리며 화살을 물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오지 않는가! 순간 이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처럼 빨리 지쳐서 화살을 놓쳐 버린 약하고 둔한 말을 과연 어디다 쓴단 말인가!’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에 손이 닿기가 무섭게 말의 목이 땅에 뒹굴었다. 아뿔사! 이게 웬일인가? 말의 목에 화살이 꽂혀 있지 않는가!

먼저 달려 간 말이 뒤에 오는 화살을 입에 문다는 게 입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장군은 자기가 경솔하였음을 크게 뉘우치고 불쌍하게 간 명마의 무덤을 그 자리에 마련해 주었다. 지금도 말무덤 동쪽 칠영사 부근 바위와 말무덤 서쪽 2km쯤 떨어진 장군바위에는 말발굽 흔적이 있는데 이 용마의 말굽 자국이라고 한다. <제보 권선옥(權先玉), 남. 75세, 산서면 오산리>

5) 원흥사(元興寺)의 미륵석불(彌勒石佛)

산서에서 장수로 통하는 도로를 따라 4km쯤 가면 비행기재 조금 못 미쳐서 도로좌측으로 원흥마을이 보인다. 마을 뒷편 팔공산 기슭에 원흥사(元興寺)가 있는데 법당 복판에 높이 4m, 둘레 3m의 정교하게 조각된 미륵석불 입상(彌勒石佛立像)이 안치되어 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삼국시대의 조각

불상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이 현 위치인 밭 가운데 노천에 외로이 서 있었는데 그 훨씬 앞에는 절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으나 알 길이 없다. 아무튼 이 무렵에는 풍마우습(風磨雨濕)될 석불을 가려 주려는 사람이 없었다.

이 때에 원흥마을에 화웅처사(化雄處士)와 부인 허씨가 가난하지만 천심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미륵부처가 선언이 나타나서 ‘내가 오랫동안 헐벗고 비바람에 씻기니 괴롭구나, 움막이라도 좋으니 몸을 가려다오. 그러면 너는 생불이 될 것이다.’ 하며 부처는 사라지고 깨어보니 꿈이었다. 생각할수록 기이한 꿈이어서 허씨 부인은 날이 새기가 바쁘게 석불이 서 있는 밭으로 달려갔다.



원흥사의 미륵석불

꿈에 본 미륵불이 분명했다. 부인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합장을 하고 몇 번이고 다짐을 했다. 불심(佛心)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허씨 부인은 남편과 상의한 후 집 짓는 일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시주하는 이가 없어 역사(役事)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초라하지만 법당을 마련한 뒤부터 미륵부처의 영험이 일심으로 지성하는 허씨부인을 통해서 주변에 알려졌으며 부인은 운선(雲仙)이란 법호를 얻었는데 사람들은 살아 있는 미륵부처라고 불렀다 한다. <제보 유기열(劉琪烈), 남, 70세. 장수읍 장수리>

다. 번암면⁵⁶⁾

1) 섬암(蟾岩)과 외암(蛙岩)과 동산치(東山峙)

번암면사무소에서 남원으로 통하는 19번 국도를 따라 3km쯤 가면 작은 논실(論谷) 입구, 도로변에 천야만야(千也萬也) 층암절벽으로 된 동산치(東山峙)가 솟았는데 그 아래 굽이치며 흐르는 요천수 파란 물 가운데에는 동산치를 바라보며 영겁을 애원하듯 두꺼비 모양의 망암(望岩)이 있다. 이 바위를 두꺼비바위 또는 섬암이라 부른다.

아주 먼 옛날 비길 데 없이 경관이 빼어난 동산치는 신선이 바둑 두며 내세를 논하는 선경이었다. 어느 날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다 문득 건너편을 바라보니까 두꺼비 한 마리가 급한 표정으로 어기적거리며 이쪽으로 기어오면서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뒤에서는 커다란 뱀이 두꺼비를 쫓고 있지 않은가! 이 때에 신선은 뱀을 향해서 ‘두꺼비가 비록 약자이기로서니 생명은 다같이 소중하거늘, 천하에 힘센 자가 날

56) 장수군, 앞의 책, 1997.

뛰면 무법천지가 되는 법, 평화로운 선정에서는 용납하지 못한다.’ 하며 혼썰감을 낸 뒤에 도술로 뱀을 그 자리에서 산이 되게 하였다. 두꺼비는 저 갈 곳으로 보냈으나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신선을 우러러보며 은혜를 고마워하다 화석이 됐다는데 지금도 동산치의 건너산을 사두봉(蛇頭峯) 물 가운데 있는 두꺼비 모양의 바위를 섬암이라고 부른다.

또한 번암면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에 있는 지지(知止)마을 앞 요천 상류에는 개구리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와암(蛙岩)이라 부른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장안산 계곡에서 놀던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뱀에게 쫓긴 몸이 되어 동산치의 선인에게 구원을 얻으려고 요천수를 헤엄쳐서 지지마을 앞에 흐르는 내까지 왔다. 마침 그곳에는 많은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기에 위급사정을 털어놓았다. 그 때에 수염 센 개구리가 이르기를 ‘여기서 동산치까지는 멀고, 뒤에서 뱀은 쫓아오고 있으니 우리 다 함께 구원의 소리를 크게 외치자’ 하며 개굴개굴 큰 소리로 외치자 수많은 개구리가 일제히 큰 소리로 개굴개굴 울었다. 그러자 개구리들의 애원의 울음소리가 동산치에서 놀던 선인에게 메아리 쳐서 신선은 뱀을 쫓아 버리고 개구리떼를 구해 주었다하며 그 뒤부터 개구리들은 한데 모여서 동산치를 바라보고 밤낮없이 고마워서 울다가 바위가 됐다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개구리 바위가 약간 떠내려가서 위치가 바뀔 때가 있으나 머리는 항상 신선이 놀던 동산치를 바라보고 있단다.

아무튼 ‘번암’ 이라는 면 이름은 개구리와 두꺼비 모양을 한 전설어린 바위들이 서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 같다고 전한다. <제보 정해영(鄭海永), 남, 70세, 번암면 노곡리>

2) 수자골의 바위굴

번암면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약 4km 남쪽으로 가면 도로변에 수자골 ‘수(水,手) 척(尺)’ 마을이 있다. 이 마을 뒷편 언덕을 넘어서 서북쪽으로 2km 지점 대성산(大聖山) 중턱 집채덩이 같은 層岩 사이에 굴이 있는데 속에는 암벽으로 둘러쳐진 10여 평 뒹직한 방안 같은 굴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의 일이다. 임진왜란이 여러 해를 끌면서 나라 안 방방곡곡은 초토가 됐으며 호남지방은 정유재란 때 왜군의 발굽 아래 짓밟히게 됐다. 전투가 치열했던 남원성 싸움에서는 군관민 만여 명이 왜군에게 거의 전멸을 당했다.

이 때 신씨라는 분과 김씨라는 분은 남원성 전투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필사의 각오로 싸웠으나 성이 무너지자 후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자골 굴에 은신하여 창검술을 익히며 동지를 규합해서 장수 방면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무찌르고 많은 전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다 몸서리쳐지게 처참했던 왜란도 괴수 풍신수길의 죽음으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 땅에도 평온을 찾게 됐다. 사상 미증유의 재난과 시련을 겪은 백성들은 나중에 헤어졌던 부모 형제를 찾아 해매는 사람,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로 온통 법석인데 신씨와 김씨는 생명의 고향 수자골 바위굴을 떠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은 애환이 서려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신씨는 바위굴의 동쪽에 양지 바르고 비옥한 골짜기를 일구어 터전을 삼고 김씨는 굴의 남쪽 손바닥 같이 반반하고 아늑한 언덕에 터전을 마련하여 살면서도 두 사람은 틈만 있으면 바위굴을 찾았다. 그 뒤 흐르는 세월 속에 양가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집도 늘어서 마을을 이루게 됐는데, 신씨가 이룬 마을은 신씨촌이라 부르다가 오늘날 대론마을이 됐고, 김씨가 이룬 마을을 김씨촌이라 부르다 오늘날 수자골 마을이 됐다 한다. 또한 신씨와 김씨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평산신씨(平山申氏)와 금녕김씨(金寧金氏)의 중시조격(中始祖格)이 됐다 하며 바위굴을 ‘신김씨굴(申金氏窟)’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도 그 옛날 두 분이 거처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 <제보 유기철(柳基喆), 남, 60세. 변암면 논곡리>

3) 복성(福星)과 변도탄

변암면에서 남쪽으로 19번 국도를 따라 4km쯤 가면 논곡리 원촌(院村)마을에 이른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유정(柳亭)계곡을 5km쯤 거슬러 올라가면 소 천엽 속 같은 험준한 소백산맥(小白山脈)의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남향한 골짜기에 10여 호 남짓한 마을이 복성(福星)이다.

400여 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때의 일이다. 변도탄이라는 천문지리(天文地理)에 밝은 기인이 있었다. 일명 변도사로도 부르는데 이 분은 조정에서 군량미를 관리하는 관원으로 있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천기를 보니 멀지 않아서 나라에 전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므로 국난에 대비할 것을 상소했으나 평화시에 흑세무민(惑世誑民)의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삭탈관직을 당했다.

변도사는 허탈한 심정으로 집에 와서 앞날을 염려 한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북두칠성의 왕별이라는 복성(福星)이 유난히도 남쪽으로 빛을 발하고 있어서 천문지리에 밝은 변도사는 평시에 비치했던 많은 양식을 달구지

에 싣고 복성의 빛을 따라 여러 날 걸려서 이 곳에 당도한 뒤에 움막을 지으면서 나무로 얼개를 짜고 벽과 천정을 쌀가루로 반죽해서 발랐다. 그렇게 되자 아무도 쌀가루로 집을 지은 줄 몰랐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가서 왜구의 침입으로 국토는 유린당하고 이리저리 물리는 피난민은 아비규환이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은 적에게 살상 당하는 자, 피난길에 굶어 죽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 때에 변도탄의 움막은 이 지역에서 싸우던 의병과 관군과 난민의 양곡간이 되어서 천정과 벽을 떼어 죽을 쑤어 먹고 연명하면서 왜구를 무찌를 수가 있었다. 난이 끝난 뒤에 조정에서는 앞을 내다본 변도탄의 충성심과 뛰어난 지혜에 감탄하고 큰상을 내렸다. 변도사의 선성이 주위에 알려지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어 복성마을이 됐다.

오늘날 남원군 송동면 일원에 살고 있는 변씨들이 변도탄의 후예들이라 전한다. <제보 정해영(鄭海永), 남, 70세. 변암면 논곡리>

라. 장계면

1) 서문씨굴(西門氏窟)⁵⁷⁾

장계면사무소에서 전주 가는 26번 국도를 따라 3km쯤 가면 도로 옆으로 동정(動靜)마을이 나온다. 마을 서쪽에 깎아지른 듯한 층암절벽이 솟아 있고 아래는 푸른 내가 흐른다. 절벽에는 조선 순조조에 장수 현감을 지낸 당대의 명필가 이의성(李義聲)의 「동정대(動靜臺) 산정수동(山靜水動)」이라는 각자(刻字)가 꿈틀거린다. 그 옆에 지금은 도로공사로 많이 메워졌지만 굴이 있다. 이 굴을 서문씨굴(西門氏溜)이라 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서문(西門)씨라는 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영남 안의현(安義縣)에서 임현내(任縣內-長溪面前身)에 이사해서 살았는데 덕망과 학식과 지략이 출중하여 주위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한다. 정유재란(丁酉再亂)때 왜군이 남원성을 공략하고 갖은 노략질을 다 해가며 여세를 몰아 임현내(任縣內) 땅을 침노하매 진사 서문(進士西門)씨는 남다른 의리와 충성심을 가지고 주위의 뜻있는 사람들로 의병을 일으켜 필사의 항쟁을 했으나, 세가 불리하고 역부족이라 하는 수 없이 후일을 기약하고 이 굴에 피신해서 위급을 면했다 한다.

뒤에 후손 서문수(西門遂)는 중시조격(中始祖格)인 서문(西門)씨가 충의를 지키며 위급을 면한 이 곳에 동정대(動靜臺)라는 정자를 짓고 문중의 성지로 순례했다 하나, 지금은 굴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이 곳에 살고 있는 서문씨

57) 1)-5) 장수군, 앞의 책, 1997.



서문씨굴

의 발길마저 한적하다 한다. <제보 오치황(烏治瑋, 남, 62세,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올평마을>

2) 범덕골(虎德谷)

장계면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북으로 2km 지점 도로변에 범덕골 마을이 있다. 200년 전만 해도 초장길이 겨우 나있는 첩첩 산중이었다.

옛날 어느 선비가 한양을 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 길을 잃고 헤매던 차에 돌연히 눈앞에 불빛이 나타나서 찾아 갔더니 그 곳에는 커다란 천금대호가 눈에 불을 켜고 있었다 한다. 선비는 놀라 기겁을 했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한 자세로 범을 바라보니 범은 개처럼 꼬리를 저으면서 길을 인도해 줄 것 같은 동작을 보이더니 어디론가 슬금슬금 가는 것이었다. 선비는 범을 따라 덩불을 헤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한참 갔다.

얼마동안 가다보니 불빛이 스며 나오는 아담한 초당에 당도했다. 문 앞에 이르자 범은 간 곳 없고 집 안에서 흥안백발의 도승이 나오더니 ‘어서 오시오.’ 하며 정중하게 선비를 맞이했다. 방으로 들어간 선비는 겹치는 피로로 부지중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호랑이는 물론 친절했던 도승도 간 곳이 없고 누워 있는 곳은 겹겹이 우거진 덩불 밑 풀섶 위였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으나 분명 생시였다. 더욱 이상한 것은 자기 집 안방에서 자고 일어난 것 같은 훈훈한 기분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위로는 산등성이가 포근히 웅위하고 옆에는 산봉우리가 넘치니 읊 읊하는 것 같고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멀리 솟은 산봉우리는 노적봉 같이 여겨졌다. 선비는 필시 범이 양자손(良子孫)할 명당을 구해 준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성주하고 전답을 일구어 살면서 범을 생각해서 뒷산 주봉을 악호봉(岳虎峯), 도승을 생각해서 악호봉 아래 양지 바른 곳을 불당골(佛堂谷)이라 했는데 지금의 성관사(星觀寺)자리라 한다. 그 뒤 선비는 부자가 되고 자손도 높은 벼슬을 했으며 사람들이 모여 들어 범덕골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한다. <제보 한규준(韓圭準), 남, 53세,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3) 대호명당(大虎名堂)

장계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2km 못 미친 침동(砦洞)마을 남쪽 200m 지



범덕골

점 산록에 입장수(入長水)한 동래 정씨(東來鄭氏) 중시조 역할을 한 밀양손씨(密陽孫氏) 부인 묘소가 있다. 이곳을 대호명당(大虎名堂)이라 부른다. 손씨 부인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두 아들과 임실 등지에서 살다가 친가가 있는 장계면 위동마을 근처로 이사해서 살았다 한다. 생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남편 여윈 외로움을 달래면서 친정아버지와 동기간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중 친정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슬펐다. 장례는 치러야 했고 장지를 정하기 위해서 이웃 마을에서 풍수(지관)를 모셔 왔다. 풍수는 주변의 산을 둘러보고 와서 친정 동기간들과 의논하는 말이 지금의 묘소자리가 명당이라는 것이다. 그 말을 엿들은 손씨 부인은 불현듯 욕심이 생겼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하관시(下棺時)가 빨라서 전날 천광 구덩이를 파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밤이 이슬했다. 철야꾼들도 거의 잠이 들었다 부인은 물동이를 챙겨서 슬쩍 문을 나와서는 천광 내린 장지로 향했다. 장지에 당도한 부인은 천광 구덩이가 그득할 만큼 물을 이어다 부은 뒤 물이 땅에서 솟아 오르는 것처럼 흔적 없이 해놓고 돌아왔다. 이튿날 상가에서는 서둘러서 운구하여 하관을 하려 하니 장지가 물구덩이가 되었다.

화가 난 상주들은 물구덩이를 명당이라고 한 지관을 불러 혼썰음을 내고 급히 다른 곳에다 장례를 치렀다. 손씨 부인은 삼우제를 지낸 뒤에 만상주 오라버니에게 애원하듯 조용히 말했다.

‘이 불쌍한 동생 아직 자식들도 미지하고 갈 날도 가까워오니 죽어서 들어갈 곳이나 정했으면 하는데 이 처지에 물구덩이면 어떻소. 그 자리라도 주시면 다 된 몸 신후지지(身後之地)로 치표라도 했으면 하는데요’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그래라’ 하고 쉽게 허락을 했다고 한다.

얼마 후에 손씨 부인이 죽자 그 자리에 안장했다 하며 지금도 숙부인 밀양손씨지묘 라고 비가 서있다. 아무튼 그 뒤부터 정씨들은 명문호족이 됐고 손씨들은 가세가 치패됐다는 말이 전하여 딸자식 소용없다는 말도 이 때부터 유래됐다고 한다. 또한 정씨들이 번성하게 되자 손씨 묘소가 범상을 한 대호명당이라는 말과 함께 밤이면 범이 묘소를 보호해 주어서 밀장을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제보 한규준(韓圭準), 남, 53세,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4) 대룡소(大龍沼)

장계에서 동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육십령(六十嶺)을 넘기 전 4km 지점 우측에 무룡궁(舞龍宮)재로 이어지는 도로가 뚫렸다.

이 길을 따라서 줄곧 4km쯤 가면 충절의 여신이라 불리는 논개(論介)가 탄생한 곳 주촌 마을에 이른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대곡천(大谷川)에 대룡소(大龍沼)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사백 수십여 년 전에 주촌마을 주씨 집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밤에 주씨의 부인이 첫 아이를 낳았는데 기골이 장대한데다 용호 상박하는 얼굴 형상을 하고서는 바로 윗목으로 서너 발 걸어가서 사방을 응시하는 꼴이 범상 하지가 않았다. 부인은 겁에 질려서 남편에게 알렸다. 주씨는 용상을 한 아이 이름을 대룡(大龍)이라 하고 이런 사실을 감추었다.

그러나 소문은 이웃에서 이웃으로 퍼져서 비범한 아이를 구경 오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주씨 부부는 갑자기 걱정이 생겼다. 이런 사실이 관아에 알려지면 나라를 망칠 역적이 생겼다고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할까 두려워 견디지 못했다. 부부는 몇 날 며칠 궁리 끝에 화를 입기 전에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구석에 있던 다듬이 돌로 눌러서 죽인 뒤에 밤중에 마을 근처에 있는 소(沼)에다 던져 버렸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주씨가 밭길을 돌려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산 너머 하늘이 어둠을 뚫고 흰히 열리더니 날개 돋친 용마가 괴상한 소리로 으르렁대고 하늘을 날며 주씨 집 상공을 한 바퀴 돌아서 대룡이를 던진 소(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차! 큰 죄를 지었구나. 장수될 아이를 죽인 게 아닌가 하고 후회했으나 때는 늦었다. 집에 와서도 주씨 부부는 여러 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었다.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밤 주씨가 잠을 자는데 홍안백발 노인이 현몽해서 하는 말이 「나는 너의 조상인데 나의 집(幽宅)이 장군대좌(將軍大座)라서 그 기운으로 대호군(大護軍)(지금의 大將格)을 낳게 하여 얼마 안가서 불어 닥칠 나라의 환난을 평정케 하려고 용상(龍象)의 장수(將帥)를 보냈더니 네가 무지몽매해서 큰 인물을 잃었구나! 원통하다! 그러나 나의 기운이 남았으니 이번에는 여장수를 보내리라. 그러니 이번만은 우(愚)를 범하지 말고 고이 기르면 자고로 가문과 조상을 빛내고 나라에 보답할 것이며 미천한 이름으로 귀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니라」하고는 사라졌다. 깨어보니 너무나 생시 같은 꿈이었다. 주씨 부부는 조상이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됐다.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가 있었다. 부부는 배안의 아기를 소중히 여기며 태교에 열중했다. 열달 후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甲戌年 甲戌月 甲戌日 甲戌時)에 딸아이를 출산했다. 학자인 주씨는 순간 전날 꿈에 현몽한 일, 생시가 사갑술(四甲戌)이라는 것들이 모두 범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술(戌)은 ‘개’ 이곳 방언에 ‘낳다’를 ‘놓다’로 하기에 ‘개’를 ‘놓았’으니 ‘논개’라 이름 지었다.

이 분이 훗날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나라가 초토화(焦土化)되었을 때 진주성 싸움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남강(南江)가 의암에서 왜장 모곡촌육조(毛谷村六助)를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 살신성충(殺身成忠)한 여장수 논개(女將 論介)라고 하며 만일 논개의 오빠 대룡(大龍)이 살았었다면 임란(壬亂)은 초전(初戰)부터 조국(祖國)의 승리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세인들이 안타까워했다 한다. 장안산(長安山) 준령에 자리한 장군대좌혈 주씨 선산은 지금도 명당으로 알려 있다 하며 대룡소는 흔적만 남았다 한다. <제보 유기열(劉琪烈), 남, 60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 육십령(六十嶺)



장계에서 동으로 26번 국도를 따라 6km쯤 가면 명덕마을에 이른다. 이곳을 지나서 60여 구비를 돌아 올라가면 소백산맥의 준령 700여m 고지에 호남과 영남을 가르는 도계 표식이 서 있다. 여기가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육십령(六十嶺)이다.

옛날에는 재가 너무도 험준하고 화적떼들이 들끓어서 재를 넘는 이는 재물을 빼앗기거나 목숨을 잃기가 일쑤였다 한다. 육십령이란 이름은 60명이 상이 모여서 넘어야 안전하게 재를 넘을 수 있다고 해서 또는 잣마루까지 60여 굽이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한다. 삼국시대에는 나제국경(羅齊國境)의

요새지로서 성터와 봉화대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다. 이 곳에 할미성(六十嶺城)의 장수 조억령(趙億齡)에 대한 애절한 사연이 전한다.

지금부터 400 여년전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다. 조억령이 가솔인 유솔(劉率)과 많은 병사 장정들과 할미성과 봉수대(烽燧臺)를 지키고 있었다. 조억령 집에서는 조씨가 집을 나간 지 오래도록 소식이 없으므로 사방팔방으로 수소문을 해본 바 육십령에서 성을 지킨다는 소식을 듣고 조씨의 부인은 남편을 찾아 나섰다. 초행길을 물어 물어 육십령을 찾아 어느 골짜기로 들어서 한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화적떼가 달려들어 부인을 붙잡아서 희롱하다 능욕한 뒤에 죽여 버렸다.

한편 조억령은 집을 나온 지도 오래되고 간밤에 꿈자리도 사나워서 병사들에게 잠시 집을 다녀와야겠다고 이르고 재를 내려오다 날이 저물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길을 재촉하는데 어두움이 깔리는 사이로 피투성이가 된 한 여자가 산발을 하고 자기 앞으로 다가왔다. 순간 섬뜩했으나 자세히 보니 자기 아내다. 깜짝 놀라 사연을 물었더니 남편을 찾아 헤매다 전날 일어났던 일을 눈물로 하소연하고 원한을 갚아달라며 사라졌다. 조씨는 꿈만 같은 현실에 터지는 가슴을 억누르고 성으로 되돌아가서 병사들과 화적떼를 도륙하고 아내의 시신을 거두어 재 아래 양지 바른 곳에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원귀(怨鬼)를 위로했다 한다.

임란 때 국토를 유린한 왜병들이 정유재란(丁酉再亂)때 호남지방을 침범하기 위해서 대부대가 육십령으로 침입해 오며, 조억령 장수는 유솔(劉率)등 병사 장정들과 육십령성(六十嶺城)에서 맞아 치열한 격전을 벌여 수백 명의 왜병을 주살, 수삼차 격퇴시켰으나 혼비백산하여 퇴각하는 왜병이 숨어서 쏜 유탄에 맞아 장렬한 일생을 육십령에서 마쳤다 한다.

조장수의 시신을 뒤에 남은 병사들이 거두어서 부인의 묘소 옆에 나란히 장례 지냈다 한다. 난이 끝난 뒤에 조억령장수의 전적비를 육십령 전적지에 세웠다는데 비석(碑石)은 없어지고 장수군지에 기록만 남아 있다. <제보 한 용복, 남, 75세.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한거마을>

6) 주대룡(朱大龍)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⁵⁸⁾

옛날에 지금 장수군 장계면 주촌리에 주아무개란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의 아들 주대룡이는 몸집이 크고 심도 세서 장사란 말을 들었다. 날마다 아침에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는 장안산이란 높은 산까지 올라가각고 북으

58) 임석재 앞의 책, 1990.

로 직선거리로 30리나 떨어져 있는 통통바우라는 바우도 뛰어내렸다. 이 통통바우는 흔히 내동이라고 부르는 산골로 북쪽, 낮은 산에 있다. 내동에는 가곡리(佳谷里), 장안리(長安里), 궁양리(弓陽里)란 세 원마늘과 많은 자연마늘이 여그저그 있다. 이 통통바우 우그에는 말굽 자국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말굽 자국은 주대룡이가 말을 타고 뛰어내려서 생긴 자국이라고 해서 이 자국을 말발굽자국이라고 한다.

주대룡이는 심이 장사고 날랜 사람이었다. 그때의 장수 현감은 이런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나라에 큰 화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일라고 했다. 포졸을 풀어서 주대룡이를 잡으라고 허는디 주대룡이는 날새게 피했다. 어찌다 잡히면 뿌리치고 도망치기도 했다. 그리도 포졸들이 차꼬 잡으러 땡겨썰고, 집안사람을 성가시게 굴어썰게, 주대룡이는 이대로 살다가는 제대로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집안에 무슨 큰 화를 미치게 할지 몰라서 하루는 일부러 포졸들한테 잡혔다. 포졸들은 주대룡이를 죽일라고 칼로 목을 치고 창을 찌르고 철퇴로 패고 했다. 그리고 주대룡이는 하나도 상처도 나지 안혹 끔적도 앓고 있었다. “나는 나라에 아무 해도 끼친 바도 없고 끼칠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죽일라고 허느냐, 내가 산 것이 걱정이 된다면 내 죽어 주겠다마는 내 청을 하나 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다. 무신 청이나 함께 죽은 시체를 지가 사는 주촌으 아무 데다 묻어 달라고 했다. 포졸들은 주대룡이가 죽어 없어지면 그만이닝께 그리 주마고 선선히 대답했다. 주대룡이는 버드나무 가지로 저드랑 밑이를 세 번 때리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포졸들은 괴이쩍게 여김서도 버드나무 가지로 주대룡의 저드랑밑이를 세 번 쳤다. 그렇게 주대룡이는 칼로 찔러도 죽지 않던 사람이 그냥 죽어 버렸다. 포졸들은 주대룡이를 잡아 죽인 것이 하도 기뻐서 주대룡이가 묻어 돌아는 자리다 묻어 줄 것을 잊어버리고 탄 디다 묻고 때를 입혔다. 그런디 뵈으 때는 곧 말라 죽고 오늘날까지도 그 뵈는 풀이 없는 빨건 뵈로 남아 있게 됐다.

주대룡이가 이렇게 해서 죽은 뒤에 주대룡이네 집에서 딸이 낳는디 이 딸이 논개라는 사람이다. 논개가 왜장을 몸소 꺾여 나라에 충성을 부린 것을 보고 주대룡의 녀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주대룡이가 썩 돌아든 자리에다 뵈를 썩더라면 주대룡의 녀은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큰 일을 했을 터데 탄 데다 썩기 땀에 여자로 태어난 것이라고 한다. 주대룡의 녀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제보 주제만, 남, 57세. 계남면 가곡리>

59) 장수군 앞의 책
1997.

마. 천천면⁵⁹⁾

1) 남산(南山)의 산제당(山祭堂)

천천에서 장수가는 도로를 4km쯤 가다 우측을 보면 우평현(雨坪縣-장수군을 백제시대에는 우평현-雨坪縣이라 했음)의 진산(鎭山)이었던 등고(登高) 약 700m의 남산이 있다. 지금은 이방마을과 안터마을의 안산(案山)인데 산정에는 산제당(山祭堂)이 있었다고 한다.

옛날 마을에서는 해마다 일 년 내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정결한 남자를 제주로 뽑아 음력 정월 대보름날 밤에 남산의 산제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제(上帝)가 보낸 신선이 내려와서 놀다 가기 때문에 모시는 뜻이라 한다. 그래서 정성껏 제사를 모시면 신선이 기쁨의 표시로 산제당 문을 열어놓고 승천하며 정성이 부족하면 산제당 문을 닫고 승천하는 것이라 믿었으며 문의 개폐로 길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문이 열렸으면 마을에 안녕과 풍년이 들고 문이 닫혔으면 마을에 재앙과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는 반드시 이튿날 산제당을 찾는데 만일 문이 닫혔으면 길일(吉日)을 택해서 다시 제사를 모시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남산 아래 용소가 있었는데 산제당에서 돌이 굴러 용소 위로 떨어지면 안터(內基) 마을에서 사람이 죽고 용소 아래로 떨어지면 이방(梨方) 마을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또 산제당 주변에 기암괴석이 있는데 마을에서 괴석이 보이면 마을이 이변과 재앙이 생긴다는 전설이 있어 두 마을에서는 돌이 구르지 않도록 사방사업을 하고 괴석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를 심어 수목이 우거지고 산이 잘 가꾸어졌는데 지금도 노인들은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서 평화스런 마을에 재앙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한다. <제보 윤창래(尹昶來), 남, 67 세.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이방마을>

2) 팽이바위

천천면 용광리(天川面 龍光里)에 있는 용광교(龍光橋) 옆으로 금강(鎭江) 상류를 따라 신기마을까지 도로가 뚫렸는데 신기마을 1km쯤 못 미쳐 도로 옆에 천반산(天盤山)이 동으로 뻗어 깎아지른 듯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중턱 절벽에 큰 바위가 비스듬히 솟아 있다. 이 바위를 '팽이 바위'라 하며 절벽 사이로 수로가 통하고 있다.

옛날 새터마을 주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에서 2km도 더 떨어진 상

류에 보를 막고 산 중턱으로 수로를 내려 하는데, 천야만야 절벽 때문에 수로를 낼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수로를 돌릴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땅이 꺼지게 걱정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당집이 있었다. 마을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당할머니에게 소원을 기구하면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이 있었다.

절벽에 수로를 내는 일은 이 마을에서는 생사를 가름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목욕재계하고 외부로부터 부정이 못 들어오게 마을 전체에 금줄을 치고 제물을 정성껏 장만해서 제일 팔자 좋고 정결한 여인으로 제주가 되게 하여 당고사를 지냈다. 그날밤 제주의 꿈에 하얀 할머니가 선연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너의 마을을 지켜주는 당할머니다. 너희들이 수로를 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현지를 가서 보니 절벽이라 참으로 어렵더구나. 하는 수 없어 하느님께 이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고 빌었더니 하늘 팽이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길을 뚫어라 하시기에 그 팽이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벌어지게 하고 물길을 냈으니 농사를 잘 지어서 하느님께 감사하라.’ 하고는 할머니가 사라졌는데 깨어보니 꿈이었다.

날이 밝자 남정네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이 신기한 꿈 이야기에 남정네들은 힘을 내어 연장을 챙겨서 물길을 뚫으러 갔다. 가서 보니 정말 현몽한 대로 바위가 벌어졌고 절벽이 이상한 흔적이 있어 그대로 파 보니 암벽인데도 흙을 파는 것처럼 쉽게 뚫려 수월하게 수로를 낼 수 있었다 한다.

지금도 이 물길을 따라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 당할머니의 고마움을 기리기 위해서 음력 정월 초삼일 밤에 당고사를 지낸다 하며 ‘하늘팽이’로 암벽에 수로를 냈다 하여 팽이바위란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몇 년 전 도로공사로 완전 파괴될 위기에 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현장을 살렸다. <제보 김광일(金光一), 남, 80세.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

3) 타루비(塲戾碑)

천천에서 장수가는 도로를 따라 약 6km 가다 보면 장척(長尺)의 암벽 아래 노변에 타루각(塲戾閣)이 있다.

타루비(塲戾碑)는 장수 삼절의 하나로서 군민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 받고 있다. 1678년(肅宗 4년) 장수 현감 조종면(趙宗冕)이 관내를 순찰 중 현재

비가 있는 암벽으로 된 비탈길을 가다 길 옆 덩불에서 꿩이 인기척에 놀라 갑자기 날아오르자 현감이 타고 가던 말이 덩달아 놀라 뛰다 천야만야 암벽 아래로 떨어져 소에 빠졌다. 말에 타고 있던 원님도 같이 소에 빠져 죽었다. 그러자 현감을 모시느라 말을 몰던 배리(陪吏)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정신을 가다듬고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다 ‘꿩 과 ‘말’ 의 형용을 그려놓고 옆에다 ‘타루(墮淚)’ 2자를 쓴 다음 대성통곡하고 상전을 따라 소에 빠져 죽었다 한다.



타루비전경

그 후 124년이 지난 뒤 1802년(純祖 2년)에 장수현감 최수형(崔壽亨)이 배리(陪吏)의 주인을 위한 충절(吏道精神)을 가상히 여겨 타루비를 세웠다 한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나라에 큰 이변이 생길 때는 타루비(墮淚碑)에서 눈물 같은 물이 흐른다는 것이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됐을 때 사흘을 비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며 근자에는 1950년 6·25사변이 나기 얼마 전에 여러 날을 비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노인들은 ‘눈물 흘리는 충절의 비’가 두고두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어려운 일을 미리미리 암시해 주는 진짜 충절의 비라고 하여 추앙하는 마음이 더욱 커진다고 한다. <제보 유정희(柳程熙), 남, 78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 천잠단(天蠶壇)

천천면 소재지 앞을 흐르는 송탄천(松灘川)을 따라 500m쯤 내려가면 물이 구비치는 곳에 산줄기가 힘차게 뻗어 10여m 절벽이 냇가에 솟았는데 2-3평 반석이 평평하다. 여기를 천잠단이라 부른다.

먼 옛날 삼십삼천(三十三天)의 주천(主天)인 도리천에서 선남선녀가 우연히 지상을 내려다 보니 가르마같이 뻗은 내에 맑다 못해 옥같이 파란 물이 구슬 같은 돌과 자갈을 스쳐 유유히 흐르고 내 양쪽들과 산에는 이름 모를 많은 꽃들이 요염하게 피어 있고, 온갖 새들은 평화로이 노래 부르는 천상에서 보지 못한 경승지가 눈에 띄어 불현듯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선남선녀는 비단옷을 차려 입고 상제(上帝)에게 고한 다음 지상으로 내려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니 절경 아닌 곳이 없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변 경치

에 도취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저 쪽 들판에서 인간들이 헐벗고 일하는 것을 보았다.

순간 선인들은 인간들이 옷 해 입는 기술이 없어서 나무껍질이나 잎으로 만든 누더기를 걸치고 짐승 행세를 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길로 도리천에 올라가서 누에가 먹고 자랄 뽕나무 씨와 누에 알, 그리고 베 짜는 기구 등을 날 개가 달린 하늘 수레(天車)에 싣고 내려와서 선남은 밭을 일구어 뽕나무를 가꾸고 선녀는 누에를 쳐서 비단을 짜느라 찰가닥 찰각 소리를 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해괴하게 여기고 접근을 꺼리다가 점차 신기한 생각이 들어 선녀와 가까워지면서 누에를 쳐서 비단 짜는 기술까지 익히게 됐다 한다. 옷 걱정을 않게 된 사람들은 하늘이 준 벌레(天虫), 곧 누에(蚕) 덕분에 옷 걱정을 면하고 김(錦)옷을 입게 됐다며 해마다 봄철이면 선녀가 베틀을 차렸다는 천잠단(天蠶壇)에 제물을 차리고 도리천 천제와 선남선녀에게 감사의 제를 올렸다고 하며 뒤에는 장수 현감이 제주가 되고 관제사(觀察使)가 분향 헌작했다고 한다. 또한 천천(天川)은 하늘에서 온 선남선녀가 즐겨 놀고 아꼈던 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전한다. <제보 유기열(劉基烈), 남, 60 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 천반산(天盤山) 장군바위

천천면에서 금강 상류를 끼고 도로가 신기마을까지 뚫렸으며 다시 소도로 3km쯤 물 따라 내려가면 진안군과 경계를 이루면서 많은 유적을 간직한 채 높은 키를 자랑이나 하듯 천반산이 우뚝 솟아 있다.

산정(山頂)의 성터를 비롯해서 장군바위, 마당바위, 뽕바위, 깃대봉, 시험바위와 대섬 등 정여립(鄭汝立)에 얽힌 이야기가 전한다. 조선 선조조(朝鮮宣祖朝)에 울곡(栗谷) 문하에서 수학한 개혁파 정여립은 보수파에 몰려 낙향(全州)한 뒤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고 민중을 규합해서 장차 있을지도 모를 외침에 대비하고자 천반산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했다 한다. 매일같이 깃대봉에 대동(大同)이라는 기를 꽂고 부하 장졸들이 뽕바위를 뛰어 넘지 못하면 넘을 때까지 강행하고 시험바위에서는 무예를 어느 정도 익혔는지 시험을 보았다 하며, 장졸을 마당바위에 모아 놓고, 정여립은 장군바위에 서서 정신교육을 시켰다 한다.

이런 즈음에 조정에서는 정여립이 우매한 백성을 현혹하여 천반산에 들어가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반대파의 상소문을 접하게 되어 즉시 반역자 정여

립을 체포하라는 어명이 내려졌다. 밖의 일을 모르는 여립이 어느 날 밤 장군바위에 앉아 우연히 하늘에서 큰 별이 서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친문지리에 밝은 정여립은 순간 자기의 명운이 다 된 것을 짐작하고 길게 한숨을 쉰 뒤에 장졸들을 마당바위에 모아 놓고 그간에 너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갈고 닦은 전술과 전법과 힘은 머지않아 나라에 환란이 밀어 닥칠 때 나라를 구하는데 요긴하게 써먹을 것이다. 조정은 몽매한 무리들로 가득 차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 때가 오면 살신성충(殺身成忠)하라. 원통하고 분하다! 이제 너희들과 헤어질 수 밖에 없구나 하고는 장졸들과 눈물로 헤어졌다 한다.

며칠 후에 천반산의 기슭, 죽도에서 ‘정공을 모시러 왔다’는 진안 군수의 전갈을 받고 정여립은 장군바위에서 천지신명에게 ‘나라를 굽어 살피소서’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긴 뒤 자진 포박되어 억울한 모반(을축옥사 乙丑獄事)으로 1589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나기 3년 전에 한 많은 생을 마쳤다 한다.

천반산 기슭에 정여립이 즐겨 마시던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먹고 애를 낳으면 장군이 된다 하여 먼 곳에서도 찾는 이가 많았다 하나, 지금은 어느 곳인지 찾을 길이 없다. <제보 유병기(柳炳基), 남, 90세.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

6) 새터마을의 당집

언제부터인가 천천면 하동 땅 북쪽에 있는 천반산(天盤山) 기슭에 새터마을의 당할머니를 모셨다는 당집이 있었다 한다. 어느 날 당집 건너편에 있던 돌담(石峯)이 점점 커지더니 산덩이만한 수탉이 되어 주변에 사는 사람을 해치고 곡식까지 전부 주워 먹어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 한다.

하루는 중이 탁발차 마을에 와서 여차여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도가 있소. ‘어여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 환란을 면할 것이오’ 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 뒤 중의 말대로 어여쁜 처녀를 제물로 바치면서부터 환란은 면했으나 처녀가 있는 집에서는 서둘러 마을을 떠나갔기 때문에 처녀를 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처녀를 바치는 밤이었다. 마을의 원로가 제물로 바치기 위해 처녀를 데리고 가는데 별안간 당집이 흰해지면서 커다란 구렁이가 당집에서 나오더니 수탉과 맞붙어 싸우는 꼴이 용호가 상박하는 형상 같았다. 노인과 처녀는 겁에 질려 집으로 도망쳤다. 태산이 진동하듯 으르렁대는 소

리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들은 이튿날 조용해지자 그 곳을 가서 보니 수탉은 부리가 잘린 채 죽어 있고 구렁이는 전신에 상처를 입은 채 사리를 틀고 죽어 있었다. 사람들은 여러 날 걸려 흙으로 덮어 주었는데 오랜 뒤에 하나는 부리 없는 수탉산이 되고 하나는 용을 쓴 구렁이 산이 됐다 한다.

그런데 수탉산의 부리가 자라서 마을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수호신인 당할머니가 구렁이로 변해서 계속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탉산에 부리가 자라지 못하고 마을이 평화롭다고 한다.

사람들은 구렁이로 변해서까지 사람을 해친 수탉을 죽이고 끝내 부리를 자라지 못하게 지켜준 당할머니에게 고마운 표시로 구렁이 동산에 당집을 옮겨 짓고 음력 정월 초사흘날 밤에 당 고사를 지낸다고 한다. <제보 김광일(金光一), 남, 80세.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새터마을>

7) 봉황대(鳳凰臺)의 형제바위

천천면에서 흐르는 송탄천이 이골 물 저골 물을 합류 제법 대천(大川)이 된 물줄기를 따라 도로가 12km쯤 뚫린 지점에 신기마을이 주변에 많은 전설을 간직한 채 자리 잡고 있는데, 강 건너 편에 수백 길 기암괴석으로 된 암벽이 나란히 하늘로 치솟아 있다. 이 곳을 봉황대 형제바위라 하며 400여 년 전 임난(壬亂)을 예언했다는 겸암(謙庵) 유운룡(柳雲龍) 선생이 천하의 경승이라고 찬미했다는 곳이다.

아득한 옛날 두 바위 형제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밤에만 조금씩 커가고 있었다. 그런데 두 바위는 천 길을 먼저 크면 서울의 주봉이 된다고 믿고 다투어 커갔다 한다. 어느 날 앞으로 백일만 더 크면 천 길을 커서 이 곳이 서울이 된다는 뿌듯한 희망을 안고 밤으로만 우뚝우뚝 솟아올랐다. 백날 째 되는 마지막 날 밤 이 밤만 새면 다 큰다는 생각으로 두 바위 형제는 열심히 커 가고 있는데 이 마을에 사는 젊은 아낙이 이른 새벽 우물에 물 길러 나오다가 무럭무럭 크고 있는 바위를 보고 ‘어머나! 저 바위가 크고 있네!’ 하고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지르자, 두 바위형제는 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크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우뚝 서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뒤 하늘에서는 조금만 더 크면 이를 소원을 막바지에 좌절된 형제바위를 안타까이 여기고 봉황을 날려 보내서 바위틈에 둥지를 틀고 형제바위를 위로하며 살았다 하나, 봉황은 간 데 없고 형제바위만 아낙을 원망하듯 말없이 강가에 솟아 있다. <제보 유병기(柳炳基), 남, 90세. 장수군 천천면 연평

리 신기마을>

바. 계남면

1) 토끼섬 (卯陵)⁶⁰⁾

계남면사무소에서 장계로 가는 19번 국도를 따라 500m쯤 가면 도로 옆 들판에 조그마한 암석 벽으로 된 능(陵)이 있다. 옛날에는 꽤 큰 봉우리였다고 하나 지금은 큰 묘소만하다. 이 봉우리를 토끼같이 생겼다 해서 토끼섬이라 한다.

계남면의 지세는 동남쪽의 장안산을 주봉으로 해서 법화산(法華山)과 백화산(白華山)이 좌우로 뻗어 있어 흡사 소쿠리 속에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서북쪽은 터져서 들이 장계 한들과 연해 있다. 북쪽 들 가운데 솟아 있는 토끼섬은 계남면을 수호하는 수구마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토끼섬은 풍수 지리적으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왔다. 심지어 계남면에 문필가가 떠나지 않고 과거에 등과한 명문호족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라 해서 옛날에는 풀 한 포기 돌 한덩이 손을 못 댔다 한다. 손을 대면 본인은 물론 면내에 이변이 생긴다는 것이다.

옛날 박모라는 사람이 섬 옆에 전답이 있었는데 전답을 키우기 위해서 섬을 파 들어갔다 한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밤에 병을 얻었는데 갈수록 열이 심하더니 삼일 만에 피를 토하고 죽었다 하며 면내에는 이름 모를 괴질이 먼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한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면을 수호해 주는 토끼섬을 건드려서 그렇다 하여 여인들은 섬을 더욱 소중히 지켰다 하는데 세월이 흘러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번국도 확장으로 토끼섬은 반쪽이 됐고, 섬주위의 전답 주인들이 전답을 키우느라 섬을 파먹어서 지금은 큰 묘지만큼만 남았는데 옛날의 영험은 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는 이를 바라볼 뿐이다. <제보 김회경(金會慶), 남, 85세.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1987년경 경지정리 할때 밀어버려 지금은 없다.

2) 여사대(如斯臺)의 산인(山人)

계남면사무소에서 동으로 장안산 어구까지 도로가 뚫렸는데 500m 노변 화산 구곡 계류(華山九曲 溪流)에 암벽이 돌출하여 삼층 석대를 이루었고 아래는 각시소 물이 파랗게 흐른다. 이 곳을 선인들이 공자가 말한 서자여사(逝者如斯) (가는 자는 이와 같다)를 따서 여사대(如斯臺)라 했다. 그런데 이

60) 1)-6) 장수군 앞의 책, 1997.

곳에는 ‘산인(山人)’이라는 해괴한 전설이 있어 세인을 놀라게 한다. 여사대 밑(底) 구곡계곡 바닥에 깔려 있는 암반(岩盤) 위에 언제 누가 왜 파놓았는지 알 수 없는 산인(山人)이란 각자(刻字) 흔적이 있어 평시에는 모래와 자갈에 덮여 보이지 않다가 나라에 큰 변이 생길 때는 이 글자가 나타나서 세인의 눈에 띄는 것이다.

근래 ‘山人’이 나타난 것은 6·25사변이 나기 전전해인 40여년 전 무자년(戊子年)이었다고 한다. 이 해에 이 지역에는 개벽 아래 큰 비가 오고 사태가 나서 물결이 소용돌이치면서 묻혔던 암반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한다.

한편, 명산이라 일컫는 장안산이 서북쪽으로 나래를 펴서 소쿠리 같은 지형을 이루어 여러 마을에 수백 호가 살고 있는데 그 일원을 내동(內洞)이라 부르며 입구가 병목 같다 해서 병목거리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은 벽남제를 막아 수구(守口)가 되어 있는 조금 아래에 「山人」으로 더 알려진 여사대가 있다.

400여 년전 겸암(謙庵) 유운룡(柳雲龍) 선생이 8도를 주유(周遊)하다 이곳 내동(內洞)을 들러 무릉도원仙境(武陵桃源仙境)이라 감탄하고 평시는 만인가활지지(萬人可活之地)요 난시(亂時)는 만인적굴지지(萬人賊窟之地)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는데 오랜 동안 그렇게도 평화스러웠던 이 고장이 6·25사변 후 수년을 장안산에 거점을 둔 빨치산(山사람이라함)이 출몰하여 이곳을山人(빨치산)의 적굴(賊窟)이 되었다 한다.

먼 곳에서까지 무고한 양민을 잡아다 학살을 하는 등 어느 곳보다 큰 난리를 겪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람들은 여사대의 ‘山人’이 빨치산(山人)의 출몰을 암시한 것이라 생각하고 여사대 ‘山人’을 찾아서 除刻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으나 찾을 길도 없고 찾는다 해도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는 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큰 비만 오면 「山人」이 나타날까 두려워한다고 한다. <제보 유기열(劉琪烈), 남, 60세.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3) 가마바위 (轎岩)



계남면 소재지에서 중학교 가는 길을 따라 서쪽으로 1km쯤 가면 법화산(法華山)계곡에 이른다. 산 중턱에 흡사 가마모양을 한 커다란 바위가 매달려 있는데 가마바위라 부른다. 아주 옛날 하늘에서 베를 짜던 선녀가 화창한 봄날 지상을 내려다보니 온통 꽃밭이 되어 있는 법화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이 울적해서 가마를 타고 내려와서 베를 짰다고 한다. 하

루는 인근 동네에 사는 귀동자가 소풍 차 골짜기에 들어서니 어디서인지 찰카닥 찰카닥 베 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사 아낙네들이 베 짜는 소리가 아니고 은쟁반에 옥구슬이 구르듯 맑고 낭랑했다. 동자는 눈을 두리번거리며 소리 나는 곳을 찾다 보니 산등성에 있는 가마 속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서 처음 보는 아름다운 남자가 가마 문을 열어놓고 베를 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동자는 금방이라도 그 곳으로 달려가서 손목을 잡고 싶었으나 남자가 가버리면 달덩이 같은 미모와 낭랑한 베 짜는 소리를 듣지도 못할까봐서 먼발치에서 뉘를 잃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집으로 돌아가서 뜬눈으로 새우기를 몇날 며칠 되풀이했다. 그러다 보니 상사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더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동자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리던 그녀를 보려고 조심조심 그곳으로 다가가갈 즈음 미끄러져서 바스락 소리를 내는 순간 이게 웬일인가? 가마 문이 닫히고 베 짜는 소리도 안 들렸다. 아뿔사! 하고 전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실성한 사람이 된 동자는 그 뒤에도 날마다 그 곳을 찾았으나 가마 모양을 한 바위만 남았을 뿐 선녀도 안보이고 베 짜는 소리도 안 들렸다 한다. <제보 오치황(烏治瑯), 남, 62세.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울평마을>(본권 7편 3장)

4) 통통바위(內洞石門)

계남에서 장안산으로 뚫린 도로를 따라 1km 지점에 벽남제(碧南堤)가 있다. 뚝 한쪽 구석에 높이 3여m, 둘레 10여m의 동암(銅岩)이 솟아 있는데 독에 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바위를 통통바위 또는 베틀바위라 부르는데 밤낮으로 통통 베 짜는 소리가 났다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 지금은 도로가 그 위쪽으로 뚫렸지만 벽남제를 막기 전에는 내동(內洞-장안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 쳐져 있고 소쿠리 속 같은 분지에 수백호가 평화로이 살고 있어 가히 무릉도원 같다는 곳)으로 가는 길이 이 바위 옆으로 뚫렸기 때문에 이 바위를 내동석문이라고도 한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 옥황상제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내동 안이 토지도 비옥하고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 명산이 안고 있어 인심도 순박하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가히 양자손할 만한 곳인데 베 짜는 기술이 없어 헐벗는 것이 흠이 된다 생각하고 베 짜는 기술을 가진 선녀에게 기구를 챙겨서 이 곳으로 보냈다 한다. (본권 7편 3장)

선녀는 동암(銅岩)에 베를 매고 밤낮으로 통통하며 베를 짜니 이 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다가 차차 기술을 익혀서 헐벗는 이가 없게 되자 소임을 다한 선녀는 상제의 부름을 받고 등천했음인지 그 뒤 부터는 바위에서 통통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데 내동에 사는 여자치고 하루에 베 한 필 이상 못 짜는 이가 없었다 한다. <제보 김병문(金炳文), 남, 51세.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5) 검바위 (黔岩)

계남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장계 쪽으로 2km쯤 가다가 다시 남으로 뚫린 농로로 500m 정도 가면 옛터(古基)마을이 나온다. 마을 뒷편에 약간 경사진편편한 들이 있는데 산쪽으로 들 가운데 집채 덩이만한 검은 바위 두 개가 포개져 있다 이 바위를 검바위라 하는데 풍치도 좋지만 ‘산갈치’가 산다는 전설이 있어 더 유명하다. 산갈치는 생김새가 여느 갈치와 비슷하면서 한 달에 보름은 바다에서 살고 나머지 보름은 산에서 살면서 날개 죽지가 있어 날아다닌다는 전설적인 동물이다.

산갈치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먹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성한 사람이 먹으면 세상사를 통달한다는 것이다. 옛날 전라감사 이서구가 산갈치를 먹고 도통해서 예언한 말이 틀린 것이 없다고 전한다.

최근에도 주위 사람들이 검바위 옆에서 산갈치를 보았다 하나 믿어지지 않는다며 다만 사이좋게 포개져 우뚝 서있는 우람한 검바위만이 산갈치의 비밀을 알 것이다. 말이 없으니 영원히 전설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제보 박헌주(朴憲柱), 남, 56세. 장수군 계남면 고기마을>

6) 알봉(卵峯)

계남에서 서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한 난평(卵坪)마을 뒤 언덕에 둘레 100여m 높이가 20여m의 잔디로 덮여 있는 능(陵)이 있는데 ‘알봉’이라 부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아낙네가 이튿날 새벽에 측간(변소;便所)에 다녀오다 들판이 흰해지면서 산봉우리가 솟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잠결이라 눈을 비비고 보아도 봉우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너무나 해괴한 일이라 얼떨결에 ‘산이 크고 있네!’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주위가 어두워지면서 봉우리가 그 자리에 멎었다는 것이다

아낙네는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어쩐지 가슴

이 두근거리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몽지몽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별안간 풍채 좋고 위엄이 있는 백발노인이 나타나더니 나는 이 곳을 다스리는 지신(地神)이다.

봉황새 한 쌍을 천신에게 보내려고 알(卵)을 깨려 하는데 요망스런 계집년이 방해를 해서 허사가 됐구나. 그러니 네 죄 천 번 죽어 마땅하다마는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 매일 새벽(산이 크다고 저주하던 시각)에 알봉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봉황이 깨어나도록 평생토록 목욕재계한 후에 축수기원하라. 그러면 가족도 화를 면하고 알의 기운이 회생해서 이 지역에 많은 인재가 날 것이다. 순간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낙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고 있던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서둘러서 알봉 옆에다 초당을 꾸리고 평생을 기도하고 살았다 하며 자손들도 잘 살게 되자 오랜 뒤에 한집 두집 모여 난평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 알봉 아래 양지 바른 곳에 계남중학교를 설립해서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자 이 고장 노인들은 전설 어린 알봉의 기운이 되살아나 알이 깨어난 것이라고 기뻐한다고 전한다. <제보 손정호, 남, 56세.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알봉

7) 옛터, 호덕, 신기마을이 생긴 이야기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⁶¹⁾

장수군 계남면의 옛터와 호덕리(虎德里)와 장계면의 신기리(新基里)의 세 마을이 생긴 데 대하여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옛터라는 동네에 두 성씨(姓氏)가 살고 있었는데 이 두 성씨는 서로 제 집안이 더 지체가 높다고 자랑하다가 그만 사이가 나빠졌다. 그리서 한동네에 살면서도 상종도 안했다. 그리고 보니 혼인도 할 수 없게 돼서 늘어나는 것은 노총각과 노처녀뿐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난디 없이 뽕새가 와서 울고 온 동네가 구름으로 덮여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됐다.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긴 뒤로는 뽕새가 와서 울기만 하면 동네는 온통 구름이 끼고 끼고 했다. 이 동네에 범이란 총각하고 덕이란 처녀가 있었는데 구름이 끼면 두 총각하고 처녀는 뒷동산에서 만나 사랑을 속삭이게 됐다. 두 총각과 처녀는 부모들이 원수같이 지

61) 7-8) 임석재
앞의 책 1990.

나는 집의 아들딸이었다. 그러나 한 번 인연을 맺인 두 총각 처녀는 부모들의 사정은 조금도 상관하지 않고 뻘뻘이 울어서 구름이 찢면 산에 올라가서 사랑을 속삭였다. 그러다가 처녀는 애를 배게 됐다. 총각과 처녀는 놀래서 밤에 암도 모르게 산에 올라가서 애기를 띠어 돌라고 山神한테 빌었다. 그런데 난디없이 호랑이가 나와서 어형 하고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래서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동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호랑이도 없고 사람 살리라는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동네 앞 들판에 저 멀찍이 어제까지 없던 집이 한 채가 서 있고 호랑이들이 그 집의 울타리처럼 둘러 있었다. 그 집 안에는 범과 덕이 있었다. 범의 부모랑 덕의 부모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래며 그 집에 들어가서 범과 덕을 끌어낼라고 허는데 호랑이 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동네의 총각과 처녀들은 뻘뻘이 울고 구름이 찢면 뒷산에 올라가 짝을 지어각고 호랑이들이 둘러싼 디로 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젊은 남녀가 짝을 지어각고 와서 살게 되게 옛터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여그는 차차 커져서 옛터보다 훨씬 더 큰 동네가 됐다. 이 동네는 범과 덕이 처음 만든 동네라서 호덕리라고 부르게 됐다. 옛터사람들은 호덕 사람을 부모의 말을 어기고 사는 놈들이라고 등을 지고 살게 됐다. 호덕마을은 자꼬 인구가 늘었는데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고 와서 살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아서 그 자손들만이라도 죄를 지은 마음 없이 살게 할라고, 고개 하나 넘은 장계면에다 터를 하나 잡어서 자손들을 그리 옮겼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신기리라는 마을이다. <제보 주제만, 남, 57. 계남면 가곡리>

8) 수열(樹列)마을이 생긴 유래 (제보자의 어투를 살려 실음)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의 수열(樹列)마을은 원래는 동산(東山)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산마을이 수열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마을 앞에 나무를 열을 지어서 심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임진왜란 때 왜병이 이 동네에 쳐들어와서 그때 마침 양사순(梁思舜)이란 사람의 처 오씨(吳氏)가 삼베를 짜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이 여인네의 젓가심을 만졌답니다. 오씨는 이것을 큰 욕 본 걸로 알고 또 남편을 볼 낫이 없어서 식칼로 젓을 끊고 자결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왜병한테 욕 본 것은 동네가 허술해서 밖에서 뵈기 땀이라고 생각해서 동네 사람들이 동네 앞에도 나무를 심어서 밖에서 안 뵈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보 주제만, 남,

57. 계남면 가곡리>

사. 계북면

1) 서방소(沼) 각시소(沼)⁶²⁾

계북면 소재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3km 지점에 장현(長峴)마을이 있다. 마을 아래에 매산청풍(梅山淸風)의 일원인 풍욕대(風浴臺)와 사성정(四省亭)이 있는데 그 옆에 나란히 소(沼)가 있다. 이름하여 위 소(沼)를 서방소(沼), 아래 소(沼)를 각시소라 부르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장고개 마을에 과년한 처녀가 코흘리개 신랑에게 시집을 왔다고 한다. 어린 신랑은 장가는 들었지만 부부의 정을 알리가 없었다. 잠잘 때에도 어머니 옆에서 자는가 하면 서당에 갈 때에도 부엌에 가서 누룽지를 긁어내라고 조르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마누라는 서글피 생각하지 않고 코도 닦아주고 누룽지도 긁어 주는 등 남편을 하늘같이 섬겼다.

예부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사위 사랑은 장모란 말이 있는데, 청상과부로 자식 하나만을 사랑하며 낙으로 살아온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할 리 없었다. 하는 일마다 생트집을 잡고 피가 마를 정도로 볶아댔다. 정 붙일 곳이 없어 멍청이처럼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한숨으로 눈물 지울 때면 어떤 놈과 눈이 맞아 도망갈 궁리를 한다고 억지소리를 하며 매질까지 했다. 원통하고 분하기가 그지없었지만 남편이 장성해서 잘 되기를 기대하며 살았다고 한다.

어느 날 서당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며느리가 부정(不貞)한 양, 없는 일을 꾸며서 말하자 철없는 남편은 살피지도 아니하고 더러운 년이라고 마구 두들겼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한 아내는 순결을 죽음으로 밝히기로 결심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발길을 냇가로 돌려 치마를 둘러쓰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서방은 세월이 흘러 철이 들면서 동리 사람들로부터 아내에 대한 착한 이야기를 들을 적마다 자기의 철없던 과거가 후회되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또한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아내가 못 건디게 그리워졌다. 그럴 때면 냇가로 발을 돌려 냇 나간 사람처럼 그 곳을 떠날 줄 모르다가 부슬비 오는 어느 날 아내의 영혼이 물속에서 손짓했음인지 물에 몸을 던지니 각시가 죽은 곳을 각시소 서방이 죽은 곳을 서방소라 부른다고 한다.

해마다 봄이 되면 각시소 옆에 꽃이 피는데 각시꽃이라 불렀다 하나, 언

62) 1)~10) 장수군, 앞의 책, 1997.

제부터인가 보이지 않고 서방소에서 각시소로 흐르는 물소리만 애절하게 들린다고 한다. <제보 송태일(宋泰一)남, 83세. 장수군 계북면 장현>

2) 양악용추(陽岳龍秋)

계북면사무소에서 1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5km쯤 가면 양악(陽岳)마을이 있다. 마을 동쪽 1km 지점에 남덕유의 절경, 토옥동 계곡이 펼쳐지는데 그 어구에 옛날 용이 등천했다는 용추(龍秋)가 있다. 주위에는 기암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고 물빛은 푸르다 못해 검다. 대낮에도 가까이 가기가 으스스하다. 옛날에는 명주실꾸리 두서너 개가 풀릴 정도 깊어서 이웃 칠연소(七連沼)와 통했다는 말도 있으나 지금은 많이 메워졌다고 한다.

이 소에는 괴이한 말이 전해 오는데 옛날 물구렁이 두 마리가 날마다 옥황상제에게 용이 되어 등천하기를 빌었는데 한 마리는 소원 성취하였으나 다른 한 마리는 먼저 등천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끝내 용이 못되고 이무기가 되어 소(沼)에 남아서 심술만 부리게 됐다 한다.

어느 날 마을 노인이 소 주변에 황소 한 마리를 매어 두었는데 석양에 소를 몰러 가보니 소가 없어졌다.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도적의 소행으로 생각했다. 오랜 뒤에 한 노인이 우연히 소(沼)의 주위를 지나다가 소(沼)에 매어 있는 소(牛)고삐가 물 속으로 당겨지는데 소는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치는 해괴한 꼴을 보게 되자 잠시 아찔한 정신을 가다듬고 고함을 지르며 돌을 던졌다 한다. 그러자 소(沼)에서는 물결이 소용돌이치며 괴물이 꼬리를 꿈틀거리다 물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노인은 소를 몰고 마을로 와서 용 못된 이무기에게 먹힐 뻔한 소를 빼앗아 온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은 지난 날 도둑맞은 소가 이무기의 소행인 것을 알고 그 후부터 소(沼) 가까이에는 소를 매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제보 정성모(鄭成謨) 남, 77세. 장수군 계북면 양악리>

3) 장수대(將帥臺)와 오장수(吳將帥)

계북면사무소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남쪽 2km 지점에 경치가 빼어난 매산송대(梅山松臺)가 있다. 그 곳에는 말대거리 형상을 한 기암괴석들이 있는데 일명 장수대라고 한다. 장수대(將帥臺) 북쪽 500m 떨어진 곳에 매골 마을이 있는데 옛날부터 함양오씨(咸陽吳氏)들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간밤에 오씨네 집에서는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는 간데 온데가 없고 그 집 머슴이 아침에 빈 오쟁이만 뒷산 솔가지에 매어달고 왔다는 것이었다. 부녀자들이 샘가에 모여 괴상한 일이라고 입방아만 찼으면서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랄만한 소문이 떠돌았다. 오씨네 집 어린아이들에 의해 퍼진 소문인 즉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는 바로 방 윗목까지 걸어다니면서 하는 말이 장차 이 나라에 난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난(亂)을 평정하기 위해서는 매산송대(梅山松臺)에 들어가서 무술을 연마해야 한다고 하면서 홀연 사라졌다고 한다.

그 무렵 10km쯤 남서쪽으로 떨어진 동정(動靜)마을에서는 날개 돋친 용마(龍馬)가 날아서 승천했다는데 오장수(吳將師)의 선친 제사날 밤에는 오장수(吳將師)의 모친에게만은 비몽사몽간에 매산장수대(梅山將帥臺)에서 오장수가 날개 돋친 용마(龍馬)를 타고 대문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을 뿐 오장수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제보 이만석(李萬石) 남, 95세.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신기>

4) 김재와 도적바위 (羅時와 盜賊岩)

김재는 장계면(長溪面)과 계북면(溪北面)의 면계를 이루고 있는 재다. 일명 호루룩재라고도 한다. 풍수지리설에 따라 이 재에 풍취라대(風吹羅帶<비단띠에 바람이 스치는 형국>)라는 명당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호루룩이란 이름을 붙인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달걀 장수가 달걀을 지고 이 재를 넘다가 화적떼를 만났다. 도망치려 했으나 화적떼에게 붙들려서 달걀을 빼앗기게 됐다. 달걀 장수는 이 달걀은 원님에게 바쳐야 하는데 한 개만 없어져도 곤장을 맞으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나, 화적들은 막무가내로 달걀을 빼앗고 도리어 곤장까지 때려 쫓아 버리고는 달걀을 호루룩거리며 깨어 먹었다 한다.

또한, 계북면 쪽 비탈길 옆에 사람 모양을 한 도적바위에는 이런 말이 전한다. 고려 공민왕 때 왕사(王師)였던 라옹화상이 팔도를 주유(周遊)할 때 남도를 들러서 개경(開京)으로 가는 길에 한 돌이는 넘기 힘든 김재를 넘는데 난데없이 숲 속에서 화적떼가 나타나서 라옹화상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뒤 쾅쾅 묶어 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려할 때 화상은 도술을 부려 화적떼를 바위가 되게 하고 재를 떠났다고 한다. 그 뒤부터는 김재에 도적이 얼씬도 못하고 행인들이 편하게 재를 넘었다고 한다. <제보 이만석(李萬石) 남, 95세.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신기>

5) 범바위 (虎岩)

1,508m의 남덕유산(南德裕山) 서남쪽 기슭에 연동마을이 있다. 계북면사무소에서는 2km쯤 동남쪽에 있다. 마을 어구에 범 상호를 한 바위가 있는데 아주 옛날 덕유산 신령(德裕山 神靈)이 타고 다니던 범이 배가 고파서 산신령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을로 내려가서 늙은 개 한 마리를 잡아서 산으로 갔다 한다. 산신령은 허락도 없이 개를 잡아왔다고 호통을 치며 마을로 쫓아 보내서 속죄의 뜻으로 동구 밖에서 말라 죽게 하여 바위가 되게 했다 한다.

범바위 머리가 마을을 바라보면 개호식이 있다 하여 훗날 어느 장사가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았는데 그 뒤부터 마을에는 개호식이 없다 한다.

〈제보 양기홍, 남, 47세.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연동〉

6) 매송정(梅松亭)과 도깨비

6·25전만 해도 구름 끼고 부슬비 오는 음산한 밤이면 도깨비들이 떼를 지어 빛없는 횃불을 잡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노는 것을, 또는 물레방앗간을 무대로 들락날락거리며 늘어졌다 모아졌다하는 도깨비불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시장에 갔다 오다 도깨비와 씨름해서 왼쪽으로 눕혔더니 어느 곳에서 도깨비들이 진병구지개 풍물을 치면 얼마 안가서 괴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매송정(梅松亭)이 서 있는 매산송대(梅山松臺) 주변이 도깨비 이야기의 발원지이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도깨비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어느 날 당시 계북면장 김진홍(金鎭泓)씨가 면 행정을 수행하고 밤 12시가 지나서 귀가 길에 매산송대(梅山松臺) 앞을 지나는데 산 정상에서 10여명의 젊은이가 풍물을 치며 왁자지껄 노는 소리가 들려서 휘영청 밝은 보름달 밤이라 다가 가서 살펴봐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풍물소리 노래 소리만 들리는지라 더 가까이 가서 고함을 지르면 소리가 그치고 물러서면 다시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 짓을 수차례 되풀이하다가 노랫소리 끝이 흐린 것이 섬뜩해서 집으로 왔다. 그 이튿날 마을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많았으며 마을 원로의 말에 따르면 도깨비의 소행이라며 옛날에는 그곳에서 도깨비들이 풍물을 치고 노래하면 주변 마을에 괴변이 생겼다고며 터를 눌러 주어야 한다고 해서 뜻있는 주위 마을사람들과 계(契)를 맺어서 매송정(梅松亭)을 그

자리에다 지었더니 그 뒤로는 도깨비 놀이를 못 보았다고 한다. 매송정은 계북면사무소에서 남쪽 2km 지점 매산송대(梅山松臺) 정상에 있다. <제보 김진홍(金鎭泓), 남, 63세.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신기>

7) 신선바위(神仙岩)

매산청풍(梅山淸風)의 바람을 타고 매산덤 골짜기의 구비를 돌아 달밭마을 가는 불당골(佛堂谷) 어귀에 다다르면 달밭내 푸른 물에 높이 2m, 넓이 1.5 평 가량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신선바위라 한다. 주변에 숲이 우거졌고 기암절벽이 둘러싸여 가히仙境이라 할 만하다.

봄이면 상류에서 복숭아꽃이 떨어려 와서 태백(太白)의 시 도화유수 묘연거 별유천지 비인간(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의 경지를 이루며 바위 위에는 바둑판이 그려져 있어 상산사호(商山四皓)들이 바둑 두며 놀다 간 곳이며 여름철 휘영청 달 밝은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근세조선 선조조(近世朝鮮 宣祖朝)에 서애(西涯)유성룡(柳成龍)의 형이며 도에 통달한 겸암 유운룡(柳雲龍)이 팔도를 주유할 때 이 곳에 들러 신선암(神仙岩)이라 이름하고 떠났다 한다. 계북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월전이 있고 달밭마을에서 남쪽 500m 지점 달밭내에 신선암(神仙岩)이 있다. <제보 육병만(陸炳萬), 남, 100세.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월전>

8) 구멍보(孔沭)

1,508m 남덕유산의 서쪽 계곡 가운데 큰 덜골이 제일 크다. 어귀에는 집채 덩이 같은 암석들이 100여m 쌓여 덜망을 이루고 있다. 그 덜망이 끝나는 부위에 암석이 문턱같이 반혀 있으며 그 아래는 천야만야 낭떠러지 절벽이다. 그 문턱 같은 바위가 보 역할을 해서 덜망 밑으로 흐르는 물이 갈벌(葛伐)들을 적셔 기름지게 해 준다. 이 보는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자연의 조화로 보를 만들었다 하여 천보(天沭)라고도 한다.



구멍보

옛날 갈벌들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과수택이 있었는데, 날이 가물어 물이 대줄기만큼 밖에는 나오지 않자 나뭇가지로 구멍보를 쑤서대니 그나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다 한다. 한 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부정을 타서 천지신명이 노한 것이라 생각하고 떡과 음식을 정성껏 장만하고 정결한 사람을 제주로 선정해서 구멍보에 제사 지냈더니 구멍보에서 다시 물이 나왔다고 한다.

그 뒤부터 아무도 보에 손대는 이가 없었으며 음력 시월 초승에는 천지신명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한 감사의 도신제(禱神祭)를 보앞에서 지냈다 한다. 보는 계북면에서 동으로 1km 떨어진 문성마을 동쪽 500m 지점에 있다.

〈제보 한상훈(韓尙勳), 남, 95세,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9) 효자문(孝子門)과 잉어산(鯉魚山)

계북면에서 남으로 19번 국도를 따라 500m쯤 가면 바로 도로변 산기슭에 잉어모양을 한 독뢰(獨巖)가 있고 뒤편 양쪽 기슭으로 내가 흐른다. 독산대(獨山臺)의 서편에 있는 19번 도로변 산기슭에 효자문(孝子門)이 있었다.

효자문에는 다음과 같은 행장이 적혀 있다. 조선 숙종(朝鮮 肅宗)때 김선후(金善厚)란 사람이 느랏(於田) 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효성이 지극했다. 그런데 유난히 추운 겨울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나서 몸져눅게 됐다. 효성이 지극한 선후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병 구환을 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어느 날 지나던 과객이 선후 소년의 애타는 것을 보고 「너의 어머니 병환은 산 잉어를 잡아서 다려 드리면 낫는다.」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그러나 엄동설한에 내는 뽕뽕 얼어붙었는데 산 잉어를 구할 길이 막연했다. 선후 소년은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잉어 모양을 한 독뢰산 옆으로 흐르는 냇가에 가서 잉어를 얻게 해 달라고 10 여일을 신명께 빌었다.

손발은 얼고 기진맥진이 된 어느 날 소년의 효심에 어신(魚神)이 감동했음인지 얼어붙은 얼음장을 메를 들어 내리치자 쾅하고 갈라지면서 커다란 잉어 한마리가 얼음 위로 뛰어 올랐다. 이 기쁨을 어디다 비기랴! 소년은 얼음 속에서 얻은 잉어를 어머니께 다려 드렸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후에 나라(禮曹)에서는 잉어산 맞은편 구치봉(九稚峯) 산록에 효자문(孝子門)을 짓게 하고 김선후의 출천대효(出天大孝)를 기려서 세인의 사표가 되게 했

으나 30여 년 전 가꾸는 이 없어 효자문은 없어지고 그 곳을 지금도 효자문 거리라고 부른다고 한다. <제보 한상훈(韓尙勳), 남, 95세.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10) 과거샘(科擧泉)

계북에서 19번 국도를 따라 남으로 2km쯤 가면 삭다리(新基)마을이 있다. 마을입구에서 장계면 경계인 김재(羅時) 문당까지의 옛길이 있다. 이 길가에 절벽이 내밀어서 길이 굽었는데, 여기를 과거 모퉁이라 부르며 모퉁이를 돌아서 암벽으로 둘러진 사이에 석간수가 흐르는데 과거샘, 참샘, 약수천이라 하며 정서쪽에서 정동쪽으로 물이 흐르니 서출동류천(西出東流泉)이라고도 부른다. 샘 앞에 구도(舊道)는 옛날부터 위 아래턱으로 통하는 삼남대로(三南大路)였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말, 나귀, 가마를 타거나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오가는 것이 교통수단의 전부였다.

이 길이 대로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 길을 지나다 샘물을 찾아 쉬어 가고 등짐장사들은 때가되면 이 물에다 장단지밥을 지어 먹고 모퉁이를 돌아 김재를 넘었다 한다.

당초에는 석각에서 물이 흘러 고일 데가 없었는데 인근 마을에서 사는 김별감(벼슬이름)으로 불리는 적선가 김홍노씨가 석수장을 시켜 석각을 파서 아담한 샘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샘을 과거샘이라 부른 데는 그 렇듯한 연유가 있다.

옛날 남도에 사는 김선비라는 이가 과거를 보려고 한양을 가다 이곳에 당도했다. 석간에서 흐르는 물이 약수 같은 데다 먼 길을 걷다보니 피로하고 목도 말라 붓짐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시니 꿀맛 같다. 두 모금을 마시고는 잠시 쉬는 사이에 잠이 들었다

홀연히 어디선가 은빛 머리에 한 자가 넘는 허연 수염을 기른 신선이 나타나더니「이 샘은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약수 중의 약수니라. 세 모금만 마시면 병도 낫고 머리가 맑아져서 과거 보러 가는 너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선비는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정신을 가다듬어 샘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나니 뜻밖에 피로도 가시고 마음도 가뿐해서 과나리보따리를 챙겨 지고 과거길을 재촉했다.

얼마 후 과거에 급제한 선비는 등과하게 된 것이 오로지 샘물 덕이라 생

각하고 금의환향하는 길에 이곳에 들러 인근 동네 사람 남녀 노유를 모아놓고 지난 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샘에 고사를 지내고 잔치를 베풀었다 한다.

이 소문이 퍼지자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나 병약한 사람들이 샘을 찾아 줄을 섰다하며 그 뒤부터 이 샘을 과거샘(科擧泉), 참샘(眞泉), 약수천(藥水泉)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제보 이만석(李萬石), 남, 95세. 장수군 계북면 매계리 신기마을>